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www.kli.re.kr

이규용 · 금재호 · 안주엽 · 윤자영 · 김기현
이지은 · 신선옥 · 이해정 · 김기홍



KLI
한국노동연구원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이규용 · 금재호 · 안주엽 · 윤자영 · 김기현
이지은 · 신선옥 · 이혜정 · 김기홍

목 차

제1장 머리말	1
제2장 한국노동패널 17차 조사의 개요	18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18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20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22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	22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28
제4절 응답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30
1. 응답가구의 특성	30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31
제5절 이사 및 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33
1. 이사 및 분가가구의 특성	33
2. 비성공가구의 특성	35
3. 신규 가구원의 특성	38
제6절 통합표본 자료의 특성	40
1. 통합표본의 개요	40
2. 통합표본유지율의 개요	42
3. 응답가구의 특성	44
4. 이사 및 분가가구의 특성	47
5. 비성공가구의 특성	48
6. 신규 조사자의 특성	49
제3장 조사가구의 특성	51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51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56
1. 가구주의 특성	57
2. 가구원의 특성	59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61
제4장 가계경제	65
제1절 가구소득	66
1. 가구의 총소득	67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68
제2절 가구지출	69
1. 생활비	70
2. 저 축	72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74
제3절 주거형태 및 비용	76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77
2. 주택의 종류	80
3. 주거지의 선택	81
제4절 자산 및 부채	82
1. 부동산자산	82
2. 금융자산	84
3. 가구의 부채	87
제5절 자녀 교육비	88
제5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91
제1절 경제활동상태	91
제2절 취업자의 특성	96
제3절 미취업자	102
1. 구직활동	102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104
제6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106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107
제2절 근로시간	111
1. 평균근로시간	111
2. 초과근로시간	115
제3절 임 금	116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116
2. 월평균임금	118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123
1. 비정규직의 규모	124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125
제7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127
제1절 종사상 지위	128
제2절 근로시간	131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131
2. 주당 근로시간	132
제3절 월평균 소득	136
제4절 사업체의 창업	139
제8장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141
제9장 청년층 고용	149
제1절 청년의 경제활동상태	149
1. 경제활동상태	149
2. 청년 니트(NEET)	156

제2절 청년 취업자의 특성	162
1. 관리·전문직과 임금, 비정규직 여부	162
2. 하향취업	167
제3절 소결 및 제언	172

제10장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과제 : 매출 및 소득을

중심으로	174
------------	-----

제1절 머리말	174
제2절 자영업의 사업기간과 직장이동	176
1. 자영업의 사업기간	176
2. 자영업주의 직장이동	180
제3절 자영업의 창업자금	184
1. 창업자금의 규모	184
2. 자영업주 특성과 창업자금의 조달방법	187
제4절 자영업의 매출	189
1. 매출의 변화	189
2. 자영업주의 특성과 매출	191
3. 매출의 결정요인 분석	193
제5절 자영업의 소득	198
1. 실질 및 명목 소득의 변화	198
2. 자영업주의 특성과 소득	203
3. 소득의 결정요인 분석	205
제6절 소 결	212

제11장 일과 행복

제1절 들어가는 글	214
제2절 일과 행복의 기초분석	218
1. 행복의 측도	218
2. 취업과 행복	220

3. 취업과 행복 : 성 · 연령대별	223
4. 세분화된 경제활동상태와 행복	226
제3절 일과 행복의 실증분석	227
1. 기본모형의 추정	228
2. 소득 · 자산효과모형의 추정	232
3. 일과 행복모형의 추정	234
4. 취업 여부와 행복	234
5. 임금근로 및 비임금근로와 행복	235
6. 세분화된 경제활동상태와 행복	236
제4절 소 결	237
제12장 시간사용과 삶의 질 : 일중독을 중심으로	248
제1절 들어가는 글	248
제2절 기존연구	249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253
제4절 연구결과	256
1. 일중독 측정도구의 신뢰성	256
2. 일중독 특성과 결정요인	262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78
참고문헌	281

표 목 차

<표 2- 1> 1~17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19
<표 2- 2> 1~17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20
<표 2- 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연혁	22
<표 2- 4>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24
<표 2- 5>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	25
<표 2- 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26
<표 2- 7> 시기별 조사진행률 추이	27
<표 2- 8> 지역별 원표본가구유지율	29
<표 2- 9> 1~17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30
<표 2-10> 1~17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32
<표 2-11> 이사가구의 분포	34
<표 2-12>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	35
<표 2-13> 1~17차년도 비성공 사유	36
<표 2-14> 각 비성공가구 접촉 횟수	37
<표 2-15>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	38
<표 2-16> 개인 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	40
<표 2-17> 1~6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통합표본)	42
<표 2-18>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통합표본)	43
<표 2-19>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통합표본)	44
<표 2-20>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통합표본)	44
<표 2-21> 1~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통합표본)	45
<표 2-22> 1~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통합표본)	46
<표 2-23> 이사가구의 분포(통합표본)	47
<표 2-24>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통합표본)	47

<표 2-25> 1~6차년도 비성공 사유(통합표본)	48
<표 2-26> 비성공가구 방문 횟수(통합표본)	48
<표 2-27>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통합표본)	49
<표 2-28> 신규 조사자의 구성(통합표본)	50
<표 3- 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	53
<표 3- 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	54
<표 3- 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55
<표 3- 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	58
<표 3- 5> 1~17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60
<표 3- 6> 2~17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62
<표 3- 7> 2~17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63
<표 3- 8> 2~17차년도 사망자의 사망원인	64
<표 4- 1> 연간 가구의 총소득	68
<표 4- 2> 17차년도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69
<표 4- 3> 2~17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71
<표 4- 4> 17차년도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	73
<표 4- 5> 2~17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74
<표 4- 6> 17차년도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75
<표 4- 7> 17차년도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76
<표 4- 8> 2~17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78
<표 4- 9> 2~17차년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	80
<표 4-10> 17차년도 가구 현재거주지로의 이사 동기	81
<표 4-11>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83
<표 4-12>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85
<표 4-13> 부채 잔액 분포	87
<표 4-14> 17차년도 가구내 자녀 유무 및 자녀수	89
<표 4-15> 17차년도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	90

<표 5- 1> 1~17차년도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 수	92
<표 5- 2> 1~17차년도 경제활동상태 비교	94
<표 5- 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14년)	96
<표 5- 4> 경찰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14년)	97
<표 5- 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14년)	98
<표 5- 6> 경찰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14년)	99
<표 5- 7> 17차년도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100
<표 5- 8> 17차년도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101
<표 5- 9> 17차년도 특성별 구직방법	103
<표 5-10> 미취업자가 구직 시 주로 겪는 어려움(17차년도)	105
<표 6- 1> 임금근로자수와 비중	107
<표 6- 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2014년)	110
<표 6- 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112
<표 6- 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14년)	113
<표 6- 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14년)	113
<표 6- 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14년)	114
<표 6- 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2014년)	115
<표 6- 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2014년)	117
<표 6- 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2014년)	117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	119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2014년)	121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2014년)	121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2014년)	122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2014년)	124

<표 7- 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128
<표 7- 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129
<표 7- 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130
<표 7- 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2014년)	132
<표 7- 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34
<표 7- 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2014년)	135
<표 7- 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2014년)	135
<표 7- 8> 월평균 소득 비교	136
<표 7- 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2014년)	137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2014년)	138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2014년)	139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2014년)	139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2014년)	140
<표 8- 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142
<표 8- 2> 성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143
<표 8- 3>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144
<표 8- 4> 학력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147
<표 9- 1> 노동패널자료(KLIPS)의 청년 고용률 추이	150
<표 9- 2> 노동패널자료(KLIPS)의 청년 실업률 추이	152
<표 9- 3> 노동패널자료(KLIPS)의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추이	154
<표 9- 4> 17차년도 청년(15-29세) 경제활동상태별 개인 특성 분포	155

<표 9- 5> OECD의 청년(15~29세) 니트(NEET) 국제 비교	157
<표 9- 6> 노동패널자료(KLIPS)의 청년 니트(NEET) 비율 추이 ...	158
<표 9- 7> 17차년도 청년(15-29세) 니트(NEET)와 비니트의 개인 특성 분포	161
<표 9- 8> 노동패널자료(KLIPS)의 청년 취업자의 관리·전문직 비율 추이	162
<표 9- 9> 노동패널자료(KLIPS)의 청년 취업자의 임금 노동자 비율 추이	163
<표 9-10> 노동패널자료(KLIPS) 청년 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율 추이	164
<표 9-11> 노동패널자료(KLIPS) 청년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율 추이	166
<표 9-12> 노동패널자료(KLIPS) 청년 취업자의 시간제 비율 추이	167
<표 9-13> 노동패널자료(KLIPS)의 청년 취업자의 하향취업 추이 ..	169
<표 9-14> 17차년도 청년(15~29세) 하향취업 노동자의 개인 특성 분포	170
<표 10- 1> 2014년 연령대별·학력별 자영업의 사업기간	178
<표 10- 2> 2014년 산업별 자영업의 사업기간	178
<표 10- 3> 자영업 사업기간의 OLS 추정결과	179
<표 10- 4> 자영업 이직자의 재취업 근로형태	181
<표 10- 5> 근로자 특성과 자영업 이직자의 재취업 근로형태 (2010~14년)	182
<표 10- 6> 근로자 특성과 재취업 직장의 임금 및 소득 (2010~14년)	184
<표 10- 7> 총 투자액과 조달방법(성별, 연령별, 학력별, 업종별) ...	186
<표 10- 8> 자영업주 특성과 연간 실질 매출액	192
<표 10- 9> 매출액 결정요인의 추정결과	196
<표 10-10> 월평균 소득의 추이(농림수산업 제외)	200

<표 10-11> 자영업주 실질소득의 분포	202
<표 10-12> 자영업주 특성과 소득	204
<표 10-13> 소득 결정요인의 추정결과(분위회귀모형 및 임의효과토빗모형)	210
<표 10-14> 소득 결정요인의 추정결과(임의효과모형 및 통상최소자승법)	211
<표 11- 1> 취업 여부와 행복	221
<표 11- 2> 인구학적 특성과 행복도	222
<표 11- 3>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229
<표 11- 4> 기본모형의 추정결과(남성)	230
<표 11- 5> 기본모형의 추정결과(여성)	231
<표 11- 6> 소득·자산효과모형의 추정결과	233
<표 11- 7> 일과 행복모형의 추정결과	235
<표 12- 1> 문항 변별도	257
<표 12- 2> 회전된 성분행렬	260
<표 12- 3> 요인간 상관관계	262
<표 12- 4> 전체 취업자 일중독 응답 분포	263
<표 12- 5> 전체 취업자 근로시간별 일중독 문항 차이	265
<표 12- 6> 일중독 변수의 조작적 정의	267
<표 12- 7>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와 다른 항목의 상관관계	268
<표 12- 8> 주요 변인별 일중독자 비중	269
<표 12- 9> 일중독자 시간사용	271
<표 12-10> 일상시간 사용 적정성	272
<표 12-11> 일중독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274
<표 12-12> 분석 변수 기술 통계	274
<표 12-13> 일중독 결정 요인 프로빗 모형 추정(한계효과)	277

그림목차

[그림 2- 1]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33
[그림 2- 2]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	39
[그림 2- 3] 통합표본의 개요	41
[그림 2- 4]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통합표본) ...	46
[그림 2- 5]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통합표본)	50
[그림 3- 1] 17차년도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	55
[그림 4- 1] 17차년도 가구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69
[그림 4- 2] 17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74
[그림 4- 3] 17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	78
[그림 4- 4] 17차년도 거주지별 전세거주자 임대보증금	79
[그림 4- 5] 17차년도 거주지별 월세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	79
[그림 4- 6] 17차년도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84
[그림 4- 7] 2~17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	86
[그림 5- 1] 최근 8년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비교 (2007~14년)	95
[그림 5- 2] 최근 8년간 실업률 비교(2007~14년)	95
[그림 5- 3] 17차년도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102
[그림 5- 4] 17차년도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104
[그림 6- 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2014년)	108
[그림 6- 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2014년)	108
[그림 6- 3]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의 규모(2014년)	125

[그림 6-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2014년)	126
[그림 7- 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133
[그림 9- 1]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노동패널조사 청년(15~29세) 고용률 비교	151
[그림 9- 2]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노동패널 청년(15~29세) 실업률 비교	153
[그림 9- 3]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노동패널 청년 니트(15~29세) 비교	159
[그림 9- 4] 17차년도 청년 니트(15~29세)의 지난 1주간 주요 활동	160
[그림 9- 5]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점수(5점 만점) 비교	161
[그림 9- 6] 경황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노동패널 청년 비정규직 비교	165
[그림 9- 7] 고등교육 진학률과 노동패널 청년 하향취업 비교	170
[그림 9- 8] 취업자의 유형별 생활만족도 점수(5점 만점) 비교	171
[그림 9- 9] 취업자의 유형별 일자리(직장) 만족도 점수(5점 만점) 비교	171
[그림 9-10] 취업자의 유형별 일(직무) 만족도 점수(5점 만점) 비교	172
[그림 10-1] 고용형태별 근속기간의 추이(농림수산업 제외)	177
[그림 10-2] 고용형태별 근속기간의 분포(2014년, 농림수산업 제외)	177
[그림 10-3] 자영업주의 임금근로자 이동 비중의 추이	181
[그림 10-4] 자영업 창업자금의 추이(2002~14년)	185
[그림 10-5] 창업자금의 조달방법	187
[그림 10-6] 자영업 시작 연령과 총 투자액	188
[그림 10-7] 사업체의 근로자 규모와 초기 투자액	189

[그림 10- 8] 자영업주의 연간 실질 매출액과 증감률	190
[그림 10- 9] 성별 연간 실질 매출액 및 성비(=여성/남성)의 추이 ...	191
[그림 10-10] 연령대별 연간 실질 매출액의 추이	192
[그림 10-11] 종업원 여부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추이	193
[그림 10-12] 자영업주 매출에 대한 연도효과의 추이	197
[그림 10-13] 자영업주 월평균 실질소득의 추이	201
[그림 10-14] 자영업주의 실질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실질 임금 추이	201
[그림 10-15] 자영업주 월평균 실질소득의 분포(1998~2014년 전체)	206
[그림 11- 1] 행복도의 추이	216
[그림 11- 2] 연령과 행복도	224
[그림 11- 3] 연령대별 취업과 행복도	225
[그림 11- 4] 연령대별 취업과 행복도(남성)	225
[그림 11- 5] 연령대별 취업과 행복도(여성)	226
[그림 11- 6] 세분화된 경제활동상태와 행복도	227

제 1 장

머리말

이 보고서는 제17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조사 과정 및 조사 진행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자료 정제(data cleaning)를 마친 조사 자료(data)를 분석하여 KLIPS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LIPS는 단편적인 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micro data)들을 패널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종단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4년에 제17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제17차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체 예산 투입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17차년도에의 조사 과정과 현장 실사 결과를 서술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이전 차수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표본으로 추출한 5,000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조사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적으로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KLIPS는 이번 제17차 조사에서 원표본 5,000가구 중 3,451가구를 성공적으로 조사하여 69.0%의 원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¹⁾ 이는 미국의 PSID, 독일의 GSOEP, 영국의 BHPS 등

* 본 연구는 이규용(제1장), 이지은(제2장, 제8장), 이혜정(제3장, 제4장), 신선옥(제5장), 김기홍(제6장, 제7장), 김기현(제9장), 금재호(제10장), 안주엽(제11장), 윤자영(제12장)이 수행하였다.

2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을 비롯한 외국의 우수한 패널조사의 표본유지율과 유사한 정도이다.

제17차 조사도 지난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동패널팀은 조사원 교육과 CAPI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조사원들의 노동패널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노동패널팀 팀원들은 조사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KLIPS는 자료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노동패널이라는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나 분석기법상의 한계로 인해 자료에 들어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그리고 엄밀하게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KLIPS는 그동안 학술대회에서 특별분과를 마련하여 패널자료 분석 방법론에 대한 강연을 여러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성황리에 개최된 강연은 난해하던 패널자료 분석기법들을 국내에서 일반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연자료는 노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KLIPS 자료를 사용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보다 우수한 패널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더욱 엄밀하고 풍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KLIPS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제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언이 다시 KLIPS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KLIPS의 사용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측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우리 사회의 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마련하고 보충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미 지난 보고서들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FAQ는 노동패널자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팀에 접수되는 질문들 가운데 빈도가 높은 질문들을 26개로 추려 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1)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자료는 KLIPS 1~17차년도 자료이다.

이를 사용자 지침(User's Guide)에 추가하고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SAS와 SPSS 프로그램도 함께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나아가 최근 STATA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STATA 버전의 프로그램도 함께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FAQ는 그동안 자료 사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FAQ의 문항을 더욱 늘리고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이 역시 홈페이지에 올려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자료 사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문의는 앞으로도 FAQ를 더욱 확충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의 편의성을 돕기 위해 30개가 넘는 개인 및 가구 데이터를 연구목적에 맞게 변수를 선택하고, 연도별로 결합하기 쉽도록 하는 SMART_KLIPS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현재는 예산과 시간상의 이유로 Stata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만 구현했지만, 앞으로 노동패널자료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KLIPS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KLIPS는 기본 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조사는 패널조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기본조사에 덧붙여 실시하는 추가적인 조사이다. 기본조사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 주거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구성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실시하며, 취업자 개인(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미취업자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내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력 상태, 소득, 노동이동 등 다양하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KLIPS의 설문과 유사하다. 제2장은 제17차 조사에 대해 개관하고 있고, 제3장과 제4장은 가구에 대한 주요 조사 자료들을 분석한 것으로 각각 조사가구의 특성과 가계경제에 대해 다룬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3장은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조사된 가구들의 특성들을 살펴본

4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다. 제4장은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을 분석하여 가계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특성들을 알아본다. 제5장부터 제7장은 가구원 개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5장은 개별 가구원, 즉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한다. 제6장과 제7장은 각각 개별 근로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제8장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동학(dynamics)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에서 동태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 제2장은 17차년도 패널 조사의 조사 방법 및 조사 결과, 표본유지율, 응답가구와 가구원 특성, 이사 및 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등 전반적인 조사 개요를 다루고 있다. 17차년도 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원표본 3,451가구 및 분가한 2,101가구를 합하여 총 5,552가구에 대한 조사에 성공한 것이다. 개인 응답자는 전체 10,757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0,678명, 새로 진입한 신규 가구원이 79명이다.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 대비 원표본유지율은 69%로 전년도 원표본유지율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하였다. 소멸가구를 제외한 유효표본가구(17차년도 4,741가구) 대비 표본유지율은 72.8%로 전년도 유효표본유지율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하였다.

조사의 질적 측면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 응답자 중 본인 응답 비율은 95.2%로 나타났다. 원가구 대비 1~17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의 비율은 44.7%이고, 1차 조사 당시 원표본가구에 속해 있던 원표본가구원 대비 계속응답 개인의 비율은 23.8%로 분석되었다. 한편 비성공가구의 비성공 사유로는 ‘이사추적실패’가 46.9%, ‘강력 거절’이 38.1%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 한국노동패널의 조사 성과를 유지해 나가는 데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009년부터 축적된 통합표본은 1차년도 6,721가구로 시작되어 6차년도

2)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17차년도 자료로, 2009년에 추가된 표본을 제외하고, 1차년도에 설계된 98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자료 사용자를 위해 제2장 제6절에서 추가표본을 포함한 통합표본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4년도)에는 원가구 5,840가구, 분가가구 653가구로 조사되었다. 1차년도 원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6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86.9%로 KLIPS 98표본의 6차년도 77.2%보다 월등히 높아 표본 유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12,595명으로 이 중 1차부터 원표본가구원이었던 원표본 개인 응답자는 12,103명, 신규로 진입한 가구원은 492명이다.

제3장에서는 조사에 성공한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은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은 지난 17년간의 노동패널 조사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변동에 대해 다루었다.

우선 17차년도 가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평균 가구원수는 2.8인이고 4인 가구의 비중은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가구주와 가구주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비중은 23%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에서는 남성이 77%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4세로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대가 가구주의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5세 이상 전체 개인 응답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중이 51.7%로 남성보다 약간 높았다. 평균 연령은 47.6세로 마찬가지로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및 고졸 미만 학력소지자가 각각 26.9%와 2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1~17차년도 기간 동안 출생한 가구원은 총 3,122명으로 남자아이가 1,634명(52.3%), 여자아이가 1,488명(47.7%)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17차년도 동안 총 1,115명이 사망하였고, 17차년도 사망자는 43명이며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2.8세였다.

제4장은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6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17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1절은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은 가구의 지출을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9차년도부터 대폭 설문이 보강된,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3절은 가구의 주거형태를, 제4절은 가구의 자산과 부채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자녀 교육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연도별로 가구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17차년도 연간 총소득은 4,460만 원(월평균 372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5만 원 늘어났으나, 실질소득으로 환산하면 16차년도에 비해 82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16차년도)에 비해 3만 원 정도 상승하여 17차년도에는 23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의 증가폭은 5차년도가 전년 대비 19만 원 증가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7차년도 조사가구 중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9.2%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63만 9천 원으로 나타났다.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 살펴보면,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27.4%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있던 경우는 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81.5%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86.4%, 89.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35.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경제적 교류의 금액은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17차년도 패널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1.7%로 전년도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은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11차년도가 58.9%로 가장 낮은 비중이며, 17

차년도는 71.6%로 나타나, 금융자산의 추세는 11차년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7차년도, 11차년도와 15차년도를 제외하고는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7차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2,95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4.1%를 차지하였다. 부채 잔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17차년도에는 4,608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절은 재수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탁아서비스 포함) 및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다루고 있다. 0세~만5세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7%였으며, 만6세~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2%였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 자녀수가 1명인 경우가 0세~만5세 이하는 74.7%, 만6세~재수생 이하는 53%로 높게 나타났다. 만6세~재수생 이하는 2명인 경우도 41.5%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17%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7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0세~만5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34만 7천 원(자녀당 월평균 교육비는 27만 4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만6세~재수생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62만 8천 원(자녀당 월평균 교육비는 42만 5천 원)이었다. 또한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0세~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가 23.4%이고 만6세~재수생 자녀를 둔 가구는 72.2%에 달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1,175만 1천 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당 연평균 928만 6천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경우보다도 많은 85.4%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제5장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KLIPS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³⁾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 수입이 있는 노동을 제공했으면 취업자로, 그 기간

3) 조사일 바로 전 주가 조사 대상 기간이다.

(또는 그 기간을 포함한 4주간)에 그런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며,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반면 KLIPS는 조사일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는 차이가 있다. 조사 대상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 2014년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통계청 61.7% 대비 노동패널 56.2%로 낮게 나타났지만, 1998년 이후 추이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두 자료는 가구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각각의 조사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상태 분류 기준이 다소 상이하고, 조사 대상 기간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30%가 약간 넘는 탈락률에도 불구하고 KLIPS가 비농가 부문의 경제활동을 여전히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17차년도에는 전체 4,461명의 임금근로자가 조사되었으며,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은 71.9%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전체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비중이 29.2%로 가장 높고, 연령별로는 40대가 26.3%로 가장 높으며,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이 31.7%,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3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차년도 52.3시간에서 점차 감소하여 17차년도(2014년) 기준 44.7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비하여 약 4시간가량 길었으나,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6.8시간)이 여성(41.9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5.7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교

4) 2014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의하면, 비농전산업 주당근로시간은 40.8시간이다.

육수준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적게 나타났다. 또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17차년도에 27.9%로 나타나, 비교적 초과근로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9.3시간으로 나타났다.

임금 지급주기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95.1%는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시로 지급받는다’와 ‘매일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각각 1.2%, 3.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산정방식별로도 월급제가 74.1%로 가장 높았으며, 연봉계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3.3%에 그쳤다. KLIPS에서 조사되고 있는 월평균 실질임금은 1차년도 조사에서 156만 9천 원이었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 10차년도에는 211만 0천 원에 달하였으나 12차년도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회복하여 17차년도에는 217만 1천 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17차년도 월평균 명목임금은 176만 9천 원으로 남성의 62.2%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40대에 월평균 임금이 345만 8천 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은 30대에 224만 8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337만 3천 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전문관리직(295만 3천 원)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형태별로는 외국인 회사(409만 8천 원)가, 종업원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기업(362만 2천 원)의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7장은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17차년도의 비임금근로자수는 1,828명이었으며,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8.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7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4.6%, 자영업자 57.4%,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8.0%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17차년도 주당 근로일수는 5.7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0.1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0차년도 54.3시간 이후 꾸준

히 감소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지난 17년간 월평균 명목소득은 1차년도 132만 6천 원에서 2차년도에 128만 3천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17차년도에는 309만 5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창업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우선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는 157명이었다. 창업 주체와 관련하여,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7.0%)보다는 본인 스스로 창업한 경우(92.0%)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하게 된 응답자에게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 대상자의 80.0%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조달하였으며, 정부의 보조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제8장은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패널자료란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한 자료이므로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시간에 걸쳐 동태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패널자료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실시한 분석이 제8장의 분석이다. 노동시장 전체로 보아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간의 이동을 먼저 분석한 뒤, 성과 연령 그리고 학력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들의 이동경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제16차와 17차에서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한 동태적 분석뿐 아니라 제15차와 16차에서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한 분석도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하였다.

제9장에서는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고용 현황과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청년층에 관한 정의는 2004년에 제정된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 연령 규정에 따라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였다. 경제활동상태에 관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있으나 경활조사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노동패널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경활조사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기본적인 구성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활조사와 노동패널조사 결과를 비교해 두 조사 자료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제9장에서는 1차년도부터 17차년도까지 17년 동안의 변화 추세를 다루었다. 노동패널자료는 중단가중치와 횡단가중치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데 연도별 시계열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중단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특별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을 지칭하는 니트(NEET)에 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제2절에서는 청년 취업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향취업(overeducation)에 관한 분석도 추가하였다.

제10장에서는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과제를 매출 및 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영업주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을 제외하였을 때 자영업의 사업기간은 평균 10.05년으로 나타났으며⁵⁾ 중간치(median value)는 5.08년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업기간은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 6.15년보다 3.90년이 길다. 초기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오랫동안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초기 투자금액이 1% 증가하면 자영업 지속기간은 1.3% 늘어났다. 또한 시작한 연령이 낮을수록 사업을 장기간 지속할 확률이 높게 추정되었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사업기간이 장기간이며,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혼보다 기혼일 경우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주의 직장이동을 살펴보면, 1999~2014년 사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은 근로자의 15.4%는 자영업주(고용주+자영자)이고, 이직한 자영업주의 절반 이상(57.4%)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하였고, 임금근로자를 그만둔 사람의 14.2%는 자영업주로 재취업하였다. 시계열에 따라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자영업을 벗어나 임금이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안정적이어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자영업주에서 임금근로자로 이동하는 비율이 50%대 초반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60%대 초반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자영업 창업의 투자비용을 살펴보면, 자영업주의 창업 시 총투자비용

5)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한 값이다.

의 2010년 현재가치는 평균 5,380만 원이고, 관찰연도에 따라서 어떤 뚜렷한 특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초기 투자금액이 시간이 지나도 크게 오르지 않는다. 총투자비용 중 75.3%는 본인이나 가족, 친지에 의해 조달되었으며, 3.1%는 동업자에 의해 조달되어 자기 조달의 비중이 거의 80%에 달한다.

2014년 자영업주의 연간 매출액은 1억 2,134만 원 수준으로 2003년의 신용대란 이후 자영업의 매출규모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4~06년 사이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회복을 하던 자영업주의 매출은 2010년 이후에야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9,992만 원이었던 매출은 2014년 12,134만 원까지 증가하였지만, 하지만 2014년에도 2003년의 매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매출액은 2004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04년 1억 원이 넘었던 매출액은 2006년 6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 이는 자영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60대 이상의 자영업주들이 큰 타격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추세적으로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사이의 매출 격차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자영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져 ‘사업의 규모가 큰 자영업은 더욱 번성하고, 규모가 매우 작은 영세 자영업은 더욱 위축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영업주의 명목 소득은 1998년의 148.4만 원에서 2014년에는 297.6만 원으로 100.5%가 상승하였다. 자영업 내에서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소득 격차가 상당히 컸다. 2010년을 100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하였을 때, 1998~2014년 사이 고용주는 월평균 387.2만 원의 소득을 올린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주의 48.6%에 불과한 188.2만 원에 그쳤다.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2004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11년에 와서야 2004년의 수준을 겨우 넘어섰으며, 고용주의 실질소득도 2006년 이후 하락하였다가 2010년에야 2006년도 수준을 회복하였다.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2006년을 기점으로 확대되어, 2005년까지는 상대소득비가 1.94로 2.00을 넘지 않았으나 2006년 이후 2.14로 높아졌다. 임금근로자 임금 대비 자영업주 소득의 비율(=자영/임금)은 2002년의 1.75에서 2014년 1.34로 하락하여 자영업주들이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

성이 제기되며, 앞으로도 자영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된다.

제11장에서는 일과 행복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일을 하지 않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행복할까? 노동경제학 교과서에서 노동은 비효율을 의미한다는 가정하에서, 충분한 비근로소득(non-labor income)이 있다면 이는 유보임금을 높여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효용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는 일이 가지는 의미가 단순히 소비를 위한 근로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을 노동시장에 제공하여 여가를 줄이는 것이라는 전제에서만 맞는 결론일 것이다. 그러나 일이 가지는 의미가 다른 것을 포함한다면, 결론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견해를 배경에 두고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제1차 조사부터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가족의 수입,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해오고 있다.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의 측도가 행복의 측도와 정확히 일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주관적 행복에 대해 직접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삶의 대한 만족도를 행복의 대변수로 삼아 일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 자료를 이용한 행복의 기초통계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7년간 한국인의 행복도는 꾸준히 상승해왔다. 외환위기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던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행복도는 1~5점 척도에서 평균 2.89점의 낮은 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급상승하여 제6차 조사에서 3.21점에 이르고, 제14차 조사에서 3.40점에 이른 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자의 행복도가 높지만 이러한 차이는 남성에서 큰 반면 여성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취업자의 행복도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고 미취업자의 행복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높은 데서 기인한다.

셋째, 인구학적 특성별로 행복도를 보면, 청년층에서 행복도가 가장 높고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행복도가 상승하며, 기혼 유배우자의 행복도가 가장 높고, 이혼자(또는 별거자)의 행복도가 매우 낮으며, 미혼자의 행복도는 기혼 유배우자에 비해 다소 낮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유사하지만, 이혼 남성의 행복도는 현저히 낮다.

넷째, 인구학적 특성별 취업 여부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는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커지지만 남성에서는 중년층과 장년층에서 크고 여성에서는 이 연령계층에서 오히려 미취업자의 행복도가 취업자의 행복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고졸 미만에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고졸에서는 오히려 미취업자의 행복도가 높는데, 이는 고졸 여성 미취업자의 행복도가 취업자의 행복도보다 높은 데서 연유한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별거와 이혼에서 미취업자의 행복도가 상당히 낮아 취업 여부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다.

다섯째, 5세 연령대별 행복도의 경향을 보면, 30대까지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다가 이후에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취업자의 행복도가 미취업자의 행복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20~24세와 50~54세에서는 역전현상을 보이고, 전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공통된 반면 50대 여성에서는 이러한 역전현상이 나타난다.

여섯째, 경제활동상태를 세분하여 행복도를 보면, 단순히 취업이 행복도를 높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각 경제활동상태별 성별 차이는 거의 없고,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의 행복도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임금근로 중에서 상용직의 행복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행복도는 미취업자, 또는 행복도가 매우 낮은 실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행복도보다 낮으며, 일용직의 행복도는 실업자의 행복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 자료에서 5점 척도의 행복도를 ‘행복’, ‘중립’, ‘불행’으로 재구성하여 인구학적 특성만 고려한 기본모형, 가구 재정 관련 특성을 고려한 자산·소득효과모형, 그리고 취업 여부를 고려한

일과 행복 모형에 다항로짓모형과 서열로짓모형에 적용한 행복의 실증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만 고려한 기본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면, 다항로짓모형의 ‘행복’ 선택과 서열로짓모형의 모든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불행’ 선택에서 일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산·소득효과모형이나 일과 행복모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모든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행복도가 낮다는 기존 연구문헌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낮아지지만 40대 중반 이후에는 반대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연한이 늘어날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데, 전문학사와 학사 이상의 추가적 학위효과 역시 상당한 수준이며,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며, 기혼 유배우자에 비해 미혼이나 기혼 무배우자(이혼, 별거, 사별)의 행복도가 낮는데 특히 이혼자의 행복도가 상당히 낮다.

셋째, 가구 재정 관련 특성이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가구총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높아지지만 3.3억 원 정도에서 정점에 도달하고, 다른 요인들이 모두 통제되었을 때,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은 행복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존재는 행복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융소득이나 이전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보유는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부채의 보유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거의 자가 또는 아파트와 비교할 때 다른 형태의 입주 또는 주택은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취업 여부만 고려하였을 때,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10% 정도 행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서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취업상태를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이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미취업자에 비해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의 행복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강하고, 여성에서는 임금근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반면 비임금근로의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상태를 세분화하고 비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성에서는 여하한 형태의 취업이 모두 긍정적 효과를 가지지만 일용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여성에서는 임금근로 중 임시직과 일용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효과를 가지며, 비임금근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남성에서는 여하한 일자리든 취업상태가 미취업상태보다 행복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가사 및 자녀 양육 등의 부담을 지는 여성에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이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로의 취업은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행복도를 낮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2장에서는 일중독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일중독은 일이 곧 자아의 중심이며 일 이외의 다른 삶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 일이 없으면 자신의 삶도 끝난다고 느끼는 특성을 지칭한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과 문화는 근로자들을 일중독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로 인해 개인, 가정, 사회,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본 장은 KLIPS 17차 조사가 실시한 일중독 문항들이 일중독 측정 도구로서 신뢰성을 가지는지 검토하고,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실시된 일중독 측정 도구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일중독 실태 정도와 위험 요인을 규명한다. 분석 결과 KLIPS 자료가 Aziz et al.(2013)의 일중독 문항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조사한 일중독 문항들은 일중독 측정 도구로서 수용할 만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중독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할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29개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의 지표로서 지수화할 것인가, 둘째는 일중독 지표를 연속형 변수로 설정할 것인가 범주형 변수로 설정할 것인가이다. 즉 일중독을 정도의 높고 낮음을 논하게 되는 증상으로 다룰 것인가이다. 아니면 작위적으로 경계를 설정하여 일중독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할 것인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 해석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중독의 정도가 아니라 일중독자 여부를 식

별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했다.

본 연구는 일중독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일중독1은 일중독 조사항목들 가운데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에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자를 일중독자로 정의하였다. 일중독2는 변별도와 타당도 검사에서 일중독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된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일중독 27개 항목 응답의 총점을 구하고, 이를 문항계수인 27개로 나누어 평균 5점 만점의 척도로 환산하였다. 이 점수가 3을 초과하는 사람, 즉 일중독 문항에 대해 평균적으로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을 일중독자로 정의하였다.

일중독 현상의 광범위성과 위험 집단 및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의 6.7~7.0%가 일중독자이며, 남성일수록, 엄격한 성별분업관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40대일수록, 별거·이혼·사별한 사람일수록, 주당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일수록 일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우리 자신이나 주변의 경험 차원에서 의심하고 있던 일중독 위험인자들을 상당부분 확인시켜주고 있다.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이 일중독 위험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진바, 자기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중독과 그로 인한 다양한 폐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17.9%에 해당하는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 한편 일용직과 자영업자가 일중독 위험이 높았다는 사실은 일중독 문제가 근로시간 관련 법제도적 과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일용직은 근로시간 길이에 상관없이 불안정한 일거리 때문에 일이 없을 때 조바심이나 불안감을 가지는 금단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자영업자는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고 매출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 없는 일몰입과 일강박에 빠져 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의향이 낮은 집단이기도 하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 2 장

한국노동패널 17차 조사의 개요

제1 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⁶⁾

1998년에 표집된 가구를 기준으로 KLIPS의 진행 상황을 조사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1차년도에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13,321명이었다. 이후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원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각각 87.6%, 80.9%에 그쳤다. 이 당시 아직 한국에서 패널조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사(fieldwork)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4차년도 이후 패널유지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2014년에 실시된 제17차 KLIPS 조사에서는 원표본 3,451가구 및 분가한 2,101가구를 합하여 총 5,552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였으며, 가구

6)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승인번호: 33601).

기준 원표본유지율은 69.0%로 전년도에 비하여 0.4%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총 10,757명이다.

〈표 2-1〉 1~17차년도 조사결과 비교

	조사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조사성공 가구수 ¹⁾	원표본 가구수 ²⁾	원표본 유지율 ³⁾	유효표본 유지율 ⁴⁾	분가 가구수	가구원 응답자수 ⁵⁾	실사 기간
1차('98)	5,000	5,000	5,000	100.0	100.0	-	13,321	6~10월
2차('99)	5,000	4,507	4,378	87.6	87.6	129	12,037	7~12월
3차('00)	5,000	4,266	4,044	80.9	80.9	222	11,205	5~10월
4차('01)	5,000	4,248	3,866	77.3	77.3	382	11,051	5~10월
5차('02)	5,000	4,298	3,798	76.0	76.0	500	10,966	4~ 9월
6차('03)	4,993	4,592	3,862	77.2	77.3	730	11,541	4~ 9월
7차('04)	4,949	4,761	3,862	77.2	78.0	899	11,661	4~ 9월
8차('05)	4,935	4,849	3,822	76.4	77.4	1,027	11,580	4~10월
9차('06)	4,914	5,001	3,820	76.4	77.7	1,181	11,756	4~10월
10차('07)	4,899	5,069	3,775	75.5	77.1	1,294	11,855	4~10월
11차('08)	4,862	5,116	3,709	74.2	76.3	1,407	11,734	4~10월
12차('09)	4,832	5,306	3,657	73.1	75.7	1,649	11,739	4~10월
13차('10)	4,802	5,379	3,606	72.1	75.1	1,773	11,582	7~12월
14차('11)	4,786	5,404	3,528	70.6	73.7	1,876	11,377	7~12월
15차('12)	4,770	5,469	3,517	70.3	73.7	1,952	11,444	6~12월
16차('13)	4,741	5,501	3,472	69.4	73.2	2,029	11,331	6~12월
17차('14)	4,741	5,552	3,451	69.0	72.8	2,101	10,757	3~10월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수.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KLIPS는 10차년도 release 버전 자료부터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동안 각각의 연도별로 상이한 구조를 가졌던 설문지의 종류와 자료 및 변수들을 통합하고 재구조화하여 종단면 일치성(longitudinal consistency)을 갖도록 하였다. 개편된 자료는 크게 가구용 자료, 개인용 자료, 부가조사 자료, 그리고 직업력 자료로 나뉜다. <표 2-2>를 통해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용 자료는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 및 소득, 소비, 거주형태, 자산, 부채 등 가구 단위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개인용 자료는 크게 조사 당시 갖고 있던 주된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 응답자에 관련된 문항, 그리고 조사에 진입할 당시에 한 번만 조사되는 문항들(출생지, 14세 당시 거주지, 부모님의 직업, 교육수준 등)로 나눌 수 있다.

<표 2-2> 1~17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내 용	
가구용 자료	KLIPS_H	가구원의 기본정보 가구 특성 관련 설문(소득, 소비, 주거 등)	
개인용 자료	KLIPS_P	주된 일자리의 특성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응답자 공통	취업자 미취업자
		신규 조사자 문항	
부가조사 자료	KLIPS_A	청년층 조사(3차) 건강과 은퇴(4차) 중고령자 조사(6차) 근로시간과 여가(7차) 노동조합과 노사관계(8차)	청년층 조사(9차) 고용형태 조사(10차) 교육(11차) 시간사용과 삶의 질(17차)
직업력 자료	KLIPS_W	개인이 가졌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주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15세 이후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산업, 직업,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에 대해 ‘일자리 단위’로 누적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자료들이 조사 차수별로 각각 존재하는 반면, 직업력 자료는 1개의 데이터셋만을 가지게 된다.

가구용 및 개인용으로 구성되어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는 본 조사 자료와는 달리 3차년도부터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2차년도 조사가 진행된 2009년 이후부터 고용형태 관련 설문이 본 설문으로 편입되면서 응답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고용형태와 관련된 별도의 부가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연혁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1998년 1차 조사가 시작된 이후 9차년도까지는 표본유지율을 최대한 높이고 실사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9차 조사(2006년)부터 중요한 조사전략상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조사도구를 서면조사(Pensile and Paper Interviewing, PAPI)에서 노트북을 이용한 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로 이행하기로 한 의사결정이었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개발한 패널조사 전용 소프트웨어인 Blaise에 기반한 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07년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전·충청 지역의 560가구(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 280가구)를 추출하여 조사도구 변경이 표본의 응답 패턴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즉 모드 효과(mode effects)에 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두 조사도구 간에 체계적인 응답 패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 11차 조사부터 전체 표본에 대해 CAPI로의 전면적인 이행을 실시하였다.

2009년(12차 조사)에는 표본의 전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약 1,500개 가구의 표본을 추가하였다.⁷⁾ 1998년에 추출된 표본(이하 KLIPS 1998 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가구를 표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국인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9년 표본 추가에 따라 제주도 및 농촌 지역을 포괄함으로써 전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7) 추가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 장 제6절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표 2-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연혁

	조사 연혁
1차	1998년 노동패널 시작, 5,000가구 및 그 가구원
10차	2007년 노동패널 실사, CAPI 부분 도입
11차	2008년 노동패널 실사, CAPI 전면 도입
12차	2009년 노동패널 실사, 1,415가구 표본 추가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⁸⁾

KLIPS의 실사는 민간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7차년도 조사는 2014년 3월부터 10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 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 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은 가구용 설문지는 반드시 직접면접을 통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인용 설문지는 직접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서 장기 출타 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은 전화로 재확인 작업을 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 약간의 차이가

8)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크기, 표본 틀 및 추출 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인터넷 사이트(<http://www.kli.re.kr/klips>)를 참고.

있는데,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가구의 표본 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에 개인용 설문지를 면접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KLIPS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하였다. 첫째, 실사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 조사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범위에서 전화조사를 하였다. 셋째, 전화면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 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소년원·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넷째, 전화면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 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 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도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표 2-4>는 각 연도별 조사 방식이 어떤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면접조사의 비중이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쳤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1차년도에는 95.7%까지 증가하였다. 11차 조사에서 전년 대비 면접조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CAPI 도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트북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유치나 전화 등의 다른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접조사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이후 17차년도까지 평균적으로 93~94% 내외의 면접조사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유치조사는 1차년도에 21.8%나 되었지만 17차년도에는 0.3%에 불과했다.

<표 2-5>는 본인 및 대리 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

〈표 2-4〉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명, %)

	개인 응답자수	전체 비중	면접	유치	전화	면접+ 전화	유치+ 전화	면접+ 유치	면접+ 유치+ 전화
1차년도	13,321	96.5	64.4	21.8	1.5	2.6	3.7	2.6	0.1
2차년도	12,037	100.0	77.8	7.6	7.4	4.7	2.5	0.1	0.0
3차년도	11,205	99.8	83.0	5.1	5.3	3.9	1.5	0.9	0.2
4차년도	11,051	100.0	83.7	3.4	4.6	4.9	1.2	1.8	0.5
5차년도	10,966	100.0	83.8	2.6	3.9	6.4	1.0	1.0	1.3
6차년도	11,541	100.0	86.3	1.7	3.8	5.7	0.9	1.3	0.4
7차년도	11,661	100.0	88.0	1.8	4.1	3.7	0.4	1.6	0.5
8차년도	11,580	100.0	85.4	1.6	2.8	6.1	1.4	1.7	1.0
9차년도	11,756	100.0	89.7	1.5	2.9	2.8	0.7	2.3	0.3
10차년도	11,855	100.0	91.3	1.1	3.2	3.1	0.6	0.6	0.1
11차년도	11,734	100.0	95.7	0.6	1.8	1.3	0.3	0.2	0.1
12차년도	11,739	100.0	92.4	1.7	2.7	2.2	0.6	0.3	0.1
13차년도	11,582	100.0	94.0	0.5	2.7	2.4	0.3	0.1	0.1
14차년도	11,377	100.0	93.0	0.8	3.2	2.2	0.4	0.3	0.1
15차년도	11,444	100.0	93.6	0.4	4.5	1.3	0.1	0.0	0.0
16차년도	11,331	100.0	95.2	0.5	3.0	1.1	0.1	0.1	0.0
17차년도	10,757	100.0	96.6	0.3	2.3	0.7	0.1	0.1	0.0

주: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전체 비중이 100%가 안 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임.

있듯이 KLIPS 조사는 응답자의 병환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대리 응답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본인 응답은 74.0%, 대리 응답은 19.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부터 본인 응답 비중이 88.7%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전반적으로 대리 응답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7차년도 기준 본인 응답 비중은 9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7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방문 횟수는 평균 1.5회로 소폭 증가하였다(표 2-6 참조). 범주별로는 1회 방문이 71.1%, 2~3회 방문이 24.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성공가구의 방문 횟수는 해가 거

〈표 2-5〉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

(단위: 명, %)

	개인 응답자수	전체비중	본인	대리인	본인+대리인
1차년도	13,321	94.1	74.0	19.7	0.4
2차년도	12,037	100.0	88.7	11.3	-
3차년도	11,205	100.0	88.3	8.1	3.6
4차년도	11,051	99.8	83.3	11.0	5.5
5차년도	10,966	100.0	83.8	9.8	6.4
6차년도	11,541	100.0	83.1	11.2	5.8
7차년도	11,661	100.0	85.7	9.7	4.7
8차년도	11,580	100.0	87.3	5.0	7.7
9차년도	11,756	100.0	90.0	3.0	7.1
10차년도	11,855	100.0	90.7	5.6	3.7
11차년도	11,734	100.0	91.7	5.8	2.6
12차년도	11,739	100.0	91.4	4.0	4.6
13차년도	11,582	100.0	93.3	3.9	2.8
14차년도	11,377	100.0	92.9	4.7	2.4
15차년도	11,444	100.0	94.5	3.5	2.0
16차년도	11,331	100.0	94.4	3.6	2.0
17차년도	10,757	100.0	95.2	3.5	1.4

주: 1차년도, 4차년도의 전체 비중이 100%가 안 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이다.

답률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적함에 따라 일단 표본가구가 조사를 수용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대부분 1~2회 방문으로 조사를 완료하기 때문이다.

조사 시기별 진행 정도를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한국노동패널 조사는 각 연도별로 조사에 진입하기 1~2주 전 5개 권역(수도권/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라, 부산/경남)별로 면접원 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실사에 진입하게 된다. CAPI 도입 첫 해에는 별도의 노트북 및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다음해부터 대부분의 면접원들이 이미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하게 되어 별도의 CAPI 교육기간을 두지 않고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 시작은 면접원 교육이 종료된 직후부터 이루

〈표 2-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단위: 회)

	사례수	평균값	표준편차	1회	2~3회	4~5회	5회 이상	전체
1차년도	5,000	2.4	1.6	38.1	42.1	14.9	5.0	100.0
2차년도	4,507	2.3	1.6	41.7	40.5	11.7	6.2	100.0
3차년도	4,266	2.6	2.0	34.2	43.2	15.4	7.3	100.0
4차년도	4,247	3.0	2.2	27.3	42.2	19.8	10.7	100.0
5차년도	4,298	2.6	1.7	31.2	43.7	19.3	5.9	100.0
6차년도	4,592	2.9	1.9	28.1	39.9	22.3	9.7	100.0
7차년도	4,761	3.0	2.0	26.3	40.9	21.0	11.8	100.0
8차년도	4,849	3.3	2.1	22.6	38.4	23.9	15.2	100.0
9차년도	5,001	3.0	1.9	23.8	42.4	24.1	9.6	100.0
10차년도	5,064	2.6	1.8	34.4	39.6	18.9	7.2	100.0
11차년도	5,116	2.3	1.4	39.4	43.5	14.2	3.0	100.0
12차년도	5,306	1.3	0.8	79.7	17.4	2.5	0.4	100.0
13차년도	5,378	1.3	0.8	79.1	18.3	2.4	0.3	100.0
14차년도	5,404	1.3	0.8	78.8	18.1	2.4	0.7	100.0
15차년도	5,469	1.4	0.9	75.1	21.7	2.3	0.9	100.0
16차년도	5,501	1.2	0.6	86.8	12.1	0.9	0.2	100.0
17차년도	5,552	1.5	1.0	71.1	24.7	3.6	0.7	100.0

어졌으며, 매주 조사업체로부터 실사 상황을 보고받는다.

〈표 2-7〉에서 볼 수 있듯이, 2차년도를 제외하고는 1~12차 조사까지 통상 4·5월부터 10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조사의 경우 가구 경제활동 및 개인 일자리 특성 변화와 관련된 회고 설문 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적인 조사 체계가 패널조사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 되어 조사가 늦어졌으나, 이후부터 4·5월 조사로 안정화되었다. 8차년도 조사부터는 전체적인 조사 일정을 앞당기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동패널조사는 전년도 소득과 일자리에 대한 회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조사 시점이 늦어질수록 회고 오차(recall errors)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름철 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 말경부터는 응답가구를 접촉하고 조사를 진행

〈표 2-7〉 시기별 조사 진행률 추이

(단위: %)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례 수
1차년도				27.9	30.3	27.9	13.2	0.7			4,518
2차년도					5.0	22.8	22.6	27.3	20.2	2.1	4,507
3차년도		0.2	15.1	28.1	26.1	23.6	5.2	1.7			4,266
4차년도		1.6	16.1	27.2	15.7	23.3	13.0	3.2			4,247
5차년도		4.7	31.3	25.9	26.4	7.2	4.4	0.1			4,298
6차년도			12.7	25.6	30.1	21.3	10.2	0.0			4,592
7차년도			16.7	26.4	24.8	21.1	10.8	0.2			4,761
8차년도		13.9	23.8	24.0	20.1	12.1	5.9	0.3			4,849
9차년도		8.1	25.4	20.5	20.9	14.6	8.6	1.8			5,001
10차년도		14.4	27.0	26.9	20.7	8.3	2.8	0.0			5,064
11차년도		8.7	27.9	23.8	21.0	9.7	4.3	4.6			5,116
12차년도	0.5	35.7	31.7	12.4	9.3	5.2	3.8	1.4			5,306
13차년도					7.7	33.9	19.1	28.6	8.8	2.0	5,378
14차년도					2.2	39.8	19.8	20.4	16.1	1.7	5,404
15차년도				0.9	32.7	28.5	19.1	10.5	6.4	2.0	5,469
16차년도				7.5	29.4	21.3	16.4	15.7	6.5	3.2	5,501
17차년도	19.1	31.9	24.9	17.1	3.9	1.6	1.5	0.1			5,552

주: 1차년도는 조사원의 모름/무응답 482건을 제외하였음.

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조사 시작 이후 통상 3~4개월 정도가 지나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조사가 마무리된다. 다만 패널조사에 대한 저항이 매우 커서 조사 이탈 위험이 큰 표본의 경우에는 높은 숙련을 가진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마지막 1~2개월 동안 설득과정을 거쳐 한계성공률을 높이게 된다. 13~15차년도 조사는 조사 주체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사 시작 시점이 6·7월로 변경되었다. 16차년도에는 조사 주체가 다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이관되었다.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조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을 최소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표본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표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차년도 KLIPS의 총 조사표본은 5,552가구와 그 가구 내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0,757명이다(표 2-1 참조).

원표본유지율은 두 가지 기준에서 산출할 수 있다. 첫째, 1차년도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를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멸가구를 고려하여 성공률을 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1인 단독 가구에서 그 가구원의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인해 가구가 소멸한 경우, 이를 분모가 되는 원표본가구수에서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전자를 원표본유지율, 후자를 유효표본유지율이라고 하겠다.

KLIPS의 17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69.0%, 유효표본유지율은 72.8%였다(표 2-1 참조). 흔히 패널조사의 신뢰성 지표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원표본유지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KLIPS뿐 아니라 다른 패널조사의 경우에도 2차년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패널조사 초기에 표본이탈률이 높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5차년도 KLIPS는 외국의 패널조사에 비해 그 하락폭이 컸으나, 6차년도 이후 표본유지율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17차년도를 기준으로 다른 패널조사와 비교했을 때 독일의 SOEP(72.4%, 가구 기준), 미국의 PSID(57.8%, 개인 기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표본추출 당시의 거주지를 기준⁹⁾으로 살펴보기로 한다(표 2-8 참조). 지역적으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강원, 경북 지역의 표본유지율이 17차년도 기준 70% 미만이었고, 전남이 80% 이상의 표본유지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원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도 지역이 광역시 지역에 비해 표본유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

9)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그 지역에서 조사에 성공하였다라도, 1차 당시 서울 거주자였다면 서울 지역으로 계산하였다.

〈표 2-8〉 지역별 원표본가구유지율

(단위: 가구, %)

	원표 본수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12차 년도	13차 년도	14차 년도	15차 년도	16차 년도	17차 년도
전체	5,000	87.6	80.9	77.3	76	77.2	77.3	76.4	76.4	75.5	74.2	73.1	72.1	70.6	70.3	69.4	69.0
서울	1,353	84.9	77.6	72.4	70.7	74	72.9	72.4	72	71.8	71.4	69.5	69	66.7	66.5	65.9	65.7
부산	486	90.5	89.7	88.3	84.4	80.2	78.4	77.8	77.2	77.8	76.1	74.7	72.6	71.6	72.2	71.2	71.4
대구	314	84.1	72	67.5	71	77.4	70.1	73.6	72.3	71.3	68.2	69.4	66.6	65.3	66.9	65.9	65.9
대전	153	83.7	81.1	79.7	76.5	80.4	79.7	75.8	73.9	69.9	69.3	70.6	68.6	66	64.7	66.0	64.1
인천	298	85.6	81.9	73.2	77.9	75.8	79.5	78.2	79.9	75.8	74.8	75.2	77.2	75.5	74.5	73.5	73.8
광주	158	78.5	69	77.2	80.4	79.1	77.2	76.6	75.3	73.4	74.7	70.9	74.1	68.4	67.7	67.1	66.5
울산	116	96.6	96.6	89.7	86.2	83.6	82.8	79.3	79.3	74.1	72.4	74.1	75	72.4	72.4	70.7	70.7
경기	856	90.2	80	72.7	70.2	75.5	79.7	78.3	77.6	77.3	74.8	73.9	71.6	71.9	70.7	69.7	68.5
강원	130	87.7	86.2	73.8	65.4	63.8	67.7	71.5	73.8	75.4	75.4	72.3	70	71.5	70	65.4	66.9
충북	113	87.6	75.2	77	75.2	70.8	69.9	67.3	70.8	68.1	69	68.1	70.8	68.1	70.8	71.7	70.8
충남	131	91.6	87.8	84	83.2	80.9	80.9	79.4	79.4	81.7	80.2	79.4	77.1	76.3	75.6	77.1	75.6
전북	199	88.9	74.4	84.9	83.4	81.9	81.9	80.4	81.9	82.4	81.9	79.4	77.4	74.4	74.4	72.4	71.9
전남	127	92.1	89.8	89.8	89	84.3	89	86.6	87.4	88.2	86.6	85.8	84.3	83.5	81.9	80.3	80.3
경북	274	89.4	82.5	80.3	82.1	83.6	84.3	82.1	83.2	77.7	76.3	75.9	74.8	72.3	72.3	71.2	69.3
경남	292	89.7	88.4	89.4	84.9	83.2	81.2	79.8	80.8	79.8	77.1	76	75.7	74.3	75	73.3	74.0

주: 지역 구분은 1차년도 조사 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당해 연도 조사가구수/원표본가구수)×100.

들이 도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더 자주 이사를 하는 등 패널 추적이 어려운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성향, 면접원의 특성과 숙련도, 지역의 실사 단위의 체계, 지역별 정치적·문화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유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4절 응답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1. 응답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의 조사성공률과 함께 패널응답 가구의 지속응답 여부 또한 자료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표 2-9>는 1~17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9> 1~17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단위: 가구, %)

	전 체		원가구		비원가구	
	가구수	비 중	가구수	비 중	가구수	비 중
1회	508	6.4	183	3.7	325	11.3
2회	439	5.6	159	3.2	280	9.7
3회	388	4.9	158	3.2	230	8.0
4회	376	4.8	138	2.8	238	8.2
5회	372	4.7	127	2.5	245	8.5
6회	359	4.6	91	1.8	268	9.3
7회	290	3.7	113	2.3	177	6.1
8회	260	3.3	102	2.0	158	5.5
9회	293	3.7	128	2.6	165	5.7
10회	274	3.5	124	2.5	150	5.2
11회	318	4.0	146	2.9	172	6.0
12회	320	4.1	162	3.2	158	5.5
13회	271	3.4	167	3.3	104	3.6
14회	334	4.2	226	4.5	108	3.7
15회	336	4.3	276	5.5	60	2.1
16회	512	6.5	465	9.3	47	1.6
17회	2,235	28.3	2,235	44.7	-	0.0
전 체	7,885	100.0	5,000	100.0	2,885	100.0

우선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의 수는 7,885가구이고, 이 중 원가구는 63.4%(5,000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비원가구는 36.6%(2,885가구)이다. 원가구 중에서는 1~17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가 4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3.7%(183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가가구들은 2차년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17회 모두 응답한 가구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분가가구의 경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나 혼인 등의 사유로 분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 추적이 어렵고 이탈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분가가구의 경우 1회 응답 가구의 비중이 11.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해 연도 분가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에서 이탈한 가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분가가구의 응답 횟수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KLIPS는 조사 대상 가구에 소속된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성공률과 관련된 가구원의 특성들 또한 전적으로 가구의 성공률에 의해 좌우된다.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년도에서 17차년도 조사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한 개인은 19,671명이다. 조사 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응답한 개인은 3,988명으로 한 번이라도 응답한 전체 원표본 가구원 대비 23.8%이며, 원표본가구원 중에서 1회만 조사에 응답한 원표본가구원은 854명으로 5.1%를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개인 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1회 응답이라 하더라도 이는 17차년도에 처음으로 개인조사에 진입한 원표본가구원(즉, 1차 조사 당시 원표본가구에 소속되었던 가구원)을 포함한 숫자다.

〈표 2-10〉 1~17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단위: 명, %)

	전 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원수	비중	가구원수	비중	가구원수	비중
1회	1,229	6.2	854	5.1	375	12.8
2회	1,187	6.0	822	4.9	365	12.5
3회	1,144	5.8	846	5.1	298	10.2
4회	1,116	5.7	840	5.0	276	9.4
5회	1,063	5.4	803	4.8	260	8.9
6회	892	4.5	696	4.2	196	6.7
7회	868	4.4	697	4.2	171	5.9
8회	854	4.3	694	4.1	160	5.5
9회	845	4.3	713	4.3	132	4.5
10회	797	4.1	653	3.9	144	4.9
11회	798	4.1	660	3.9	138	4.7
12회	798	4.1	679	4.1	119	4.1
13회	818	4.2	729	4.4	89	3.0
14회	925	4.7	834	5.0	91	3.1
15회	1,030	5.2	966	5.8	64	2.2
16차	1,319	6.7	1,275	7.6	44	1.5
17차	3,988	20.3	3,988	23.8	0	0.0
전 체	19,671	100.0	16,749	100.0	2,922	100.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총 가구원인 17,505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3,321명이었다. 2차년도부터 원표본가구원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여 17차 조사에서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전체 표본 10,757명 중 85.0%인 9,140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1)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단위: 명)



제5절 이사 및 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1. 이사 및 분가가구의 특성

경제활동,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인구이동은 인구사회학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해야 하는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KLIPS 17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은 2014년에 새롭게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5,481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7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461가구로 분가가구를 포함한 전체 성공가구의 8.4%이다. 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는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여 17차년도 조사에서는 5.3%에 그쳤으나, 비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17차년도 조사에서는 1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1 참조).

〈표 2-11〉 이사가구의 분포

(단위: 가구, %)

	전 체			원표본가구			비원표본가구		
	전체 가구수 ¹⁾	이사가구		가구수	이사가구		가구원 수	이사가구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1차년도	5,000	-	-	5,000	-	-	-	-	-
2차년도	4,378	709	16.2	4,378	709	16.2	-	-	-
3차년도	4,142	456	11.0	4,044	439	10.9	98	17	17.3
4차년도	4,111	688	16.7	3,864	589	15.2	247	99	40.1
5차년도	4,189	718	17.1	3,798	599	15.8	391	119	30.4
6차년도	4,437	976	22.0	3,862	726	18.8	575	250	43.5
7차년도	4,619	868	18.8	3,862	598	15.5	757	270	35.7
8차년도	4,723	707	15.0	3,822	438	11.5	901	269	29.9
9차년도	4,862	787	16.2	3,820	464	12.1	1,042	323	31.0
10차년도	4,953	752	15.2	3,775	437	11.6	1,178	315	26.7
11차년도	5,027	712	14.2	3,709	407	11.0	1,318	305	23.1
12차년도	5,174	606	11.7	3,657	266	7.3	1,517	340	22.4
13차년도	5,235	946	18.1	3,606	470	13.0	1,629	476	29.2
14차년도	5,292	637	12.0	3,528	269	7.6	1,764	368	20.9
15차년도	5,380	488	9.1	3,517	209	5.9	1,863	279	15.0
16차년도	5,405	668	12.4	3,472	271	7.8	1,933	397	20.5
17차년도	5,481	461	8.4	3,451	183	5.3	2,030	278	13.7

주: 1) 전체 가구수는 조사성공가구수에서 당해 연도에 새로이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숫자임.

〈표 2-12〉에 따르면, KLIPS 17차년도 분가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성공 5,552가구 중 37.8%인 2,101가구가 분가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이전 차수에 분가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2,030가구이며 17차년도에 신규로 분가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7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이들 분가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비원표본가구의 비중이 2.9%에 그쳤으나,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 17차년도에는 37.8%에 이르고 있다.

〈표 2-12〉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

(단위: 가구, %)

	전체가구수	기존분가	신규분가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2차년도	4,508	-	130	130	2.9
3차년도	4,266	98	124	222	5.2
4차년도	4,248	247	135	382	9.0
5차년도	4,298	391	109	500	11.6
6차년도	4,592	575	155	730	15.9
7차년도	4,762	757	142	899	18.9
8차년도	4,849	901	126	1,027	21.2
9차년도	5,001	1,042	139	1,181	23.6
10차년도	5,069	1,178	116	1,294	25.5
11차년도	5,116	1,320	87	1,407	27.5
12차년도	5,306	1,517	132	1,649	31.1
13차년도	5,379	1,630	143	1,773	33.0
14차년도	5,403	1,763	112	1,875	34.7
15차년도	5,469	1,863	89	1,952	35.7
16차년도	5,501	1,933	96	2,029	36.9
17차년도	5,552	2,030	71	2,101	37.8

2. 비성공가구의 특성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조사 실패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조사 대상이 되는 표본을 추적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단계로 신규 주소지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조사에 실패하게 된다. 횡단면조사와 달리 패널조사에서는 이사추적 실패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방법론상의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치 파악(locating) 혹은 추적(tracking) 문제로 규정한다.

둘째, 응답자가 기존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이사추적에 성공하더라도 응답자 접촉 자체에 실패할 수 있는데, 응답자의 귀가가 늦거나, 연락처 변경으로 인해 주소가 식별되더라도 응답자 접촉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표 2-13〉 1~17차년도 비성공 사유

(단위: 가구, %)

	유효표본수	강력거절	이사추적실패	접촉불가	기타	전 체
2차년도	621	59.1	20.9	15.9	4.0	100.0
3차년도	938	66.0	17.4	15.1	1.5	100.0
4차년도	809	53.3	25.7	13.0	8.0	100.0
5차년도	1,315	46.7	23.3	12.7	17.3	100.0
6차년도	1,402	46.6	28.9	13.1	11.3	100.0
7차년도	1,435	47.0	29.8	18.5	4.7	100.0
8차년도	1,539	50.5	27.2	15.3	7.0	100.0
9차년도	1,610	51.1	29.8	7.0	12.2	100.0
10차년도	1,777	49.9	36.0	8.8	5.4	100.0
11차년도	1,907	56.6	31.8	7.3	4.2	100.0
12차년도	2,013	50.4	35.6	10.9	3.1	100.0
13차년도	2,116	42.0	37.1	18.8	2.1	100.0
14차년도	2,291	37.3	44.5	16.1	2.1	100.0
15차년도	2,381	41.3	44.3	12.4	2.0	100.0
16차년도	2,497	36.8	46.5	14.1	2.6	100.0
17차년도	2,596	38.1	46.9	12.3	2.7	100.0

주: 각 연도 거절 사례수가 기록된 유효표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셋째, 이상의 단계들을 거치더라도 응답가구가 패널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패널조사의 경우 방대한 설문 문항과 민감한 조사 내용이 반복됨에 따라 패널응답자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조사 차수가 지날수록 강력거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표본가구원의 사망, 이민 등으로 인해 표본 자체가 소멸되거나,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표 2-13>에서 2~17차년도 기간 동안 가구 비성공 사유를 살펴보면, 조사 초기에는 강력거절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이사추적 실패의 비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4차년도부터 이사추적 실패가 급증하여 강력거절을 제치고 최다 비성공 사유로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7차년도의 경우 이사추적 실패가 46.9%

〈표 2-14〉 각 비성공가구 접촉 횟수

(단위: 빈도, %)

	유효표본수	강력거절	이사추적 실패	접촉불가	기 타	전 체
2차년도	621	4.1	2.3	4.0	2.6	3.6
3차년도	938	5.4	3.5	5.8	2.3	5.1
4차년도	809	4.1	1.7	4.3	2.0	3.3
5차년도	1,315	3.9	2.8	3.8	3.4	3.5
6차년도	1,402	3.4	2.8	3.9	2.3	3.2
7차년도	1,435	3.6	2.5	3.7	1.7	3.2
8차년도	1,539	3.9	1.9	5.1	2.0	3.4
9차년도	1,610	4.1	2.7	4.5	2.6	3.6
10차년도	1,777	2.9	1.2	3.4	1.2	2.2
11차년도	1,907	2.8	2.4	3.5	1.6	2.6
12차년도	2,013	2.4	2.2	2.5	2.1	2.4
13차년도	2,115	3.6	3.3	3.2	3.5	3.4
14차년도	2,309	3.4	3.1	3.9	1.9	3.3
15차년도	2,379	3.3	3.2	3.4	3.0	3.3
16차년도	2,497	3.1	2.8	1.9	1.4	2.8
17차년도	2,596	3.4	3.3	3.6	3.0	3.4

주: 당해 연도 분기 비성공가구인 104가구는 방문 횟수가 기록되지 않음.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은 강력거절 38.1%로 나타났다.

비성공가구에 대한 면접원의 접촉 횟수는 평균 3.4회로 성공가구의 평균 면접 횟수 2.3회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2-14 참조). 성공가구의 경우 사전 전화 접촉 등을 통해 조사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일정을 조율하여 표본가구를 방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문 횟수가 1~2회에 그친다. 반면 강력거절 가구의 경우 최종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가구를 방문하여 설득과정을 거친다. 이사가구의 경우에도 방문 횟수가 적지 않은데 사전적으로 이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가구를 방문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이사가구로 확인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신규 가구원의 특성

<표 2-15>는 전체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을 보여준다. 본 표에서 가구원은 가구 조사 시 파악된 가구 구성원으로 개인조사에 성공한 개인 응답자보다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17차년도 전체 가구원은 15,419명이고, 이 중 신규 가구원은 300명으로 전체 가구원(15,419명)에서 1.9%를 차지한다.

[그림 2-2]는 비원표본가구원의 신규 추가 이유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에 따르면, 차수별로 다소간 변동은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생’으로 17차년도의 경우 46.3%(139/300명)로 나타났다. 그다음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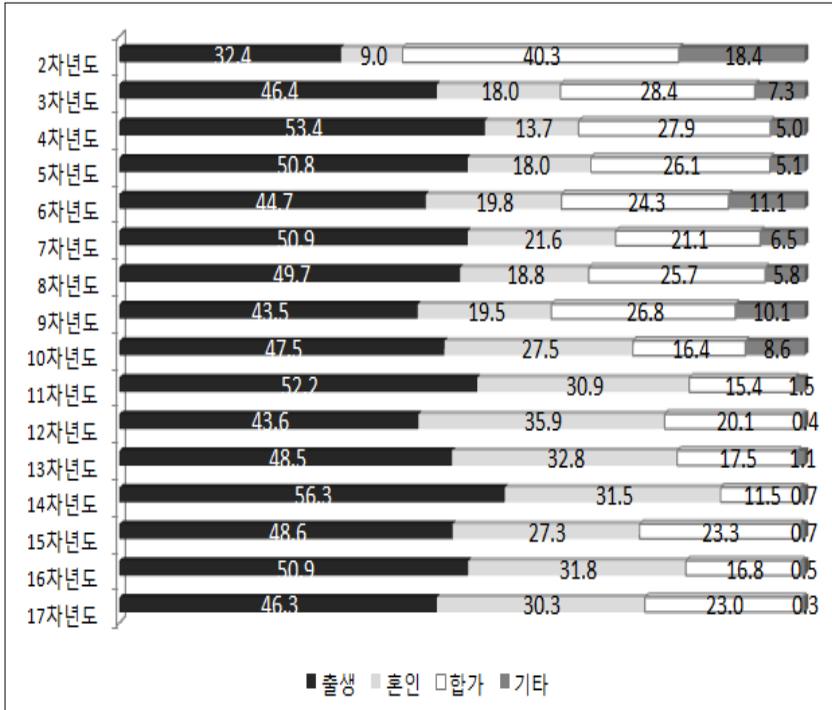
<표 2-15>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

(단위: 명, %)

	전체 가구원수	기존가구원		신규가구원		15세 이상		15세 미만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년도	17,504	17,504	100.0	0	0.0	13,853	79.1	3,651	20.9
2차년도	15,753	15,191	96.4	562	3.6	12,608	80.0	3,145	20.0
3차년도	14,662	14,338	97.8	324	2.2	11,838	80.7	2,824	19.3
4차년도	14,412	13,943	96.7	469	3.3	11,657	80.9	2,755	19.1
5차년도	14,309	13,930	97.4	379	2.6	11,636	81.3	2,673	18.7
6차년도	14,956	14,356	96.0	600	4.0	12,186	81.5	2,770	18.5
7차년도	15,253	14,747	96.7	506	3.3	12,441	81.6	2,812	18.4
8차년도	15,211	14,768	97.1	443	2.9	12,460	81.9	2,751	18.1
9차년도	15,418	14,899	96.6	519	3.4	12,693	82.3	2,725	17.7
10차년도	15,414	14,963	97.1	451	2.9	12,711	82.5	2,703	17.5
11차년도	15,214	14,745	96.9	469	3.1	12,560	82.6	2,654	17.4
12차년도	15,460	14,917	96.5	543	3.5	12,827	83.0	2,633	17.0
13차년도	15,433	14,885	96.4	548	3.6	12,825	83.1	2,608	16.9
14차년도	15,314	14,898	97.3	416	2.7	12,701	82.9	2,613	17.1
15차년도	15,390	14,983	97.4	407	2.6	12,795	83.1	2,595	16.9
16차년도	15,372	14,991	97.5	381	2.5	12,785	83.2	2,587	16.8
17차년도	15,419	15,119	98.1	300	1.9	12,863	83.4	2,556	16.6

(그림 2-2)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

(단위: %)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혼인’으로 17차년도에 30.3%(91/381명)였으며, 이전 차수에서 분가했다가 다시 원래의 가구로 합친 ‘합가’의 비중은 23.0%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2-16>과 같다. 17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15세 이상으로 파악된 가구원은 모두 12,863명이었으며 이 중 83.6%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년도의 경우 개인조사 대상자 중 96.2%가 성공하였는데, 개인조사 비중은 2차년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17차년도 개인조사 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0.7%(79명)로 이 중에서 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41.8%, 기존 가구원 중 혼인이나 합가 등의 이유로 개인조사에 추가된 개인은 58.2%(46명)로 조사되었다.

〈표 2-16〉 개인 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

(단위: 명, %)

	15세 이상 가구원	개인조사									
		성공가구원		기존가구원		신규가구원		만15세		기타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년도	13,853	13,321	96.2	13,321	100.0	0	0.0	0	-	0	-
2차년도	12,608	12,037	95.5	11,236	93.3	801	6.7	478	59.7	323	40.3
3차년도	11,838	11,205	94.7	10,738	95.8	467	4.2	322	69.0	145	31.0
4차년도	11,657	11,051	94.8	10,607	96.0	444	4.0	250	56.3	194	43.7
5차년도	11,636	10,966	94.2	10,564	96.3	402	3.7	234	58.2	168	41.8
6차년도	12,186	11,541	94.7	10,983	95.2	558	4.8	283	50.7	275	49.3
7차년도	12,441	11,661	93.7	11,217	96.2	444	3.8	256	57.7	188	42.3
8차년도	12,460	11,580	92.9	11,199	96.7	381	3.3	227	59.6	154	40.4
9차년도	12,693	11,756	92.6	11,358	96.6	398	3.4	241	60.6	157	39.4
10차년도	12,711	11,855	93.3	11,459	96.7	396	3.3	263	66.4	133	33.6
11차년도	12,560	11,734	93.4	11,342	96.7	392	3.3	257	65.6	135	34.4
12차년도	12,827	11,739	91.5	11,376	96.9	363	3.1	219	60.3	144	39.7
13차년도	12,825	11,582	90.3	11,215	96.8	367	3.2	223	60.8	144	39.2
14차년도	12,701	11,377	89.6	11,063	97.2	314	2.8	220	70.1	94	29.9
15차년도	12,795	11,444	89.4	11,125	97.2	319	2.8	212	66.5	107	33.5
16차년도	12,785	11,331	88.6	11,077	97.8	254	2.2	182	71.7	72	28.3
17차년도	12,863	10,757	83.6	10,678	99.3	79	0.7	33	41.8	46	58.2

제6절 통합표본 자료의 특성

1. 통합표본의 개요

노동패널조사는 도시 지역 5,000가구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시작되어 17차년도 현재 원가구 3,451가구와 분가가구 2,101가구가 조사되었다.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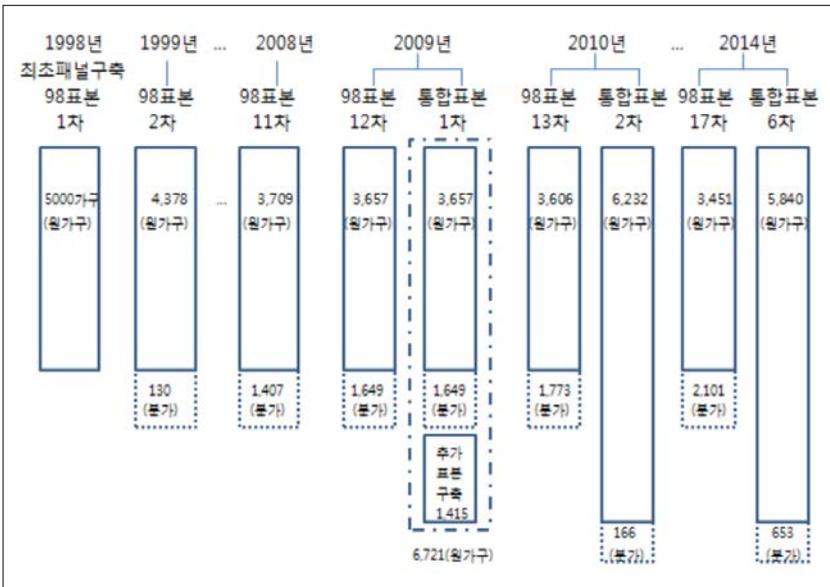
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원표본유지율은 69.0%, 원가구 중 소멸가구를 제외한 4,741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유효표본유지율은 72.8%로 높은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표 2-1 참조).

그러나 패널 이탈에 의한 표본 마모와 도시 지역 표집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9년 전국 단위의 가구로 모집단을 확장하는 표본 추가가 실시되었다.¹⁰⁾ 표본 추가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되어 총 1,415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였다. 이에 노동패널은 1차년도부터 이어온 98표본과 2009년 표본 추가를 통한 통합표본으로 두 개의 패널을 한 데이터에 동시에 가지고 있다.

통합표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2-3]을 살펴보면, 98표본은

(그림 2-3) 통합표본의 개요

(단위: 당해 연도 조사성공가구)



주: 98표본 원가구 중 2009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원가구가 다음해인 2010년에 조사된 다면, 98표본에는 포함되지만, 통합표본의 원가구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통합표본에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통합표본은 2009년도에 조사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임에 유의해야 함.

10) 표본 추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재광(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통계학과)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추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09. 3)』를 참조.

1998년부터 2014년까지 17년 동안 원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 패널이다. 통합표본은 2009년 당시 98표본 원가구 5,000가구 중 조사에 성공한 3,657가구와 분가가구 1,649가구, 추가 표본 1,415가구를 모두 합한 6,721가구가 통합표본 1차 원가구로 형성되어 2014년까지 6년 동안 조사가 실시되었다.

2. 통합표본유지율의 개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된 2009년의 추가 표본을 포함한 KLIPS 통합표본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 연도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표 2-17>과 같다. 통합표본 1차년도(2009년)에 조사된 가구는 6,721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14,489명이었다.

이후 2차년도에는 원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92.7%로 나타

<표 2-17> 1~6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통합표본)

	조사대상원가구-소멸가구	조사 성공 가구수1)	원표본 가구수2)	원표본 유지율3)	유효표본 유지율4)	분가 가구수	가구원 응답자 수5)	실사 기간
1차('09)	6,721	6,721	6,721	100.0	100.0	0	14,489	4~10월
2차('10)	6,694	6,398	6,232	92.7	93.1	166	13,641	7~11월
3차('11)	6,676	6,388	6,082	90.5	91.1	306	13,410	7~11월
4차('12)	6,641	6,434	6,016	89.5	90.6	418	13,427	6~12월
5차('13)	6,597	6,457	5,904	87.8	89.5	553	13,303	6~12월
6차('14)	6,589	6,493	5,840	86.9	88.6	653	12,595	3~10월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6,721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6,721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6,721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수.

났으나, 기존 패널이 2차년도에 13.4%포인트 감소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의 원표본유지율은 각각 90.5%, 89.5%, 87.8%, 86.9%로 매우 안정적인 원표본유지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패널조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15년 이상 축적되었고, 실사(fieldwork)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개선된 시스템과 조사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3년에 실시된 제17차 KLIPS 조사에서 통합표본은 원표본 5,840가구 및 분가한 653가구를 합하여 총 6,493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였으며, 가구 기준 원표본유지율은 86.9%로 전년도에 비해 0.9%포인트 감소하였다.

<표 2-18>은 조사 방식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면접의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 방식에서 도입된 CAPI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9>는 응답자의 본인/대리인 응답 비중을 나타내는데, 본인의 비중이 평균 95% 이상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리 응답으로 인한 데이터의 신뢰도 하락과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노동패널 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표 2-20>은 1~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평균 방문 횟수를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2.2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주별로는 평균 1

<표 2-18>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통합표본)

(단위: 명, %)

	개인 응답자수	전체 비중	면접	유치	전화	면접+ 전화	유치+ 전화	면접+ 유치	면접+ 유치+ 전화
1차년도	14,489	100.0	93.2	1.5	2.3	2.1	0.5	0.3	0.1
2차년도	13,641	100.0	94.7	0.4	2.3	2.2	0.3	0.1	0.1
3차년도	13,410	100.0	94.0	0.7	2.5	2.0	0.4	0.3	0.1
4차년도	13,427	100.0	94.4	0.4	3.9	1.2	0.1	0.0	0.1
5차년도	13,303	100.0	95.7	0.4	2.7	0.9	0.1	0.1	0.0
6차년도	12,595	100.0	96.9	0.3	2.0	0.6	0.1	0.1	0.0

〈표 2-19〉 응답자의 본인/대리인 응답 비중(통합표본)

(단위: 명, %)

	개인응답자수	전체비중	본인	대리인	본인+대리인
1차년도	14,489	100.0	91.7	3.9	4.4
2차년도	13,641	100.0	93.7	3.7	2.6
3차년도	13,410	100.0	93.5	4.2	2.3
4차년도	13,427	100.0	95.0	3.1	1.9
5차년도	13,303	100.0	95.1	3.2	1.8
6차년도	12,595	100.0	95.5	3.2	1.3

〈표 2-20〉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통합표본)

(단위: 회, %)

	사례수	평균값	표준 편차	1회	2~3회	4~5회	5회 이상	전체
1차년도	6,721	1.5	1.0	68.6	26.9	3.6	1.0	100.0
2차년도	6,397	1.3	0.7	80.6	17.1	2.1	0.3	100.0
3차년도	6,388	1.3	0.8	80.3	17.0	2.1	0.6	100.0
4차년도	6,434	1.4	0.9	76.0	21.0	2.2	0.8	100.0
5차년도	6,457	1.2	0.6	87.6	11.4	0.8	0.2	100.0
6차년도	6,493	1.5	0.9	72.2	23.9	3.3	0.6	100.0

회 방문이 72.2%, 2~3회 방문이 23.9%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적하는 조사로, 일단 표본가구가 조사를 수용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이 1~3회 방문으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3. 응답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에서 패널응답 가구의 지속응답은 조사성공률과는 또 다르게 매우 중요한 자료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고려된다.

<표 2-21>은 1~6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응답한 가구는 총

〈표 2-21〉 1~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통합표본)

(단위: 가구, %)

	전 체		원가구		비원가구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1회	458	6.1	284	4.2	174	23.6
2회	349	4.7	184	2.7	165	22.4
3회	317	4.3	185	2.8	132	17.9
4회	350	4.7	221	3.3	129	17.5
5회	514	6.9	378	5.6	136	18.5
6회	5,469	73.3	5,469	81.4	-	0.0
전 체	7,457	100.0	6,721	100.0	736	100.0

7,457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90.1%(6,721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비원가구는 9.9%(736가구)이다. 1~6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는 7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4.2%(284가구)로 나타났다.

분가가구들은 2차년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5회 이상 응답한 가구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분가가구의 경우 1회 응답가구의 비중이 23.6%인데, 여기에는 해당 연도 분가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에서 이탈한 가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표 2-22〉는 1~6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의 응답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조사가구에 포함된 가구원 중에서도 15세 미만의 가구원은 응답할 수 있는 설문지가 없기 때문에 이 표는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즉 조사성공률은 15세 이상 가구원의 비중과 그 변화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 표를 통해서 1~6차년도에 응답한 가구원의 특성을 원표본가구원과 비원표본가구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한 번 이상 응답한 개인은 16,734명이고, 조사 기간 동안 연속해서 응답한 자는 9,699명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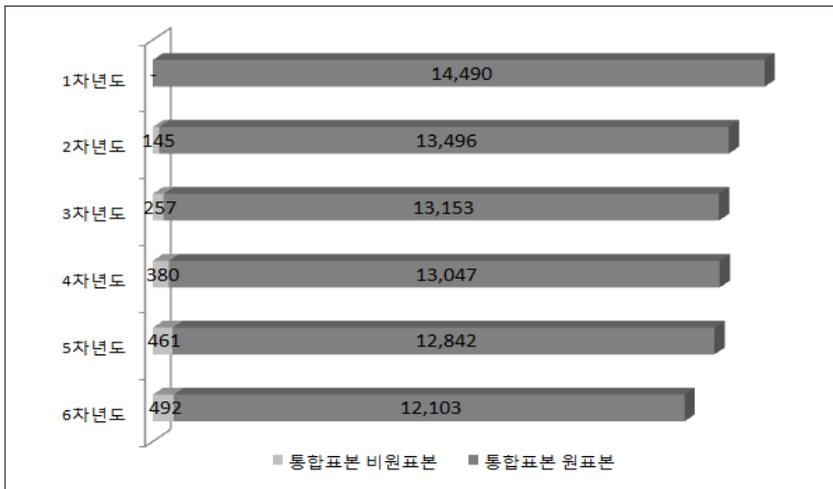
11) 개인 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1회 응답이라 하더라도 이는 6차년도에 처음으로 개인조사에 진입한 원표본가구원(즉, 1차 조사 당시 원표본가구에 소속되었던 가구원)을 포함한 숫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4]와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총 가구원인 19,046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4,490명이었다. 2차년도부터 원표본가구원의 비중은 소폭으로 감소하여 6차년도 조사에서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전체 표본 12,595명 중 96.1%인 12,103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2-22〉 1~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통합표본)
(단위: 명, %)

	전 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원수	비중	가구원수	비중	가구원수	비중
1회	1,262	7.5	1,104	6.9	158	24.8
2회	1,142	6.8	1,005	6.2	137	21.5
3회	1,285	7.7	1,143	7.1	142	22.3
4회	1,460	8.7	1,347	8.4	113	17.7
5회	1,886	11.3	1,798	11.2	88	13.8
6회	9,699	58.0	9,699	60.3	0	0.0
전 체	16,734	100.0	16,096	100.0	638	100.0

(그림 2-4)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통합표본)
(단위: 명)



4. 이사 및 분가가구의 특성

앞서 기존 패널을 소개하면서 이사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패널 자료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LIPS 17차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통합표본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는 2014년에 새롭게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6,407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6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508가구로 전체 조사성공가구(6,407가구)의 7.9%이다. 비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6차년도 조사에서는 20.3%로 나타났다.

<표 2-24>는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6차

<표 2-23> 이사가구의 분포(통합표본)

(단위: %)

	전 체			원표본가구			비원표본가구		
	전체 가구수	이사가구		가구수	이사가구		가구수	이사가구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1차년도	6,721	-	-	6,721	-	-	-	-	-
2차년도	6,231	1,039	16.7	6,231	1,039	16.7	-	-	-
3차년도	6,266	680	10.9	6,082	635	10.4	184	45	24.5
4차년도	6,331	553	8.7	6,016	474	7.9	315	79	25.1
5차년도	6,349	716	11.3	5,904	590	10.0	445	126	28.3
6차년도	6,407	508	7.9	5,840	393	6.7	567	115	20.3

<표 2-24>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통합표본)

(단위: 가구, %)

	전체가구수	기존분가	신규분가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2차년도	6,398		166	166	2.6
3차년도	6,388	184	122	306	4.8
4차년도	6,434	315	103	418	6.5
5차년도	6,457	445	108	553	8.6
6차년도	6,493	567	86	653	10.1

년도의 신규 분가가구는 86개로 전체 가구 6,493개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5. 비성공가구의 특성

<표 2-25>는 6차년도 조사 기간에 발생한 비성공 사유를 보여준다. 가장 높은 비성공 사유는 강력거절로 42.3%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이사추적 실패가 3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약 10%의 이사가구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사가구에 대한 관리 및 대책이 꽤 널 성공률 및 자료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26>은 비성공가구에 시도된 조사 과정에서 방문 횟수를 보여주는

<표 2-25> 1~6차년도 비성공 사유(통합표본)

(단위: 가구, %)

	유효표본수	강력거절	이사추적 실패	접촉불가	기 타	전 체
2차년도	462	37.0	29.4	28.6	5.0	100.0
3차년도	679	38.4	32.8	23.9	4.9	100.0
4차년도	805	43.5	34.6	19.0	3.0	100.1
5차년도	946	38.6	34.3	21.8	5.3	100.0
6차년도	1,086	42.3	32.9	18.9	6.0	100.0

주: 각 연도 거절 사례수가 기록된 유효표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표 2-26> 비성공가구 방문 횟수(통합표본)

(단위: 빈도, %)

	유효표본수	강력거절	이사추적 실패	접촉불가	기 타	전 체
2차년도	460	3.5	3.4	3.4	3.4	3.4
3차년도	695	3.5	3.4	4.0	2.2	3.5
4차년도	805	3.5	3.1	3.4	3.0	3.3
5차년도	946	3.2	2.8	1.9	1.5	2.7
6차년도	1,086	3.0	2.7	2.4	1.8	3.6

데, 6차년도에 평균 3.6회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실패한 것을 알 수 있다. 비성공가구에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은 패널조사 과정의 어려움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6. 신규 조사자의 특성

<표 2-27>은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에서 신규 가구원의 비중은 6차년도 1.8%이고, 조사 기간이 증가할수록 소폭 감소되고 있다. 신규 가구원의 증감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 2-5]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된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는 출생, 혼인, 합가로 요약할 수 있다. 6차년도 출생으로 추가된 신규 가구원은 44.2%로 나타나며, 그다음으로 혼인으로 인한 신규 가구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 <표 2-28>이다. 이 표는 가구 데이터에는 가구원으로 조사되었지만, 개인 응답을 하지 않은 가구원은 누락되어 있어 가구원 중에 신규로 진입한 구성원을 설명하는 <표 2-27>과 다른 개념임에 유의해야 한다.

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15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 가구원은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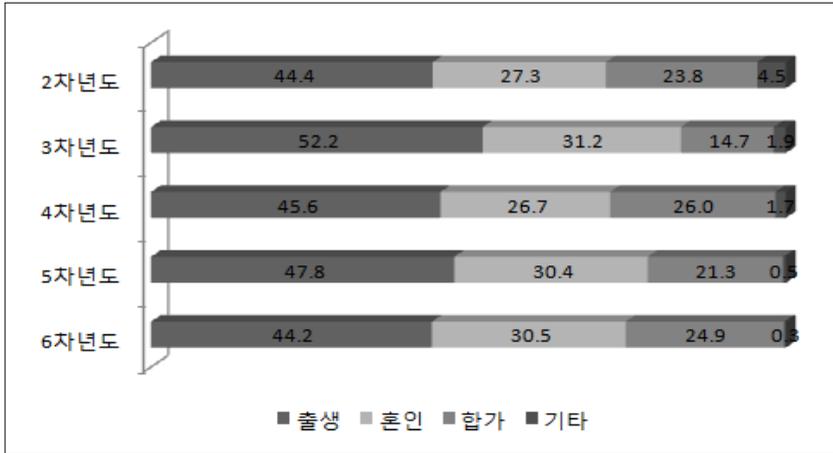
<표 2-27>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통합표본)

(단위: 명, %)

	전체 가구원 수	기존 가구원		신규 가구원		15세 이상 가구원		15세 미만 가구원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년도	19,047	19,047	100.0	-	-	15,818	83.0	3,229	17.0
2차년도	18,055	17,501	96.9	554	3.1	15,013	83.2	3,042	16.8
3차년도	17,825	17,402	97.6	423	2.4	14,864	83.4	2,961	16.6
4차년도	17,821	17,402	97.6	419	2.4	14,918	83.7	2,903	16.3
5차년도	17,779	17,375	97.7	404	2.3	14,916	83.9	2,863	16.1
6차년도	17,726	17,405	98.2	321	1.8	14,927	84.2	2,799	15.8

[그림 2-5]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통합표본)

(단위: %)



<표 2-28> 신규 조사자의 구성(통합표본)

(단위: 명, %)

	15세 이상 가구원	개인조사									
		성공가구원		기존조사자		신규조사자		만15세		기타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년도	15,818	14,489	91.6	14,489	100.0	-	-	-	-	-	-
2차년도	15,013	13,641	90.9	13,172	96.6	469	3.4	324	69.1	145	30.9
3차년도	14,864	13,410	90.2	12,986	96.8	424	3.2	318	75.0	106	25.0
4차년도	14,918	13,427	90.0	13,046	97.2	381	2.8	263	69.0	118	31.0
5차년도	14,916	13,303	89.2	12,981	97.6	322	2.4	242	75.2	80	24.8
6차년도	14,927	12,595	84.4	12,492	99.2	103	0.8	45	43.7	58	56.3

14,927명이었고, 이 중 84.4%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년도의 경우 개인조사 대상자 중 91.6%에 성공하였는데, 개인조사 비중은 2차년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6차년도 개인 조사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0.8%(103명)로 이 중에서 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43.7%, 기존 가구원 중 혼인이나 합가 등의 이유로 개인조사에 추가된 개인은 56.3%(58명)로 조사되었다.

제 3 장

조사가구의 특성

본 장에서는 17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 성공한 5,552가구(98표본)와 그 가구 구성원들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난 17년간의 노동패널조사 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변동에 대해 다룬다.

이 장에서는 98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2009년에 추가한 패널가구는 제외함). 분석 대상이 가구일 경우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단,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되는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본 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에서 가구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 같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KLIPS에서

가구원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 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 자녀의 경우와 미혼 자녀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와 기혼 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¹²⁾ 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나 가사도우미,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의 경우에는 군복무, 학업이나 직장, 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외지에 살고 있는 가구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숙식을 함께 하는 가사도우미와 하숙생은 가구원에 포함되는 점에서 KLIPS의 가구원 정의와 약간 다르다.

<표 3-1>은 연도별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수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1차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는 3.5인이었으나 차수가 지나면서 계속 감소하여 17차년도에서는 2.8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가구원수 분포는 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28.1%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1인(23%), 2인(22.4%)과 3인(19.3%)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한 반면, 1~2인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의 비중을 볼 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자료¹³⁾에서 추정된 1인 가구의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KLIPS의 경우 표본설계 당시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추출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인구센서스에 비해 과소 표집된 탓으로 보인다.

<표 3-2>에서 보듯이 조사가구의 세대 구성¹⁴⁾을 17차년도를 기준으

12) 이들은 원가구원일 경우 분가가구 및 분가가구의 가구원으로 조사된다.

13)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1인 가구 비중은 2002년 17.3%, 2003년 18.2%, 2004년 19.1%, 2005년 20.0%, 2006년 20.7%, 2007년 21.5%, 2008년 22.3%, 2009년 23.1%, 2010년 23.9%, 2011년 24.7%, 2012년 25.3%, 2013년 25.9%, 2014년 26.5%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14)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 가구 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 가구 :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이에 속한다.

2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

〈표 3-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전 체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평균 (인)
1차년도	5,000	10.2	13.1	19.4	38.0	13.8	5.5	3.5
2차년도	4,507	9.8	13.1	19.7	38.2	14.3	4.9	3.5
3차년도	4,266	10.3	13.7	19.7	37.9	13.6	4.7	3.5
4차년도	4,248	10.9	14.3	18.7	38.6	13.2	4.2	3.4
5차년도	4,298	11.2	15.3	19.3	38.3	12.3	3.6	3.4
6차년도	4,592	12.5	16.2	19.8	37.0	11.4	3.1	3.3
7차년도	4,761	13.4	16.5	20.5	36.4	10.5	2.7	3.2
8차년도	4,849	14.4	17.3	20.9	35.5	9.6	2.3	3.2
9차년도	5,001	16.2	17.9	20.2	34.4	9.1	2.2	3.1
10차년도	5,069	17.6	18.0	20.6	33.4	8.6	1.8	3.0
11차년도	5,116	18.3	19.4	21.1	31.9	7.7	1.6	3.0
12차년도	5,306	19.8	19.8	20.7	31.2	6.9	1.5	2.9
13차년도	5,379	20.2	21.2	20.4	29.8	6.9	1.4	2.9
14차년도	5,404	21.4	21.4	19.8	29.7	6.4	1.3	2.8
15차년도	5,469	22.2	21.4	19.2	29.6	6.3	1.4	2.8
16차년도	5,501	22.5	22.4	19.5	28.2	6.1	1.3	2.8
17차년도	5,552	23.0	22.4	19.3	28.1	6.0	1.2	2.8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18%를 차지하였다. 한편 1인 가구가 23%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손녀가 같이 살거나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비중은 4%였다.

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3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4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표 3-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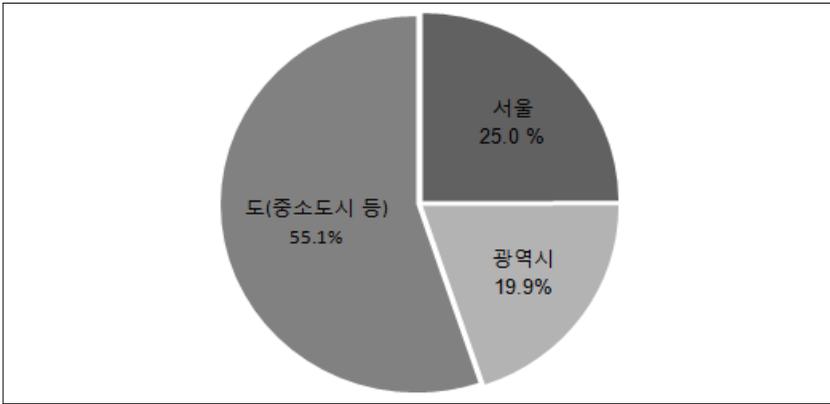
	전 체 (가구수)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가구
1차년도	5,000	10.2	10.1	69.8	9.8	0.1
2차년도	4,507	9.7	10.2	70.1	9.9	0.1
3차년도	4,266	10.2	10.7	69.6	9.4	0.1
4차년도	4,248	10.9	11.0	69.1	8.9	0.2
5차년도	4,298	10.9	11.9	68.8	8.3	0.1
6차년도	4,592	12.5	12.2	67.7	7.6	0.1
7차년도	4,761	13.4	12.1	67.6	6.8	0.1
8차년도	4,849	14.4	12.8	66.1	6.6	0.1
9차년도	5,001	16.2	13.3	64.1	6.4	0.0
10차년도	5,069	17.6	13.4	63.0	6.1	0.0
11차년도	5,116	18.3	14.1	62.2	5.4	0.0
12차년도	5,306	19.8	14.9	60.3	5.0	0.0
13차년도	5,379	20.2	16.1	58.8	4.8	0.0
14차년도	5,404	21.4	16.5	57.6	4.6	0.0
15차년도	5,469	22.2	16.8	56.7	4.4	0.0
16차년도	5,501	22.5	17.8	55.7	4.1	0.0
17차년도	5,552	23.0	18.0	55.0	4.0	0.0

세대 구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중은 1차년도 10.2%에서 17차년도 조사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23%로 나타났으나, 3세대 가구는 1차년도 9.8%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한 것(17차년도 4%)으로 나타나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은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17차년도 조사에서 3세대 가구라고 응답한 가구 중 55.1%가 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역에는 25%, 광역시 지역에는 19.9%만이 거주해 중소도시일수록 확대가족 형태를 지닌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3〉은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핵가족

(그림 3-1) 17차년도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



〈표 3-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전 체 (가구수)	핵가족 가구	가족구성 형태			1인가구	비핵가구
			부부단독	부모 + 미혼자녀	편부모+ 미혼자녀		
1차년도	5,000	74.4	9.0	59.3	6.1	10.2	15.4
2차년도	4,507	74.7	9.1	59.5	6.1	9.7	15.5
3차년도	4,266	75.0	9.6	59.0	6.4	10.2	14.8
4차년도	4,248	75.7	10.2	59.1	6.4	10.9	13.4
5차년도	4,298	75.9	10.9	58.5	6.6	10.9	13.2
6차년도	4,592	75.4	11.4	56.3	7.7	12.5	12.1
7차년도	4,761	75.5	11.3	56.2	8.0	13.4	11.1
8차년도	4,849	75.0	12.0	54.6	8.3	14.4	10.7
9차년도	5,001	73.6	12.5	53.2	8.0	16.2	10.2
10차년도	5,069	72.7	12.6	52.3	7.9	17.6	9.8
11차년도	5,116	72.6	13.2	51.3	8.1	18.3	9.1
12차년도	5,306	71.7	13.8	50.0	7.9	19.8	8.5
13차년도	5,379	71.5	15.1	48.6	7.8	20.2	8.3
14차년도	5,404	70.8	15.5	47.8	7.4	21.4	7.8
15차년도	5,469	70.2	15.9	47.4	7.0	22.2	7.6
16차년도	5,501	70.0	16.7	46.0	7.3	22.5	7.5
17차년도	5,552	69.5	16.8	45.6	7.2	23.0	7.5

이란 부부만 사는 경우(부부 단독),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미혼 자녀), 부모님 중 한 분과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편부모+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로 정의한다.

먼저 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45.6%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이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 단독 가구가 16.8%, 편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7.2%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핵가족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74.4%에서 5차년도(75.9%)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다 6차년도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17차년도에 69.5%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가구추계 자료의 경우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2000년 68.3%, 2001년 67.6%, 2002년 67.0%, 2003년 66.4%, 2004년 65.7%, 2005년 65.0%, 2006년 64.4%, 2007년 63.7%, 2008년 63.0%, 2009년 62.3%, 2010년 61.6%, 2011년 60.9%, 2012년 60.4%, 2013년 59.9%, 2014년 59.4%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KLIPS의 핵가족 비중이 약 10%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본 절에서는 KLIPS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의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¹⁵⁾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제1절에서 언급한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보듯이 KLIPS의 경우 비혈연 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5)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가계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 가구주의 특성

<표 3-4>에서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7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4세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77%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차년도 조사 이후 남성 가구주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역시나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전체 연령 계층 중 가장 높은 비중인 3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25.9%), 40대(20%) 순이었다. 7차년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40대는 20%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17차년도에는 39%까지 증가하였다.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단위: 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12차 년도	13차 년도	14차 년도	15차 년도	16차 년도	17차 년도
전 체		4,989	4,473	4,226	4,221	4,229	4,548	4,684	4,763	4,923	4,986	5,041	5,154	5,215	5,221	5,298	5,310	5,248
성 별	남 성	86.1	86.0	85.9	85.6	85.2	83.4	82.9	81.5	81.0	80.7	79.9	79.2	78.2	78.3	77.9	77.7	77.0
	여 성	14.0	14.0	14.1	14.4	14.8	16.7	17.1	18.5	19.0	19.3	20.1	20.8	21.8	21.7	22.1	22.3	23.0
혼인 상태	미 혼	6.5	5.9	6.2	5.7	5.9	6.5	7.1	7.6	8.6	9.2	9.3	10.7	10.7	11.5	12.0	12.4	13.3
	기혼유배우	79.7	79.6	79.0	78.8	78.5	76.2	74.6	72.8	71.4	70.6	69.7	68.1	67.7	67.0	66.6	65.7	64.8
	기혼무배우	13.7	14.5	14.8	15.5	15.6	17.3	18.3	19.6	20.1	20.2	20.9	21.2	21.6	21.5	21.4	21.9	21.8
연령	30세 미만	6.3	4.9	4.2	4.4	4.0	4.4	4.1	4.5	4.5	4.5	4.5	5.2	5.2	4.8	4.6	4.6	5.2
	30대	26.9	26.6	25.1	22.7	22.2	21.6	20.9	19.4	18.6	17.8	16.6	16.2	16.2	16.5	15.7	14.8	13.9
	40대	28.5	28.1	28.4	29.6	28.6	28.6	28.0	26.9	26.1	25.9	25.3	24.5	23.0	21.7	20.8	20.3	20.0
	50대	20.0	20.1	20.4	20.1	20.3	20.2	21.4	22.4	23.1	23.1	23.3	23.3	23.5	24.5	25.1	25.7	25.9
	60세 이상	18.3	20.3	21.9	23.3	24.9	25.2	25.7	26.8	27.7	28.7	30.3	30.7	32.1	32.6	33.9	34.6	35.0
	평균(세)	46.8	47.6	48.3	48.9	49.4	49.6	50.1	50.6	51.0	51.4	52.0	52.1	52.4	52.9	53.3	53.9	54.0
교육 수준	무 학	6.3	6.3	6.3	6.0	6.0	5.8	5.6	5.6	5.4	5.2	5.2	5.0	4.9	4.8	4.6	4.5	4.3
	고졸 미만	33.7	33.6	33.6	34.7	33.5	31.9	31.2	31.0	30.0	29.3	28.8	27.7	26.9	25.8	25.1	24.8	24.0
	고 졸	34.9	34.4	34.4	32.8	32.8	32.6	31.8	31.3	31.1	30.5	29.2	29.1	28.8	28.8	28.7	28.8	28.3
	대재 및 중퇴	2.8	2.7	2.4	2.6	2.4	2.7	3.1	3.0	3.3	3.5	3.6	3.8	3.5	3.6	3.9	4.0	4.5
	(전문)대졸 이상	22.3	23.1	23.4	23.9	25.3	27.0	28.3	29.1	30.2	31.6	33.3	34.4	36.0	37.1	37.7	38.0	39.0

2. 가구원의 특성

여기서는 개인 설문과 신규 조사자 설문에 응답한 15세 이상 가구원 10,757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표 3-5>는 15세 이상 가구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여성의 비중이 51.4%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조사 차수가 반복되면서 51% 정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 17차년도 조사에서도 여성이 51.7%, 남성이 48.3%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47.6세로 나타났다. 17차년도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은 25.8%로 1차년도(13.5%)에 비해 12.3%포인트 높아진 반면 15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차년도(10.9%)에 비해 5%포인트가 하락한 5.9%로 나타났다. 조사 초기에는 개인 응답자의 주연령대가 30대와 40대이지만 차수가 지날수록 30대와 40대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50대와 60대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17차년도에는 30대가 14%이고 60대 이상은 25.8%로 나타났다.

가구원들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과 고졸 미만이 각각 26.9%와 2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무학력자의 비중은 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고학력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1차년도에 12.2%에 불과하던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17차년도에 23.2%까지 증가하였다.

〈표 3-5〉 1~17차년도 조사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12차 년도	13차 년도	14차 년도	15차 년도	16차 년도	17차 년도
전 체		13,321	12,037	11,205	11,051	10,966	11,541	11,661	11,580	11,756	11,855	11,734	11,739	11,582	11,377	11,444	11,331	10,757
성별	남 성	48.6	48.2	48.3	48.3	48.6	48.4	48.7	48.5	48.6	49.0	48.9	49.0	49.0	48.8	48.9	49.2	48.3
	여 성	51.4	51.8	51.7	51.7	51.5	51.6	51.3	51.5	51.4	51.0	51.1	51.0	51.0	51.2	51.1	50.9	51.7
연령	15~19세	10.9	10.8	9.8	9.1	8.6	8.5	8.5	8.5	8.5	8.8	9.3	8.9	8.7	8.7	8.4	7.7	5.9
	20~24세	9.3	8.7	9.0	9.4	8.9	8.8	8.4	7.2	7.0	6.6	6.3	6.3	6.4	6.4	6.8	7.7	7.0
	25~29세	10.9	10.5	10.2	9.9	9.4	9.8	9.3	9.6	9.4	9.2	8.9	9.0	8.0	7.2	6.8	6.8	7.0
	30~39세	23.0	22.6	22.1	21.2	21.4	20.7	20.5	19.7	18.7	18.4	17.3	16.9	17.1	16.9	15.6	15.0	14.0
	40~49세	19.6	19.6	19.9	20.8	20.8	21.1	21.3	21.4	21.3	21.0	20.9	20.6	19.9	19.3	19.1	18.1	18.7
	50~59세	12.8	12.9	13.2	13.2	13.6	13.9	14.5	15.3	16.2	16.4	16.9	17.3	17.7	18.8	19.6	20.5	21.7
	60세 이상	13.5	14.9	15.8	16.3	17.3	17.4	17.5	18.3	18.9	19.6	20.5	21.0	22.2	22.9	23.8	24.2	25.8
	평균(세)	39.7	40.3	40.8	41.2	41.8	42.0	42.3	42.9	43.4	43.7	44.1	44.4	44.9	45.5	45.9	46.3	47.6
혼인 상태	미 혼	28.8	28.7	28.9	28.9	28.4	29.1	29.1	28.9	29.2	29.7	29.8	30.1	29.5	29.1	29.1	29.3	26.7
	기혼유배우	62.7	62.3	62.1	62.0	62.1	61.1	60.7	60.4	59.9	59.3	59.0	58.6	58.9	59.4	59.5	59.0	61.3
	기혼무배우	8.5	9.0	9.0	9.2	9.5	9.9	10.1	10.7	11.0	11.0	11.2	11.3	11.6	11.5	11.3	11.7	12.1
교육 수준	무 학	6.5	6.6	6.4	6.0	6.0	5.6	5.3	5.2	5.0	4.7	4.6	4.4	4.1	4.1	4.1	3.6	3.5
	고졸 미만	35.5	34.8	34.2	34.3	33.3	32.1	31.6	31.5	31.2	30.5	30.5	29.6	29.0	28.2	27.3	26.6	25.1
	고 졸	31.9	31.9	31.9	30.2	30.1	29.4	28.8	28.7	28.0	27.7	26.5	26.5	26.5	26.2	26.5	26.4	26.9
	대재 및 중퇴	8.5	8.4	8.3	9.2	8.8	9.0	9.1	8.4	8.9	9.3	9.3	9.3	9.1	9.2	9.4	10.3	10.0
	전문대졸	5.4	5.8	6.3	6.8	7.4	8.0	8.4	8.9	8.9	9.2	9.8	10.1	10.6	10.7	10.8	10.9	11.3
	대졸 이상	12.2	12.5	12.9	13.5	14.5	15.9	16.8	17.3	18.0	18.7	19.3	20.2	20.7	21.6	22.0	22.2	23.2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KLIPS의 조사 대상 가구에는 매년 가구원의 출생·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의 진입 및 유학, 군 입대, 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의 인구변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¹⁶⁾

먼저, 출생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2~17차년도 기간 동안 총 출생아는 3,122명이며, 각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2차년도 148명, 3차년도 121명, 4차년도 191명, 5차년도 150명, 6차년도 217명, 7차년도 205명, 8차년도 172명, 9차년도 186명, 10차년도 214명, 11차년도 245명, 12차년도 238명, 13차년도 268명, 14차년도 235명, 15차년도 198명, 16차년도 195명, 17차 13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차, 7차, 10차년도의 경우에는 여아의 출생이 남아보다 많았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 연도에는 남아의 출생이 여아의 출생보다 많았다.

다음으로 2~17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사망한 표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다. 총 사망자는 1,115명으로 이 중에서 2차년도 사망자가 64명, 3차년도 59명, 4차년도 92명, 5차년도 60명, 6차년도 80명, 7차년도 72명, 8차년도 80명, 9차년도 76명, 10차년도 54명, 11차년도 63명, 12차년도 70명, 13차년도 89명, 14차년도 65명, 15차년도 73명, 16차년도 75명, 17차년도 43명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각 연도별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전체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59.4%(662명)로 여성 40.5%(452명)에 비해 약 19%포인트 정도 높다. 17차년도를 기준으로 사망 당시의 연

16) 이 절의 분석에서도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KLIPS에서 부여되는 개인 단위의 가중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2~17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출생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개인가중치가 부여될 수 없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개인조사에서 당연히 누락되므로 역시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표 3-6〉 2~17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단위: 명, %)

	전체	남성	여성	남성비율	여성비율
2차년도	148	74	74	(50.0)	(50.0)
3차년도	121	64	57	(52.9)	(47.1)
4차년도	191	86	105	(45.0)	(55.0)
5차년도	150	84	66	(56.0)	(44.0)
6차년도	217	113	104	(52.1)	(47.9)
7차년도	205	100	105	(48.8)	(51.2)
8차년도	172	92	80	(53.5)	(46.5)
9차년도	186	108	78	(58.1)	(41.9)
10차년도	214	103	111	(48.1)	(51.9)
11차년도	245	141	104	(57.6)	(42.4)
12차년도	238	131	107	(55.0)	(45.0)
13차년도	268	135	133	(50.4)	(49.6)
14차년도	235	125	110	(53.2)	(46.8)
15차년도	198	107	91	(54.0)	(46.0)
16차년도	195	99	96	(50.8)	(49.2)
17차년도	139	72	67	(51.8)	(48.2)
	3,122	1,634	1,488	(52.3)	(47.7)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대비 비중임.

령을 살펴보면, 사망 당시 50세 미만이었던 가구원의 비중은 11.6%이며, 50~59세가 2.3%, 60~69세는 20.9%, 70~79세는 32.6%, 80세 이상은 32.6%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2차년도 사망자는 65.5세였는데, 이후 증감을 되풀이하며 17차년도에는 72.8세로 나타났다. 표본수가 많지 않아 사망자의 연령이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3-8〉을 통해 17차년도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질병이 5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환이 37.2%, 사고 및 기타가 11.6%로 조사되었다.

〈표 3-7〉 2~17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단위: 명, %)

		전체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12차 년도	13차 년도	14차 년도	15차 년도	16차 년도	17차 년도
전 체		1,115	64	59	92	60	80	72	80	76	54	63	70	89	65	73	75	43
성별	남 성	662 (59.4)	44 (68.8)	36 (61.0)	41 (44.6)	36 (60.0)	50 (62.5)	51 (70.8)	47 (58.8)	47 (61.8)	34 (63.0)	34 (54.0)	38 (54.3)	58 (65.2)	31 (47.7)	42 (57.5)	49 (65.3)	24 (57.1)
	여 성	452 (40.5)	20 (31.3)	23 (39.0)	51 (55.4)	24 (40.0)	30 (37.5)	21 (29.2)	33 (41.3)	29 (38.2)	20 (37.0)	29 (46.0)	32 (45.7)	31 (34.8)	34 (52.3)	31 (42.5)	26 (34.7)	18 (42.9)
사망 당시 연령	50세 미만	132 (11.8)	12 (19.1)	6 (10.3)	10 (10.9)	12 (20.0)	15 (18.8)	11 (15.3)	7 (8.8)	8 (10.5)	3 (5.6)	5 (7.9)	8 (11.4)	11 (12.4)	7 (10.8)	5 (6.9)	7 (9.3)	5 (11.6)
	50~59세	109 (9.8)	6 (9.5)	6 (10.3)	12 (13.0)	6 (10.0)	8 (10.0)	12 (16.7)	11 (13.8)	5 (6.6)	5 (9.3)	4 (6.4)	6 (8.6)	12 (13.5)	5 (7.7)	5 (6.9)	5 (6.7)	1 (2.3)
	60~69세	213 (19.1)	18 (28.6)	15 (25.9)	11 (12.0)	10 (16.7)	21 (26.3)	16 (22.2)	14 (17.5)	18 (23.7)	8 (14.8)	16 (25.4)	13 (18.6)	12 (13.5)	7 (10.8)	10 (13.7)	15 (20.0)	9 (20.9)
	70~79세	305 (27.4)	14 (22.2)	17 (29.3)	26 (28.3)	23 (38.3)	14 (17.5)	20 (27.8)	19 (23.8)	18 (23.7)	13 (24.1)	18 (28.6)	22 (31.4)	26 (29.2)	19 (29.2)	17 (23.3)	25 (33.3)	14 (32.6)
	80세 이상	354 (31.7)	13 (14.1)	14 (24.1)	33 (35.9)	9 (15.0)	22 (27.5)	13 (18.1)	29 (36.3)	27 (35.5)	25 (46.3)	20 (31.8)	21 (30.0)	28 (31.5)	27 (41.5)	36 (49.3)	23 (30.7)	14 (32.6)
평균연령		-	65.5	69.3	70.7	66.9	67.2	65.4	72.3	72.5	75.4	72.5	71.7	69.7	73.9	75.8	72.5	72.8

주: 1) 사망 시기를 응답하지 않아 사망 당시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명 있음(2차 1명, 3차 1명).

2) 17차년도에서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1명 있음.

〈표 3-8〉 2~17차년도 사망자의 사망 원인

(단위: %)

	노 환	질 병	사 고	기 타
2차년도	45.3	40.6	10.9	3.2
3차년도	50.9	37.3	11.8	0.0
4차년도	53.3	40.2	6.5	0.0
5차년도	44.4	48.2	7.4	0.0
6차년도	43.8	46.6	9.6	0.0
7차년도	33.3	50.0	5.6	11.1
8차년도	40.0	52.5	5.0	2.5
9차년도	51.3	36.8	7.9	4.0
10차년도	55.6	38.9	3.7	1.9
11차년도	54.0	42.9	0.0	3.2
12차년도	37.1	50.0	12.9	0.0
13차년도	42.7	46.1	11.2	0.0
14차년도	47.7	36.9	13.9	1.5
15차년도	49.3	43.8	5.5	1.4
16차년도	37.3	52.0	9.3	1.3
17차년도	37.2	51.2	9.3	2.3

제 4 장

가계경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17차년도(2014년)에서도 지난 조사에 이어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절 가구소득 부분에서는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지출을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부채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98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2009년에 추가한 패널가구는 제외함).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구가 중치를 사용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분석 내용의 특성상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혔다. 또한 2~17차년도의 연간총소득 및 월평균 생활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제시하였다.

제1절 가구소득

KLIPS에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원이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가구원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별히 9차년도 조사부터는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보다 세분화하여,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으로 나누어 물어보고 있다. 또한 13차년도 조사부터는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의 수급 여부도 묻기 시작하여 이전소득 총액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기타소득 또한 9차년도 조사에서는 그 항목이 대폭 늘어났으므로, 연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¹⁷⁾

한편, KLIPS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17차년도의 경우 2013년 한 해)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조사일 이전 1년간 소득으로 1997년 4월부터 1998년 11월에 걸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1. 가구의 총소득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등 모든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와의 비교 가능성을 생각하여 기타소득 중에서 보험금과 기타소득 항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당해 연도 분가한 가구의 소득은 온전한 지난해 1년간의 소득이 아니라 분가한 이후의 소득이기 때문에 낮게 추정된 소득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의 소득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⁸⁾

<표 4-1>을 통해 연도별로 가구의 연간 평균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차년도의 명목 연간 총소득은 4,460만 원(월평균 372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5만 원 정도 늘어났으나, 이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환산¹⁹⁾하면 16차년도에 비해 82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차년도(1998년)에는 2,673만 원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감소한 후, 2009년도에 4,052만 원으로 증가하였으

17) 17차년도에 조사된 기타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손해보험을 받은 금액 포함), (2) 보험금-저축성 보험의 만기지급금 및 중도해약으로 받은 금액, (3) 보험금 - 종신보험, (4) 퇴직금, (5) 증여·상속, (6) 축의금·조의금, (7) 복권이나 경마, 오락 경기 등의 당첨 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8) 교통사고나 폭설·폭우 등 재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 (9) 기타.

18) 성재민,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득자료 특성』, 『노동리뷰』 2006년 2월호(통권 14호) 참조.

19) 실질소득 = (명목소득/당해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 100으로 산출하였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조사』의 물가지수(2010년 = 100 기준)를 사용하였다.

〈표 4-1〉 연간 가구의 총소득

(단위: 만 원)

	2차년도 (1998년)	3차년도 (1999년)	4차년도 (2000년)	5차년도 (2001년)	6차년도 (2002년)	7차년도 (2003년)	8차년도 (2004년)	9차년도 (2005년)
명목소득	1,896 (0.016)	2,017 (0.020)	2,173 (0.015)	2,664 (0.018)	2,824 (0.018)	2,977 (0.017)	3,094 (0.016)	3,368 (0.018)
실질소득	2,673	2,821	2,972	3,502	3,612	3,678	3,691	3,910
	10차년도 (2006년)	11차년도 (2007년)	12차년도 (2008년)	13차년도 (2009년)	14차년도 (2010년)	15차년도 (2011년)	16차년도 (2012년)	17차년도 (2013년)
명목소득	3,587 (0.019)	3,733 (0.019)	3,675 (0.015)	3,936 (0.019)	4,012 (0.016)	4,152 (0.015)	4,315 (0.017)	4,460 (0.016)
실질소득	4,073	4,134	3,888	4,052	4,012	3,993	4,060	4,142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임.

나 이는 2006년도(4,073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후 감소하다 2013년 4,142만 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은 <표 4-2>와 [그림 4-1]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4.1%이며, 연평균 가구소득은 4,419만 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기타소득과 부동산소득이 각각 연평균 3,154만 원, 1,696만 원으로 비교적 가계소득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소득액이 가장 낮은 소득원천은 금융소득으로 연간 평균 285만 원에 불과했다. 이전소득도 연평균 431만 원으로 높지 않다. 다만, 소득액 기준이 아닌 소득 유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절반 이상의 가구(55.7%)가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해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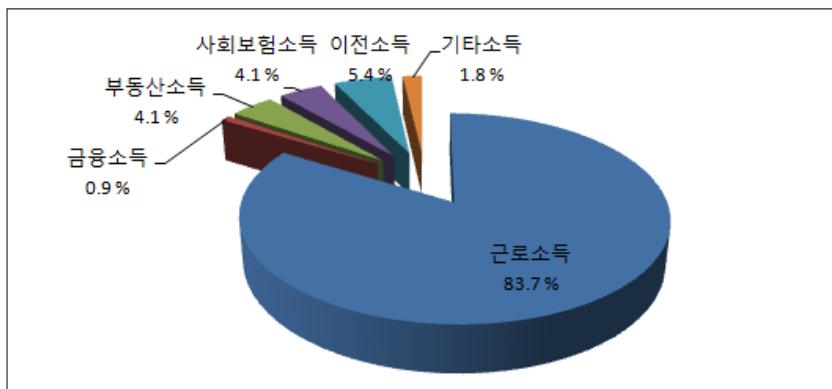
한편 가구의 전체 소득액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을 살펴보면, 역시 근로소득액이 가구총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이전소득액이 가구총소득액에서 5.4%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았다. 절반 이상의 가구가 이전소득이 있으나 총소득액에서 기여하는 정도

〈표 4-2〉 17차년도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단위: 만 원, %)

	연평균소득	해당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근로소득	4,419	84.1
금융소득	285	13.1
부동산소득	1,696	10.8
사회보험소득	861	21.1
이전소득	431	55.7
기타소득	3,154	2.6

(그림 4-1) 17차년도 가구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는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금융소득은 가구총소득 중 0.9%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가구지출

이 절에서는 17차년도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지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KLIPS에서 가구지출은 작년 한 해(17차년도의 경우 2013년) 동안 소비한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생활비는 월평균 교육

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동시에 혼수 장만, 교통사고 보상금 등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된다. 4차년도 조사부터는 1~3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월평균 생활비 외에 세부항목별 생활비를 묻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외식비,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TV·케이블 TV·위성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용돈, 피복비,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기타 생활용품비 등이다. 이 중 용돈 항목은 5차년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고, 6차년도 조사에는 피복비 항목, 그리고 7차년도 조사에는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9차년도 조사부터는 용돈 항목을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으로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11차년도 조사부터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로 각각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다.

저축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반저축,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저축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 조사부터 세부항목별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예·적금, 개인연금,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계, 기타로 구성되었다. 이후 9차년도 조사부터는 종신보험 항목을, 10차년도 조사부터는 적립식 펀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1. 생활비

<표 4-3>은 2~17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를 제시하였다.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16차년도)에 비해 3만 원 정도 상승하여 17차년도에는 23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의 증가폭은 5차년

〈표 4-3〉 2~17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전 체	4,469	4,242	4,193	4,267	4,546	4,740	4,795	4,943
50만 원 미만	16.7	15.6	13.9	11.6	10.8	9.5	8.9	9.0
50만~100만 원 미만	34.9	31.1	28.7	21.2	20.2	18.3	17.6	16.6
100만~150만 원 미만	28.4	25.9	28.0	26.3	23.9	21.3	21.0	20.0
150만~200만 원 미만	11.3	14.5	15.5	19.0	18.6	19.7	18.5	17.5
200만~250만 원 미만	5.8	7.8	8.0	11.6	12.8	13.8	14.8	14.7
250만~300만 원 미만	1.1	2.3	2.5	4.8	5.6	6.9	7.2	7.9
300만 원 이상	1.8	2.8	3.4	5.5	8.0	10.6	12.0	14.3
월평균 생활비(만 원) (변동계수)	101 (0.009)	108 (0.010)	118 (0.011)	137 (0.011)	151 (0.011)	163 (0.011)	169 (0.011)	177 (0.011)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	16차년도	17차년도
전 체	5,022	5,103	5,237	5,319	5,318	5,398	5,423	5,507
50만 원 미만	8.6	7.0	7.2	6.8	7.1	6.2	6.1	5.0
50만~100만 원 미만	16.1	15.6	13.6	14.2	13.4	12.4	11.7	12.3
100만~150만 원 미만	18.1	16.9	15.7	16.3	14.9	15.3	15.2	14.0
150만~200만 원 미만	16.3	16.5	15.7	15.4	14.2	13.7	13.5	15.2
200만~250만 원 미만	14.3	15.0	15.2	13.9	14.7	14.4	14.9	13.8
250만~300만 원 미만	9.6	9.6	10.3	9.6	9.0	9.7	9.3	9.5
300만 원 이상	17.0	19.5	22.3	23.7	26.8	28.2	29.4	30.3
월평균 생활비(만 원) (변동계수)	190 (0.011)	193 (0.012)	203 (0.011)	206 (0.012)	217 (0.012)	223 (0.012)	227 (0.012)	230 (0.012)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임.

도가 전년 대비 19만 원 증가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비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비계층은 2차년도 16.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7차년도 조사에서는 5%까지 감소한 반면, 월 25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계층은 2차년도에는 2.9%에 불과했으나 차수가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하여 17차년도에는 3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²⁰⁾을 살펴보면(표 4-4 참조), 월평균 식비는 38만 원으로, 식비가 전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16.4%)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월평균 공교육비는 9만 원, 사교육비는 월평균 15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9차년도부터 세분화하여 질문하고 있는 월평균 용돈의 경우에는 같이 사는 부모님은 1만 원, 자녀는 8만 원, 그 외 가구원은 2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의 액수가 적은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9차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생필품 구입비는 월평균 5만 원으로 전체 생활비의 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도 13만 원을 지출하여 꽤 높은 편에 속한다. 12차년도부터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각각 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저 축

17차년도 조사가구 중에서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9.2%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63만 9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5 참조).

2~17차년도 기간 동안 저축을 한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2차년도는 52.1%로 다소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5차년도에는 73.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6차년도에는 65.4%로 감소한 후 다시 소폭 상승하다가 11차년도와 12차년도에 감소한 후 다시 13차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월평균 저축액의 변화는 2차년도 24만 6천 원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11차년도에 47만 원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7차년도에는 63만 9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17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저축 목적을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

20) 한국노동패널 2, 4~17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 생활비 항목 외에도 각각의 생활비 항목별 액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체 생활비'는 항목별 생활비의 합계를 기준(100%)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표 4-4〉 17차년도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

(단위:만 원,%)

	항목별 월평균 생활비	생활비에서의 비중
식비	38	16.4
외식비	11	4.6
공교육비	9	5.8
사교육비	15	5.8
차량유지비	20	8.4
주거비	21	8.9
경조사비	7	3.2
보건의료비	6	2.8
문화비	8	3.6
내구재	3	1.1
통신비	13	5.7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1	0.2
자녀 용돈	8	4.8
그 외 가구원의 용돈	21	9.3
피복비	7	3.3
현금 및 기부금	4	1.9
국민연금	9	4.2
의료보험	9	4.2
대중교통비	5	2.4
생필품구입비	5	2.2
기 타	2	1.1
전체 생활비	222	100.0

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전체 응답가구 중 43.9%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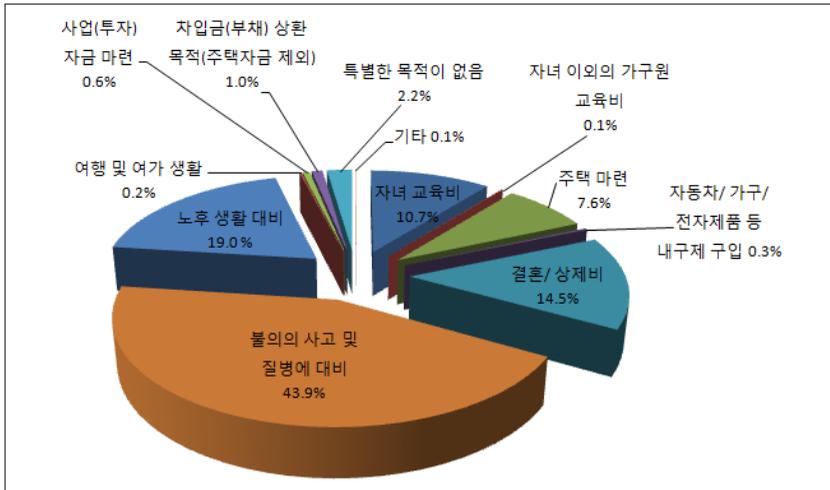
다음으로는 '노후 생활 대비'와 '결혼/상제비'가 각각 19%와 14.5%로 이들 세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5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비'는 10.7%,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가구의 비중은 7.6%로 나타났다.

〈표 4-5〉 2~17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단위: 가구, %, 만 원)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전 체	4,507	4,266	4,247	4,298	4,592	4,761	4,849	5,001
저축안함	47.9	48.6	31.1	26.9	34.6	35.2	31.8	31.6
저축함	52.1	51.4	68.9	73.1	65.4	64.8	68.2	68.4
월평균 저축액	24.6	28.6	34.1	41.7	40.9	43.1	44.3	45.3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	16차년도	17차년도
전 체	5,069	5,116	5,306	5,379	5,404	5,469	5,501	5,552
저축안함	31.0	40.2	43.0	41.5	39.0	36.7	34.8	30.8
저축함	69.0	59.8	57.0	58.5	61.0	63.3	65.2	69.2
월평균 저축액	51.9	47.0	47.6	48.6	51.8	56.8	62.1	63.9

(그림 4-2) 17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이 절에서는 따로 사는 가족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KLIPS는 4차년도 이후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에 관해 조사해 왔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존재 여부, 부모님과

의 왕래 빈도, 경제적 교류 여부,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할 뿐,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교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9차년도 조사부터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과의 교류에 관한 설문을 추가하여, 가구의 사적 이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던 8차년도 이전 조사와는 달리 9차년도부터는 현금 교류액과 현물 교류액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었는지는 <표 4-6>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27.4%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경우는 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81.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86.4%, 89.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35.5%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교류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교류 액수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연간 평균 372만 4천 원,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218만 8천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금액 또한 472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

<표 4-6> 17차년도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단위 : 가구, %)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주는 도움
전 체	2,784		2,379		2,108	
없었음	72.6	13.6	73.5	10.1	18.5	64.5
있었음	27.4	86.4	26.5	89.9	81.5	35.5

〈표 4-7〉 17차년도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단위: 만 원)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주었던 금액
지난해 연간총금액	372.4	182.3	218.8	128.3	341.7	472.0
현 금	319.4	159.2	167.1	107.8	300.6	419.8
현 물	53.0	23.1	51.7	20.5	41.2	52.1

먼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렸던 금액은 각각 182만 3천 원, 128만 3천 원에 그쳤으며,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 또한 341만 7천 원에 그쳐 큰 편차를 보였다. 이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에게 이전되는 소득의 경우 적은 액수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형태인 데 반해,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은 결혼자금, 학자금과 같이 목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대체적으로 현물보다는 현금을 통한 교류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액이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액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절 주거형태 및 비용

이 절에서는 17차년도 패널가구의 주거형태와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주거와 관련해 입주형태 및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및 전·월세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오게 된 동기를 묻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입주형태는 자가·전세·월세·기타로 구분되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²)을 초과하는 4층 이상의 주택

을 의미한다. 또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²) 이하의 4층 이하의 주택을, 상가주택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을 뜻한다.

자기 집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과 연건평,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인 경우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기재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의 평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의 경우 월세금을 기재하게 한 것은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약 전세금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 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가 아닌지 재차 확인하게 하였다. 월세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평수와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먼저 <표 4-8>을 통해 17차년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59.3%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전세 19.3%, 월세 15.6%로 나타났다. 2~17차년도 입주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자의 비중이 2차년도 57.2%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다가 12차년도에 58.8%로 하락한 후 59%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전·월세의 비중은 2차년도 38.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17차년도에는 34.9%(3.5%포인트 감소)로 나타났다.

[그림 4-3]을 통해 거주지별 자가의 평균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지면적의 경우, 도 지역이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원이나 마당, 차고 같은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실제 주거 공간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도 지역의 대지면적은 평균 107.5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60.5평, 서울은 44.5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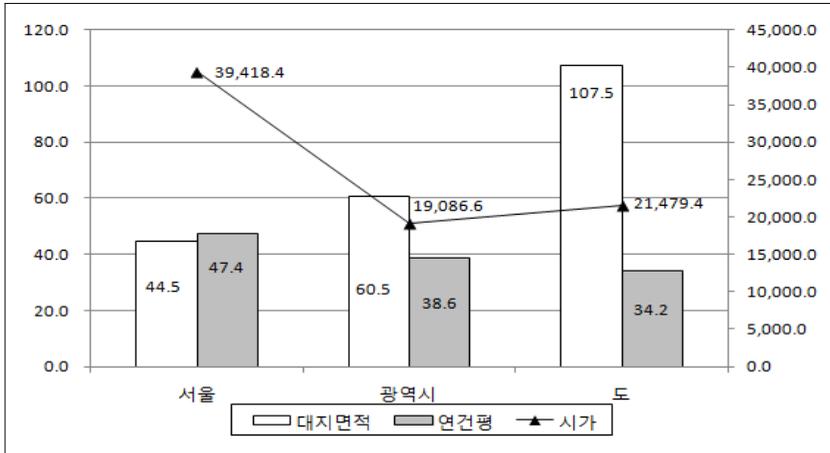
〈표 4-8〉 2~17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전 체	4,507	4,266	4,248	4,298	4,592	4,761	4,849	5,001
자 가	57.2	57.3	59.5	60.5	61.6	61.5	61.7	60.9
전 세	29.7	30.2	28.4	27.3	23.4	22.5	22.6	22.0
월 세	8.7	8.2	7.5	7.2	9.0	10.4	11.1	11.6
기 타	4.3	4.4	4.6	5.0	6.0	5.6	4.7	5.6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	16차년도	17차년도
전 체	5,069	5,116	5,306	5,379	5,404	5,469	5,501	5,552
자 가	60.6	60.8	58.8	58.9	59.3	59.3	59.1	59.3
전 세	20.8	21.4	22.7	22.5	20.1	19.2	19.2	19.3
월 세	12.8	12.5	12.8	12.2	14.2	15.1	15.3	15.6
기 타	5.9	5.4	5.7	6.4	6.5	6.4	6.4	5.9

〔그림 4-3〕 17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단위: 평, 만 원)



을 합계한 면적인 연건평은 서울이 가장 넓은 47.4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와 도 지역은 각각 38.6평, 34.2평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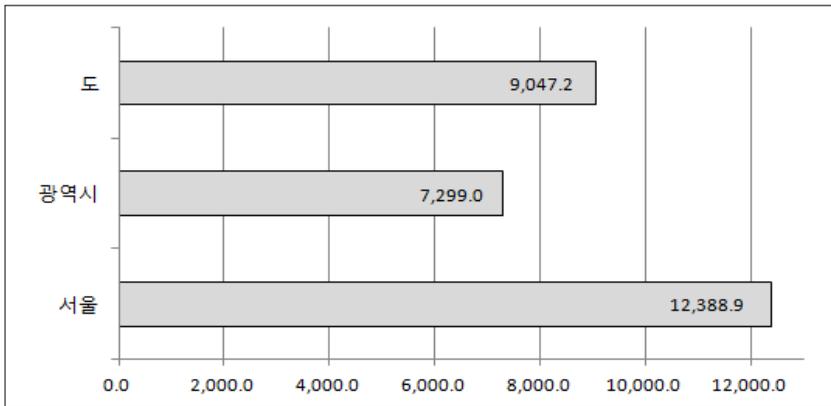
주거지의 시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3억 9,418만 원인 데 비해, 광역시는 서울의 48%정도에 해당하는 1억 9,087만 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도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2억 1,479만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4-4], [그림 4-5]는 거주지가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전·월세금을 비교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 거주 응답자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 2,389만 원으로 광역시(7,299만 원)보다 59% 정도 높으며, 도 지역(9,047만 원)보다도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월세 거주자의 거주지별 보증금/월세를 살펴보면, 월세는 서울이 월 35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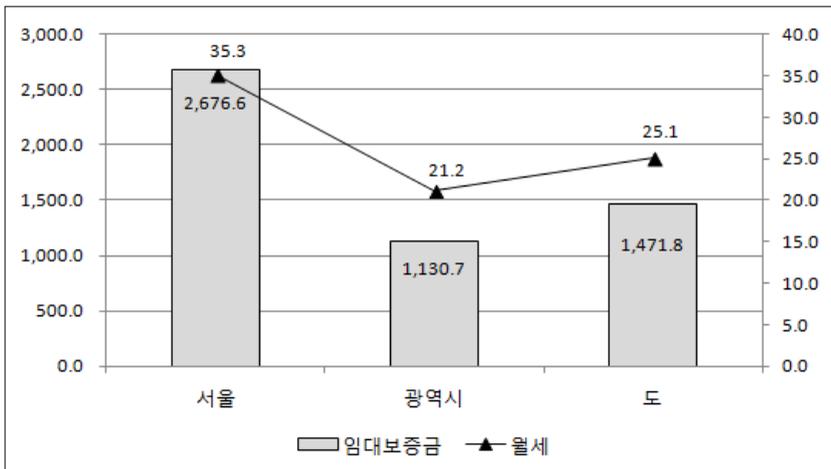
(그림 4-4) 17차년도 거주지별 전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단위: 만 원)



(그림 4-5) 17차년도 거주지별 월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

(단위: 만 원)



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도와 광역시가 각각 25만 1천 원과 21만 2천 원으로 두 지역 간에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서울의 월세계약 임대보증금은 평균 2,676만 6천 원으로 광역시(약 2.4배)나 도(약 1.8배)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높았다.

2. 주택의 종류

<표 4-9>는 2~17차년도 주택 종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7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이 22.9%를, 다세대주택이 11.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립주택의 비율이 10.1%로 다세대주택과 비슷한 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차년도부터 기타에서 분

<표 4-9> 2~17차년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전 체	4,507	4,266	4,248	4,298	4,592	4,761	4,849	5,001
단독주택	38.4	37.8	38.0	36.5	36.5	34.4	32.6	30.0
아파트	33.7	34.7	35.7	37.4	39.8	41.9	43.6	43.8
연립주택	7.9	8.0	7.9	7.7	7.5	8.4	8.8	8.5
다세대주택	15.2	14.6	11.9	12.2	10.0	10.0	10.9	13.4
상가주택	-	-	-	-	-	-	3.4	3.5
기 타	4.9	4.8	6.6	6.1	6.2	5.3	0.6	0.9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	16차년도	17차년도
전 체	5,069	5,116	5,306	5,379	5,404	5,469	5,501	5,552
단독주택	29.4	27.6	28.0	26.4	25.9	24.6	24.0	22.9
아파트	45.3	46.4	46.8	48.5	48.8	49.0	49.8	50.0
연립주택	8.8	9.2	10.7	10.5	10.8	10.8	10.5	10.1
다세대주택	11.9	12.5	9.9	10.0	9.6	10.9	11.0	11.8
상가주택	3.3	3.4	3.4	3.1	3.5	3.4	3.2	3.0
기 타	1.3	0.9	1.2	1.6	1.5	1.4	1.5	2.2

주: 상가주택은 8차년도 조사부터 세분화하여 절문한 항목으로, 이전 연도 조사에서는 기타로 분류되어 왔음.

리하여 질문하고 있는 상가주택은 3.0%를 차지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주택 종류별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파트 거주자가 2차년도 33.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차년도에 이르러 16.3%포인트 증가한 50%인 반면에, 나머지 주택의 거주자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단독주택 비중의 감소(1980년 89.2% → 2010년 39.6%), 아파트의 비중 증가(1980년 4.9% → 2010년 47.1%)라는 추세가 KLIPS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주거지의 선택

11차년도 조사부터는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하게 된 동기를 묻고 있다. 이 문항은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이동이 발생할 경우 그 주된 동기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며, 이사를 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살아왔다’로 응답을 받는다. <표 4-10>은 17차년도 응답가구들이 현재 거주지로 이사 온 동기를 응답빈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사 동기 세 가지를 살펴보면, ‘내집 마련’이 31.7%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와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가 각각 14.1% 및 9.3%로 나타났다.

<표 4-10> 17차년도 가구의 현재 거주지로의 이사 동기

이사 동기	비중(%)
내집 마련	31.7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	14.1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9.3
신혼집 마련	6.7
현재 다니는 직장/학교의 통근 편의를 위해	6.3
취업/창업	6.3
환경 및 건강 때문에	5.2
동일직장 내 근무지 이동	5.0
보육 혹은 부모봉양 때문에,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기 위해	4.6

〈표 4-10〉의 계속

이사 동기	비중(%)
어려서부터 살아왔다	3.1
인근의 편의시설 때문에(마트, 공원, 복지시설 등)	2.9
자녀 교육 때문에	2.0
집값이 오를 것이라 여겨져서	1.8
기 타	1.1
전 체	100.0

제4절 자산 및 부채

이 절에서는 17차년도 응답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 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소득이나 지출 문항과는 달리 해당 연도의 현재를 기준(17차년도의 경우 2014년 현재)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동산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KLIPS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대 여부)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대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패널조사에서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있는지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갯돈 등을 포함한다.

1. 부동산자산

먼저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17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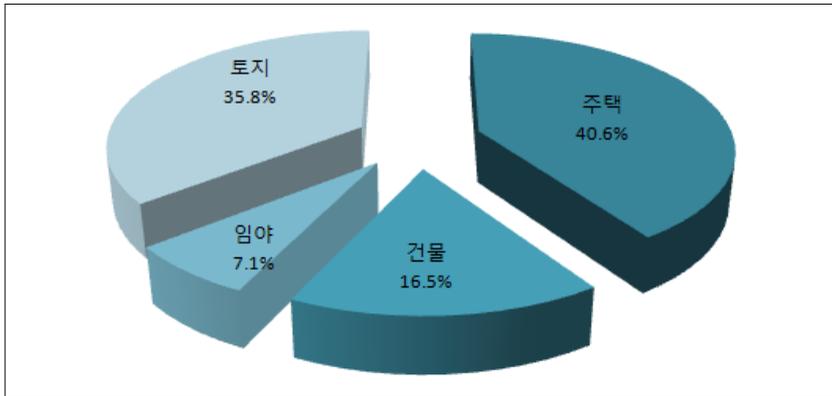
21.7%로 전년도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참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에 대한 시가 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17차년도의 경우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8.2%로 전년도에 이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시가가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2차년도에 1.5%에서 10

〈표 4-11〉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전 체	4,507	4,266	4,247	4,298	4,592	4,761	4,849	5,001
부동산 소유여부								
없 음	78.7	80.0	77.7	77.7	78.7	78.5	76.8	76.1
있 음	21.4	20.0	22.3	22.3	21.3	21.5	23.2	23.9
1천만 원 미만	8.7	6.2	8.3	5.8	6.8	6.1	4.3	3.0
1천~5천만 원 미만	28.9	33.1	27.8	24.0	28.5	21.6	22.2	19.0
5천~1억 원 미만	24.2	24.6	26.5	26.4	19.0	18.9	18.1	18.3
1억~3억 원 미만	28.4	26.3	26.6	31.1	28.8	30.2	32.0	34.3
3억~5억 원 미만		5.2	4.4	6.0	7.2	9.5	10.1	10.8
5억~10억 원 미만	3.6	2.3	2.8	4.0	5.9	7.3	7.6	8.7
10억 원 이상	1.5	1.3	1.7	1.8	2.9	3.3	4.4	4.8
잘 모르겠음	4.7	1.0	2.0	0.8	0.9	3.2	1.4	1.1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	16차년도	17차년도
전 체	5,069	5,116	5,306	5,379	5,404	5,469	5,501	5,552
부동산 소유여부								
없 음	75.9	75.8	76.6	77.7	78.2	77.5	78.1	78.3
있 음	24.1	24.2	23.4	22.3	21.8	22.5	21.9	21.7
1천만 원 미만	4.2	3.1	3.0	2.9	2.6	1.7	1.4	0.9
1천~5천만 원 미만	15.7	16.8	14.2	14.1	10.7	14.4	11.2	11.6
5천~1억 원 미만	20.5	17.6	20.4	17.5	18.4	17.8	16.4	16.8
1억~3억 원 미만	30.8	32.2	33.1	36.1	34.0	32.6	37.4	38.2
3억~5억 원 미만	10.9	12.2	12.7	13.4	15.0	16.4	16.4	14.5
5억~10억 원 미만	9.7	11.0	9.2	10.7	12.7	10.7	10.3	11.9
10억 원 이상	7.7	7.1	7.3	5.2	6.7	6.5	6.8	6.1
잘 모르겠음	0.5	0.1	0.1	0.1	-	0.0	-	-

[그림 4-6] 17차년도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주: 이 항목은 복수설문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차년도에는 7.7%로 가장 높았으나, 17차년도에는 6.1%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부동산 시가가 3억~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3차년도와 4차년도에 각각 7.5%, 7.2%에 그치던 것이 5차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12차년도에 감소(11차년도 대비 1.3%포인트)한 후 다시 증가하여 17차년도에는 26.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7차년도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에 대한 조사 문항은 가구당 최대 5개 종류까지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6]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주택으로 전체 응답 중 40.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토지가 35.8%, 건물이 16.5%, 임야가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금융자산

<표 4-12>를 통해서 17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11차년도가 58.9%로 가장 낮은 비중이며, 17차년도는 71.6%로 나타나, 금융자산의 추세는 11차년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7차년도, 11차년도와

〈표 4-12〉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전 체	4,492	4,243	4,198	4,276	4,575	4,737	4,793	4,971
없음	28.7	35.0	34.0	33.6	36.5	38.9	34.5	37.8
250만 원 미만	15.6	12.7	14.8	12.4	11.8	12.0	10.8	9.9
250만~500만 원	8.6	7.5	6.0	5.6	5.3	5.7	5.6	6.1
500만~1,000만 원	12.7	12.5	12.3	11.4	10.6	9.6	11.2	10.0
1,000만~5,000만 원	27.9	26.1	25.5	27.8	27.4	24.8	27.9	25.9
5,000만~1억 원	4.4	4.1	4.4	6.2	4.8	5.4	5.8	5.6
1억 원 이상	2.0	2.1	3.1	3.0	3.6	3.7	4.2	4.6
평 균(만 원)	1,348	1,395	1,508	1,602	1,696	1,674	1,908	1,939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	16차년도	17차년도
전 체	5,023	5,116	5,267	5,364	5,404	5,423	5,435	5,458
없음	34.4	41.1	40.4	38.9	37.4	36.3	35.5	28.4
250만 원 미만	11.0	6.9	5.9	6.0	6.1	5.6	6.8	7.0
250만~500만 원	5.8	4.7	4.1	4.3	4.2	4.1	3.9	4.5
500만~1,000만 원	11.1	10.2	9.6	9.6	9.7	8.9	9.7	10.5
1,000만~5,000만 원	26.5	26.8	28.7	28.5	29.0	31.7	30.4	32.5
5,000만~1억 원	6.1	5.8	6.3	7.1	7.7	8.0	7.6	10.2
1억 원 이상	5.0	4.5	4.9	5.6	5.8	5.5	6.2	6.9
평 균(만 원)	2,103	2,080	2,098	2,229	2,303	2,218	2,411	2,957

주: 금융자산 시가 총액의 평균은 금융자산이 0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15차년도를 제외하고는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7차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증가하여 2,95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17차년도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0만 원 미만인 가구가 7%, 250만~5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4.5%, 500만~1,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보다 금융자산이 적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금융자산이 이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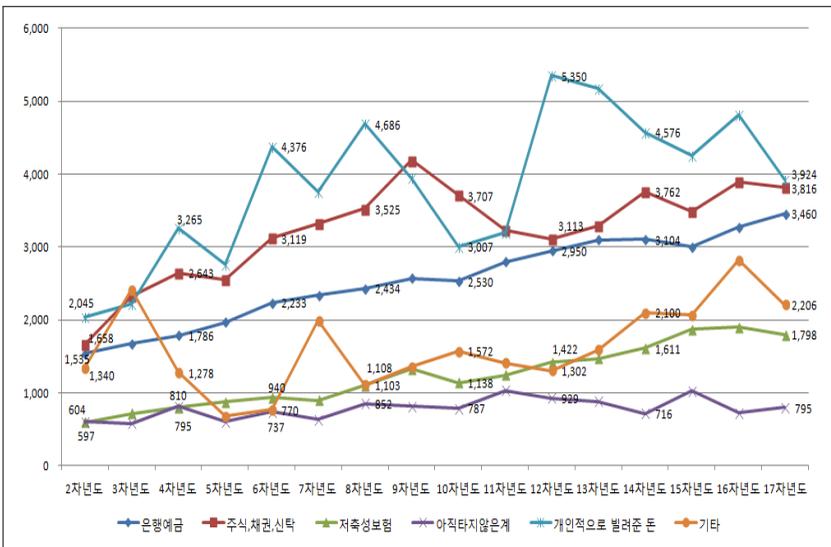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4-7]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속되어 온 완만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절대적 비중 및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7~9차년도 동안 크게 증가했던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 비중은 10차년도와 11차년에서 감소한 후 12차년도부터 다시 증가하였으나 17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84만 원 감소한 3,816만 원이었다. 한편, 은행예금은 2차년도에 1,535만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7차년도에는 3,46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과 은행예금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2차년도에는 주식/채권/신탁이 1,658만 원으로 은행예금(1,535만 원)보다 123만 원 정도 많았다. 이후 그 격차가 꾸준히 벌어지면서 9차년도에 1,618만 원으로 가장 커졌다. 12차년도에는 은행예금이 2,950만 원으로 주식/채권/신탁(3,113만 원)과의 차이가 163만 원으로 가장 작았으며, 이후 격차를 가지나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4-7) 2~17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

(단위: 만 원)



주: 해당 자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 후 계산함.

저축성보험금은 2차년도 597만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17차년도에는 1,7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7만 원 감소하였다. 한편 계의 경우에는 그 액수도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변동폭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가구의 부채

17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4.1%를 차지하여 2차년도 조사(50.7%) 당시보다 약 6.6%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반면 평균 부채 잔액의 추세를 살펴보면 3차년도(1,741만 원),

〈표 4-13〉 부채 잔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전 체	4,490	4,259	4,224	4,280	4,581	4,741	4,828	4,988
부채 없음	49.3	53.2	50.3	49.8	49.7	49.4	48.4	47.3
500만 원 미만	7.4	5.7	6.0	5.6	4.6	3.8	4.5	4.5
500만~1천만 원 미만	7.1	6.2	6.5	6.1	5.6	4.9	4.4	4.5
1천만~5천만 원 미만	26.2	26.1	26.5	26.3	25.2	24.9	25.1	23.8
5천만~1억 원 미만	6.2	6.0	6.7	7.0	8.4	9.5	9.0	10.2
1억 원 이상	3.8	2.8	4.1	5.2	6.5	7.6	8.7	9.7
평 균(만 원)	1,841	1,741	1,816	2,120	2,580	2,713	2,970	3,231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	16차년도	17차년도
전 체	5,046	5,105	5,274	5,377	5,386	5,452	5,467	5,519
부채 없음	48.0	51.7	51.1	56.7	56.0	55.5	55.7	55.9
500만 원 미만	3.9	3.0	4.8	2.3	2.6	2.5	2.2	2.3
500만~1천만 원 미만	4.5	4.2	3.6	3.3	3.4	2.9	2.6	2.4
1천만~5천만 원 미만	22.3	21.1	20.2	17.4	17.6	17.9	17.3	16.4
5천만~1억 원 미만	10.9	9.5	9.1	8.4	7.8	8.6	8.7	8.9
1억 원 이상	10.4	10.4	11.2	12.0	12.5	12.7	13.5	14.2
평 균(만 원)	3,645	3,592	3,659	3,872	4,056	4,508	4,495	4,608

주: 가구의 부채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11차년도(3,592만 원)와 16차년도(4,495만 원)에 전년 대비 약간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7차년도에는 4,608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2차년도에는 49.3%였다가 3차년도에 53.2%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10차년도부터 다시 증가하면서 13차년도에 56.7%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차년도 55.9%).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잔액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차년도에는 1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자녀 교육비

KLIPS는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KLIPS 조사가 처음 실시된 1차년도(199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하는 종류와 이용 횟수, 이용 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다섯 가지까지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사교육과 탁아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 2차년도(1999년)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고,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이 재수생 이하 자녀로, 그리고 7차년도(2004년) 조사부터는 대학(원)생 자녀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7차년도 조사에서 신설된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 항목은 학교 또는 회사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가구가 부담한 정규학교 등록금과 그 외 지출비용(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기타 교육관련 잡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등록금 외 지출비용 중 취업준비 등을 위한 사교육비를 따

로 묻고 있다. 그리고 16차년도부터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0세~만5세 이하 자녀와 만6세~재수생 자녀로 구분하였고, 0세~만5세 이하 자녀에게는 보육 및 양육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각 가구의 자녀 유무와 자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14>와 같다. 0세~만5세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7%였으며, 1명인 경우가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만6세~재수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2%였으며, 1명인 경우가 53%였으나 2명인 경우도 41.5%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17%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7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0세~만5세 이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4만 7천 원이고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 4천 원인 것으로, 만6세~재수생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2만 8천 원이고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 5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0세~만5세 이하의 경우는 23.4%이고 만6세~재수생은 72.2%에 달했으며, 특히 만6세~재수생을 둔 가정의 대부분이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1,175만 1천 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당 연평균 928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이상 자녀의 총 교육비 중 정규학교 등록금만 살펴보면 가구당 연평균 617만 1천 원, 자녀당 연평균

<표 4-14> 17차년도 가구 내 자녀 유무 및 자녀수

(단위: %)

		0세~만5세 이하	만6세~재수생	대학생 이상
자녀 유무	있음	8.7	22.0	17.0
	없음	91.3	78.0	83.0
자녀수	1명	74.7	53.0	74.6
	2명	24.2	41.5	24.3
	3명 이상	1.1	5.5	1.1

〈표 4-15〉 17차년도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

(단위: %)

		0세~만5세 이하 (월평균)	만6세~재수생 (월평균)	대학생 이상 (연평균)
(사)교육비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4.3	29.8	54.6
	약간 부담된다	19.1	42.4	30.8
	보통이다	35.0	20.9	11.2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22.3	5.8	2.3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9.3	1.1	1.1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만 원)		34.7	62.8	1,175.1 (617.1)
자녀당 평균 (사)교육비(만 원)		27.4	42.5	928.6 (487.2)

주: 괄호 안 값은 연간 정규학교 등록금임.

487만 2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경우보다도 많은 85.4%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도 절반 이상(54.6%)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구는 정규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 5 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1차년도(1998년)부터 매년 잠재적 생산가능인구인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고용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조사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14년도 제17차 KLIPS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1차년도부터 17차년도까지 1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98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2009년 추가한 패널가구는 제외하였다.

제1절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제2절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구학적 분포를,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들의 구직방법과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1절 경제활동상태

<표 5-1>은 1~17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된 개인 원표본 사례수 추이를 제시하였다.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원표본 개인에 대해서만 0을 초과하는 값이 부여되므로, 이 표는 종단면 가중치를 0보다 크게 부여받은 개인 표

〈표 5-1〉 1~17차년도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

(단위:명)

		전 체	개인 자료	신규 자료
1차년도		13,321	13,321	-
2차년도		11,708	11,236	472
3차년도		10,797	10,493	304
4차년도		10,500	10,268	232
5차년도		10,296	10,073	223
6차년도		10,658	10,382	276
7차년도		10,695	10,451	244
8차년도		10,522	10,314	208
9차년도		10,591	10,378	213
10차년도		10,590	10,372	218
11차년도		10,411	10,183	228
12차년도		10,356	10,168	188
13차년도		10,322	9,952	180
14차년도		9,878	9,716	162
15차년도		9,860	9,687	173
16차년도		9,667	9,574	93
17차년도	종단 사례수	9,140	9,135	5
	횡단 사례수	10,632	10,632	75

주: 1) 1~16차년도 사례수는 종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수이며, 17차년도는 종단 사례수와 횡단 사례수를 같이 제시함. 횡단 사례수는 횡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수를 나타냄.

본수다. 조사 초기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개인 원표본 사례수도 급격히 줄었으나 그 이후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횡단면 가중치는 조사 원칙에 따라 조사된 모든 개인 표본에 부여되므로 개인 원표본보다 많은데, 17차년도의 경우 1,492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1998년 원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KLIPS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²¹⁾ 동안

21) 조사일 바로 전 주(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이 조사 대상 기간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이 있는 일을 했으면 취업자로, 일은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여,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다. 반면 KLIPS는 조사일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취업자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미취업자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였다. 이로 인해 조사일 이전 주에는 구직활동을 했지만 조사일이 있는 주에 일자리를 구해 조사 당시 일하고 있는 사람은 통계청 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KLIPS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류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류법을 적용하였다.

<표 5-2>는 조사 연도별로 경제활동상태를 요약하였다. 먼저 취업자는 조사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취업자)”, 혹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이 포함된다. 1차년도 조사 당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48.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6차년도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등락을 거듭하며 17차년도의 경우 54.5%로 조사되었다. 실업자²²⁾의 비중은 5차년도까지 하락하였다가 6차년도 이후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 12차년도에 2.3%를 기록하였으며 13차년도 이후 하락해 17차년도에는 1.6%를 기록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7차년도 현재 44.0%를 기록했다.

[그림 5-1]과 [그림 5-2]는 지난 8년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경활조사와 비교해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약 5.5%포인트

22) 현재 공식 통계에서 사용되는 실업자의 정의는 크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기준과 OECD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ILO 기준은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주 취업 가능했던 자”로 규정한 데 반해, OECD 기준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주 취업 가능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OECD 기준으로 실업률을 공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두 지표 모두 이용 가능하다.

〈표 5-2〉 1~17차년도 경제활동상태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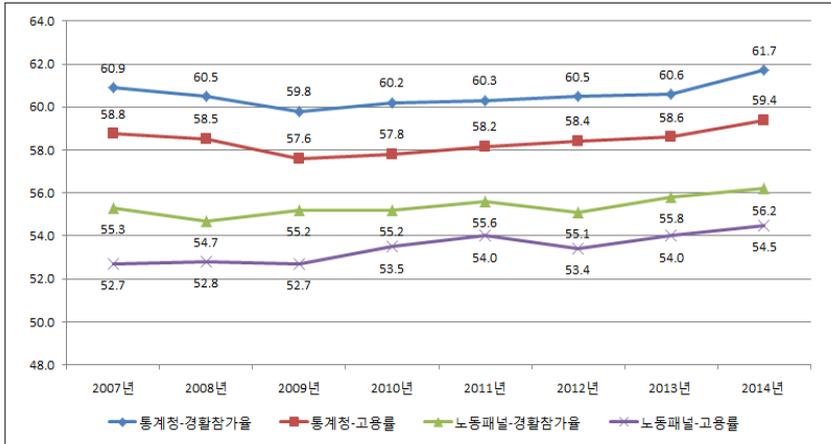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차년도	48.3 (48.3)	7.6 (9.4)	44.1 (42.3)
2차년도	51.7 (51.7)	3.8 (4.5)	44.5 (43.8)
3차년도	51.3 (51.3)	2.4 (2.9)	46.3 (45.8)
4차년도	52.3 (52.3)	2.1 (2.6)	45.6 (45.2)
5차년도	53.8 (53.8)	2.0 (2.3)	44.2 (43.9)
6차년도	53.3 (53.3)	2.4 (2.8)	44.3 (44.0)
7차년도	53.2 (53.2)	2.6 (3.1)	44.2 (43.8)
8차년도	52.7 (52.7)	2.7 (3.2)	44.5 (44.1)
9차년도	52.9 (52.9)	2.6 (3.0)	44.6 (44.1)
10차년도	52.7 (52.7)	2.2 (2.6)	45.1 (44.7)
11차년도	52.8 (52.8)	1.6 (1.9)	45.6 (45.3)
12차년도	52.7 (52.7)	2.3 (2.5)	45.0 (44.8)
13차년도	53.5 (53.5)	1.4 (1.7)	45.1 (44.8)
14차년도	54.0 (54.0)	1.3 (1.6)	44.7 (44.4)
15차년도	53.4 (53.4)	1.4 (1.8)	45.2 (44.9)
16차년도	54.0 (54.0)	1.6 (1.8)	44.4 (44.2)
17차년도	54.5 (54.5)	1.6 (1.7)	44.0 (43.8)

- 주: 1) ILO 기준 실업자 정의. 괄호 안은 OECD 기준 실업자 정의.
 2) 합쳤을 때 100.0이 안 되거나 넘는 경우는 모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들임.
 3) 비중은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100.0이 되도록 계산되어 있으므로, 실업자는 15세 이상 인구 중 실업자 비중이지 실업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
 4)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

트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실업률은 0.7%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5-1) 최근 8년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비교(2007~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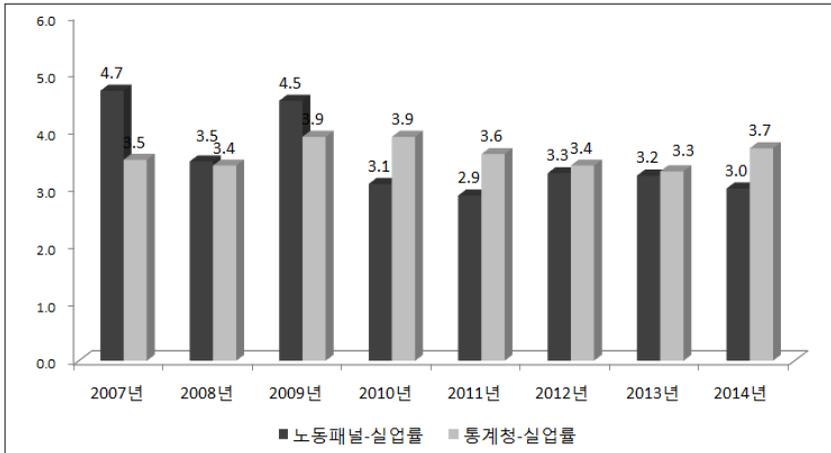
(단위: %)



- 주: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 비농가부문임. 노동연구원, 「KLIPS」, 1998년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지역 기준임.
- 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 3) 고용률 = 취업자/경제활동인구×100.
- 4) 실업자를 OECD 정의에 근거해 산출했을 경우 계산되는 경제활동인구 비율.
- 5)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그림 5-2) 최근 8년간 실업률 비교(2007~14년)

(단위: %)



- 주: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임. 노동연구원, 「KLIPS」, 1998년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지역 기준임.
- 2) 실업률 = 실업자(OECD 기준)/경제활동인구×100.
- 3)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제2절 취업자의 특성

<표 5-3>과 <표 5-4>는 산업별로 KLIPS와 경찰조사의 취업자 분포

<표 5-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14년)

(단위: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	8.9	21.5	69.6
1999	8.7	21.9	69.4
2000	8.3	22.3	69.5
2001	7.6	21.1	71.3
2002	6.5	20.6	72.9
2003	6.5	19.9	73.5
2004	5.9	19.4	74.7
2005	5.8	19.6	74.6
2006	5.4	20.3	74.3
2007	5.5	19.5	75.0
2008	5.3	18.8	76.0
2009	5.2	17.7	77.1
2010	5.0	18.0	77.0
2011	5.3	18.4	76.6
2012	4.8	18.3	76.9
2013	4.7	17.8	77.5
2014	4.6	17.8	77.6

주: 1)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1998~2008년은 제8차 기준으로, 2009~14년은 제9차 분류기준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므로 시계열 연결이 안 됨.

3) 1차 산업: 농업 및 임업, 어업을 포함.

2차 산업: 광업 및 제조업을 포함.

3차 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그리고 가사서비스업을 포함. 제9차 분류에 따라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도 포함.

4)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기.

5)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표 5-4〉 경활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14년)

(단위: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	12.0	19.7	68.2
1999	11.3	19.9	68.7
2000	10.6	20.4	69.0
2001	10.0	19.9	70.2
2002	9.3	19.2	71.5
2003	8.8	19.1	72.1
2004	8.1	19.1	72.8
2005	7.9	18.6	73.5
2006	7.7	18.1	74.2
2007	7.4	17.7	75.0
2008	7.2	17.4	75.4
2009	7.0	16.4	76.6
2010	6.6	17.0	76.4
2011	6.4	16.9	76.7
2012	6.2	16.6	77.2
2013	6.1	16.8	77.2
2014	5.7	16.9	77.3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 1998~99년은 제6차, 2000~08년은 제8차, 2009년 이후는 제9차 분류기준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므로 시계열 연결이 안 됨.

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KLIPS에서도 경활조사와 마찬가지로 1차, 2차 산업 비중은 감소하고, 3차 산업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활조사보다 농림어업 비중이 낮은 것은, KLIPS 98패널은 도시가구를 대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5〉는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 종사자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문관리직, 사무직, 생산직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은 감소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보면 전문관리직은 1998년 당시 19.1%를 차지하였으나, 이 비중이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

〈표 5-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14년)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	19.1	14.4	24.5	8.3	33.7
1999	19.0	13.8	23.0	8.1	36.1
2000	19.4	14.0	21.8	7.8	37.0
2001	20.1	14.9	21.7	7.1	36.3
2002	21.3	15.1	21.9	6.1	35.6
2003	22.5	15.6	21.1	6.1	34.6
2004	23.4	15.8	20.9	5.5	34.4
2005	23.9	16.3	20.4	5.4	34.1
2006	23.9	17.5	19.5	5.1	33.9
2007	25.0	16.4	19.9	5.2	33.6
2008	25.2	16.2	20.2	5.0	33.5
2009	23.3	16.5	22.2	4.8	33.1
2010	24.2	16.3	21.6	4.7	33.2
2011	24.0	16.2	22.1	4.7	33.0
2012	24.8	15.4	22.5	4.4	32.8
2013	24.3	16.3	22.3	4.3	32.8
2014	24.7	17	22.1	4.2	32.1

주: 1)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1998~2008년은 제5차, 2009~14년은 제6차 분류기준에 따름.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은 연결되지 않음.

3) 전문관리직에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을 포함. 서비스판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농림어업직에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등을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차·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등을 포함.

4)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여 2008년에는 25.2%로 나타났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1999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1년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산직은 1998년 33.7%였다가 2008년에는 33.5%에 머물렀다. 반대로 서비스판매직은 1998년 24.5%에서 감소 추세를 보여 2008년에는 20.2%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농림어업직(1998년

8.3%→2008년 5.0%)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림어업직, 생산직은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며, 서비스판매직은 2010년 약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22%대에 머물렀다.

직업별 분포를 <표 5-6>에 제시된 경황조사의 직업별 종사자 비중과 비교해 살펴보면 연도별 추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17차년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취업자의 산업·직업 및 인구학

<표 5-6> 경황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14년)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	18.8	12.4	23.6	11.5	33.7
1999	19.1	11.3	23.7	10.7	35.1
2000	18.6	11.9	26.0	10.0	33.5
2001	19.0	12.4	26.2	9.4	33.0
2002	19.2	12.7	26.1	8.9	33.0
2003	20.1	14.3	25.2	8.3	32.2
2004	20.5	14.1	25.0	7.5	32.8
2005	20.9	14.3	24.6	7.5	32.7
2006	21.6	14.2	24.1	7.2	32.9
2007	22.2	14.1	23.8	3.9	33.0
2008	22.4	14.9	23.5	6.7	32.6
2009	21.2	15.3	23.4	6.5	33.7
2010	21.5	15.7	22.5	6.0	34.2
2011	21.5	16.5	22.1	5.9	34.1
2012	21.3	16.6	22.5	5.8	33.8
2013	21.4	16.8	22.4	5.7	33.7
2014	21.6	16.8	22.6	5.3	33.7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변경에 따라서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제5차,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준함.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은 연결되지 않음.

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자. <표 5-7>은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기타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광공업(21.4%)에, 여성의 경우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6.1%)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기타서비스업이 50대(35.4%)를 제외하고 20대 48.1%, 30대 43.6%, 60세 이상에서도 41.6%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 및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금융 및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고졸 및 고졸 미만은 광공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에 고루 분포한 반면, 고졸 이상 학력은 기타서비스업에 몰려 있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대졸 이상은 기타서비스업

<표 5-7> 17차년도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단위: %)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금융부동산	공공행정	기타서비스	전체
성별	남성	5.0	21.4	12.7	16.0	3.6	4.4	37.0	100.0
	여성	4.8	14.4	1.4	26.1	4.4	3.3	45.5	100.0
연령	15~29세	0.2	18.7	2.6	22.4	4.9	3.1	48.1	100.0
	30~39세	0.9	21.4	7.1	16.6	5.1	5.3	43.6	100.0
	40~49세	1.7	18.5	8.3	21.6	4.7	4.6	40.6	100.0
	50~59세	4.4	21.4	9.9	22.5	3.5	3.0	35.4	100.0
	60세 이상	18.9	9.3	8.1	16.9	1.5	3.7	41.6	100.0
교육수준	고졸 미만	17.5	16.2	9.3	22.3	0.8	3.4	30.5	100.0
	고졸	3.0	23.1	9.7	26.3	3.2	2.5	32.2	100.0
	대재 중퇴	2.0	11.2	6.6	21.0	2.6	11.8	44.9	100.0
	전문대졸	2.2	19.3	6.5	19.6	5.0	2.5	45.0	100.0
	대졸 이상	0.7	14.9	6.1	12.6	6.3	5.6	53.8	100.0

주: 1)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름.

2) 기타서비스업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에 절반 이상이 분포해 있었다.

<표 5-8>은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에서 서비스판매직은 여성(29.2%)이 남성(13.0%)보다 약 2배가량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생산직은 남성(42.6%)이 여성(21.0%)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는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반면, 40대~60세 이상은 생산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는 서비스판매직(24.4%)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겨우 2.6%에 불과하지만, 대졸 이상은 53.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직에는 고졸 미만의 경우 54.0%인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9.7%만 종사하고 있었다.

<표 5-8> 17차년도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단위: %)

		전문관리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생산직	전 체
성별	남 성	25.5	14.4	13.0	4.6	42.6	100.0
	여 성	26.8	18.9	29.2	4.2	21.0	100.0
연령	15~29세	40.8	25.0	18.9	0.2	15.2	100.0
	30~39세	41.5	25.3	13.9	0.3	19.1	100.0
	40~49세	28.8	17.9	19.3	1.4	32.5	100.0
	50~59세	16.6	12.5	24.4	4.2	42.3	100.0
	60세 이상	10.9	4.6	20.3	17.3	47.0	100.0
교육 수준	고졸 미만	2.6	1.7	25.9	15.8	54.0	100.0
	고 졸	9.8	12.4	26.6	2.8	48.5	100.0
	대재 중퇴	32.1	16.5	22.4	1.7	27.4	100.0
	전문대졸	34.4	23.9	16.4	2.1	23.3	100.0
	대졸 이상	53.7	25.9	10.3	0.4	9.7	100.0

주: 1)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2) 전문관리직은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포함하며, 서비스판매직은 서비스종사자 및 판매종사자를 포함하고, 생산직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포함하며, 군인은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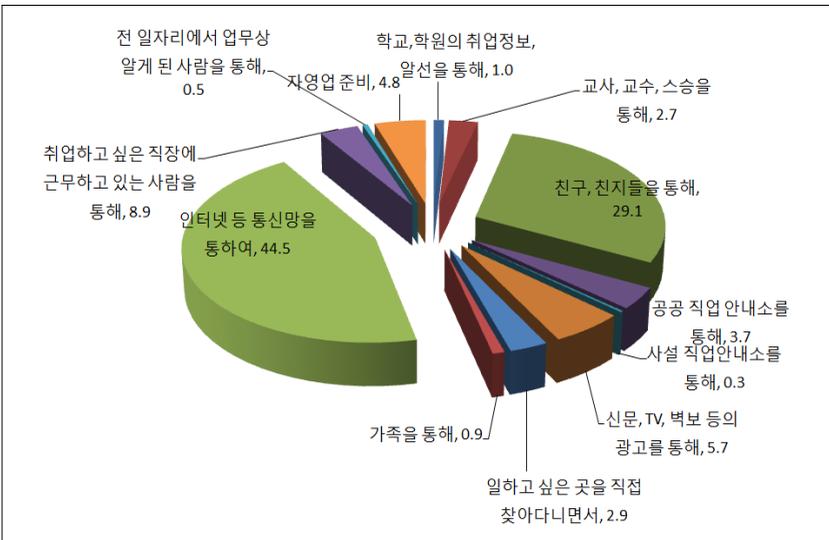
제3절 미취업자

1. 구직활동

구직방법은 구직자들이 직업탐색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3개까지 사용한 구직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구직방법 중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중심으로 미취업자의 구직행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5-3]은 미취업자의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44.5%를 차지하였으며, 친구·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다음으로 많은 29.1%를 차지했다. 취업하고 싶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이 8.9%,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5.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17차년도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미취업자들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자. 이러한 구분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공식적 구직방법, 비공식적 구직방법, 직접 접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²³⁾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학교·학원·스승의 소개, 공·사설 직업안내소, 신문,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이용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가족·친구·친지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직접 접촉이라 함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다.

<표 5-9>는 이러한 구분법에 따라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로 구직방법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

<표 5-9> 17차년도 특성별 구직방법

(단위: %)

		공식적 방법	비공식적 방법	직접 접촉	전 체
성 별	남 성	50.6	44.7	4.6	100.0
	여 성	76.2	23.0	0.8	100.0
연 령	15~29세	55.9	44.1	0.0	100.0
	30~39세	87.9	12.1	0.0	100.0
	40~49세	51.3	42.1	6.6	100.0
	50~59세	51.4	48.6	0.0	100.0
	60세 이상	38.5	39.8	21.7	100.0
교육수준	고졸 미만	34.5	45.8	19.6	100.0
	고 졸	70.6	29.4	0.0	100.0
	대재 중퇴	100.0	0.0	0.0	100.0
	전문대졸	68.0	27.9	4.0	100.0
	대졸 이상	87.8	12.2	0.0	100.0

주: 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3) 이 외에도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사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제도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직접 지원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KLIPS 5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의 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식적 방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17차년도 들어 남성보다는 여성의 공식적 방법 사용 비중이 높아졌다.

연령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공식적 방법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는 88% 수준으로 공식적 방법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거의 공식적 방법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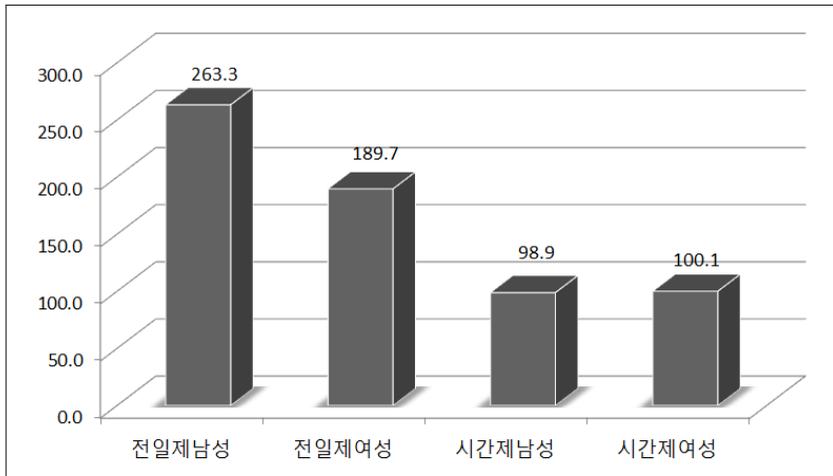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미취업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형태, 희망임금,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희망임금, 구직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5-4]에서 구직자가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임금수준을 성별·근로시간 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일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263만 3천 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희망하였으며, 전일제를 선호하는 여성은 189만 7천 원을 희망하였다. 시간제를 선호하는 경우 남성의 희망임금은 98만 9천 원, 여성의 희망임금은 100만 1천 원이었다.

[그림 5-4] 17차년도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단위: 만 원)



천 원이고 여성은 100만 1천 원을 희망하였다.

<표 5-10>에서는 미취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표에는 이와 관련된 열 가지 항목의 내용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평균 점수는 ‘(1) 매우 그렇다’부터 ‘(5)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산출되었으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사업자금 부족’ 항목에 대해 평균 2.0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자체 부족’(2.3점) 및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음’(2.5점)을 각각 지적하였다. 여성의 경우 성차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보다는 사업자금 부족, 일자리 자체의 부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미취업자가 구직 시 주로 겪는 어려움(17차년도)

(단위: 점)

	남 성	여 성	전 체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2.4	2.3	2.3
2. 취업 또는 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3.0	2.7	2.9
3.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3.0	2.9	3.0
4. 경험이 부족하다.	3.1	2.9	3.0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2.6	2.3	2.5
6.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이 맞지 않다.	3.0	2.6	2.8
7. 나이가 너무 많다.	3.1	3.1	3.1
8.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9	2.2	2.0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3.2	3.2
10.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4.1	4.3	4.2

주: 1)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의 평균 점수임.

2) 설문지상의 응답 항목 구성은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점수가 작을수록 문항에 동의한다는 뜻임.

3)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제 6 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장에서는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특성들을 살펴본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과 퇴직, 산업과 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수급 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었다. 본 장에서는 분석의 연속성을 위하여 98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2009년 추가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6-1>은 1~17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KLIPS에서 파악된 임금근로자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17차년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는 4,461명이다.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1차년도 62.4%에서 7차년도 68.1%까지 꾸준히 증가한 후 8차년도 66.2%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후 9차년도부터 다시 증가하여 17차년도 현재 취업자 중 71.9%가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 임금근로자수와 비중

(단위: 명, %)

	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표본수	남성(%)	여성(%)	
1차년도	4,012	62.9	37.1	62.4
2차년도	3,968	60.0	40.0	63.7
3차년도	3,742	60.9	39.1	64.8
4차년도	3,843	60.1	39.9	66.5
5차년도	3,975	59.6	40.4	67.2
6차년도	4,211	59.4	40.6	68.1
7차년도	4,257	59.5	40.5	68.1
8차년도	4,085	60.1	39.9	66.2
9차년도	4,300	60.2	39.8	67.9
10차년도	4,346	59.9	40.1	68.2
11차년도	4,340	59.5	40.5	68.7
12차년도	4,363	59.0	41.0	69.1
13차년도	4,484	57.9	42.1	70.4
14차년도	4,536	57.7	42.3	71.6
15차년도	4,599	56.4	43.6	71.6
16차년도	4,614	56.4	43.6	72.3
17차년도	4,461	55.7	44.3	71.9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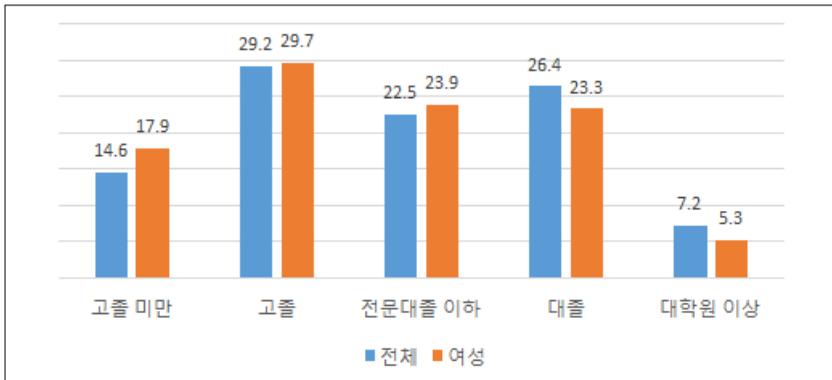
본 절에서는 17차년도(2014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본다. 본 절의 모든 분포는 임금근로자 표본 4,461명을 대상으로 계산되었으며,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의 경우 변동계수(CV)도 함께 제시한다.

먼저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자의 비중이 29.2%로 가장 높게 조

사되었으며, 대출자의 비중이 26.4%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고졸 미만, 고졸, 그리고 전문대졸 이하의 비중이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2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50대가 24.9%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20대의 비중이 전체보다 특히 높았는데(20.6%),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 시기가 빠름을 시사한다. 반면 30대 중 여성 비중이 전체보다 낮은 것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노동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시사한다.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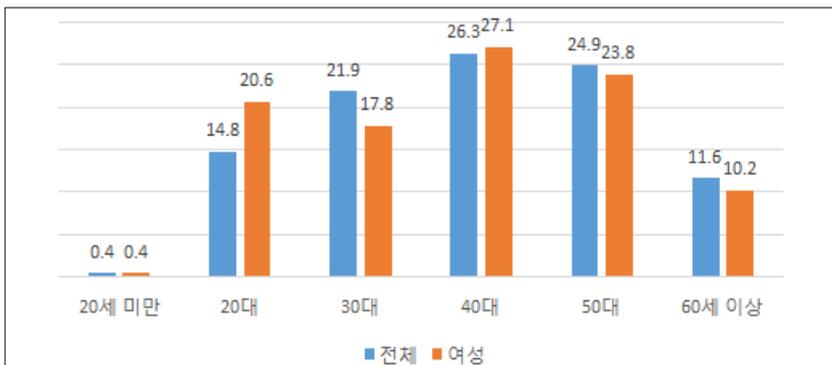
(단위: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2014년)

(단위: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타서비스업이 3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광공업이 20.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0.9%로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또한 산업별 분포의 남녀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남성은 광공업(24.8%), 기타서비스업(21.8%), 건설업(14.6%)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에, 여성은 기타서비스업(44.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1.6%), 광공업(15.4%)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생산직이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전문관리직이 26.7%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전문관리직(28.7%), 사무직(22.1%), 서비스직(24.3%)의 비중이 전체보다 높았다.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인 미만이 3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0~29인이 19.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 10인 미만에서 남성보다 특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여성 35.4%, 남성 26.5%).

기업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민간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75.2%), 정부기관이 그 뒤를 이었다(8.3%). 남녀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편, 교대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전체의 9.4%였으며, 남성이(11.3%) 여성(7.0%)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대제는 2조 2교대제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73.8%, 임시·일용직이 26.2%였다. 통계청의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된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34.9%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⁴⁾ KLIPS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 비중의 차이는 조사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퇴직금 유무 등 부가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는 등 여러 기준들을 적용하는 반면에 KLIPS에서는 고용계약기간 이외의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상용직과 일용직 비중이 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임시직 비중이 높다. 남성이 여성보다 상용직 비중이 높은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고용안정성을 누리고 있음을

2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6-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2014년)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산업	농림어업	0.8	0.7	0.8
	광공업	20.6	24.8	15.4
	건설업	8.7	14.6	1.4
	전기·가스 및 수도업	0.9	1.4	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8	11.1	21.6
	운수통신업	8.4	11.1	5.0
	금융 및 부동산업	7.7	8.2	7.0
	공공서비스업	5.5	6.3	4.4
	기타서비스업	31.7	21.8	44.2
직종	전문관리직	26.7	25.2	28.7
	사무직	20.3	18.9	22.1
	서비스직	16.9	11.1	24.3
	농림어업직	0.2	0.3	0.1
	생산직	35.8	44.6	24.9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30.4	26.5	35.4
	10~29인	19.5	18.5	20.7
	30~99인	17.4	18.5	16.1
	100~299인	11.7	12.3	10.9
	300~499인	3.3	3.6	2.8
	500인 이상	17.8	20.6	14.1
기업 형태	민간회사	75.2	77.2	72.8
	외국인회사	0.6	0.7	0.5
	공기업	6.5	6.1	7.0
	법인단체	5.7	4.2	7.6
	정부기관	8.3	7.5	9.4
	비소속	2.9	3.5	2.2
	기타	0.7	0.9	0.5
교대제 유무 및 형태	교대제 안함	90.6	88.7	92.9
	2조 2교대제	5.3	6.1	4.1
	3조 3교대제	2.3	2.5	2.0
	기타 교대제	1.9	2.7	0.9
종사상 지위	상용직	73.8	77.2	69.6
	임시직	16.3	11.1	22.7
	일용직	9.9	11.7	7.7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보여주며, 일용직 비중이 높은 것은 일용직 대부분이 산업 특성상 남성이 많은 건설업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2절 근로시간

17차년도 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 일자리에 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로시간과 주당 평균근로일수를 조사하며,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근로일수를 조사한다. 또한 초과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1. 평균근로시간

우선 평균근로시간의 연도별 추이부터 살펴보자. 평균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하였으며,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6-3>은 임금근로자들이 1998년에는 52.3시간을 근무했으나 2014년에는 44.7시간을 근무했음을 보여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대체로 음의 값을 가지고 있어 평균근로시간이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6-4>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보여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46.8시간, 여성은 41.9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주당 4.7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5.7시간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20대가 43.8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 격차는 경제

〈표 6-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

	평균근로시간	전년대비 증가율
1차년도	52.3 (0.005)	
2차년도	52.7 (0.005)	0.8
3차년도	52.2 (0.005)	-0.9
4차년도	51.1 (0.005)	-2.2
5차년도	50.9 (0.005)	-0.3
6차년도	50.5 (0.005)	-0.9
7차년도	49.9 (0.005)	-1.1
8차년도	49.3 (0.005)	-1.1
9차년도	48.7 (0.005)	-1.3
10차년도	48.5 (0.005)	-0.4
11차년도	48.1 (0.005)	-0.8
12차년도	46.3 (0.005)	-3.7
13차년도	46.4 (0.005)	0.1
14차년도	45.8 (0.006)	-1.2
15차년도	45.1 (0.005)	-1.7
16차년도	44.5 (0.005)	-1.2
17차년도	44.7 (0.005)	0.3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증가율은 $\{(\text{해당 연도} - \text{전년도}) / \text{전년도}\} \times 100$ 으로 계산.

3) 근로시간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결측으로 처리함.

활동참가율이 높은 30~40대에서 컸는데, 여성의 육아 부담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10대를 제외하면 남성은 40대가, 여성은 50대가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경우 고졸 이상의 학력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6.6시간으로 모든 학력 중 가장 길었으며, 대졸자는 43.9시간,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는 42.9시간이었다. 반면, 고졸 미만은 주당 42.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46.3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상용직 남성이

〈표 6-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2014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전 체		44.7	46.8	41.9
연령별	19세 미만	49.9	53.5	45.3
	20~29세	43.8	45.7	42.6
	30~39세	45.7	47.8	41.9
	40~49세	45.5	48.2	42.2
	50~59세	44.7	45.7	43.3
	60세 이상	41.8	45.0	36.7
학력별	고졸 미만	42.6	45.6	40.2
	고 졸	46.6	48.2	44.7
	전문대졸 이하	44.9	47.8	41.7
	대 졸	43.9	45.9	40.8
	대학원 이상	42.9	44.8	38.8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2014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상용직	46.3	47.9	44.1
임시직	41.6	47.5	37.9
일용직	37.7	39.4	34.6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47.9시간, 상용직 여성이 44.1시간으로 남녀 모두에서 상용직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1.6시간으로 상용직보다 약 4.7시간 짧았다.

〈표 6-6〉은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종·종업원 규모별 주당 평균근로 시간 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산업별로는 광공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7.8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농림어업이 41.2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는 6.6시간이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7.4시간으로 광공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성별에 따라서

〈표 6-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2014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직종별	전문관리직	42.5	44.4	40.4
	사무직	43.7	45.7	41.7
	서비스직	45.9	49.4	43.8
	농림어업직	41.1	41.1	40.9
	생산직	46.3	48.2	42.3
산업별	농림어업	41.2	44.2	37.5
	광공업	47.8	48.6	46.2
	건설업	42.6	42.8	40.4
	전기·가스 및 수도업	45.5	47.3	33.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7.4	50.0	45.8
	운수통신업	46.9	48.5	42.4
	금융 및 부동산업	45.5	49.1	40.3
	공공서비스업	41.4	43.8	37.0
	기타서비스업	41.6	45.0	39.5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45.6	47.7	43.6
	10~29인	45.4	48.3	42.0
	30~99인	44.8	46.5	42.2
	100~299인	46.1	48.4	42.7
	300~499인	45.6	48.0	41.8
	500인 이상	45.4	47.0	42.5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는 남성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50.0시간을, 여성은 광공업에서 46.2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남녀간 차이가 가장 큰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업과 금융 및 부동산업으로 적어도 8시간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46.3시간으로 가장 긴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농림어업직이 41.1시간으로 가장 짧은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록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남녀간 차이가 가장 큰 직종은 생산직으로 남성이 여성

보다 주당 5.9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299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6.1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남녀간 차이는 5.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30~99인 사업장으로(44.8시간), 남녀간 차이는 각각 6.3시간과 4.5시간이었다. 특히, 대체로 종업원 규모가 클수록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초과근로시간

여기서는 임금근로자 중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의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및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다.

<표 6-7>에서 알 수 있듯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중 27.9%만이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과근로가 대단히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과근로를 한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9.3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6-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2014년)

(단위: %)

초과근로를 안함		72.1
초과근로를 함		27.9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		9.3
초과급여 지급 안함		40.1
초과급여 지급함		59.9
초과 급여 지급 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84.6
	일정 금액	13.9
	기준 없음	1.5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천 원)		10.3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초과근로를 한 임금근로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임.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중 초과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한 것은 59.9%였다. 초과급여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84.6%가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응답하였으며, 13.9%는 ‘초과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고 응답하였다.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는 1만 3백 원으로 조사되었다.

제3절 임금

KLIPS에서는 세후소득을 중심으로 임금 지급주기와 산정방식, 수준과 내용, 그리고 성과급 적용 여부와 해당 성과급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사상 지위, 인구학적 특성, 사업체 특성별로 살펴볼 것이다.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표 6-8>에서 임금근로자의 95.1%가 ‘한 달’을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매일 지급받는다’와 ‘수시로 지급받는다’라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는 각각 3.2%와 1.2%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93.6%, 여성의 97.0%가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임금 산정방식을 살펴보자. 연봉계약제의 비중이 13.3%로 나타났다으며, 월급제의 비중은 74.1%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68.7%와 80.9%로 월급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봉제의 비중은 남성이 17.7%, 여성이 7.8%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는 성과급제 실시 여부를 임금근로자 특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성과급제를 적용받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남성이 21.3%, 여성이 12.7%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63.0%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은 2.4%로 가장 낮아 상당한 차이를

〈표 6-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2014년)

(단위: %)

		전 체	남 성	여 성
임금지급주기	한 달	95.1	93.6	97.0
	보름/주	0.3	0.3	0.2
	매 일	3.2	4.1	2.2
	수 시	1.2	1.7	0.5
	기 타	0.2	0.3	0.1
임금산정방식	연봉계약제	13.3	17.7	7.8
	월 급	74.1	68.7	80.9
	주급/격주	0.2	0.3	0.1
	일 당	7.4	9.8	4.4
	시간급제	2.6	1.5	3.9
	도급제	0.3	0.2	0.3
	실적급	2.0	1.6	2.4
	기 타	0.1	0.1	0.2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2014년)

(단위: %)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성 별	남 성	21.3	78.7
	여 성	12.7	87.3
산 업	농림어업	14.3	85.7
	광공업	21.0	79.0
	건설업	2.4	97.6
	전기·가스 및 수도업	63.0	37.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1.0	89.0
	운수통신업	26.3	73.7
	금융 및 부동산업	30.1	69.9
	공공서비스업	28.6	71.4
	기타서비스업	14.2	85.8
직 종	전문관리직	23.5	76.5
	사무직	26.2	73.8

〈표 6-9〉의 계속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직 종	서비스직	13.9	86.1
	농림어업직	15.2	84.8
	생산직	9.7	90.3
종사상 지위	상용직	21.9	78.1
	임시직	6.7	93.3
	일용직	2.4	97.6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5.2	94.8
	10~29인	8.8	91.2
	30~99인	14.1	85.9
	100~299인	22.6	77.4
	300~499인	27.4	72.6
	500인 이상	41.7	58.3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보였다. 직종별로도 사무직의 26.2%가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반면, 생산직의 9.7%만이 성과급제를 적용받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성과급제의 적용비율이 매우 낮았다.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41.7%가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규모가 작을수록 실시비율이 낮아져 10~29인 사업장은 8.8%, 10인 미만 사업장은 5.2%만이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월평균 임금

KLIPS에서는 임금 산정방식에 따른 항목별 임금수준과 “현재 이 일자리에서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월평균 임금을 세후소득으로 조사하고 있다.

〈표 6-10〉에서 지난 16년간 KLIPS에서 조사된 월평균 실질임금이 1차년도 156만 9천 원에서 2차년도 144만 6천 원으로 약 12만 원 감소한 후 3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증가하였으나 11차년도와 12차년도에는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차년도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16차년도에 212만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

(단위: 만 원, %)

	전체		남성		여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년도	111.2 (0.01)	156.9 (0.01)	131.1 (0.01)	184.9 (0.01)	77.5 (0.02)	109.3 (0.02)
2차년도	103.4 (0.01)	144.6 (0.01)	123.9 (0.01)	173.3 (0.01)	72.6 (0.02)	101.5 (0.02)
3차년도	109.6 (0.01)	150.0 (0.01)	131.0 (0.01)	179.2 (0.01)	76.4 (0.02)	104.6 (0.02)
4차년도	121.0 (0.01)	159.0 (0.01)	144.7 (0.01)	190.1 (0.01)	85.4 (0.02)	112.2 (0.02)
5차년도	131.9 (0.01)	168.7 (0.01)	157.6 (0.01)	201.5 (0.01)	93.8 (0.02)	120.0 (0.02)
6차년도	145.3 (0.01)	179.6 (0.01)	173.2 (0.01)	214.1 (0.01)	104.4 (0.02)	129.1 (0.02)
7차년도	159.0 (0.01)	189.8 (0.01)	190.4 (0.01)	227.2 (0.01)	112.7 (0.02)	134.4 (0.02)
8차년도	167.6 (0.01)	194.7 (0.01)	201.2 (0.01)	233.7 (0.01)	116.9 (0.02)	135.8 (0.02)
9차년도	179.0 (0.01)	203.2 (0.01)	215.2 (0.02)	244.2 (0.02)	124.5 (0.02)	141.3 (0.02)
10차년도	190.5 (0.02)	211.0 (0.02)	231.0 (0.02)	255.8 (0.02)	130.1 (0.02)	144.0 (0.02)
11차년도	194.7 (0.01)	206.1 (0.01)	235.3 (0.02)	249.0 (0.02)	135.0 (0.02)	142.8 (0.02)
12차년도	196.9 (0.01)	202.8 (0.01)	237.1 (0.01)	244.2 (0.01)	138.7 (0.02)	142.8 (0.02)
13차년도	204.8 (0.01)	204.8 (0.01)	247.3 (0.01)	247.3 (0.01)	146.4 (0.02)	146.4 (0.02)
14차년도	214.9 (0.01)	206.6 (0.01)	261.1 (0.02)	251.1 (0.02)	151.9 (0.02)	146.0 (0.02)
15차년도	221.6 (0.01)	208.5 (0.01)	270.5 (0.02)	254.5 (0.02)	158.6 (0.02)	149.2 (0.02)
16차년도	229.2 (0.01)	212.8 (0.01)	278.0 (0.02)	258.1 (0.02)	166.1 (0.02)	154.3 (0.02)
17차년도	236.7 (0.01)	217.1 (0.01)	284.2 (0.02)	260.8 (0.02)	176.9 (0.02)	162.3 (0.02)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100)

3) 종단면 가중치 적용전 수치임.

8천 원을 기록,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기 전인 10차년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월평균 실질임금의 등락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롯된 경기침체로 인해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7차년도 월평균 실질임금은 217만 1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의 17차년도 월평균 명목임금은 176만 9천 원으로 남성의 62.2%에 불과했다.

월평균 임금의 변동은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²⁵⁾에서 조사된 것과

25)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년 12월 보고서.

다소 차이가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월평균 임금액은 319만 원인 데 비해 KLIPS에서는 236만 2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KLIPS에서 조사된 월평균 임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한 이유는 첫째, KLIPS는 세금 공제 후의 임금을 조사하는 반면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금대장에 의거 세전 임금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사대상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KLIPS는 가구 조사로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개인들의 임금을 조사하므로 1인 이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14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의 월평균 임금 통계는 사업체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비농부문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²⁶⁾의 모든(상용, 임시·일용) 근로자가 조사대상이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근로자 1~4인 규모의 사업체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표 6-11>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연령과 교육수준별로 보여 준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40대가 345만 8천 원으로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30대가 224만 8천 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남성은 20~29세에서 196만 6천 원으로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았고, 여성은 19세 미만에서 114만 9천 원으로 가장 낮았다.

월평균 임금은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은 294만 8천 원으로 고졸자의 205만 9천 원보다 43.2%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미만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3만 7천 원으로 고졸자의 64.9%에 불과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고용형태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표 6-12>에서 볼 수 있듯이,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268만 9천 원으로 임시직은 상용직의 54.7%, 일용직은 52.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은 산업별과 직종별, 그리고 기업체 특성별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337만 3천 원으

26)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999년 이전에는 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가 조사대상이었으나, 1999년부터는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조사하였고, 2007년부터는 조사명칭을 「사업체노동력조사」로 변경하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2014년)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연 령	19세 이하	161.5	199.0	114.9
	20~29세	185.3	196.6	178.3
	30~39세	257.0	275.2	224.8
	40~49세	273.1	345.8	186.5
	50~59세	251.2	315.3	164.4
	60세 이상	151.5	186.4	96.8
학 령	고졸 미만	133.7	167.9	104.8
	고졸	205.9	252.7	148.6
	전문대졸 이하	225.9	269.0	177.1
	대졸	294.8	328.0	243.0
	대학원 이상	393.1	443.5	289.6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2014년)

(단위: 만 원)

		월평균 임금	
		평균액(천 원)	상대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직	269.0	100.0
	임시직	147.0	54.7
	일용직	142.2	52.9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상대임금은 상용직 근로자를 100으로 하여 계산.

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고, 금융부동산업과 운수통신업이 각각 285만 8천 원과 283만 3천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포는 남녀간 차이가 있는데, 남성의 경우 광공업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분포와 유사한 평균임금을 보이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 운수통신업이 244만 6천 원으로 가장 높고 금융부동산업과 공공서비스업이 각각 217만 5천 원과 209만 7천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2014년)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산 업	농림어업	198.7	302.3	76.0
	광공업	264.2	319.2	153.4
	건설업	230.2	234.2	178.8
	전기·가스 및 수도업	337.3	366.6	142.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82.0	230.0	150.9
	운수통신업	283.3	296.9	244.6
	금융부동산업	285.8	332.3	217.5
	공공서비스업	268.2	300.4	209.7
	가사서비스업	216.3	271.1	182.6
직 종	전문관리직	295.3	357.6	227.3
	사무직	286.5	344.5	224.4
	서비스직	179.3	250.7	138.5
	농림어업직	201.5	217.1	109.3
	생산직	193.9	228.9	116.1
종업원규모	10인 미만	173.0	199.2	147.8
	10~29인	205.0	249.7	153.6
	30~99인	237.7	280.3	174.5
	100~299인	258.1	304.2	191.4
	300~499인	308.5	360.6	223.2
	500인 이상	362.2	428.2	238.1
기업형태별	민간회사	228.5	276.0	165.3
	외국인회사	409.8	418.5	394.0
	공기업	285.2	380.8	180.6
	법인단체	252.8	335.5	197.1
	정부기관	285.8	314.4	256.7
	소속이 없음	145.5	165.2	106.8
	기 타	180.7	202.6	129.9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임금수준은 직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임금수준은 다른 직종에 비해 적어도 40% 이상 높았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는데,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은 362만 2천 원, 10인 미만 사업장과 10~29인 사업장의 임금은 각각 173만 0천 원과 205만 0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기업형태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외국인회사가 409만 8천 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고, 정부기관이 285만 8천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민간회사는 소속 없음과 기타를 제외하면 228만 5천 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보였다.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KLIPS는 고용형태에 대한 설문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5차년도부터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문항들을 설문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차년도부터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자기선언적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그리고 근로계약기간 유무 등을 조사해 왔으며, 5차년도부터는 임금근로자의 호출근로(혹은 일용대기근로) 여부와 취업자의 근로지속성 여부, 향후 근로지속가능기간,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 파견 및 용역근로 여부, 독립도급근로 여부, 가내근로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또한 15차년도부터는 10차년도 부가조사의 고용형태에 대한 다양한 문항들이 설문에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본 절에서는 상술한 조사항목들을 이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²⁷⁾

27) 노동패널은 16차년도까지 별도의 기준을 이용하여 비정규직을 분류해 왔으나, 17차년도부터는 노사정 합의문의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을 분류하였다.

1. 비정규직의 규모

<표 6-14>는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포를 보여준다.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36.4%였다. 28.7%의 한시적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8.7%의 시간제근로자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전형근로자는 전체의 14.1%를 차지했으며, 그중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은 7.4%의 일일근로자였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각각 2.1%와 3.7%로 조사되었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중 비정규직 비중은 대부분의 고용형태에서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중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다. 예외적으로 남성 중 비전형근로자 비중은 여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일일근로자 비중은 여성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3]은 KLIPS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먼저 KLIPS에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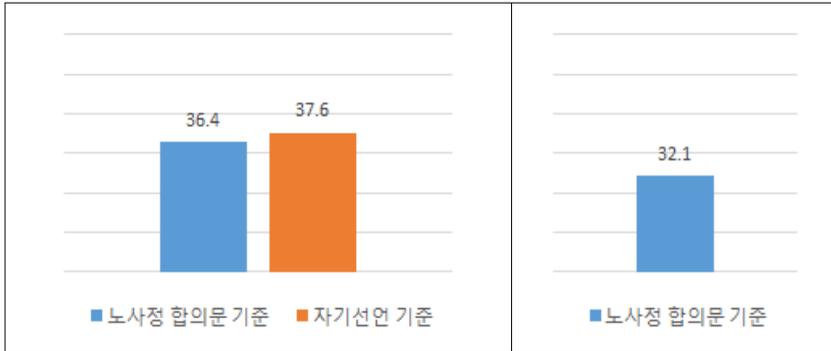
	전 체	남 성	여 성
정규직	63.6	69.0	56.8
비정규직	36.4	31.0	43.2
한시적근로자	28.7	24.5	33.8
시간제근로자	8.7	4.1	14.6
비전형근로자	14.1	14.9	13.0
파견근로자	2.1	1.1	3.4
용역근로자	3.7	4.2	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7	1.3	2.2
가정내근로자	0.2	0.1	0.4
일일근로자	7.4	9.5	4.7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비정규직의 각 고용형태는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므로 그 비중의 합이 반드시 100이 되지 않음.

[그림 6-3]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2014년)

(단위: %)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좌측 그림은 KLIPS, 우측 그림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비중임.

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 8월 비농가부문 조사결과임.

포함된 여러 조사항목을 이용하여 2002년 노사정 합의문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선언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구할 수 있다. KLIPS의 2002년 노사정 합의문에 근거한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각각 36.4%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2.1%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선언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37.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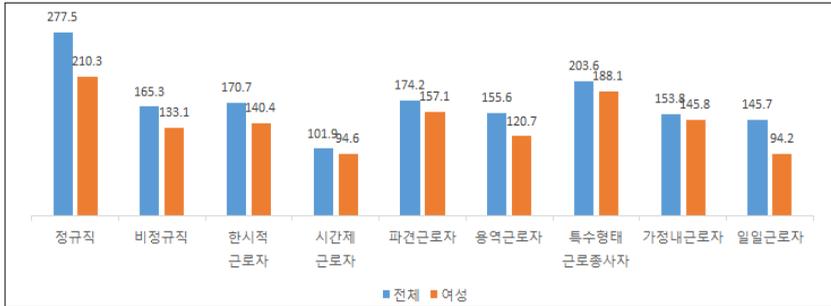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그림 6-4]는 노사정 합의에 따른 비정규직의 임금을 고용형태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165만 3천 원)은 정규직 근로자(277만 5천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중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평균 임금(203만 6천 원)도 정규직 근로자의 73.4%에 그쳤다.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모든 고용형태에서 남성보다 낮았으며, 특히 여성 일일근로자의 월평균 임금(94만 2천 원)은 전체 일일근로자(145만 7천 원)의 6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14년)

(단위: 만 원)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임금은 명목임금.

제 7 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유형 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의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평균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 등과 관련된 특성들이 있다. 특히 5차년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본금 및 화폐가치에 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8차년도부터는 적자를 보는 경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본 장에서도 제6장과 마찬가지로 분석의 연속성을 위해 98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2009년 추가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차년도부터 17차년도까지 각 조사에서 파악된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표 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단위: 명,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
	표본수	남성(%)	여성(%)	
1차년도	2415	58.6	41.4	37.6
2차년도	2267	58.8	41.2	36.3
3차년도	2071	59.6	40.4	35.2
4차년도	1984	58.8	41.2	33.5
5차년도	1980	59.6	40.4	32.8
6차년도	2000	59.8	40.2	31.9
7차년도	2027	60.3	39.7	31.9
8차년도	2125	59.1	40.9	33.8
9차년도	2049	59.0	41.0	32.1
10차년도	2045	59.3	40.7	31.8
11차년도	2034	59.6	40.4	31.3
12차년도	1999	59.1	40.9	30.9
13차년도	1958	59.8	40.2	29.6
14차년도	1881	60.5	39.5	28.4
15차년도	1929	61.2	38.8	28.4
16차년도	1882	60.6	39.4	27.7
17차년도	1828	61.5	38.5	28.1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제1절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한 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근로자로,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로, 무급가족종사자는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주당 18시간 이상 하는 근로자로 각각 정의된다.

먼저 <표 7-2>를 통해 17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자. 고용주가 24.6%, 자영업자가 57.4%, 무급가족종사자가 18.0%였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1차년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8차년도에 급증하여 57.7%까지 상승했다. 17차년도의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57.4%로 조사되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차년도에는 22.1%였으나 8차년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7차년도 현재 18.0%로 조사되었다. 이는 통계청의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된 17.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3>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는 남성의

<표 7-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차년도	21.1	56.8	22.1
2차년도	23.2	53.2	23.5
3차년도	23.3	52.8	23.9
4차년도	24.2	51.3	24.5
5차년도	25.8	50.3	23.9
6차년도	25.9	50.4	23.7
7차년도	26.6	50.6	22.8
8차년도	22.8	57.7	19.5
9차년도	23.0	57.5	19.5
10차년도	25.9	55.4	18.7
11차년도	26.9	54.7	18.4
12차년도	27.9	52.7	19.4
13차년도	28.0	53.1	18.9
14차년도	28.7	53.1	18.2
15차년도	25.0	57.2	17.8
16차년도	25.3	57.5	17.2
17차년도	24.6	57.4	18.0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7-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성 별	남 성	30.2	65.1	4.7
	여 성	15.7	45.2	39.1
연 령	20~29세	12.2	47.5	40.2
	30~39세	31.6	55.5	12.9
	40~49세	30.3	55.3	14.4
	50~59세	25.5	53.5	21.0
	60세 이상	17.0	66.0	17.0
학 력	고졸 미만	13.3	63.3	23.5
	고졸	21.9	59.4	18.7
	전문대졸 이하	32.9	48.3	18.8
	대졸	41.1	51.4	7.5
	대학원 이상	38.1	50.8	11.1
산 업	농림어업	4.2	63.7	32.1
	광공업	40.2	36.0	23.8
	건설업	43.7	49.0	7.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0.5	47.7	21.7
	운수통신업	7.3	91.7	1.0
	금융 및 부동산업	19.7	73.6	6.7
	기타서비스업	25.2	62.7	12.0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경우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각각 65.1%, 30.2%, 4.7%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성의 경우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 순으로 45.2%, 39.1%, 15.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60대 이상에서 66.0%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서 47.5%로 가장 낮았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용주의 비중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별²⁸⁾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자. 광공

업(40.2%)에서는 고용주의 비중이 높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수통신업(91.7%)과 금융 및 부동산업(73.6%), 농림어업(63.7%)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제2절 근로시간

본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주당 평균근로시간, 주당 평균근로일수 등과 관련된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설문문항으로는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묻는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가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 또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이며, 불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가 아예 없어 사업 또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불규칙적인 경우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다시 세분하여 조사되었다. 한편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관련된 사항은 “이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와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각각 조사한다.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및 주평균 근로일수의 분포가 <표 7-4>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살펴보면, ‘규칙적인’ 경우가 69.5%, 불규칙적인 경우가 30.5%였고, 특히 불규칙적인 경우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19.0%로 받지 않는 경우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주의 90.6%가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자영업자는 62.5%가 규칙적이라고

28) 2007년 개정 산업표준분류.

〈표 7-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2014년)
(단위: %, 일)

		규칙적	불규칙적		주평균 근로일수(일)
			계절영향 없음	계절영향 있음	
전 체		69.5	11.5	19.0	5.7
종사상 지위	고용주	90.6	5.4	3.9	5.9
	자영업자	62.5	14.3	23.3	5.6
	무급가족종사자	62.9	11.0	26.1	5.9
산 업	농림어업	16.1	7.9	76.0	5.7
	광공업	88.4	7.5	4.2	5.5
	건설업	52.2	16.5	31.3	5.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3.2	8.0	8.8	6.3
	운수통신업	63.0	23.5	13.5	5.2
	금융 및 부동산업	80.2	17.5	2.3	5.4
	공공서비스업	81.2	13.9	4.9	5.5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응답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며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고용주(3.9%)보다 자영업자(23.3%)와 무급가족종사자(26.1%)에서 훨씬 높은 비중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83.9%, 건설업 종사자의 47.8%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다고 응답했고,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76.0%와 31.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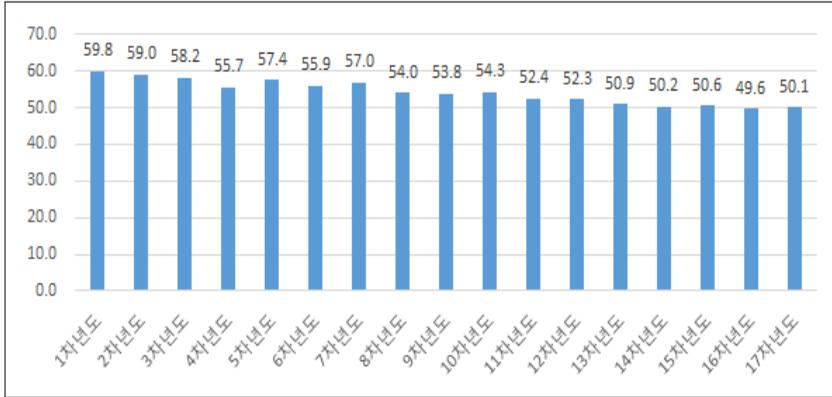
한편, 16차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일수는 5.7일이었고, 자영업자의 경우 5.6일로 가장 짧아서 주당 평균근로일수가 가장 긴 무급가족종사자보다 약 0.3일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 분석해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6.3일, 농림어업이 5.7일로 주당 평균근로일수가 가장 길었고, 건설업과 운수통신업이 5.2일로 가장 짧았다.

2. 주당 근로시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7차년도까지 증감을 되풀이했으나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림 7-1]에서 볼 수 있듯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이, 1차년도에 59.8시간이었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7차년도에 57.0시간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7차년도 현재 50.1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7-5>에서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살펴보자. 1차년도를 제외하면 고용주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차년도에는 고용주의 경우 52.0시간, 자영업자의 경우 49.5시간,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49.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7-6>은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비임금근로자의 61.5%가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0.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44.7시간보다 약 5.4시간 더 긴 것이다.

성별에 따라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분석해 보면,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약 3.3시간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남성 비임금근로자는 남성 임금근로자보다 약 4.6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며,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여성 임금근로자보다 약 6.2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은 53.6시간을 일하는 50~59세였고, 가장 짧은 것은 49.4시간을 일하는 20~29세였다. 한편,

〈표 7-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차년도	59.8 (0.009)	58.8 (0.016)	59.8 (0.012)	60.8 (0.019)
2차년도	59.4 (0.009)	62.1 (0.016)	58.7 (0.012)	58.3 (0.019)
3차년도	58.2 (0.009)	60.3 (0.016)	57.7 (0.013)	57.3 (0.019)
4차년도	55.7 (0.010)	57.8 (0.017)	55.2 (0.014)	54.5 (0.020)
5차년도	57.4 (0.009)	58.7 (0.015)	56.7 (0.014)	57.5 (0.018)
6차년도	55.9 (0.010)	58.2 (0.017)	55.6 (0.014)	54.2 (0.021)
7차년도	57.0 (0.009)	58.6 (0.015)	57.0 (0.013)	55.0 (0.018)
8차년도	54.0 (0.009)	57.0 (0.015)	52.6 (0.013)	54.8 (0.019)
9차년도	53.8 (0.010)	54.8 (0.018)	53.2 (0.013)	54.2 (0.022)
10차년도	54.3 (0.010)	57.4 (0.015)	52.4 (0.014)	55.9 (0.021)
11차년도	52.4 (0.009)	54.8 (0.014)	51.9 (0.013)	50.4 (0.021)
12차년도	52.3 (0.010)	55.5 (0.015)	51.0 (0.014)	51.3 (0.024)
13차년도	50.9 (0.009)	54.5 (0.016)	49.5 (0.013)	49.2 (0.021)
14차년도	50.2 (0.010)	52.3 (0.015)	49.8 (0.014)	48.0 (0.026)
15차년도	50.6 (0.010)	53.7 (0.016)	49.9 (0.015)	48.3 (0.024)
16차년도	49.6 (0.010)	52.6 (0.017)	48.7 (0.014)	48.4 (0.026)
17차년도	50.1 (0.011)	52.0 (0.019)	49.5 (0.015)	49.6 (0.023)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교육수준별로 볼 때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은 52.6시간을 일하는 고졸자들이었고, 가장 짧은 것은 47.1시간을 일하는 대학원 이상의 근로자였다.

〈표 7-7〉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산업 및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분석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8.6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71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18.0%로 다른 산업에 비해 장시간 근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업원 규모가 커질수록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3.3시간

〈표 7-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2014년)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전 체		2.0	16.6	19.8	21.9	30.0	9.6	50.1
성별	남 성	1.1	13.3	19.9	24.4	31.6	9.6	51.4
	여 성	3.4	21.9	19.8	18.0	27.3	9.6	48.1
연령	20~29세	7.3	13.1	29.4	1.9	43.3	5.0	49.4
	30~39세	2.8	20.0	22.2	22.8	25.2	6.9	46.9
	40~49세	2.7	15.7	17.8	24.3	28.3	11.3	50.2
	50~59세	1.0	9.9	20.6	22.4	34.1	12.1	53.6
	60세 이상	2.3	26.2	19.3	20.1	26.3	5.8	46.1
학력	고졸 미만	1.7	23.0	15.4	18.6	33.9	7.4	49.4
	고 졸	0.8	10.9	18.8	26.2	31.1	12.1	52.6
	전문대졸 이하	2.7	18.2	23.8	15.0	32.6	7.7	49.2
	대 졸	4.1	17.2	24.5	24.0	18.8	11.4	47.7
	대학원 이상	3.4	11.3	32.5	22.8	29.7	0.2	47.1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7-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2014년)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업	농림어업	3.2	35.2	20.3	11.2	29.0	1.1	43.1
	광공업	1.9	10.4	27.4	36.4	19.7	4.2	47.2
	건설업	0.0	11.8	34.1	36.0	10.3	7.9	46.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4	10.1	8.5	18.6	44.5	18.0	58.6
	운수통신업	1.4	7.8	20.8	25.1	35.2	9.7	52.5
	금융 및 부동산업	0.7	23.4	47.3	17.5	9.5	1.6	41.8
	기타서비스업	4.9	19.8	20.3	22.6	23.4	9.0	46.32
종업원 규모	1~4인	1.2	10.5	16.5	28.3	27.8	15.7	53.3
	5~9인	0.0	6.0	40.0	18.8	25.4	9.7	51.3
	10인 이상	0.0	12.4	48.0	25.9	6.7	6.9	44.5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인 반면 10인 이상 사업장은 44.5시간으로 약 8.8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제3절 월평균 소득

<표 7-8>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이하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실질소득을 연도별로 보여준다. 먼저 지난 17년 동안의 월평균 소

<표 7-8> 월평균 소득 비교

(단위: 만 원)

	전체		남성		여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년도	132.6 (0.03)	187.0 (0.03)	149.3 (0.03)	210.6 (0.03)	86.9 (0.04)	122.6 (0.04)
2차년도	128.3 (0.02)	179.5 (0.02)	142.9 (0.03)	199.9 (0.03)	84.2 (0.04)	117.8 (0.04)
3차년도	144.6 (0.03)	197.8 (0.03)	161.0 (0.03)	220.2 (0.03)	94.8 (0.06)	129.6 (0.06)
4차년도	181.5 (0.05)	238.5 (0.05)	203.7 (0.06)	267.7 (0.06)	119.2 (0.07)	156.6 (0.07)
5차년도	209.8 (0.04)	268.2 (0.04)	232.0 (0.04)	296.6 (0.04)	143.3 (0.08)	183.3 (0.08)
6차년도	214.9 (0.04)	265.6 (0.04)	239.5 (0.04)	296.0 (0.04)	145.5 (0.07)	179.9 (0.07)
7차년도	241.2 (0.05)	287.8 (0.05)	269.8 (0.05)	322.0 (0.05)	154.0 (0.07)	183.8 (0.07)
8차년도	211.2 (0.03)	245.2 (0.03)	236.1 (0.03)	274.2 (0.03)	151.0 (0.08)	175.4 (0.08)
9차년도	246.3 (0.07)	279.6 (0.07)	278.6 (0.09)	316.3 (0.09)	168.6 (0.06)	191.4 (0.06)
10차년도	245.1 (0.03)	271.4 (0.03)	276.6 (0.04)	306.3 (0.04)	169.4 (0.06)	187.6 (0.06)
11차년도	266.6 (0.04)	282.1 (0.04)	296.1 (0.05)	313.3 (0.05)	196.0 (0.05)	207.4 (0.05)
12차년도	257.4 (0.03)	265.1 (0.03)	286.2 (0.04)	294.7 (0.04)	190.8 (0.06)	196.5 (0.06)
13차년도	270.0 (0.03)	270.0 (0.03)	296.0 (0.04)	296.0 (0.04)	207.1 (0.06)	207.1 (0.06)
14차년도	283.6 (0.03)	272.7 (0.03)	314.4 (0.04)	302.3 (0.04)	206.6 (0.05)	198.7 (0.05)
15차년도	288.1 (0.03)	271.0 (0.03)	321.0 (0.04)	302.0 (0.04)	204.7 (0.06)	192.5 (0.06)
16차년도	298.9 (0.03)	277.6 (0.03)	335.6 (0.04)	311.6 (0.04)	214.1 (0.05)	198.8 (0.05)
17차년도	309.5 (0.03)	283.9 (0.03)	342.5 (0.04)	314.2 (0.04)	227.4 (0.06)	208.6 (0.06)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100).

3) 적자를 보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득 추이를 살펴보면, 1차년도 132만 6천 원에서 2차년도 128만 3천 원으로 감소했으나, 이후에는 8차년도와 10차년도를 제외하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17차년도 월평균소득은 309만 5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소득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면 남녀간 소득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17차년도에 조사된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227만 4천 원으로 남성의 342만 5천 원에 비하면 64.4%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표 7-9>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연령과 교육수준별로 정리한 것이다. 우선 연령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40대가 366만 7천 원으로 가장 높고,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54.4%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60대 이상에서는 10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31.0%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월평균 소득의 분포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표 7-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2014년)

(단위: %, 만 원)

		월평균 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 원)
		적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전 체		2.9	13.4	20.1	21.2	42.4	309.5
연 령	20~29세	0.0	22.9	44.5	17.9	14.7	201.5
	30~39세	4.0	11.7	13.9	25.2	45.3	301.0
	40~49세	0.7	3.4	18.8	22.7	54.4	366.7
	50~59세	3.3	7.1	18.5	22.1	49.0	356.9
	60세 이상	4.0	31.0	24.7	17.5	22.7	199.4
학 력	고졸 미만	1.8	30.5	27.6	19.2	21.0	185.7
	고 졸	2.8	6.3	22.3	24.7	44.0	313.0
	전문대졸 이하	4.2	12.1	9.0	23.4	51.3	331.8
	대졸 이하	4.3	3.2	14.1	16.9	61.6	467.0
	대학원 이상	0.0	11.1	13.8	18.4	56.7	322.9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소득 계산 시 '적자'인 응답자 제외.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고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와 그 외 응답자의 격차가 매우 컸는데, 고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 중 단지 21.0%가 300만 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얻으며 전체 월평균 소득도 185만 7천 원에 그친 반면에 그 외 응답자들의 44.0% 이상이 300만 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얻으며 최저 월평균 소득도 313만 0천 원으로 고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들보다 높았다.

<표 7-10>에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사업체 특성과 매출액 규모별로 정리되어 있다. 먼저 산업별로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건설업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이 407만 6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공업 종사자가 382만 3천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과 운수통신업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150만 8천 원과 247만 7천 원으로 나타나 농림어업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이 특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2014년)

(단위: %, 만 원)

		월평균 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 원)
		적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산 업	농림어업	6.6	46.2	16.3	8.7	22.2	150.8
	광공업	3.8	7.9	19.0	13.5	55.8	382.3
	건설업	5.2	3.7	7.2	22.2	61.7	407.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3	11.8	21.4	17.2	47.4	300.8
	운수통신업	6.4	2.3	31.3	29.3	30.6	247.7
	금융 및 부동산업	1.0	7.4	19.3	23.0	49.3	353.9
	기타서비스업	3.0	13.6	20.5	20.9	42.0	320.7
종업원 규모	0명(자영업자)	3.3	20.1	25.3	21.3	30.0	220.9
	1~4인	5.2	1.6	9.3	13.3	70.6	442.6
	5~9인	0.0	0.0	10.3	12.8	76.9	556.7
	10인 이상	3.9	0.0	2.2	1.5	92.4	745.0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소득 계산 시 '적자' 응답자 제외.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종업원 규모가 클수록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경우(종업원 0명) 220만 9천 원의 월평균 소득이 조사된 반면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45만 0천 원의 월평균 소득이 조사되었다.

<표 7-11>은 8차년도부터 추가되어 조사된 적자액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17차년도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는 2.9%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였고, 월평균 적자액은 131만 8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만 원 이하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3%였다.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2014년)

(단위: %, 만 원)

월평균 적자의 분포						
적자 아님	적자임					월평균 적자액 (만 원)
		100만 원 미만	100만~ 200만 원 미만	200만~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97.1	2.9	54.9	26.5	4.6	14.0	131.8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제4절 사업체의 창업

KLIPS는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 사업체의 창업에 대해 조사한다. 먼저 <표 7-12>를 통해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2014년)

(단위: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창 업	92.0	99.9	89.7
가족 및 친지로부터 물려받음	7.0	0.0	9.1
기 타	1.0	0.1	1.2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창업의 주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은 경우는 7.0%로 창업한 경우 92.0%에 비해 매우 적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주보다 창업의 비율이 다소 낮았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한 응답자가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알아보자. <표 7-13>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80.0%가 본인, 가족 또는 친지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고용주의 경우 본인, 가족 또는 친지를 통한 자본금 조달의 비중이 76.9%,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용자의 비중이 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조달방식에 있어 본인, 가족 또는 친지에 의존하는 비중이 고용주보다 4.3% 높은 81.2%로 나타났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용자에 의존하는 비중은 7.4% 낮은 15.3%로 나타났다.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2014년)

(단위: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본인 또는 가족, 친지	80.0	76.9	81.2
동업자	1.4	0.4	1.7
은행 등의 용자	17.4	22.7	15.3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1.3	0.0	1.8
사채업자	0.0	0.0	0.0
정부의 보조	0.0	0.0	0.0
기 타	0.0	0.0	0.0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제 8 장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제8장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얻는 자료이므로 동일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시간에 걸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패널자료가 아니면 얻기 어려운 것으로, 다른 자료들과 구분되는 패널자료의 장점이다.²⁹⁾ 노동시장 분석은 특히 동태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패널자료의 이와 같은 장점이 잘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8장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제15, 16, 17차에 응답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추가표본을 제외한 98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8-1>은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값들은 흔히 이행확률로 언급되고 있으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원래의 확률에 100을 곱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행확률을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16차년도에 취업상태에 있던 100명 가운데 다음 기인 17차년도에도 취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수는 93.7명이며, 반면 실업으로 옮겨간 사람 수는 1.1명,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로 옮겨간 사람

29) 횡단면 자료에서 회고적 조사를 통해 패널조사와 유사한 추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고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회고기간이 길어질수록 회고 오차의 문제는 더욱 커지므로 종단 분석에 사용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표 8-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15차→16차	16차→17차
취업	취업	93.0	93.7
	실업	1.1	1.1
	비경제활동	5.9	5.2
실업	취업	50.5	39.8
	실업	14.8	13.6
	비경제활동	34.7	46.6
비경제활동	취업	10.5	7.3
	실업	2.0	1.9
	비경제활동	87.4	90.8

주: 15 → 16차 계산에는 15차 종단면 가중치를, 16 → 17차 계산에는 16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의 수는 5.2명이다. 이를 확률로 해석해도 좋다. 즉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행확률은 1.1%이며 취업 지속확률은 93.7%이다.

표에서 보듯이 취업상태에서 다른 노동력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15 → 16차와 16 → 17차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를테면, 전기에 취업에서 이번 기에 취업으로 이동한 사람은 15 → 16차 93.0%, 16 → 17차 93.7%였다.

실업에서 실업,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은 두 기간 간 차이가 보인다. 이를테면, 전기에 실업이었고, 이번 기에도 실업인 사람은 15 → 16차 14.8%였으나 16 → 17차 13.6%로 감소했다. 하지만, 실업자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취업이 어려워 실업 → 실업 이동이 줄고 실업 → 비경활로의 이동이 증가한 것이라면, 취업 → 취업은 감소하고 비경제활동 → 비경제활동은 증가했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는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의 변화는 15 → 16차와 16 → 17차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에서 보듯이 비경활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은 16 → 17차 기준 7.3%로 전기의 10.5%와 사실상 다르지 않고 실업으로의 이동 역시 1.9%로 전기의 2.0%와 별반 다르지 않다. 비경활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

을 가능성은 90.8%로 전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제 이러한 경제활동상태에서의 변화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표 8-2>는 이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은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있어 매우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현상들이다. 즉 취업상태의 변화에 있어서 여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은 16→17차의 경우 96.2%인데 여성의 경우는 89.9%에 불과하다.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이동은 여성의 경우 9.0%로 남성 2.7%의 세 배를 넘는다.

<표 8-2> 성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15차→16차	16차→17차
남 성	취업	취업	94.9	96.2
		실업	1.3	1.1
		비경제활동	3.8	2.7
	실업	취업	60.4	32.7
		실업	18.1	13.7
		비경제활동	21.5	53.6
	비경제활동	취업	11.6	6.6
		실업	3.8	2.8
		비경제활동	84.6	90.6
여 성	취업	취업	90.3	89.9
		실업	0.8	1.1
		비경제활동	9.0	9.0
	실업	취업	32.8	56.4
		실업	8.9	13.4
		비경제활동	58.3	30.2
	비경제활동	취업	9.9	7.7
		실업	1.0	1.4
		비경제활동	89.1	91.0

실업상태에서의 변화를 보면 15 → 16차와 16 → 17차의 성별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 16 → 17차에는 실업에서 비경제활동로의 이행 가능성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취업으로의 이행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15 → 16차와 반대로, 최근 들어 여성의 취업이 더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표본수가 적어 무게를 두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성은 비경제활동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경향도 남성보다 다소 더 크게 나타난다. 표에서 보듯이 여성의 비경제활동 지속 경향은 16 → 17차 기준 91.0%로 남성의 90.6%보다 다소 높다. 반면 비경제활동에 있는 여성의 실업 이행률은 1.4%로 남성의 2.8%보다 낮다. 즉 여성은 비경제활동에 계속 머무는 경향이 남성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자. <표 8-3>은 이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를 살펴보면 실업과 관련된 이행률 변화가 상당히 급격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노동패널의 표본 규모가 크지 않아 실업자로 포착되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고, 이를 연령 등으로 구분하면 개별 조건에 맞는 표본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표 8-3>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15차→16차	16차→17차
20대	취업	취업	88.5	85.4
		실업	2.3	3.1
		비경제활동	9.2	11.6
	실업	취업	41.2	35.7
		실업	17.0	8.6
		비경제활동	41.8	55.6
비경제활동	취업	21.2	19.0	
	실업	7.1	4.6	
	비경제활동	71.8	76.4	
30대	취업	취업	93.7	94.8
		실업	0.8	1.8
		비경제활동	5.5	3.3

〈표 8-3〉의 계속

	이전상태	이후상태	15차→16차	16차→17차
30대	실업	취업	65.2	52.8
		실업	18.1	33.3
		비경제활동	16.6	13.9
	비경제활동	취업	15.9	7.3
		실업	0.9	3.7
		비경제활동	83.2	89.0
40대	취업	취업	96.5	96.5
		실업	1.0	0.7
		비경제활동	2.5	2.8
	실업	취업	61.1	30.7
		실업	12.0	14.3
		비경제활동	26.9	55.0
	비경제활동	취업	9.0	8.7
		실업	1.8	2.3
		비경제활동	89.2	89.0
50대	취업	취업	94.1	95.7
		실업	0.9	0.3
		비경제활동	5.1	4.0
	실업	취업	38.9	56.0
		실업	8.6	10.6
		비경제활동	52.5	33.4
	비경제활동	취업	11.8	8.7
		실업	1.4	0.8
		비경제활동	86.8	90.5
60대	취업	취업	87.5	90.8
		실업	0.9	0.5
		비경제활동	11.6	8.7
	실업	취업	34.0	41.5
		실업	15.0	16.5
		비경제활동	51.0	42.0
	비경제활동	취업	4.3	2.4
		실업	0.4	0.7
		비경제활동	95.3	96.9

이다. 따라서 실업으로부터의 이동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연령집단별로 이행을 비교하여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취업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40대에서 가장 높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20대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16→17차 기준 85.4%로 가장 낮다. 반면 40대가 취업상태에서 계속 머물 확률은 96.5%로 높다. 30대와 50대의 취업 지속 가능성은 각각 94.8%과 95.7%로 40대에 근접할 정도로 높다.

비경제활동상태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20대의 경우 이행률이 16→17차의 경우 76.4%인 반면, 30대 89.0%, 40대 89.0%, 50대 90.5%,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 96.9%이다. 청년의 비경활 지속 확률이 가장 낮다는 것은 이들이 다른 경제활동상태로 쉽사리 옮겨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20대가 비경활에서 취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은 16→17차의 경우 19.0%로 가장 크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 가능성은 낮아져 60세 이상의 경우 2.4%에 불과하다. 비경활에서 실업으로의 이동도 16→17차 기준 20대 청년에서 4.6%로 가장 높으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져 60세 이상에 이르면 0.7%에 불과하다.

연령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20대 청년 노동시장이 매우 역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취업이나 실업 또는 비경활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다른 노동력 상태로 손쉽게 이동하고 있어서 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표 8-4>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시간에 걸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학력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읽을 수 있는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중졸 이하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16→17차 기준 100명 가운데 92.7명이나 고졸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93.1명으로 높아지며, 전문대졸의 경우 95.0명, 대졸 이상 학력집단의 경우 96.2명으로 높아진다.

실업으로부터의 이동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표본이 적어 결과수치가 매우 크게 변동하므로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표 8-4〉 학력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15차→16차	16차→17차
중졸 이하	취업	취업	90.3	92.7
		실업	1.0	0.3
		비경제활동	8.6	7.0
	실업	취업	26.6	34.3
		실업	22.7	11.3
		비경제활동	50.8	54.4
비경제활동	취업	5.9	3.5	
	실업	0.6	0.9	
	비경제활동	93.5	95.6	
고졸	취업	취업	93.7	93.1
		실업	0.9	1.2
		비경제활동	5.4	5.7
	실업	취업	47.2	62.7
		실업	14.9	25.1
		비경제활동	37.9	12.2
비경제활동	취업	9.4	7.1	
	실업	1.4	1.4	
	비경제활동	89.2	91.6	
전문대졸	취업	취업	91.3	95.0
		실업	2.4	1.4
		비경제활동	6.3	3.6
	실업	취업	43.7	39.2
		실업	27.7	23.2
		비경제활동	28.5	37.6
비경제활동	취업	19.7	10.5	
	실업	3.1	3.4	
	비경제활동	77.2	86.1	
대졸 이상	취업	취업	96.1	96.2
		실업	0.5	0.7
		비경제활동	3.4	3.1
	실업	취업	63.8	24.0
		실업	8.1	3.8
		비경제활동	28.1	72.2
비경제활동	취업	14.6	8.8	
	실업	4.1	2.7	
	비경제활동	81.4	88.4	

비경제활동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 확률은 16→17차 기준 중졸 이하에서 95.6%로 높고 나머지 학력집단들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고졸의 경우 91.6%, 전문대졸의 경우 86.1%, 그리고 대졸 이상의 경우 88.4%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 이행률은 중졸 이하의 경우 3.5%에 불과하나, 고졸의 경우 7.1%로 크게 높아지며,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경우도 각각 10.5%와 8.8%로 높게 나타났다.

제 9 장

청년층 고용

제1절 청년의 경제활동상태

1. 경제활동상태

이 절에서는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하여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니트(NEET)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별도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표 9-1>은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청년 고용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15세에서 29세 전체 청년 고용률은 1차년도 외에 30% 내외를 보여주고 있다. 15~19세 고용률은 2차년도에 7% 이상을 보여준 뒤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3% 미만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24세 고용률은 6차년도에 39.5%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낮아져 17차년도에 28.3%를 보여주고 있다. 25~29세 고용률은 다른 청년 연령층과는 달리 비교적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16차년도에 최고 70% 수준을 넘어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 고용률과 관련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노동패널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증감 추세는 거의 동일하나 연도와 상관없이 대략 9~10%포인트나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9-1〉 KLIPS의 청년 고용률 추이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청년(15~29세)
1차(1998)	4.1	33.4	52.5	29.9
2차(1999)	7.5	38.2	56.2	33.6
3차(2000)	6.1	37.4	56.0	33.6
4차(2001)	6.1	37.7	58.0	35.1
5차(2002)	5.3	39.0	59.7	35.9
6차(2003)	4.6	39.5	62.0	37.1
7차(2004)	4.3	37.2	64.2	36.8
8차(2005)	2.7	37.5	61.9	35.6
9차(2006)	2.8	34.8	63.1	35.0
10차(2007)	3.2	34.5	60.1	33.4
11차(2008)	3.0	32.8	64.1	33.3
12차(2009)	1.5	27.6	67.3	33.2
13차(2010)	2.3	28.3	67.2	32.1
14차(2011)	3.4	31.9	63.7	31.3
15차(2012)	2.6	29.9	64.0	30.8
16차(2013)	2.1	25.3	70.7	31.3
17차(2014)	2.4	28.3	61.7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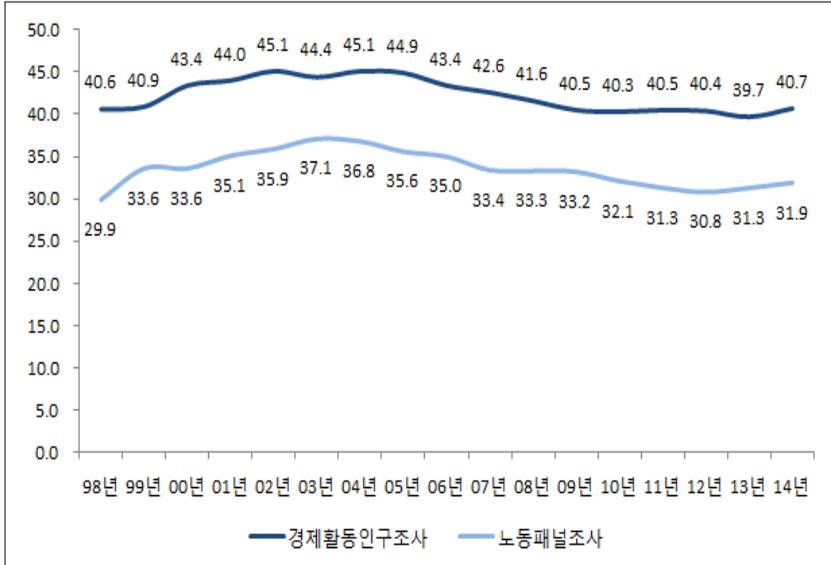
주: 1) 1~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와 관련하여 우선 조사대상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인데 비해서 노동패널조사는 고용률이 높은 제주도와 농가가구가 제외된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시가구가 농가가구에 비해서 취업자의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노동패널조사가 낮게 나올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조사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의 차이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경황조사보다 노동패널조사의 청년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는지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호(2015)는 노동패널조사의 주요 고

(그림 9-1)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노동패널조사 청년(15~29세) 고용률 비교
(단위: %)



주: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자료를 활용
2)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용지표별로 신뢰성 검토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결과에서 노동패널조사의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보다 3~4%포인트 낮으며 청년층의 경우 이번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찰조사보다 9~10%포인트 낮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청년층의 고용률이 특별히 두 조사 간에 더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상호(2015)는 노동패널조사의 고용률 과소 추정이 표집과정이나 가중치 등에 따른 표집오차보다는 패널조사가 가지는 고유한 비표집오차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상호, 2015: 271).

비표집오차 중에서도 청년층이 취업 여부에 대한 응답을 기피하는 문제와 재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할 경우에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학교생활을 답변을 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현재 노동패널조사에서 학생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일부 응답자들이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2015)에 따르면, 12차 조사에서 20대의

개인설문지 응답률은 76.8%로 전체 응답률(91.6%)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12차 조사에서 재학생 취업자의 비중은 50.3%인 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그것(2009년 8월 기준)은 46.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자는 과소 추정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노동패널조사의 청년 실업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지난 한 달간을 기준으로 하는 OECD 기준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ILO의 기준을 따라서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였다.

청년 전체 실업률은 IMF 경제위기가 있었던 1차년도에 11.2%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17차년도 실업률은 3.0% 수준을

〈표 9-2〉 KLIPS의 청년 실업률 추이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청년(15~29세)
1차(1998)	7.4	15.1	11.8	11.2
2차(1999)	2.6	8.2	5.3	5.2
3차(2000)	1.4	4.4	4.7	3.5
4차(2001)	2.0	4.6	4.0	3.6
5차(2002)	2.4	5.5	5.0	4.4
6차(2003)	2.5	5.7	6.4	5.0
7차(2004)	1.2	5.4	6.5	4.5
8차(2005)	1.5	5.8	5.6	4.3
9차(2006)	0.7	6.1	5.7	4.2
10차(2007)	1.2	4.8	5.0	3.6
11차(2008)	0.6	2.8	4.7	2.7
12차(2009)	0.6	4.7	5.5	3.6
13차(2010)	0.3	2.7	4.4	2.4
14차(2011)	0.2	2.1	3.9	2.0
15차(2012)	0.0	2.1	4.1	2.0
16차(2013)	0.3	6.4	2.5	3.2
17차(2014)	0.2	3.0	5.4	3.0

주: 1) 1~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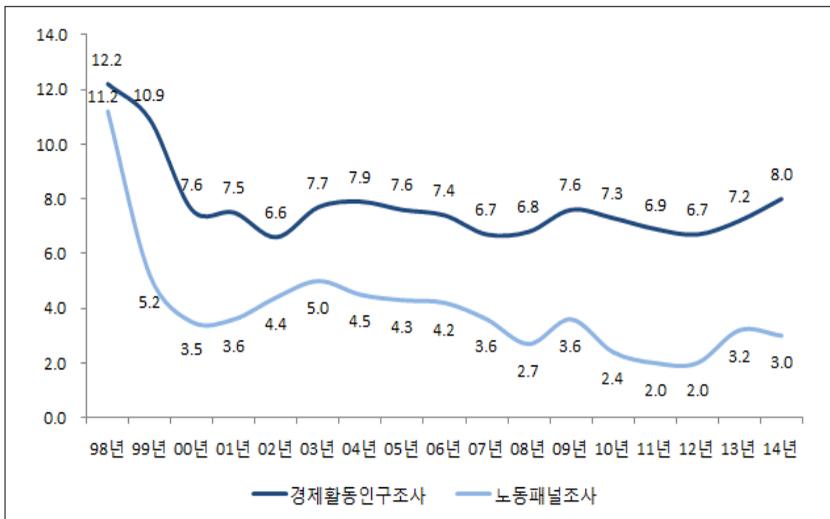
보이고 있다. 15~19세 실업률은 1차년도에 7.4%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해 0.2%로 낮아졌다. 20~24세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추세로 낮아져 1차년도에 15.1%였으나 17차년도에 3.0%를 보이고 있다. 25~29세 실업률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7차년도에 다소 높아져 5.4%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해 보면, 두 조사의 변동 추세는 동일하나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가 노동패널조사 결과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우선 두 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는 방식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이상호 외, 2014).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는 매월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기간 중 지난 일주일을 기준으로 수입이 있는 일을 했으면 취업자로 분류하고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했으면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노동패널조사는 조사하는 당일에 일을 했으면 취업자로, 일을 하지 않았으면 미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당일 이전 일주일 동안에 구직활동을 하고 현재

(그림 9-2) 경제활동인구조사와 KLIPS의 청년(15~29세) 실업률 비교

(단위: %)



주: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자료를 활용.

2)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취업이 된 사람은 경황조사에서 실업자이지만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취업자가 된다. 이러한 조사 시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분류 차이가 두 조사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동패널조사의 실업률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 조사에서 58.9%였으나 점차 증가해 14차년도 조사에서 최고 66.8%를 보여준 뒤 다시 감소해 17차년도 조사에서는 65.2%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15~19세 비경황 비율은 점차 증가해 17차년도에서 97.5%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고학력화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살펴 보았듯이 취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재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표 9-3〉 KLIPS의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추이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청년(15~29세)
1차(1998)	88.5	51.5	35.7	58.9
2차(1999)	89.9	53.6	38.5	61.2
3차(2000)	92.5	58.2	39.2	62.9
4차(2001)	91.9	57.6	38.0	61.3
5차(2002)	92.3	55.5	35.3	59.7
6차(2003)	92.9	54.8	31.6	57.9
7차(2004)	94.5	57.4	29.3	58.7
8차(2005)	95.8	56.8	32.5	60.1
9차(2006)	96.4	59.1	31.2	60.8
10차(2007)	95.6	60.8	34.9	62.9
11차(2008)	96.5	64.4	31.2	64.0
12차(2009)	97.9	67.7	27.2	63.2
13차(2010)	97.4	69.0	28.5	65.5
14차(2011)	96.4	66.0	32.5	66.8
15차(2012)	97.4	68.0	31.9	67.2
16차(2013)	97.6	68.3	26.8	65.5
17차(2014)	97.5	68.6	32.9	65.2

주: 1) 1~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비경활에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20~24세 역시 비경활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25~29세에서는 비교적 낮은 30% 내외의 비경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17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의 경제활동상태별로 개인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로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의 취업자나 실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반대로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 지역을 서울과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보면, 서울지역 청년들은 실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이외의 지역 청년들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 유무로 살펴보면, 미혼인 청년들의 실업률이나 취업자 비율은 낮은 데 비해서 기혼이거나 이혼, 사별한 경우 등 결혼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취업자 비율은 미혼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실업자의 비율은 미혼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패널조사는 6차년도 조사부터 건강이나 장애와 관련된 세부적인 질문을 추

〈표 9-4〉 17차년도 청년(15~29세) 경제활동상태별 개인 특성 분포

(단위: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전 체
성별	남자	23.9	3.1	72.9	100.0
	여자	39.7	2.8	57.5	100.0
거주 지역	서울 외	31.8	1.9	66.2	100.0
	서울	31.9	6.4	61.7	100.0
결혼	미혼	30.1	3.1	66.8	100.0
	경험	70.0	0.0	30.0	100.0
장애	장애 있음	12.4	4.7	82.9	100.0
	장애 없음	32.2	2.9	64.9	100.0
사회 경제적 지위	하위	32.6	3.5	63.9	100.0
	중위	32.2	2.9	64.9	100.0
	상위	34.2	0.0	65.8	100.0

주: 1) 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질문 내용은 감각기관장애가 있는지, 육체적 제약이 있는지,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지, 옷입기, 목욕하기 등 집안을 돌아다니는 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지, 쇼핑하기, 병원 가기 등 집 밖을 돌아다니는 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지, 직업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묻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려움을 느낀 경우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청년들의 경제활동상태 중에서 장애가 있는 경우 취업자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낮고 실업자의 비율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인식 수준에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을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수준일수록 실업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년 니트(NEET)

이 절에서는 학교도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니트에 관한 논의는 2005년 일본의 무업자에 관한 논의와 니트 개념화가 한국에 소개된 이후 본격화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의 니트 개념을 정의하고 규모를 추정하는 등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김기현, 2005).

특히 OECD에서 국제적으로 니트에 관한 실태를 발표하였고 한국의 니트 규모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더 큰 논란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니트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나 규모 추정, 정책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표 9-5>는 OECD에서 발표한 니트 국제 비교 결과로 한국은 18% 이상의 높은 비율로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 등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OECD에서 니트를 개념적으로 일과 학습, 그리고 훈련을 하지 않는 청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훈련에 대해서 일본을 포함해 유럽권 국가들은 중등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방식으로 공교육에 포함된 경우에만 니트에 포함하고 직업훈련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가 제외되어 니트 규모를 과대 추정한 측면이 있다. 동시에 일본에서는 주부

〈표 9-5〉 OECD의 청년(15~29세) 니트(NEET) 국제 비교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18.5	19.0	19.2	18.8	18.5
일본	7.4	8.5	9.9	-	-
미국	14.6	16.9	16.1	15.9	15.2
영국	14.8	15.7	15.9	15.5	16.3
프랑스	14.0	15.6	16.6	16.4	16.6
독일	11.6	11.6	12.0	11.0	9.9
스웨덴	8.7	11.0	10.3	9.1	9.7
핀란드	9.9	12.0	12.6	11.8	11.9
스페인	16.4	22.3	23.3	24.0	25.3
이탈리아	19.2	21.2	23.0	23.2	24.6
그리스	16.2	16.8	18.3	21.8	27.0
OECD 평균	13.7	15.4	15.7	15.7	15.4

주: 1) OECD Database(<https://data.oecd.org>).

2) 김기현(2015)의 <표 11>에서 재인용.

와 같이 니트로 볼 수 있으나 정책적인 지원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니트층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니트 연령 규정을 30대 초반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동시에 실업자는 실업률로 별도로 다루어지므로 청년 니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 채창균·오호영·정재호·남기곤·김기현(2008)은 실업자를 포함한 결과와 실업자를 제외한 결과를 동시에 제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수용해 남재량(2012)은 직업훈련이나 입시 학원 등에 통학하는 경우와 기혼자를 제외하고 34세까지 청년 니트로 보고 통계를 내기도 하며 박진희·김두순·이재성(2015)은 보다 엄격하게 경제활동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만을 니트로 보고 통계를 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연령 규정을 앞서 언급하였듯이 15세에서 29세로 보고 혼인이나 실업 여부와 상관없이 일과 학업,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을 청년 니트로 보고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년 니트의 추세와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니트는 정규교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자도

〈표 9-6〉 KLIPS의 청년 니트(NEET) 비율 추이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청년(15~29세)
1차(1998)	5.6	27.9	38.1	23.7
2차(1999)	5.6	20.6	31.9	19.2
3차(2000)	4.6	20.5	32.6	19.5
4차(2001)	4.7	22.8	29.0	19.4
5차(2002)	6.0	25.4	26.2	19.7
6차(2003)	4.9	23.7	27.3	19.3
7차(2004)	4.9	24.4	26.6	19.1
8차(2005)	3.2	23.3	26.3	18.0
9차(2006)	2.8	21.7	25.3	16.9
10차(2007)	3.7	21.4	27.2	17.5
11차(2008)	3.7	21.2	24.6	16.1
12차(2009)	4.3	25.2	22.8	17.0
13차(2010)	5.6	23.3	22.9	16.7
14차(2011)	6.5	23.0	26.7	18.0
15차(2012)	6.1	20.2	20.4	15.1
16차(2013)	3.0	24.7	21.3	16.5
17차(2014)	5.2	22.7	24.2	18.1

주: 1) 1~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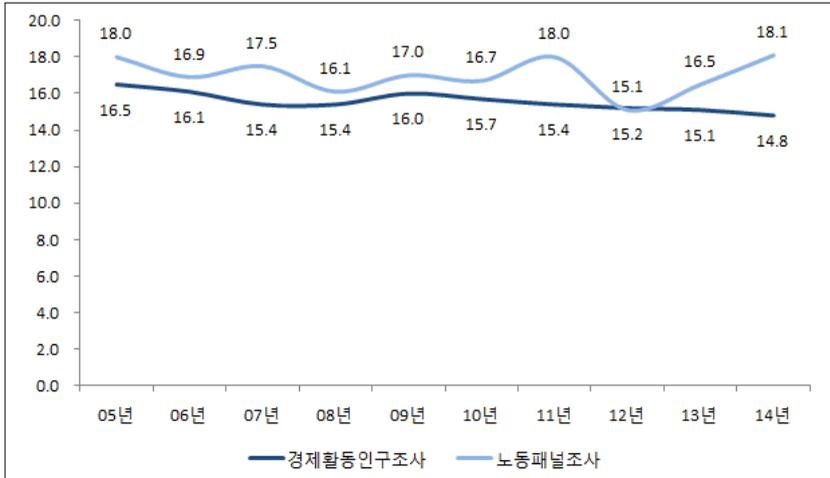
아니면서 ‘입시학원 통학’이나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정의된다.

〈표 9-6〉을 통해 청년 니트 규모와 추세를 살펴보면, 1차년도의 청년 니트는 23.7%로 외환위기 상황을 반영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감소하여 2012년에 15.1%까지 낮아졌으나 2014년에 18.1%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9-3]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동일하게 지난 1주간의 활동이 ‘일 하였음’이나 ‘일시휴직’, ‘정규교육기관 통학’이 아니고 ‘입시학원 통학’이나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이 아닌 경우로 니트를 추정된 결과와 노동패널조사 결과를 비교해 제시하고 있다. 이

(그림 9-3)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노동패널 청년 니트(15~29세) 비교

(단위: %)



주: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자료를 활용

2)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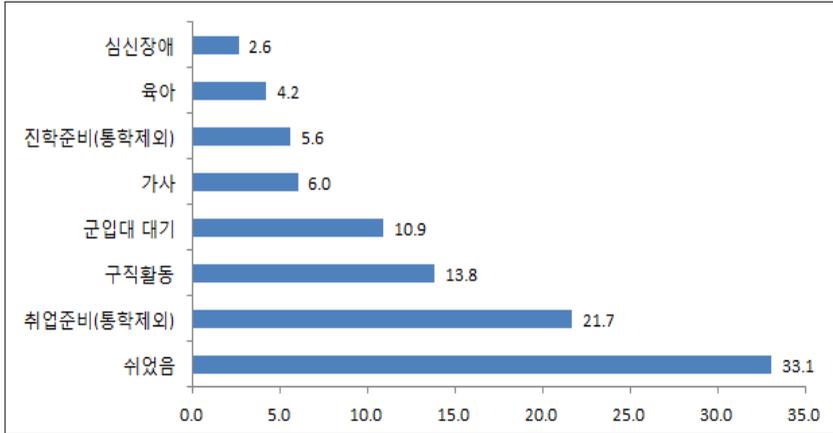
글에서 다루는 니트 개념은 OECD의 정의와 차이가 있는데 ‘입시학원 통학’이나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을 제외했다는 점이다. 니트에는 훈련(training)이 포함되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니트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두 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앞선 고용률이나 실업률과는 달리 청년 니트 비율의 편차가 3% 이내로 크지 않지만 추세 자체는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등락을 거듭하는 데 비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차이가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노동패널조사 자료는 니트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9-4]를 통해 청년 니트의 지난 1주간 주요 활동은 무엇인지 살펴 보면, 쉬고 있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높았고 통학을 하지 않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는 경우가 21.7%,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의 경우가 13.8%, 가사가 6.0%, 통학을 하지 않고 진학 준비를 하는 경우가 5.6%, 육아가 4.2%, 심신 장애가 2.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9-4) 17차년도 청년 니트(15~29세)의 지난 1주간 주요 활동

(단위: %)



주: 1) 17차년도 중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표 9-7>은 17차년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니트의 개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성별로 보면, 청년 니트 비율은 남자가 19.5%로 여자(16.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청년 니트 비율이 19.6%로 서울 이외의 지역(17.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결혼 여부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미혼의 니트 비율보다 기혼의 니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부가 니트에 포함된 결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 여부별로 청년 니트를 비교해 보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 무려 40.0%가 청년 니트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주관적으로 응답한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보면, 상위층으로 갈수록 청년 니트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청년 니트를 포함해 경제활동상태별로 청년들을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상태별로 생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어떨까.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5점 척도로 묻고 있는데 [그림 9-5]를 통해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층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생활만족도가 5점 만점 중에서 3.5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취업자의 생활만족도가 3.50점으로 높게 나타

〈표 9-7〉 17차년도 청년(15~29세) 니트와 비니트의 개인 특성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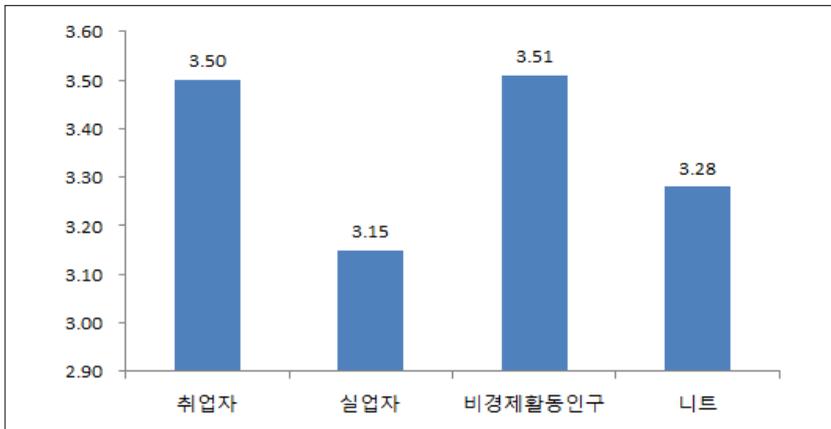
		비니트	니트	전 체
성별	남자	80.5	19.5	100.0
	여자	83.4	16.6	100.0
거주 지역	서울 외	82.4	17.6	100.0
	서울	80.4	19.6	100.0
결혼	미혼	82.4	17.6	100.0
	경험	72.7	27.3	100.0
장애	장애 있음	60.0	40.0	100.0
	장애 없음	82.3	17.7	100.0
사회 경제적 지위	하위	75.8	24.2	100.0
	중위	84.0	16.0	100.0
	상위	84.2	15.8	100.0

주: 1) 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그림 9-5)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점수(5점 만점) 비교

(단위: 점)



주: 1) 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나고 있다. 반면 실업자의 생활만족도는 3.15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서 청년 니트의 생활만족도는 3.28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제2절 청년 취업자의 특성

1. 관리·전문직과 임금, 비정규직 여부

이 절에서는 청년 취업자를 직업과 임금·비임금 여부, 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 여부 등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 취업자 중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하향취업(overeducation) 문제는 다음 절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표 9-8〉 KLIPS의 청년 취업자의 관리·전문직 비율 추이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청년(15~29세)
1차(1998)	8.1	27.2	30.6	28.4
2차(1999)	12.3	26.3	32.7	28.9
3차(2000)	8.8	26.7	32.3	28.9
4차(2001)	16.6	28.3	33.6	30.8
5차(2002)	18.2	31.3	35.5	33.2
6차(2003)	11.3	28.9	39.2	34.5
7차(2004)	9.4	28.2	37.6	33.5
8차(2005)	24.3	30.4	38.8	35.8
9차(2006)	12.0	28.2	37.2	33.9
10차(2007)	15.9	34.4	38.2	36.4
11차(2008)	23.6	37.5	37.5	37.1
12차(2009)	18.9	29.6	41.2	38.1
13차(2010)	15.3	36.2	40.8	39.0
14차(2011)	19.1	34.2	44.4	40.2
15차(2012)	8.6	34.2	47.2	42.0
16차(2013)	16.9	35.0	42.9	39.9
17차(2014)	6.0	40.3	43.6	41.6

주: 1) 1~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표 9-9〉 KLIPS의 청년 취업자의 임금노동자 비율 추이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청년(15~29세)
1차(1998)	98.8	93.1	85.7	88.8
2차(1999)	97.9	95.0	86.7	90.4
3차(2000)	94.2	95.5	89.5	91.9
4차(2001)	100.0	96.1	91.9	93.9
5차(2002)	95.5	95.4	92.6	93.8
6차(2003)	97.7	97.0	93.2	94.7
7차(2004)	98.6	97.1	93.2	94.7
8차(2005)	84.7	88.5	92.4	91.0
9차(2006)	91.5	93.3	93.2	93.2
10차(2007)	92.2	93.2	94.1	93.8
11차(2008)	100.0	94.8	91.8	92.9
12차(2009)	81.1	94.5	92.2	92.6
13차(2010)	92.9	92.6	94.1	93.7
14차(2011)	93.3	95.2	94.8	94.8
15차(2012)	100.0	97.2	92.4	94.1
16차(2013)	94.6	98.6	96.1	96.8
17차(2014)	100.0	97.9	96.3	96.9

주: 1) 1~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표 9-8〉은 직업을 관리직과 전문직(준전문직 포함) 여부로 구분해 관리·전문직 비율이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 제시하고 있다. 관리·전문직 비율은 청년층에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98년 제1차년도의 청년 관리·전문직 비율은 28.4%였으나 17년 후인 2014년에 그 비율은 41.6%로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관리·전문직이 증가한 것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산업구조가 점차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홍준·김기현·오병돈(2014)이 제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비교해 보면, 노동패널조사의 결과가 비교적 높게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결과를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15~19세의 전문·관리직 비율은 7.7%이고 20~24세는 25.1%, 25~29세는 32.6%이나 노동패널조사의 같은 해 결과는 각각 8.6%, 34.2%, 44.4%로 최소 0.9%포인트에서 최대 11.8%포인트까지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의 질 맥락에서 노동패널조사 결과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청년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청년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층의 대다수가 비임금근로자가 아닌 임금근로자임을 알 수 있다. 17차년도 결과를 보면 청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96.9%로 자영업자나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인

<표 9-10> KLIPS의 청년 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청년(15~29세)
1차(1998)	45.2	19.2	17.1	19.3
2차(1999)	56.0	29.5	21.2	27.1
3차(2000)	-	-	-	-
4차(2001)	38.8	27.3	10.0	18.0
5차(2002)	39.0	24.6	10.1	16.8
6차(2003)	57.5	26.0	12.5	18.8
7차(2004)	69.4	30.1	18.2	24.2
8차(2005)	55.6	41.4	19.5	26.9
9차(2006)	66.7	34.6	24.1	28.3
10차(2007)	75.8	35.9	19.4	25.9
11차(2008)	83.2	45.2	19.8	29.0
12차(2009)	78.5	42.6	24.8	29.8
13차(2010)	64.4	47.1	23.2	30.4
14차(2011)	90.6	46.8	25.5	34.8
15차(2012)	70.5	41.9	28.4	34.0
16차(2013)	93.5	47.1	25.8	33.8
17차(2014)	41.5	43.4	26.5	32.5

주: 1) 1~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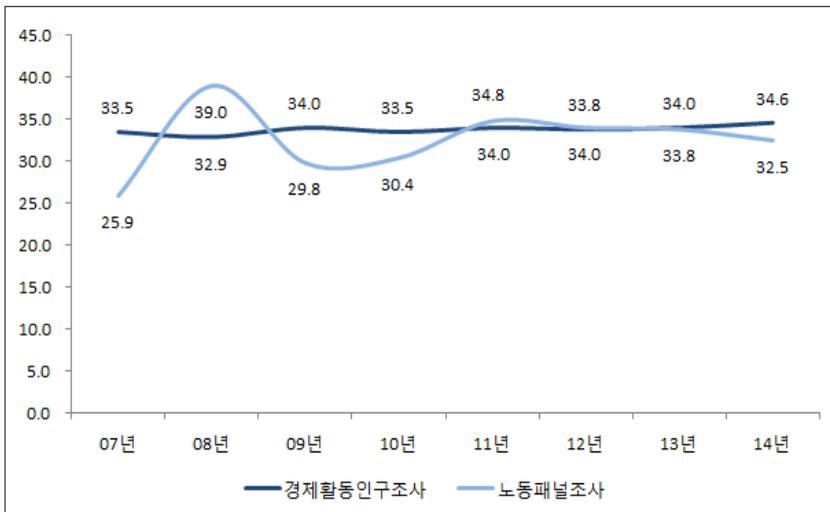
경우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청년 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을 판별하는 문항들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으나 제1차년도 조사부터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인에게 스스로 비정규직인지를 물어본 결과이다. 이 경우에 3차년도인 2000년 조사에서만 문항이 제외되었고 제17년차까지 동일한 설문 문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노동패널조사에서 비정규직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1차년도인 1998년에 비정규직 비율은 19.3%였으나 2010년인 제13차년도 조사부터 30%를 넘어섰으며 2014년인 제17차년도에는 32.5%를 보이고 있다.

경찰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노동패널조사의 청년 비정규직 비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 부가조사는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객관적으로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 등으로 비정규직을 규정한 것에 따라서 비정규직 측정문항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그림 9-6) 경찰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노동패널 청년 비정규직 비교
(단위: 점)



주: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자료를 활용.

2)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규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노동패널조사는 주관적인 응답 결과이지만 경찰 부가조사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2007년과 2009년, 2014년은 노동패널조사 결과가 경찰조사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임시·일용직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소 증가해 20%를 초과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홍준·김기현·오병돈(2014)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임시·일용직 비율이 경찰조사보다 낮게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경찰조사의 15~19세, 20~24세, 25~29세의 임시 및 일용직 비율은 각각 84.8%, 51.2%, 26.8%인 데 비해서 노동패널의 결과는 70.5%,

〈표 9-11〉 KLIPS의 청년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율 추이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청년(15~29세)
1차(1998)	44.0	16.1	12.0	15.2
2차(1999)	52.0	26.0	19.0	24.2
3차(2000)	33.7	24.6	12.5	18.2
4차(2001)	48.4	27.3	9.3	18.1
5차(2002)	39.4	25.9	8.9	16.6
6차(2003)	53.9	24.3	12.1	18.1
7차(2004)	73.0	29.5	14.4	21.7
8차(2005)	50.3	30.7	13.6	19.6
9차(2006)	66.7	29.2	13.0	19.1
10차(2007)	53.4	26.6	11.1	16.9
11차(2008)	67.3	35.7	11.3	19.9
12차(2009)	68.0	35.4	15.2	20.7
13차(2010)	47.0	38.5	14.9	21.8
14차(2011)	74.9	40.6	17.1	26.7
15차(2012)	70.5	34.1	17.4	24.5
16차(2013)	87.0	37.8	16.9	24.8
17차(2014)	37.7	35.8	17.0	23.7

주: 1) 1~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표 9-12〉 KLIPS의 청년 취업자의 시간제 비율 추이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청년(15~29세)
1차(1998)	12.4	14.2	8.4	10.6
2차(1999)	23.6	11.7	6.3	9.7
3차(2000)	29.9	12.6	5.3	9.5
4차(2001)	25.7	14.2	4.9	9.5
5차(2002)	31.5	14.2	4.6	9.4
6차(2003)	48.4	12.5	5.5	9.7
7차(2004)	62.7	15.2	3.7	9.8
8차(2005)	42.5	15.2	4.4	8.6
9차(2006)	39.5	15.2	3.5	7.9
10차(2007)	51.9	13.4	3.8	8.1
11차(2008)	58.8	14.0	2.3	7.5
12차(2009)	72.3	17.1	3.7	7.8
13차(2010)	28.6	15.3	3.6	7.2
14차(2011)	59.0	18.1	3.9	10.5
15차(2012)	45.5	18.1	3.1	9.2
16차(2013)	56.5	25.9	1.7	10.3
17차(2014)	16.9	25.9	5.3	12.4

주: 1) 1~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34.1%, 17.4%로 10%포인트 이상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제 비율을 살펴보면, 노동패널조사에서 2008년인 제11차년도 조사까지 시간제 비율이 낮아지다가 다시 증가해 제17차년도 조사인 2014년에 최대 수치인 12.4%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시간제 비율이 증가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선택제 혹은 시간제 정규직 등을 제기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하향취업

여기에서는 취업자 중에서 최근 직무불일치(job mismatch)와 관련하여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하향취업(over-education)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OECD(2012)는 청년 고용위기가 전 세계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년 고용문제 중에서도 직무불일치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직무불일치는 하향취업과 더불어 본인의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문제(subject mismatch)나 일자리가 본인의 자질이나 능력보다 낮거나 취업자가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자질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스킬 미스매치(skill mismatch)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한국과 같이 고학력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사회에서 하향취업 문제는 다른 직무불일치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OECD(2012)에서 제시한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하향취업 수준은 OECD(25.3%)보다 약간 높으나 미국(36.4%), 일본(31.9%)과 같이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진학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고학력화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김기현, 2013: 7).

하향취업 여부는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데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주관적인 방법으로 응답자 본인(self-report)에게 하향취업 여부를 묻고 있다. 1차년도 조사에서는 해당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2차년도 조사에서는 현재 하는 일의 교육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해 ① 수준이 낮다, ② 수준이 맞는다, ③ 수준이 높다 등 3점 척도로 물었고 3차년도 조사부터 5점 척도로 전환해 제17차년도까지 설문문에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노동패널조사는 가장 장기간에 걸쳐 하향취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 자료이므로 하향취업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취업자의 하향취업 추세는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9년인 제2차년도 조사에서 하향취업 비율은 25.6%였으나 2003년 28.8%까지 증가하였고 2014년 현재 17.3%로 최고치를 보이던 때와 비교해 10%포인트가량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9-13〉 KLIPS의 청년 취업자의 하향취업 추이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청년(15~29세)
1차(1998)	-	-	-	-
2차(1999)	33.4	28.1	23.1	25.6
3차(2000)	37.8	28.8	21.7	25.2
4차(2001)	39.8	34.2	19.3	25.7
5차(2002)	28.0	27.2	21.3	23.8
6차(2003)	50.2	31.3	26.0	28.8
7차(2004)	51.5	31.7	23.5	27.2
8차(2005)	23.5	29.9	18.7	22.3
9차(2006)	34.2	28.8	18.3	21.8
10차(2007)	48.6	30.0	17.3	22.0
11차(2008)	62.1	24.7	19.4	22.2
12차(2009)	31.2	31.1	15.5	19.4
13차(2010)	31.1	26.4	15.8	18.9
14차(2011)	50.3	28.8	13.7	19.9
15차(2012)	39.6	28.0	12.3	18.1
16차(2013)	48.6	24.4	11.7	16.3
17차(2014)	34.3	24.8	13.0	17.3

주: 1) 1~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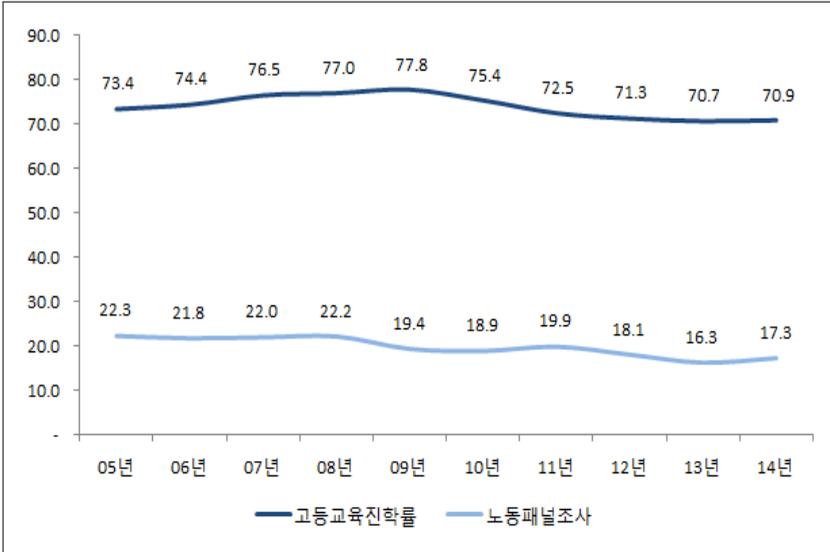
여기에서는 하향취업 여부를 대표성을 갖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향취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고학력화 추세와 비교해 보았다. 최근 들어 하향취업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와 전문대를 포함한 고등교육 진학을 추세가 2009년을 정점으로 낮아지는 경향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향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 취업자의 특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제17차년도 노동패널자료를 통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자(18.4%)가 여자(16.7%)보다 높은 하향취업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이 15.8%로 서울 이외의 지역보다 하향취업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 여부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170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그림 9-7) 고등교육 진학률과 노동패널 청년 하향취업 비교

(단위: %)



주: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활용.
 2)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표 9-14> 17차년도 청년(15~29세) 하향취업 노동자의 개인 특성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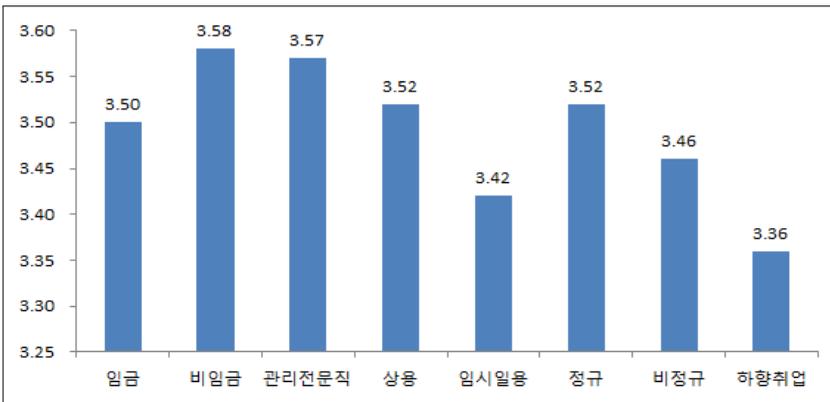
		하향취업 아님	하향취업	전체
성별	남자	81.6	18.4	100.0
	여자	83.3	16.7	100.0
거주 지역	서울 외	82.2	17.8	100.0
	서울	84.2	15.8	100.0
결혼	미혼	81.7	18.3	100.0
	경험	92.0	8.0	100.0
장애	장애 있음	84.4	15.6	100.0
	장애 없음	82.7	17.3	100.0
사회 경제적 지위	하위	78.2	21.8	100.0
	중위	83.7	16.3	100.0
	상위	100.0	0.0	100.0

주: 1) 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미혼인 경우 하향취업 비중은 18.3%인 데 반해서 기혼이거나 결혼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하향취업 비중은 8.0%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청년 취업자들의 하향취업 비중은 15.6%로 나타나 장애가 없는 청년 취업자(17.3%)보다 낮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하향취업 비중은 극명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회경제

(그림 9-8) 취업자의 유형별 생활만족도 점수(5점 만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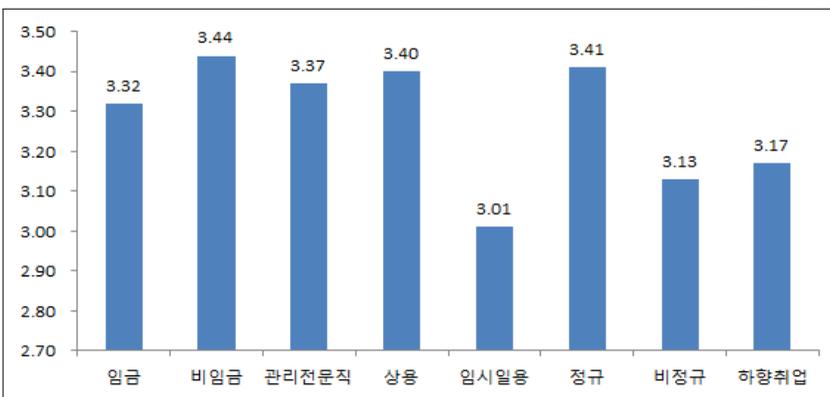
(단위: 점)



- 주: 1) 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그림 9-9) 취업자의 유형별 일자리(직장) 만족도 점수(5점 만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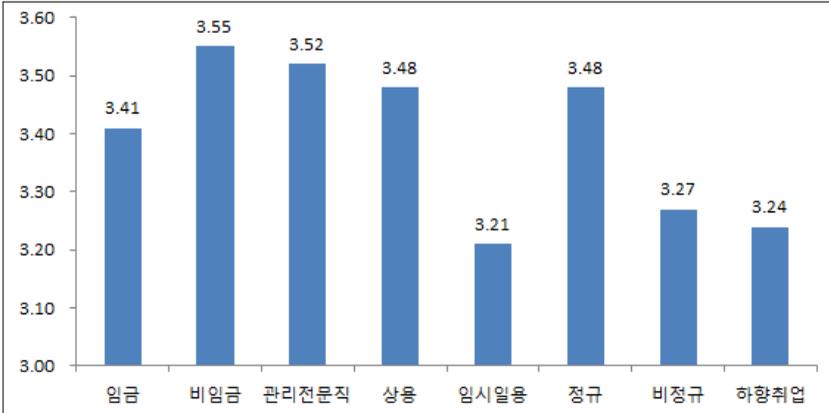
(단위: 점)



- 주: 1) 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그림 9-10) 취업자의 유형별 일(직무) 만족도 점수(5점 만점) 비교

(단위: 점)



주: 1) 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적 지위에서 ‘상위’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매우 적어 해석상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향취업을 포함하여 고용형태별로 생활만족도와 일자리, 직무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하향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 취업자의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제3절 소결 및 제언

이 장에서는 청년층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경제활동상태와 취업자를 대상으로 17년간 구축된 노동패널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보았다.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하여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니트 문제를 추가적으로 다루었으며 취업자와 관련하여 직무불일치 문제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하향취업 문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하여 대표성을 갖는 지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해 보았으며 노동패널조사 자료의 경우 패

널조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고용률과 실업률은 과소 추정되고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과대 추정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17년간의 변동 추세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규모 추정에 제한점은 있지만 추세 결과 자체의 신뢰성은 높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패널조사 자료는 경찰조사보다 풍부한 가구 및 개인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통계모형을 적용해 인과관계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취업자와 관련하여 분석해 본 결과, 노동패널조사는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는 관리 및 전문직, 상용직, 정규직 등에서 경찰조사보다 높은 응답 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패널조사는 대표성을 갖는 고용지표를 추정할 목적으로 생산된 조사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편차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으나 계량분석이나 종단분석 시에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전체 응답 결과보다는 청년 응답 결과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이러한 측면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경제활동상태와 취업자의 고용형태별로 개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결혼 여부나 장애 여부 등에 따라서 응답 결과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생활만족도나 일자리, 직무만족도 등 정서적인 태도와 관련한 결과에서 실업자나 니트, 임시·일용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하향취업 상태에 있는 취업자 등의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분석과 관련하여 청년 니트와 관련하여 경찰조사와 큰 규모 격차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가구 및 개인정보를 활용해 누가 청년 니트가 되고 청년 니트의 생활상은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지에 관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향취업과 관련해서도 다른 통계자료에서 17년이라는 장기간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노동패널조사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 10 장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과제

- 매출 및 소득을 중심으로 -

제1절 머리말

한국은 경제수준에 비해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자영업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완충지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구조의 선진화와 세계화, IT 혁명 등으로 인한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자영업은 더 이상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자영업 내부의 양극화로 인해 영세 자영업의 경영난과 근로빈곤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로 인해 실직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에 휩쓸려 자영업으로 진출하였으나 많은 수가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도산·폐업하게 되고 이는 2003년의 신용대란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자영업의 경영난에 따라 2005년부터는 농림수산업 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절대수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8년 취업자의 38.3%에 달하였던 자영업의 비중은 2014년 26.8%로 낮아졌고, 취업자 규모도 2002년의 798만 8천 명에서 2014년 685만 7천 명으로 100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이처럼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과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러한 감소 추세는 국민경제 수준 과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전망이다.

문제는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여성·저학력·고연령·저자본의 영세 자영업주라는 점이다. 현재의 일자리를 그만두었을 경우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은퇴하거나 아니면 근로빈곤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급속한 인구고령화 시대에 영세 자영업주의 이러한 처지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부담을 급속히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다. 실제 영세 자영업주의 상당수는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정책의 범위 안으로 이들을 끌어들이어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영업의 위기가 진행형이라는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17차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의 사업기간, 자영업주의 이직과 재취업, 창업 시의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매출과 소득에 대해 지난 17년 동안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자영업주의 경제상황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이것이 자영업주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자영업주들이 대거 퇴출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³⁰⁾

1998~2014년 동안 임금근로를 그만둔 근로자의 14.2%와 자영업을 그만둔 근로자의 57.4%는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임금근로와 자영업 사이의 이동이 상당히 활발하다. 이에 자영업 분야도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및 고용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된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운수업 등 영세자영업주들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제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0) 이 장에서는 분석에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제2절 자영업의 사업기간과 직장이동³¹⁾

1. 자영업의 사업기간

가. 자영업주의 특성과 사업기간

자영업주가 사업체를 창립한 시점부터 제17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시점까지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을 제외하였을 때 자영업의 사업기간은 평균 10.05년으로 나타났으며³²⁾ 중간치(median value)는 5.08년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업기간은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 6.15년보다 3.90년이 길다.³³⁾

자영업주 중에서도 고용주의 근속기간이 9.43년인 데 비해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는 10.32년으로 자영자의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다. [그림 10-1]과 같이 자영업주(고용주 및 자영자)와 임금근로자 모두 시간에 따라 근속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영자의 근속기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정규직은 근속기간의 증가속도가 가장 느려 정규직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림 10-2]는 고용형태에 따라 근속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간별로 보여준다. 2014년을 기준으로 고용주의 9.1%만이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반면,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고용주가 39.7%에 달한다. 이는 자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영자의 39.5%가 10년 이상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 장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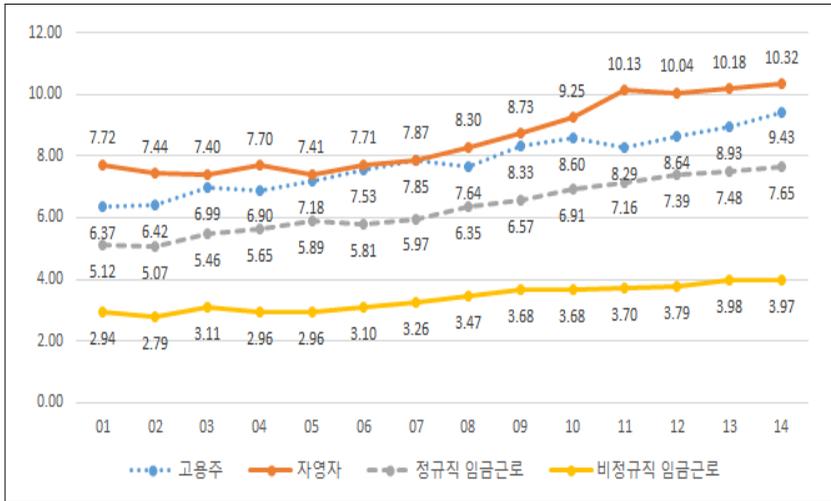
임금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정규직일지라도 10년 이

31) 이 글에서 고용주는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주,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로 정의된다. 따라서 자영업주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함께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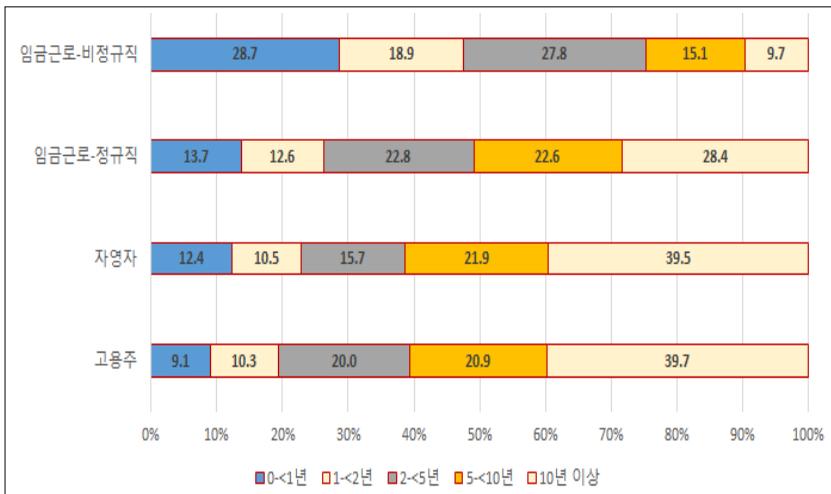
32)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한 값이다.

33) 경찰 비임금 부가조사와 비교하면 농림어업을 제외한 비임금근로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2015년 8월 평균 10.25년으로 나타났다.

(그림 10-1) 고용형태별 근속기간의 추이(농림수산업 제외)



(그림 10-2) 고용형태별 근속기간의 분포(2014년, 농림수산업 제외)



상 근속하고 있는 비중은 28.4%에 그치고 있다. 또한 5년에서 10년 미만이 22.6%로 정규직의 절반 정도는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여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아직도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자영업주의 특성별로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성별로 남성이 11.03년인 데 비해, 여성은 8.08년으로 남성의 사업기간이 보다 장기간이

<표 10-1> 2014년 연령대별·학력별 자영업의 사업기간

(단위: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69	3.50	6.73	11.62	16.88
초등 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14.55	14.20	9.89	6.52	7.20

<표 10-2> 2014년 산업별 자영업의 사업기간

(단위: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14.89	10.90	11.57	5.33	10.43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방송 및 공연사업	기타 공공/개인수리업
8.50	6.43	5.50	6.02	12.72

주: 표본수가 20개 이하인 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사업기간도 길어 20대의 사업기간이 1.69년인 것에 비해 60대 이상에서는 무려 16.88년에 달하고 있다(표 10-1 참조). 학력별로도 학력이 낮을수록 사업기간이 장기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고학력화 현상과 더불어 고학력자들의 자영업 진출이 활발해짐과 더불어 고학력자들은 흔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40, 50대에 자영업으로 이동함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산업별로는 <표 10-2>와 같이 음식숙박업이 평균 5.33년으로 가장 짧으며, 그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의 5.50년, 오락·방송 및 공연사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제조업이 평균 14.89년으로 가장 길며, 도·소매업도 11.57년으로 상대적으로 장기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자영업 사업기간의 계량분석

자영업의 사업기간과 초기 총자본금, 그리고 시작 연령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사업기간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로 ‘성별’, ‘자영업 시작 연령’, ‘시작 연령의 제곱’, ‘교육기간’, ‘혼인 상태 더미’, ‘산업 더미’ 및 ‘초기 투자액의 로그값(2010년 기준 실질가치)

등으로³⁴⁾ 하는 단순최소자승(OLS) 추정을 실시하였다.³⁵⁾

추정결과는 <표 10-3>에 나타나 있으며, 초기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표 10-3> 자영업 사업기간의 OLS 추정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사업기간의 로그값	
	추정치	P> t
상수항	1.64541	0.001
성별(0: 여성, 1: 남성)	0.18913	0.019
사업시작 시 연령(세)	-0.05055	0.023
사업시작 시 연령의 제곱	0.00029	0.240
교육기간(년)	-0.07670	0.000
혼인상태(미혼 기준)		
기혼	0.34193	0.002
이혼·별거·사별	0.63328	0.000
산업(광공업 기준, 농림수산업 제외)		
건설업	0.01824	0.925
도소매 및 판매업	-0.25483	0.081
음식숙박업	-0.43211	0.005
운수 및 통신업	-0.30421	0.085
금융 및 보험업	-0.17697	0.419
부동산 및 임대업	-0.20088	0.342
사업서비스업	-0.34694	0.088
교육서비스업	-0.02155	0.907
보건복지서비스업	-0.33802	0.294
오락, 방송 및 공연사업	-0.15255	0.465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0.23919	0.182
초기 투자금의 로그값(2010년 실질가치)	0.01331	0.027
표본수	2,850	
F-값	4.77	
Adjusted R-squared	0.0233	

주: 자영업주(고용주+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표본수가 30개 미만인 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2~14), 『한국노동패널조사』.

34) 이 외에도 자영업의 매출액, 소득 및 고용인원 등의 변수들이 추가될 수 있으나 이들 변수는 내생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35) 이 추정모형은 자영업주의 의사결정모형에 바탕을 둔 생존기간모형의 추정이 아니라 단순히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랫동안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투자금액이 1% 증가하면 자영업 지속기간은 1.3% 늘어난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나타나는 사업기간과 총자본금 사이의 정(+)의 관계는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Bates(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시작한 연령이 낮을수록 사업을 장기간 지속할 확률이 높게 추정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사업기간이 장기간이며,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을 기준으로 기혼일 경우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고학력자의 사업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고학력자들의 자영업 진출이 늦고, 또한 대학진학률의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을 시작한 젊은이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오락, 방송 및 공연사업’ 및 ‘음식숙박업’의 사업기간이 크게 짧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업종에서 진입과 이탈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자영업주의 직장이동

가. 자영업주 특성과 직장이동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1999~2014년 사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은 사람은 19,270명이다. 이들의 15.4%는 자영업주(고용주+자영자)로 나타났는데, 이직한 자영업주의 절반 이상(57.4%)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하였다. 반면,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은 14.2%이다.

<표 10-4>는 직장을 이동하면서 근로형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보여준다. 1999~2014년의 기간 동안 자영업주의 38.3%는 다시 다른 자영업을 시작하였지만 1/3의 전직 자영업주는 상용직으로 재취업을 하였고, 임시 및 일용직으로도 14.1%와 10.4%가 각각 이동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자영업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못한 직장이며, 자영업과 임금근로 사이의 이동이 상당히 활발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그림 10-3]과 같이 최근으로 올수록 자영업을 벗어나 임금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임금에서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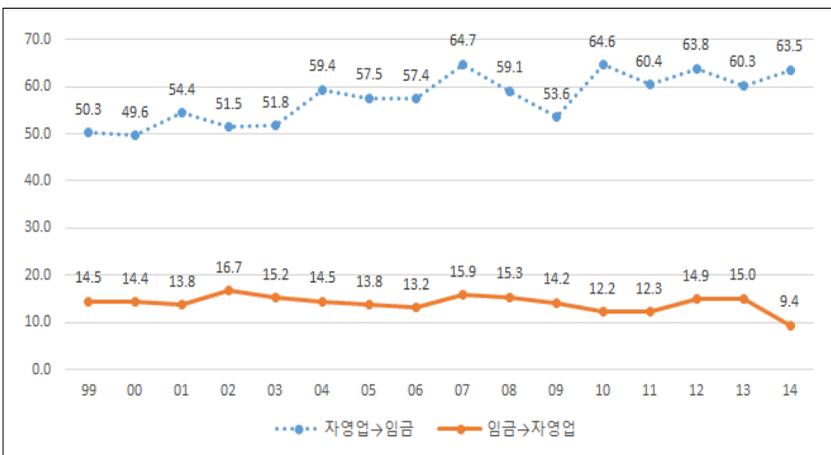
<표 10-4> 자영업 이직자의 재취업 근로형태

(단위: %, 명)

		재취업 직장 근로형태					합계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주	무급가족	
이전 직장 근로형태	상용	64.2	13.0	6.5	14.3	2.0	100.0 (9,719)
	임시	39.3	39.1	11.2	8.8	1.6	100.0 (3,818)
	일용	30.0	21.7	36.6	9.6	2.1	100.0 (2,116)
	자영업주	33.0	14.1	10.4	38.3	4.3	100.0 (2,966)
	무급가족	30.1	14.4	10.1	18.4	26.9	100.0 (651)
합 계		49.6 (9,548)	19.4 (3,732)	11.4 (2,203)	16.5 (3,184)	3.1 (603)	100.0 (19,270)

주: 괄호 안의 값은 해당되는 표본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9~2014), 「한국노동패널조사」.

[그림 10-3] 자영업주의 임금근로자 이동 비중의 추이



구체적으로 [그림 10-3]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업을 접은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로 이동하는 비율이 50%대 초반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60%대 초반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자영업 부문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다음 단계로 어떤 자영업주들이 사업을 접었을 때 임금근로로 이동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010~14년 사이에 임금근로로 이동한 전직 자영업주를 대상으로 그 특성을 분석한다.

〈표 10-5〉 근로자 특성과 자영업 이직자의 재취업 근로형태(2010~14년)
(단위: %, 명)

이전 직장 자영업주		재취업 직장 근로형태					합계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주	무급가족	
성별	여성	29.8	19.8	8.9	35.7	5.8	100.0 (930)
	남성	37.1	11.0	10.3	39.0	2.6	100.0 (1,570)
연령	20대	60.5	19.2	4.7	14.0	1.7	100.0 (172)
	30대	40.1	13.4	6.6	36.6	3.3	100.0 (729)
	40대	33.4	12.8	9.7	40.5	3.6	100.0 (880)
	50대	25.5	14.8	14.8	39.7	5.4	100.0 (522)
	60대 이상	18.8	18.3	13.2	46.2	3.6	100.0 (197)
학력	초졸 이하	16.1	14.8	18.1	46.1	4.9	100.0 (243)
	중졸	23.9	19.1	13.7	38.2	5.1	100.0 (314)
	고졸	32.6	14.3	11.5	37.7	3.9	100.0 (1,109)
	전문대졸	50.2	11.4	5.5	29.6	3.3	100.0 (307)
	대졸 이상	43.7	12.7	2.3	38.8	2.5	100.0 (526)

주: 괄호 안의 값은 표본수이며,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0-5>는 사업을 접은 자영업주들이 어떤 직장으로 이동하는가를 성, 연령, 학력별로 분석한 표이다. 성별로 임금근로로 이동하는 확률은 남녀가 비슷하지만 여성은 임시직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이동하는 확률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반면 남성은 다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과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는 확률이 거의 같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대 자영업주는 대부분 상용직이나 임시직의 임금근로자로 이동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이동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인다. 30대 이상에서는 자영업을 그만두었을 경우 임금근로로 방향을 트는 비율은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용직으로의 재취업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임시·일용직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력별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 전문대졸을 제외하고는 임금근로자로 새 출발을 하는 비중이 서로 엇비슷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영업주가 사업을 접고 새로운 출발선에 설 때 여성, 저학력, 고령의 자영업주들이 임시·일용직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위험성이 높다.

나. 직장이동과 소득

이러한 점은 재취업 일자리의 임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 10-6>은 전 직장에서 자영업주였던 사람이 다시 취업하였을 때, 받는 임금 및 소득을 보여준다. 모든 근로형태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임금 및 소득이 많고, 연령에 따라서는 대부분 40대에 정점을 찍은 후 임금 및 소득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고학력자의 임금 및 소득수준이 높은 일반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자영업주에서 자영업주로 이동한 표본의 경우 약 5.1%가 새로운 사업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은 약 261만 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금액은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자영업에 들어간 자금과 시간을 감안할 때 반드시 자영업주의 소득이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

〈표 10-6〉 근로자 특성과 재취업 직장의 임금 및 소득(2010~14년)

(단위: 만 원)

이전 직장 자영업주		재취업 직장의 임금 및 소득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주	
					소득 있음	적자비중
성별	여성	149.5	142.7	88.8	198.4	5.9
	남성	237.9	159.0	149.3	302.1	4.6
연령	20대	202.3	123.3	-	-	-
	30대	196.3	139.9	157.6	287.2	7.3
	40대	229.0	160.3	169.1	285.9	4.0
	50대	209.5	176.9	106.8	263.2	6.8
	60대 이상	127.4	92.1	91.1	127.7	0.0
학력	초졸 이하	134.9	86.5	75.8	104.8	0.0
	중졸	141.5	109.8	144.7	145.3	6.3
	고졸	192.9	174.7	135.9	252.1	5.6
	전문대졸	234.1	161.1	141.2	261.9	7.4
	대졸 이상	230.8	133.2	162.1	337.6	4.5
전 체		209.2	151.3	128.8	261.4	5.1

주: 괄호 안의 값은 표본수이며,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제3절 자영업의 창업자금

1. 창업자금의 규모

한국노동패널연구(KLIPS)는 2002년의 제5차 조사부터 신규 창업한 자영업주에게 시작할 당시(또는 물려받을 당시)의 투자액과 창업자금의 조달방법을 질문하였다. 창업연도가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영업주가 응답한 투자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서는 투자액에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 2010년 현재가치로 투자액을 환산한 값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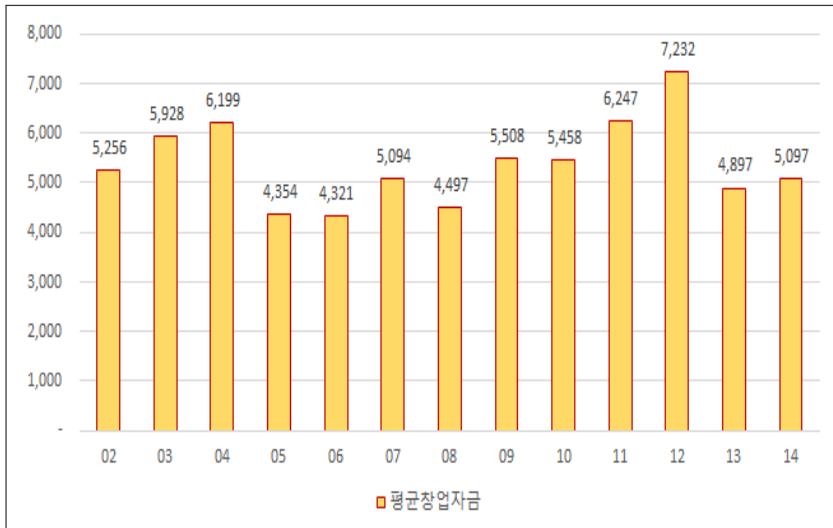
<표 10-7>에 따르면, 자영업을 운영하는 이들의 창업 시 총투자비용의 2010년 현재가치는 평균 5,380만 원이다.³⁶⁾ 관찰연도에 따라서는 [그림 10-4]와 같이 어떤 뚜렷한 양태를 찾아보기 어렵다. 흥미로운 사실은 초기 투자금액이 시간이 지나도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총투자비용 중 75.3%는 본인이나 가족, 친지에 의해 조달되었으며, 3.1%는 동업자에 의해 조달되어 자기 조달의 비중이 거의 80%에 근접하고 있다. 나머지 투자 소요금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 15.2%,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3.1% 등이다(그림 10-5 참조).

이러한 결과는 조사에 응답한 자영업주의 대부분(73.0%)이 고용된 종업원이 없거나 혹은 1~4인 이하의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림 10-4) 자영업 창업자금의 추이(2002~14년)

(단위 : 만 원)



36) 여기에서는 특이값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평균치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그렇다고 하여도 금재호 외(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초기 투자액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금액이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초기 투자액이 많은 자영업주의 생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즉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한 경우는 대부분 퇴출되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새로 창업한 자영업주의 상당수가 특수형태근로자인 점도 중요하다. 산업의 서비스화도 창업자금 규모를 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0-7〉 총투자액과 조달방법(성별, 연령별, 학력별, 업종별)³⁷⁾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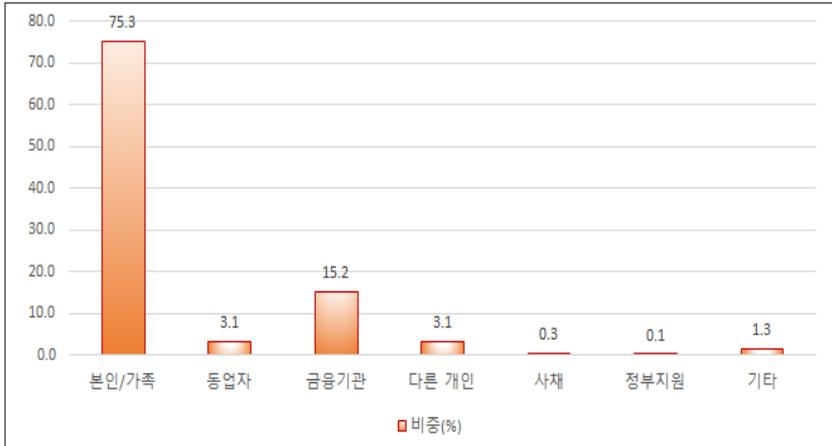
		총 투자액 (만 원)	자본조달방법			
			본인 가족친지	동업자	금융기관 융자	다른 개인 융자
전 체		5,380	75.3	3.1	15.2	3.1
성	남 성	6,132	74.7	3.3	15.8	3.4
	여 성	4,034	76.5	2.6	14.0	2.5
연령	20대	3,632	78.6	4.2	11.4	1.7
	30대	3,943	75.3	3.2	15.3	2.6
	40대	6,073	72.1	3.1	17.5	4.5
	50대	6,347	77.7	2.3	14.1	2.9
	60대 이상	4,351	81.0	2.8	9.8	0.5
학력	초졸 이하	3,349	78.2	2.5	10.8	3.6
	중졸	3,941	73.9	1.1	17.6	4.0
	고졸	5,231	75.1	3.2	16.0	3.2
	전문대졸	5,457	72.4	3.5	16.5	3.1
	대졸 이상	6,883	76.8	3.8	13.5	2.1
업종	제조업	6,302	77.9	3.2	13.9	2.9
	건설업	4,531	74.7	3.5	15.0	2.8
	도소매	5,317	76.3	2.1	15.3	3.8
	음식숙박업	7,664	71.7	3.1	18.9	4.2
	운수업	5,630	74.0	1.5	18.1	3.5
	금융 및 보험	1,253	79.9	3.7	5.1	1.7
	부동산 및 임대업	6,005	73.9	6.6	15.4	1.9
	사업서비스업	3,279	80.5	3.2	11.0	1.6
	교육서비스업	2,973	75.6	5.1	9.6	1.6
	오락, 방송 및 공연	7,778	73.1	3.4	18.3	2.8
기타 공공/개인서비스	4,258	75.8	3.0	13.6	2.7	

주: 투자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농림수산업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2~14), 「한국노동패널조사」.

37) 특이값(ourlier value)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총투자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0-5〕 창업자금의 조달방법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2~14), 『한국노동패널조사』.

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용자를 받기 쉽지 않고, 대부분의 필요 자금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는 현실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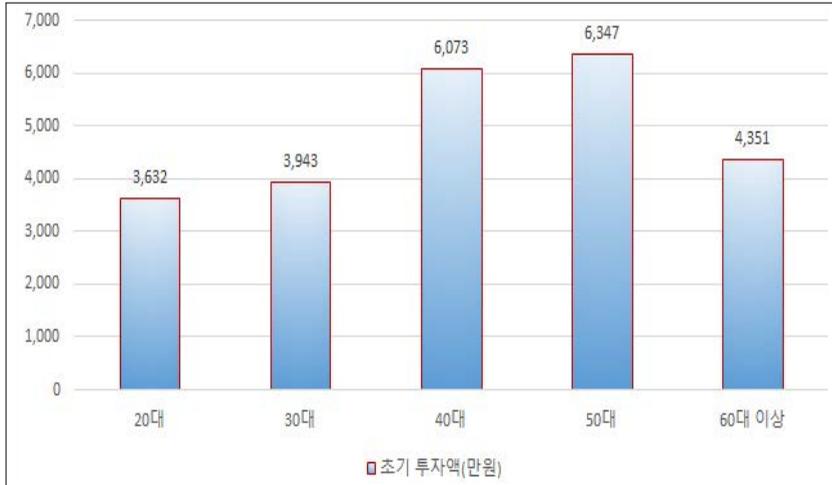
2. 자영업주 특성과 창업자금의 조달방법

자영업 창업의 투자액을 성별로 분석하면 남성의 경우 6,132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반면, 여성은 4,034만 원이 필요하여 남성의 65.8%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영세할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상당수는 초기 투자가 거의 필요없는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자본금 조달방법은 남녀의 성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연령대별로는 [그림 10-6]처럼 40대를 정점으로 하는 역U자 형태를 보인다. 20대에서 50대까지 초기 투자액이 계속 증가하다가 50세의 6,347만 원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60대 이상에서는 그 금액이 4,351만 원으로 떨어진다. 투자재원 조달방식도 40대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 용자의 비중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역U자를 그리고 있다.

(그림 10-6) 자영업 시작 연령과 총투자액

(단위: 만 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2~14), 「한국노동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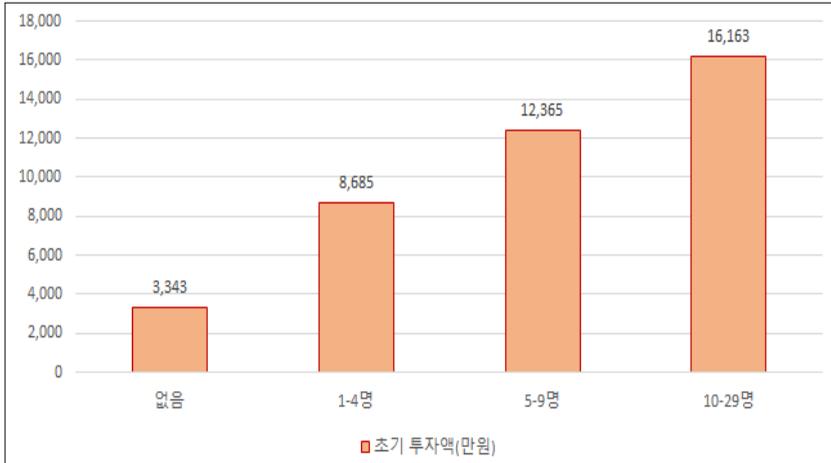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에 투자한 초기 금액이 크다. 초졸 이하의 저학력자는 창업에 3,349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6,883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는 자영업 창업지원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저학력자에게 가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공한다.

산업별로는 ‘오락, 방송 및 공연’ 부문과 음식숙박업에서 투자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 제조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에서 초기 투자액이 6,000만 원을 넘고 있다. 반면, 금융 및 보험은 평균 1,253만 원에 불과하며 교육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금융 및 보험에서 이처럼 초기 투자액이 낮은 것은 대부분의 자영업주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기 때문이며 사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임차 비용이 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초기 투자금도 많이 필요하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불과 3,343만 원의 투자비용이 소요되었으나 고용주는 초기 자금 9,348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된 근로자수가 늘어날수록 초기 투자액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10-7]에서 1~4명인 사업체는 8,685만 원이 소요되었지만, 5~9명의 사업체는 1억

(그림 10-7) 사업체의 근로자 규모와 초기 투자액

(단위 : 만 원)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2~14), 『한국노동패널조사』.

2,365만 원, 그리고 10~29인 사업체는 1억 6,163만 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였다.³⁸⁾

제4절 자영업의 매출

1. 매출의 변화

[그림 10-8]과 같이 소비자물가수준을 반영한³⁹⁾ 2014년 자영업주의 연간 매출액은 1억 2,134만 원 수준이다.⁴⁰⁾ 2003년의 신용대란 이후 자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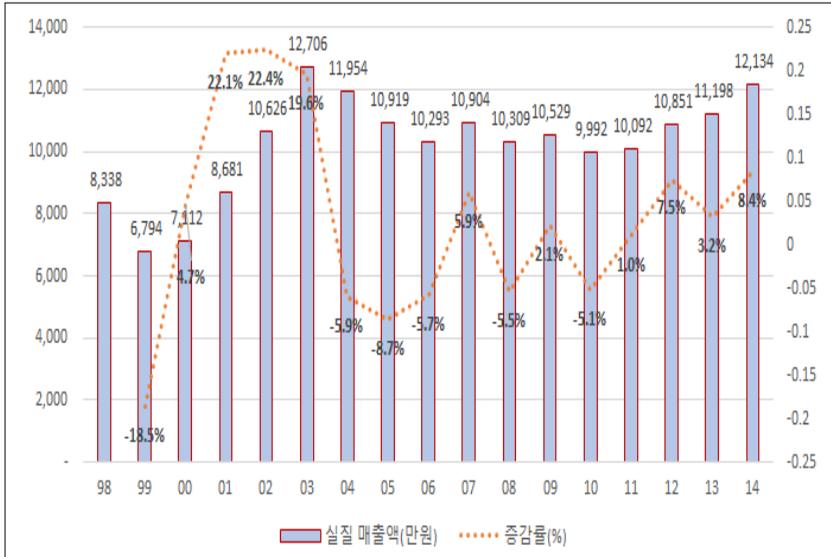
38) 여기에서는 아웃라이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20억 원 이하의 투자비용을 보고한 경우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20억 원을 초과하는 창업까지 포함시키면 종업원이 많은 자영업의 초기 투자비용은 더욱 높아진다.

39) 자영업 매출액의 실질 수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매출액의 실질구매력을 중시하여 소비자물가지수로 매출액을 조정한다.

40) 분석에서 농림수산업 종사자와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그림 10-8) 자영업주의 연간 실질 매출액과 증감률

(단위: 만 원,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8~2014), 『한국노동패널조사』.

의 매출규모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2004~06년 사이에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회복을 하던 자영업주의 매출은 2010년 이후야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9,992만 원이었던 매출은 2014년 12,134만 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2014년에도 2003년의 매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이후의 매출 증가는 2003년 신용대란 이후의 자영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자영업주가 우선적으로 퇴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매출액의 규모가 매우 큰 일부 자영업주로 인해 평균 매출액이 올라감에 따라 자영업의 실상을 왜곡시킬 수 있다. 평균 매출액 대신 중간(median) 매출액을 살펴보면 1998~2014년 사이 3,808만 원에 불과하다.⁴¹⁾ 평균치와 중간치 사이의 이처럼 큰 격차는 자영업주 내부에서 매출액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41) 1998~2014년 사이 자영업주의 연평균 실질 매출액은 1억 174만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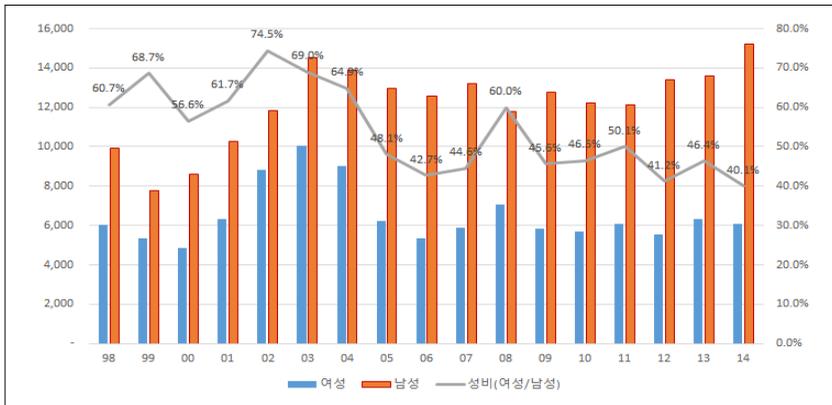
2. 자영업주의 특성과 매출

자영업주의 특성별로 매출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10-8>과 같다. 성별로는 예상처럼 여성에 비해 남성 자영업주의 매출액이 많다. 관찰년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1998~2014년의 매출액은 남성이 1억 2,187만 원으로 여성의 6,581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시간에 따라서는 [그림 10-9]처럼 남성에 비해 여성 자영업주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남성의 74.5% 수준까지 높아졌던 여성 자영업주의 매출액은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14년 남성의 40.1% 수준까지 떨어졌다.

연령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40대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50대 이후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40대의 매출액이 50대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매출액은 2004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4년 1억 원이 넘었던 매출액은 2006년 6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 2012년까지 회복을 하였다. 이는 자영업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60대 이상의 자영업주들이 큰 타격을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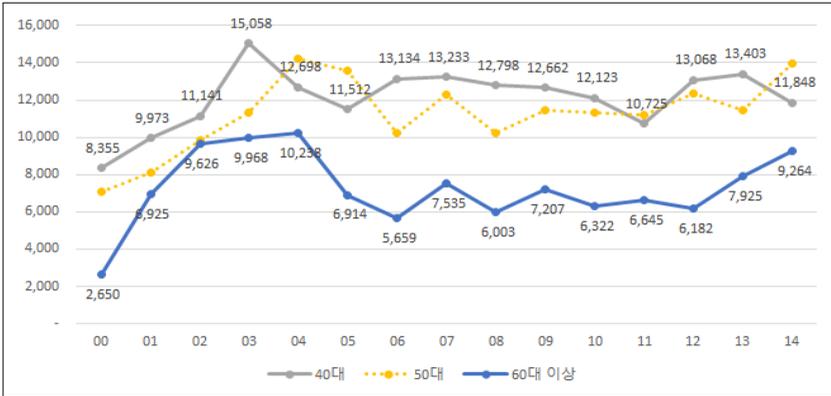
(그림 10-9) 성별 연간 실질 매출액 및 성비(=여성/남성)의 추이
(단위: 만 원,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1998~2014), 『한국노동패널조사』.

(그림 10-10) 연령대별 연간 실질 매출액의 추이

(단위: 만 원,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0~14), 『한국노동패널조사』.

<표 10-8> 자영업주 특성과 연간 실질 매출액

(단위: 만 원)

		조사연도			
		1998	2006	2014	1998~2014
성별	여 성	4,279	4,725	6,648	6,581
	남 성	8,804	11,070	16,317	12,187
연령	20~29세	5,432	4,813	7,493	5,547
	30~39세	6,457	8,528	15,084	9,797
	40~49세	8,015	11,567	12,919	11,588
	50~59세	5,507	8,988	14,665	10,918
	60세 이상	9,782	4,984	10,102	7,265
교육 수준	초등졸 이하	2,282	4,761	5,902	4,829
	중졸	4,032	5,370	8,054	6,783
	고졸	7,495	8,235	12,404	10,194
	전문대졸	7,975	11,336	16,974	12,503
	대졸 이상	16,608	16,065	19,375	16,658
종업원 수	없음	2,713	4,671	5,716	4,686
	1~4명	8,947	13,652	21,623	15,878
	5~9명	36,834	30,776	59,609	36,608
	10명 이상	42,896	43,980	60,458	46,572

주: 각 연도의 매출액은 경상 매출액이고, 1998~2014년을 종합한 매출액은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매출액이다.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표본과 농업수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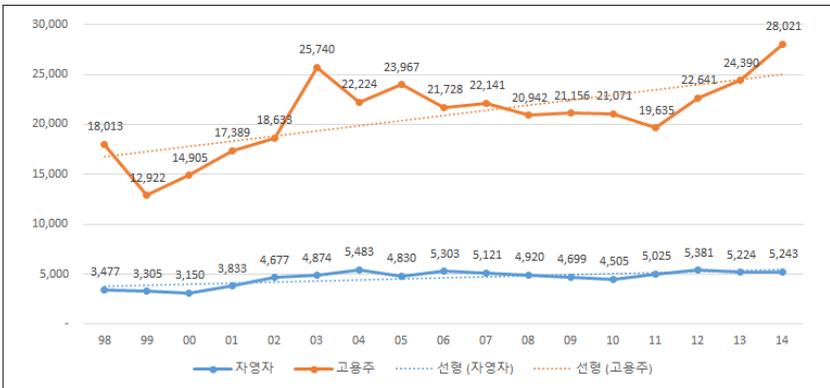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8~2014), 『한국노동패널조사』.

학력에 따라서는 고학력 자영업주의 매출액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자영업의 규모가 클수록 매출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1998~2014년 평균적으로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매출액보다 종업원 1~4명의 고용주 매출이 3.39배 많고, 5~9인의 고용주는 7.81배, 그리고 10인 이상은 9.94배 많다(그림 10-11 참조).

추세적으로 보면 [그림 10-11]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사이의 매출 격차가 커지고 있다. 표본수가 충분할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의 경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조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사업의 규모가 큰 자영업은 더욱 번성하고, 규모가 매우 작은 영세 자영업은 더욱 위축되어 존재의 위기에 부딪치게 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잠정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10-11) 종업원 여부에 따른 연간 매출액 추이

(단위: 만 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8~2014), 『한국노동패널조사』.

3. 매출의 결정요인 분석

가. 추정방법

자영업 매출과 관련되어 관심을 끄는 이슈로 매출에 대한 시간효과

(time effect)가 있다. 시간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시간, 즉 연도에 따라 자영업의 매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 매출액의 결정함수를 설정하고 추정한다. 종속변수로는 매출액의 로그(log) 값을 사용하며 설명변수 중 인구학적 변수로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그리고 자영업의 특성변수로는 산업, 사업기간, 종업원 유무 및 규모를 포함시킨다.

매출액과 관련하여 경상매출액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물가지수 또는 GDP 디플레이터로 조정된 조정 매출액을 사용할 것인지를 이슈가 있다. 여기에서는 연도효과(year effect)를 측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물가상승효과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²⁾ 추정에는 농림수산업을 제외한다. 농림수산업의 매출액은 정부의 (가격)정책과 작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필요한 노이즈(noise)를 제거할 수 있다.

연령은 조사 당시의 나이로 40대 또는 50대까지 매출이 증가하다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연령의 제곱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킨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범주(category)형 가변수(dummy variable) 대신 교육기간(년)을 사용하고, 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등 12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표본수가 적은 통신업, 가사서비스업 등은 모두 '여타 산업'으로 통합하였다.⁴³⁾ 횡단면 자료에서는 사업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기간과 매출액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사업기간의 자연대수값 및 이의 제곱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물가상승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를 반영하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았다.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수출과 수입의 교역조건에 크게 좌우된다. 자영업의 매출이 주로 내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의 적합성이 낮을 수 있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자영업

42) 1998~2014년 사이 매출액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가 1.3%(459개) 있다. 매출액을 영(零)으로 보고한 사유가 불명확하여 회귀분석에서 제외한다.

43) 여타 산업에는 '전기, 가스 및 수도', '통신업', '가사서비스', '금융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및 '국제 및 외국기관'이 포함된다.

주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많이 반영되어 실제 자영업주의 경상 매출액에 영향을 준다. 또한 이 논문의 목적은 자영업주의 실질 구매력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실질 구매력은 GDP 디플레이터보다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소비자물가지수로 연도별 매출액을 제어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통상적인 OLS와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OLS는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하다. 사용된 데이터가 2001년 이후의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OLS를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misspecification의 문제를 일으킨다. OLS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해 Breusch and Pagan(1980)이 제시한 Lagrange multiplier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모든 개인에 대해 모형의 기울기(slope)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즉, $y = \beta_1 + \mu_i + \sum_{k=1}^K \beta_k x_{kit} + e$ 에서 $\mu_i = 0, \forall i, i = 1, 2, \dots, N$)을 거부(reject)하였다. 다음 단계로 고정효과(fixed effect)와 임의효과(random effect) 중 어떤 것이 정확한 모형 specification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Hausman 검정을 실시할 수 없었고,⁴⁴⁾ 따라서 임의효과모형이 정확한 모형 specification이라는 가정을 도입하여 추정을 실시하였다.

나. 추정결과

추정결과는 <표 10-9>에 나타나 있으며, 임의효과모형을 중심으로 추정결과를 해석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 및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모든 설명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R-square 값이 0.3710에 달한다.

단순분석의 결과와 동일하게 성별 효과와 교육기간 효과 모두 정(+의) 값을 보인다. 즉 남성의 매출액은 여성보다 1.60배 많은 것으로 예측(predict)되었고, 교육기간이 1년 증가하면 매출은 7.0% 증가할 것으로

44) 표본 중 상당수(40.4%)는 1~3개 년도만 매출액을 보고하고 있고,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 추정 시 모형이 잘못 설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소득의 결정함수 추정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표 10-9> 매출액 결정요인의 추정결과

설명변수	Random Effect Model	OLS
상수항	4.60434(0.000)	4.57049 (0.000)
성별(0: 여성, 1: 남성)	0.46698(0.000)	0.4042401(0.000)
연령	0.09373(0.000)	0.0967912(0.000)
연령의 제곱	-0.00112(0.000)	-0.0011576(0.000)
교육기간(년)	0.07038(0.000)	0.0626058(0.000)
혼인상태(0: 기혼, 1: 미혼 등)	-0.23376(0.000)	-0.245610 (0.000)
산업(제조업 기준)		
건설업	-0.07864(0.139)	-0.123465 (0.000)
도소매 및 판매업	0.13311(0.000)	0.1747762(0.000)
음식숙박업	0.13184(0.002)	0.0347647(0.212)
운수업	-0.25024(0.000)	-0.258722 (0.000)
금융업	-0.19702(0.002)	-0.220944 (0.000)
부동산 및 임대업	-0.52147(0.000)	-0.457814 (0.000)
사업서비스업	-0.18772(0.002)	-0.279854 (0.000)
교육서비스업	-0.77423(0.000)	-0.819651 (0.000)
오락, 방송 및 공연사업	-0.25135(0.000)	-0.350002 (0.000)
기타 공공/개인서비스업	-0.35606(0.000)	-0.427168 (0.000)
여타 산업	-0.12083(0.216)	-0.259427 (0.000)
사업기간 자연대수 값(년)	0.14610(0.000)	0.1496491(0.000)
사업기간의 자연대수 값의 제곱	0.00474(0.000)	0.0059832(0.000)
사업체 규모(자영자 기준)		
1~4인	0.54273(0.000)	0.891064 (0.000)
5~9인	1.09100(0.000)	1.65462 (0.000)
10인 이상	1.11847(0.000)	1.70335 (0.000)
Year 효과(2001년 기준)		
1999년	-0.10991(0.001)	-0.1007975(0.012)
2000년	-0.08585(0.010)	-0.0933417(0.020)
2001년	0.16926(0.000)	0.1694466(0.000)
2002년	0.32688(0.000)	0.3517714(0.000)
2003년	0.35356(0.000)	0.4181582(0.000)
2004년	0.37573(0.000)	0.417779 (0.000)
2005년	0.45266(0.000)	0.5050304(0.000)
2006년	0.43985(0.000)	0.5020633(0.000)
2007년	0.44428(0.000)	0.5078252(0.000)
2008년	0.35703(0.000)	0.4193861(0.000)
2009년	0.35435(0.000)	0.4044256(0.000)
2010년	0.34135(0.000)	0.3889259(0.000)
2011년	0.37382(0.000)	0.4351161(0.000)
2012년	0.44154(0.000)	0.518197 (0.000)
2013년	0.48041(0.000)	0.562007 (0.000)
2014년	0.53034(0.000)	0.6074084(0.000)
표본수	25,753	25,753
overall R ² / Adjusted R ²	0.3710	0.3830
Wald Rx ² /F-값	6,078.3	4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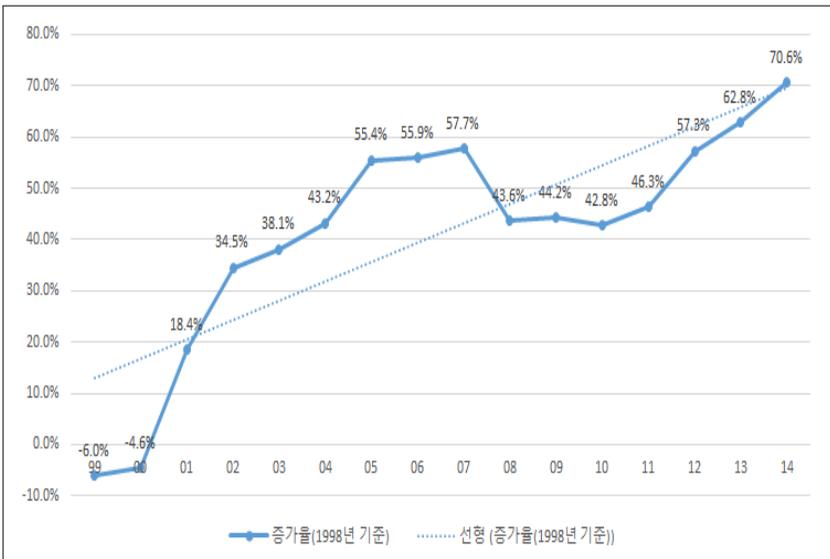
주: 괄호 안의 값은 P>|t| 또는 P>|z|이며, 농림수산업과 연간 실질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정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14년.

기대된다. 연령에 대해서도 매출액은 41.8세까지 증가하다 이후 줄어드는 역U자 형태를 보인다. 또한 미혼자는 기혼자 매출액의 79.2%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체 규모에 대한 추정결과도 규모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의 매출과 비교하여 1~4인 업체는 1.72배, 5~9인은 2.98배,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체는 3.06배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매출이 증가하다가 일정 기간 이후에는 더욱 빠르게 늘어나는 형태를 보인다.

산업에 따라서는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건설업과 여타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산업에 따른 매출액 변동이 상당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산업을 매출액 규모의 순서에 따라 분류하면 ① 음식숙박업, 도소매 및 판매업, ② 제조업, 건설업, 여타 산업, 사업서비스업, ③ 운수업, 오락·방송 및 공연사업, 기타 공공·개인서비스업, ④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4개 산업군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성, 연령, 학력, 사업기간, 사업체 규모 등을 제어하였을 경우 음식숙박업과 도소매 및 판매업의 매출이 가장 많다. 이는 단순 도수분포와는 사뭇 다른 결과로 이들 산업에 여성 또는 저학력

(그림 10-12) 자영업주 매출에 대한 연도효과의 추이



자가 집중되었고 사업체 규모가 소규모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셋째, 다른 변수를 통제한 뒤의 사업서비스 매출액은 그룹 ②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학력수준이 높고 남성이 대다수이며 규모가 크다는 점을 반영한다.

연도효과도 1999~200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시간에 따라 그 값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10-12]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1998년을 기준으로 연도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5절 자영업의 소득

1. 실질 및 명목 소득의 변화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자영업주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에서 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임금근로자에게는 임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질문하여 기본적으로 ‘세후소득’을 묻고 있다. 임금근로자는 소득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자영업주는 정확하게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이유로 먼저 자영업주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임금근로자 처럼 단순히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시설비’, ‘권리금’, ‘상품’ 등의 형태로 자본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둘째, 적자를 보는 자영업주가 상당수인데 소득계산에 적자를 어떤 방식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의 어려움이 있으며, 셋째, 수많은 영세 자영업주의 경우 매출과 비용, 그리고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⁴⁵⁾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2005년의 제8차 조사부터 자영업주가 ‘적자를

45) 특히 농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소비하였을 때, 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어려움이 있다.

보는' 경우 적자의 규모를 묻고 있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적자규모는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조사된 자영업주의 소득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을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과 함께 자영업주 소득에는 자산에 대한 기회비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임금근로자 소득은 순수한 근로소득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주의 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직접 비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영업주의 소득파악에 대한 이상의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표 10-10>은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에 대해 월평균 소득 및 임금의 시계열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적자를 보는 자영업주는 적자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에서 제외시켰는데 자영업주 소득은 1998년의 148.4만 원에서 2014년에는 297.6만 원으로 100.5%가 상승한 반면,⁴⁶⁾ 임금근로자도 동 기간 110.3만 원에서 222.8만 원으로 102.0%가 늘어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큰 것처럼 자영업 내에서도 고용주와 자영자의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 연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2010년을 100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하였을 때, 1998~2014년 사이 고용주는 월평균 387.2만 원의 소득을 올린 반면 자영자의 소득은 고용주의 48.6%에 불과한 188.2만 원의 소득에 그쳤다.

[그림 10-13]은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된 실질소득의 추이를 나타내며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자영자의 실질소득은 2004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11년에 와서야 2004년의 수준을 겨우 넘어섰다. 둘째, 고용주의 실질소득도 2006년 이후 하락하였다가 2010년에야 2006년도 수준을 회복하였다. 세 번째, 고용주와 자영자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2006년을 기점으로 확대되었다. 즉, 2003년까지는 상대소득비가 1.94로 2.00을 넘지 않았으나 2006년 이후에는 2.46으로 높아졌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한 자영업주의 소득은 2005년 이후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그림 10-14]를 보면 고용주와 자영자를 포괄한 자영업주의 실질소득은 2002년 이후 떨어지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월평균 249.9만 원까지 낮아졌다. 이후 소득이 증가하였지만 2014년 현재에도 272.9만 원으로

46) 적자를 보는 자영업주의 비중이 1998년의 23.8%에서 2014년 3.6%로 낮아졌기 때문에 자영업주의 소득상승은 <표 10-9>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2002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정체는 임금근로자에 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007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임금 대비 자영업주 소득의

〈표 10-10〉 월평균 소득의 추이⁴⁷⁾(농림수산업 제외)

(단위: 만 원)

	자영업주			임금근로자 ⁴⁸⁾		
	고용주	자영자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차 1998	234.8	111.0	148.4	123.3	71.9	110.3
2차 1999	186.2	108.8	135.9	114.4	64.2	96.4
3차 2000	215.0	112.2	146.5			101.2
4차 2001	279.8	137.6	188.6	125.1	74.2	112.5
5차 2002	304.0	160.5	214.7	137.0	79.4	122.6
6차 2003	313.7	162.0	217.1	154.0	85.6	137.2
7차 2004	326.3	186.5	239.9	171.0	91.5	146.7
8차 2005	328.5	157.1	209.9	184.7	97.2	155.0
9차 2006	410.1	167.0	239.5	196.4	105.7	165.1
10차 2007	374.1	181.8	245.9	211.6	110.6	177.3
11차 2008	394.0	182.6	253.1	221.5	114.2	185.6
12차 2009	372.5	182.4	250.1	226.3	113.7	184.7
13차 2010	382.2	183.0	249.9	232.6	119.2	188.2
14차 2011	412.5	200.2	274.6	249.4	123.8	199.3
15차 2012	446.9	203.6	281.5	261.8	130.6	208.9
16차 2013	444.4	209.5	283.5	270.7	136.8	217.6
17차 2014	473.7	218.6	297.6	279.7	141.3	2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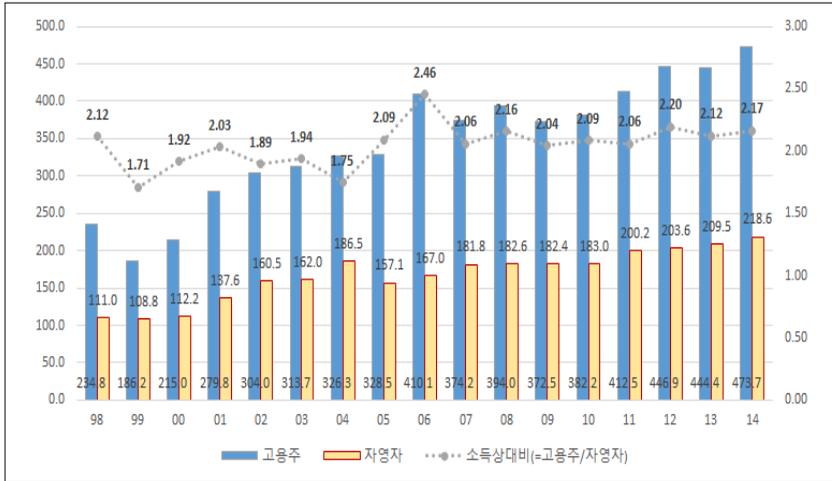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14년.

47) 적자를 보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따라서 자영업주의 월평균 소득이 과대 추정된다. 또한 2000년의 제3차 조사에서는 정규직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

48)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주 소득에는 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주의 상당수가 적자를 보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주의 소득과 임금근로자 소득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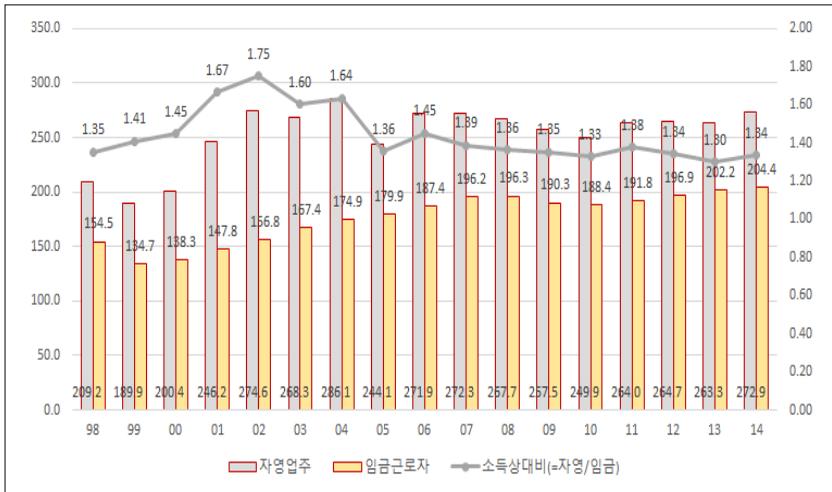
(그림 10-13) 자영업주 월평균 실질소득의 추이⁴⁹⁾

(단위 : 만 원, %)



(그림 10-14) 자영업주의 실질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추이

(단위 : 만 원, %)



비율(=자영/임금)은 2002년 1.75에서 2014년 1.34로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 이처럼 자영업주의 실질소득이 정체됨에 따라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

49) 적자를 본 자영업주와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제외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소득을 계산하였다.

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영업주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표 10-11>과 같이 실질 월평균 소득을 6개 범주로 분류하고 그 비중을 계산하였다.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응답한 자영업주의 비중은 1998년 24.7%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4년에는 3.1%를 기록하였다. 반대로 3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주 비중은 1998년 10.6%에서 2014년에는 29.5%로 늘어났다. <표 10-11>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첫째, 적자 가구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둘째, 그동안 급감하였던 월 5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자영업주가

<표 10-11> 자영업주 실질소득의 분포

(단위: %)

	적자	0~<50	50~<100	100~<200	200~<300	300만 원 이상
1998	24.7	5.5	13.3	24.5	21.5	10.6
1999	21.2	6.4	15.0	26.2	21.7	9.5
2000	13.4	8.5	13.5	26.8	25.0	12.8
2001	14.7	7.0	12.9	32.6	16.0	16.8
2002	11.5	5.0	8.8	31.2	17.8	25.7
2003	11.3	5.5	11.5	28.6	16.4	26.7
2004	12.0	5.5	10.8	26.9	20.4	24.5
2005	6.5	7.7	13.1	30.3	19.7	22.6
2006	6.0	6.7	12.6	29.3	21.2	24.3
2007	4.4	6.8	12.4	26.4	21.4	28.6
2008	5.2	6.0	10.0	27.6	20.1	31.1
2009	5.7	6.0	11.1	24.6	22.5	30.1
2010	5.0	5.8	9.1	26.5	22.4	31.2
2011	5.0	7.8	15.4	28.6	19.3	24.0
2012	3.9	7.9	14.6	27.7	20.4	25.5
2013	3.8	8.0	14.5	26.9	19.5	27.4
2014	3.1	8.2	13.2	28.1	17.8	29.5

주: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실질소득을 계산하였고, 소득이 월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14년.

2002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외환위기 이후 증가일로에 있었던 3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비중이 2002년 이후 22.6~31.2%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구원수나 다른 가구원의 소득, 거주지역, 가구자산 등에 따라 취약계층 여부는 달라지겠지만 실질소득이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이라면 취약계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1998~2014년 동안 적자를 보거나 월 100만 원 미만의 자영업주 비중은 28.1%였으며, 2014년에도 24.5%에 달한다. 이는 비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 4명 중 1명은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2. 자영업주의 특성과 소득

자영업주 특성에 따른 소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여기에서는 2014년의 경상소득과 1998~2014년 사이의 소득을 통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주의 특성별 월평균 소득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12>에 정리되어 있다. 1~17차 연도의 소득 자료를 통합한 경우에는 물가상승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로 각 연도 소득을 조정하였다.

<표 10-12>에서 예상과 같이 남성 소득이 여성보다 높고, 연령에 따라서는 40대 또는 50대를 정점으로 하는 역U자를 그린다. 1998~2014년 전체적으로 여성 자영업주의 소득은 남성의 62.7%에 불과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후 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60대 이상 자영업주 소득은 40대의 57.2%에 지나지 않는다. 학력별로 고학력자 자영업주의 소득이 높아 대졸 자영업주의 평균 소득은 345.0만 원이었으나 고졸자는 대졸자의 73.3%, 중졸자는 57.0%, 그리고 초졸 이하는 42.6%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경상 기준으로 대졸 이상 고용주 소득은 565.7만 원에 달하였다.

산업별로는 사업서비스업에서 자영업주의 소득이 326.4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 외에도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250만 원을 넘어 고소득 업종으로 분류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산업은 월평균 193.5만 원인 교육서비스업이고 바로 위에 기타 공공/개인서비스업, 운수업 등의 산업이 위치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소득 차이가 많아 자영업자의 소득은 1998~

〈표 10-12〉 자영업주 특성과 소득⁵⁰⁾

(단위: 만 원)

		2014			1998~2014		
		고용주	자영자	전체	고용주	자영자	전체
전 체		473.7	218.6	297.6	372.7	186.6	249.0
성별	여 성	328.1	167.3	207.1	283.5	138.1	176.7
	남 성	526.9	248.1	343.1	401.8	212.0	281.7
연령	20~29세	341.1	116.7	200.8	261.4	144.8	175.9
	30~39세	442.7	250.2	326.0	347.3	205.8	260.3
	40~49세	457.8	265.0	331.7	397.9	214.1	280.8
	50~59세	547.9	238.3	330.6	399.9	187.2	257.6
	60세 이상	423.0	135.3	198.6	305.7	119.3	160.7
교육 수준	초졸 이하	354.4	117.3	157.4	248.5	122.7	141.7
	중졸	384.8	186.1	227.8	301.2	164.5	196.9
	고졸	464.1	239.5	302.6	352.0	204.6	252.9
	전문대졸	424.1	249.3	332.7	372.6	202.5	275.6
	대졸 이상	565.7	263.2	390.5	453.5	229.1	345.0
산업	제조업	628.4	214.3	422.6	426.7	200.2	314.7
	건설업	501.5	271.3	357.1	355.7	239.3	284.2
	도소매	452.2	195.9	270.4	406.5	177.4	242.2
	음식숙박업	378.0	224.7	303.2	308.5	165.7	235.7
	운수업	400.0	223.3	231.0	278.3	207.5	214.9
	부동산 및 임대업	410.8	253.9	295.8	327.2	194.2	229.4
	사업서비스업	433.3	307.6	368.7	410.7	235.0	326.4
	교육서비스업	431.3	198.9	243.4	311.6	145.4	193.5
	오락, 방송 및 공연	340.9	308.8	316.8	309.9	200.7	242.2
기타 공공/개인서비스	434.7	180.5	225.0	318.2	157.5	196.5	
종업원 수	자영자	218.6			186.6		
	고용주	473.7			372.6		
	1~4명	431.5			336.2		
	5~9명	631.0			468.4		
	10명 이상	593.2			511.6		

주: 농림수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월평균 소득의 계산에서 적자를 보거나 3,000만 원 초과의 고소득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14년.

50) 2014년 소득은 경상소득이며, 1998~2014년 소득은 2010년을 100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된 실질소득이다.

2014년의 기간 동안 월평균 186.6만 원으로 372.7만 원인 고용주 소득의 50.1%에 그치고 있다. 특히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소득은 무려 자영업자의 2.74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영업주 사이의 소득 양극화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종합적으로 40, 50대 남성으로 제조업이나 사업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소득이 가장 높아 한국 사회에서 고소득군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소득의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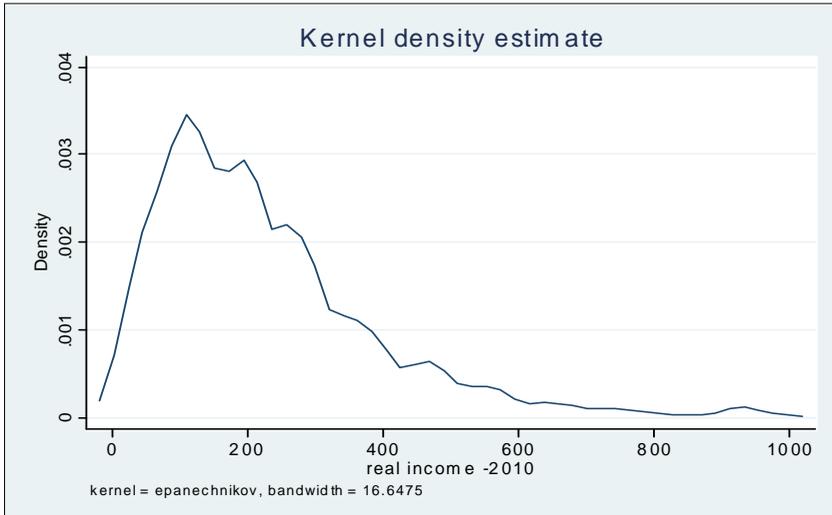
다음으로 자영업주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계량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연도 변화에 따라 자영업주의 소득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아본다. 소득과 관련된 계량 분석에는 다음 세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자영업주의 소득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닌 한쪽으로 치우친 편중분포(skewed distribution)라는 점이다. 소득에 대한 [그림 10-15]의 커널(kernel) 분포도 이를 보여주고 있다.⁵¹⁾ 이는 자영업주가 서로 이질적이며 소수의 고소득자가 평균임금을 좌우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기에서는 OLS 대신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한다. OLS가 평균값을 중심으로 오차항 제곱의 합계($\sum_{i=1}^n (y_i - X_i\beta)^2$)를 최소화하는 추정방법이라면, 분위회귀분석은 τ -quantile 을 중심으로 오차항 절대치의 합계($\sum_{i=1}^n |y_i - X_i\beta|$)를 최소화하는 가중(weighted) 추정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오차항의 값이 정(+)이라면 분위 τ 의 가중치가 부(-)이면 $1 - \tau$ 의 가중치를 오차항의 절대치에 부여하며, 식(1)을 최소화하는 $\hat{\beta}$ 을 구하는 것이다.

$$\sum_{y_i \geq \beta' X_i} \tau |y_i - \beta' X_i| + \sum_{y_i < \beta' X_i} (1 - \tau) |y_i - \beta' X_i| \quad (1)$$

51)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된 자영업주의 평균 소득은 249.0만 원이지만 중위값은 192.1만 원이다.

(그림 10-15) 자영업주 월평균 실질소득의 분포(1998~2014년 전체)



두 번째는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응답한 자영업주의 문제이다. 회귀분석의 대상이 되는 표본의 8.8%(2,477개)는 소득이 ‘적자’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적자규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을 제외하였을 경우 자영업주 소득이 과대 추정되고 상당수의 표본들이 추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보손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소득 제로(0)를 기준으로 하는 토빗 회귀분석(tobit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기로 한다.

세 번째는 사용된 데이터가 1998~2014년의 17년에 걸친 패널자료라는 점이다. 패널자료의 경우 통상적인 추정모형은 mis-specification의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모형에 대한 specification 검정이 필요하다. 간단한 형태의 패널모형을 다음의 식(2)와 같이 설정한다.

$$y = \bar{\beta}_1 + \mu_i + \sum_{k=2}^K \beta_k x_{kit} + e, \quad i = 1, 2, \dots, N, \quad t = 1, 2, \dots, T \quad (2)$$

이때, 모든 μ_i 가 영(零)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Lagrange multiplier statistic(Breusch and Pagan, 1980)을 사용한다. 가설이 올바르게 되는 전제 아래 다음의 통계량을 이용할 수 있다.

$$\lambda_{LM} = \frac{NT}{2(T-1)} \left[\frac{\bar{e}'(I_N \otimes j_T j_T') \bar{e}}{\bar{e}' \bar{e}} - 1 \right]^2 \quad (3)$$

이 통계량은 asymptotically $\chi^2_{(1)}$ 분포를 하며, 여기에서 $\bar{e}' \bar{e}$ 는 설명변수 X 에 대한 y 의 OLS 추정의 sum of squares of residuals이고 $\bar{e}'(I_N \otimes j_T j_T') \bar{e} = \sum_{j=1}^N (\sum_{t=1}^T e_{jt})^2$ 이다. 검정결과 $\chi^2_{(1)}$ 의 값은 1%의 유의수준에서 μ_i 가 영(零)이라는 귀무가설이 거부(reject)되었다.

다음 단계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중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Hausman(1978)의 specification test를 실시하여야 하나,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것은 상당수의 표본들이 1~3번 정도만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⁵²⁾ 따라서 우리는 임의효과모형이 올바른 모형설정이라는 가정을 도입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추정방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의 가장 큰 원인은 분위회귀분석이 weighted least absolute deviation estimation method 그룹에 속하는 반면 토빗(tobit)회귀분석은 기본적으로 최우추정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는 분위회귀분석 모형과 더불어 임의효과모형과 토빗회귀분석을 결합한 임의효과토빗회귀추정(random effect tobit regression estimation)의 두 가지 추정방법을 사용한다. 두 가지 추정방법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분위회귀추정은 자영업 내부의 이질성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오차항의 분포가 편중(skewed)되어 있다는 점을 회귀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적자를 보고 있다'는 표본이 분석에서 제외되는 단점이 있다.⁵³⁾ 반면 임의효과토빗회귀추정은 '적자를 보

52) 구체적으로 1998~2014년의 기간 중 8,310명의 자영업주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 중 13.3%는 1회, 15.8%는 2회, 11.2%는 3회만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체 자영업주의 40.4%에 대해서는 1~17차까지 17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소득파악이 가능하다.

53) 최강식·정진욱·정진화(2005)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표본이 제외(censoring)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양(+)의 소득일 때 1, 그렇지 않을 때 영(0)의 값을 가지는 종속변수를 사용한 프로빗(probit) 추정을 실시한 후 그 절삭 편의(censoring bias)의 추정치인 IMR(Inverse Mill's Ratio)를 분위회귀분석에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방법론이 문제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표본의 일부가 추정예

고 있다’는 표본을 포함하여 추정의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오차항의 분포를 평균을 영(0)으로 하고 분산을 σ^2 로 하는 정규분포로 가정함에 따라 추정결과의 일치성(consistency)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나. 모형의 추정결과

자영업주의 소득함수 추정에 있어 매출액은 중요한 설명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매출액은 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매출액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연립방정식 추정과 같이 2단계 추정방법을 채택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임의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하고, 추정된 계수로 산정된 매출액 예측치를 대리변수로 하여 자영업 소득의 추정 방정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1단계 매출액의 추정에는 <표 10-9>의 매출액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을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성, 연령, 연령의 제곱, 교육기간, 혼인상태 등의 변수와 산업, 사업기간의 자연대수값, 사업기간 자연대수값의 제곱, 사업체 규모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음의 2단계 소득 추정에는 1단계의 매출액 추정에서 사용된 설명변수들 중 사업체 규모를 제외하는 대신 고용주인지 자영업자인지를 판별하는 변수를 포함시켰다. 또한 가구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변수도 추가하였다. 매출액에 대한 1단계 추정결과는 <표 10-9>와 동일하다. 소득에 대한 2단계 추정에는 중위값을 중심으로 하는 분위회귀분석과 임의효과토빗회귀분석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13>에 나타나 있다. 또한 보완적으로 임의효과분석과 통상최소자승법도 실시하였다.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10-14>에 정리되어 있다.

자영업주 월평균 실질소득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추정결과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추정방법에 따라 추정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적자’가 발생한 표본도 포함시킨 임의효과토빗회귀분석에서는 성과 연

서 제외된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령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추정된 반면, 다른 추정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성과 연령이 매우 유의미하게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효과도 임의효과회귀분석에서는 매우 유의미하지만 다른 추정방법에서는 상당부분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추정되었다. 분석방법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적자’가 발생한 가구들이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떤 공통된 특징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고 의심된다. 즉, ‘적자’가 발생한 자영업주의 상당수가 남성 또는 젊은 연령이기 때문이다.⁵⁴⁾

그리고 임의효과토빗모형에서 연도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추정치의 값이 매우 큰 것은 <표 10-1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자’가 발생한 자영업주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분위회귀모형, 임의효과모형 및 통상최소자승법의 추정결과를 비교하면 공통적 결과로

- ① 성,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및 혼인상태는 비록 추정치의 값은 크게 다르지만 모두 예상된 방향대로 결과가 도출되었고, 통계적으로도 대부분 유의하다.
- ② 교육기간에 대한 추정치는 모든 추정방식에서 정(+)의 값을 가지며 분위회귀모형을 제외하고는 1% 수준에서 유의하다. 하지만 교육기간 1년 증가가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은 임의효과모형이 2.8%, 통상최소자승법 1.2%, 분위회귀모형 0.5%로 추정방식 간의 차이가 크다.
- ③ 사업체 사업기간의 소득영향력은 임의효과모형과 분위회귀모형에서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단지 통상최소자승법의 경우 사업기간이 1% 늘어나면 소득도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④ 고용주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인지 여부는 모든 추정방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주의 소득 프리미엄은 추정방식에 따라

54) 1998~2014년 사이 적자를 본 자영업주의 70.6%가 남성이고, 60.4%는 30대 또는 40대의 젊은 층이었다.

〈표 10-13〉 소득 결정요인의 추정결과(분위회귀모형 및 임의효과토빗모형)

설명변수	분위회귀모형(50% 기준)	임의효과토빗모형
상수항	0.12827(0.000)	-2.34866 (0.030)
성별(0: 여성, 1: 남성)	0.12813(0.000)	-0.10178 (0.522)
연령	0.03643(0.000)	-0.03884 (0.202)
연령의 제곱	-0.00045(0.000)	0.00010 (0.755)
교육기간(년)	0.00492(0.103)	-0.04806 (0.020)
가구주 관계(가구주 기준)		
배우자	-0.02915(0.090)	-0.36735 (0.005)
자녀 및 기타	-0.10484(0.000)	-0.72183 (0.000)
혼인상태(0: 기혼, 1: 미혼 등)	-0.03728(0.130)	-0.32948 (0.060)
산업(제조업 기준)		
건설업	0.08227(0.000)	0.16354 (0.381)
도소매 및 판매업	-0.04780(0.004)	0.33393 (0.012)
음식숙박업	0.04141(0.036)	0.10116 (0.501)
운수업	0.15143(0.000)	1.30576 (0.000)
금융 및 보험업	0.33113(0.000)	1.52580 (0.000)
부동산 및 임대업	0.19444(0.000)	-0.54977 (0.031)
사업서비스업	0.11318(0.000)	0.28943 (0.188)
교육서비스업	0.16966(0.000)	1.41519 (0.000)
오락, 방송 및 공연사업	0.07952(0.014)	0.14860 (0.511)
기타 공공/개인서비스업	0.08469(0.000)	0.93065 (0.000)
여타 산업	0.15862(0.000)	1.61119 (0.000)
사업기간 자연대수 값(년)	-0.00923(0.140)	0.21044 (0.000)
고용주 여부(0: 자영자, 1: 고용주)	0.14843(0.000)	0.26185 (0.064)
Year 효과(1998년 기준)		
1999년	-0.04782(0.114)	1.31548 (0.000)
2000년	0.01760(0.557)	1.71676 (0.000)
2001년	-0.03416(0.267)	1.48136 (0.000)
2002년	0.00044(0.989)	1.91663 (0.000)
2003년	-0.00816(0.789)	1.89405 (0.000)
2004년	-0.05115(0.109)	1.82864 (0.000)
2005년	-0.11427(0.001)	2.22209 (0.000)
2006년	-0.07385(0.022)	2.30974 (0.000)
2007년	-0.04860(0.133)	2.61992 (0.000)
2008년	0.01713(0.582)	2.51220 (0.000)
2009년	-0.01706(0.572)	2.41875 (0.000)
2010년	-0.00180(0.952)	2.48955 (0.000)
2011년	0.00428(0.889)	2.47905 (0.000)
2012년	0.01553(0.623)	2.62460 (0.000)
2013년	-0.01553(0.629)	2.64025 (0.000)
2014년	0.01971(0.555)	2.72131 (0.000)
매출액 로그값의 대리변수(예측치)	0.51570(0.000)	0.695302(0.000)
표본수	23,799	25,839
overall R ²	0.2229	
Wald χ^2		1,311.04
log likelihood		-70,082.344

〈표 10-14〉 소득 결정요인의 추정결과(임의효과모형 및 통상최소자승법)

설명변수	임의효과모형	통상최소자승법
상수항	1.09657(0.000)	0.37039(0.022)
성별(0: 여성, 1: 남성)	0.27189(0.000)	0.14131(0.000)
연령	0.05840(0.000)	0.03718(0.000)
연령의 제곱	-0.00069(0.000)	-0.01146(0.000)
교육기간(년)	0.02767(0.000)	0.01174(0.000)
가구주 관계(가구주 기준)		
배우자	-0.02704(0.245)	-0.01806(0.259)
자녀 및 기타	-0.03268(0.296)	-0.10655(0.000)
혼인상태(0: 기혼, 1: 미혼 등)	-0.08713(0.004)	-0.05761(0.012)
산업(제조업 기준)		
건설업	0.05532(0.117)	0.06787(0.002)
도소매 및 판매업	-0.02282(0.354)	-0.06648(0.000)
음식숙박업	0.12743(0.000)	0.02146(0.241)
운수업	0.14876(0.000)	0.14903(0.000)
금융 및 보험업	0.19545(0.000)	0.22698(0.000)
부동산 및 임대업	0.00447(0.919)	0.14363(0.000)
사업서비스업	0.05655(0.164)	0.04715(0.083)
교육서비스업	-0.02926(0.504)	0.08000(0.021)
오락, 방송 및 공연사업	0.09183(0.020)	0.07272(0.016)
기타 공공/개인서비스업	0.03381(0.316)	0.05322(0.018)
여타 산업	0.09745(0.128)	0.13145(0.001)
사업기간 자연대수 값(년)	0.00273(0.614)	0.00982(0.091)
고용주 여부(0: 자영자, 1: 고용주)	0.09724(0.000)	0.23765(0.000)
Year 효과(1998년 기준)		
1999년	-0.05816(0.006)	-0.04638(0.099)
2000년	-0.03248(0.120)	-0.01718(0.538)
2001년	-0.00842(0.699)	-0.04008(0.161)
2002년	0.05637(0.015)	0.02055(0.486)
2003년	0.03146(0.182)	0.00641(0.829)
2004년	0.02341(0.324)	-0.01806(0.543)
2005년	-0.06384(0.011)	-0.12582(0.000)
2006년	-0.00975(0.694)	-0.05885(0.050)
2007년	0.02489(0.321)	-0.03559(0.237)
2008년	0.04765(0.050)	0.00002(0.999)
2009년	0.02699(0.261)	-0.02082(0.459)
2010년	0.04445(0.066)	-0.00155(0.956)
2011년	0.06665(0.008)	0.01671(0.558)
2012년	0.06908(0.008)	0.01472(0.616)
2013년	0.07022(0.010)	0.01030(0.731)
2014년	0.08594(0.003)	0.02571(0.408)
매출액 로그값의 대리변수(예측치)	0.28057(0.000)	0.46668(0.022)
표본수	23,799	23,799
overall R ² 또는 Adjusted R ²	0.3595	0.3804
Wald χ^2 또는 F-값	4,354.67	395.93

주: 괄호 안의 값은 P>|z| 또는 P>|t|값임.

10.2~26.8% 정도이다. 이는 고용주의 소득이 자영자에 비해 높은 것이 고용주 소득 프리미엄 때문이 아니라 교육수준 등 다른 요인에 크게 기인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⑤ 매출은 소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매출이 1% 증가하면 소득은 추정방법에 따라 28.1~55.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6절 소 결

이 글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17차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주의 근속기간과 직장이동, 창업 시의 투자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그리고 매출과 소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2002년 이후 자영업의 구조조정 결과 100만 명 이상이 자영업 분야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영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한 자영업주(고용주+자영자)의 실질 매출액은 2003년 이후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2003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자영업주의 실질소득도 2010~11년에야 과거의 수준을 겨우 회복하였다.

이처럼 자영업의 매출과 소득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사업을 접은 자영업주의 60% 가까이는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하고 있으며, 자영업에서 임금근로로 이동하는 비율은 시간에 따라 점점 증가하여 왔다.

자영업의 위축에 따라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비중도 그동안 정체되었다. 그리고 창업 시 투자한 금액의 실질가치도 커다란 변화가 없다. 이는 사업실패의 위험이 큰 상황에서 많은 자금을 자영업에 투입하기를 꺼려하는 세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금 조달에서 자금의 80% 정도는 자기자본이나 동업자 출자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도 바뀐 것이 없다.

종합적으로 그동안의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가장 취약한 자영업주들이 대거 퇴출됨에 따라 자영업주의 매출 및 소득과 같은 경제적 지위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자영업의 위기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자영업주들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영업주들을 임금근로자처럼 간주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들이 연착륙, 특히 임금근로자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등의 강화가 강조된다.

제 11 장

일과 행복

제1절 들어가는 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까? 놀고 먹는 사람은 행복할까? 경제학에서는 일 또는 노동을 비효용(disutility)으로 간주하고, 사람은 그러한 비효용의 대가로 지불되는, 즉 여가의 희생에 따르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여가를 선택한다는 이론(work-leisure model)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금전적 형태의 임금뿐 아니라 사회와의 연대 또는 통합 등 실로 다양하다. 따라서 일과 행복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본 장에서는 일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본다.

우리는 주변에서 삶에 대한 만족론에 기반을 둔 지표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한국의 사회조사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오고 있는데 최근 조사(2014년)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5.7점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2014년 한국의 사회조사는 17,664가구의 만13세 이상 가구원에 대한 조사에서 설문항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를 통하여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

(매우 만족한다)까지 11개 척도로 파악하고 있다.⁵⁵⁾

중요한 사실은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인의 행복도는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2015년 발간된 OECD의 『2015년 삶(How's Life 2015)』에 따르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5.8점으로 OECD 35개국 중 28번째로 OECD 평균 6.6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2~14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행복도는 5.984로 보고서에 포함된 158개국 중 47위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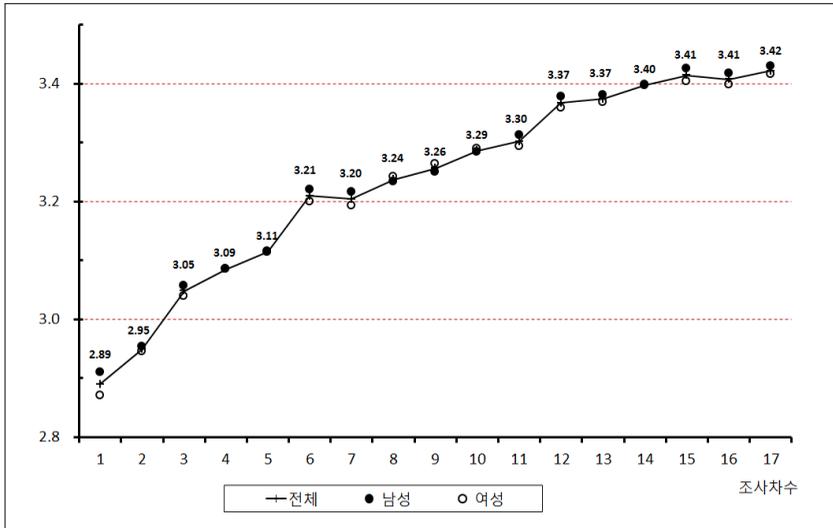
현 정부의 국민행복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약에서는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세부 공약에서 다양한 ‘행복’을 명시적으로 내걸고 있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2013년 2월)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전략과 133개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행복’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기치로 내걸고 ‘일자리는 삶의 기반이자 일을 통해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때 국민행복 실현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일자리는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행복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 여가만족도, 직무만족도, 은퇴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도와와의 관계 속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바라보고 있다. 삶에 대한 만족도의 연구대상은 제한되지 않지만 노인, 중고령자, 베이비부머 또는 장애인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연구는 청소년,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직 경제학 분야에서 본격적인 연구는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근본적 원인은 분석에 이용할 자료의 제한 때문이다.

55) 0~10까지 11점 척도는 2013년부터 채택하였으며, 그 전에는 1(매우 만족)에서 5(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제1차 조사부터 전반적 삶의 만족도(이하에서는 ‘행복도’라 부르기로 한다)를 조사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그림 11-1]에서 보듯,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1차 조사(1998년)에서는 행복도가 2.89점으로 중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다소 불만족스럽다,’ 즉 ‘다소 불행하다’는 주관적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⁶⁾ 당시 우리 사회 전체에 19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의 충격이 대량실업 등으로 실제화되는 등 본격적으로 밀어닥치고 있었던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행복도는 제3차 조사(2000년)에서 3.0점을 넘고, 제6차 조사(2003년)에는 3.21점에 이르렀다가 제7차 조사(2004년)에서 3.20점으로 한때 미세하게 하락하기도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제12차 조사(2009년)에서 3.37점에 이른 후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여, 제17차 조사(2014년)에서는 3.42점에 이르고 있다.

[그림 11-1] 행복도의 추이



주 : 5. 매우 만족스럽다, 4. 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2. 불만족스럽다, 1. 매우 불만족스럽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각 연도 원자료(1998년 표본).

56)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스럽다)에서 5(매우 만족스럽다)까지 설정하였는데, 점수가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행복의 결정요인에 추가하여, 취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⁵⁷⁾ 이를 위해 먼저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등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총소득, 다양한 소득원별 소득 여부, 자산과 부채 보유 여부, 입주유형(자가, 전세, 월세 등)과 주택형태(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상가주택 등) 등 가구 재정 관련 특성을 통제한 후 취업이 행복에 미치는 추가효과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행복도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전반적 삶의 만족도 등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항과 응답항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취업과 행복도의 관계를 살펴본다. 주요 인구학적 특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행복도 차이를 살펴본 후 연령대를 세분하여 다시 한번 살펴본다. 더 나아가 취업 여부를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로 구분하는 한편 상세한 경제활동상태(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 비경제활동인구)와 행복도의 관계를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행복도의 통상적 결정요인에 추가하여 취업 또는 상세한 경제활동상태가 행복도에 미치는 추가적인 효과를 서열로짓모형과 다항로짓모형 추정을 통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는 기본모형을 추정하고, 이에 가구 재정 관련 특성을 추가로 통제하는 소득·자산효과모형을 추정한다. 이에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취업 여부 또는 상세한 경제활동상태를 추가로 통제하는 일과 행복 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일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남성과 여성의 일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성별로 분리된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을 실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57) 다양한 근로조건이 취업자, 특히 임금근로자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는 안주엽 외 (2016년 발간 예정)의 『일과 행복』 보고서를 참조.

제2절 일과 행복의 기초분석

본 절에서는 일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 전반적 삶의 만족도로 표현된 행복도 측도를 간략히 소개한 후, 취업 여부와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미취업상태는 실업상태와 비경제활동인구상태로 구분하고, 취업상태는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로 구분하여 이들 상태와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종사상 지위를 적용하여 취업상태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세분하여 행복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1. 행복의 측도

한국노동연구원은 1998년부터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제17차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제1차 조사부터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설문에 대한 응답항으로는

- (1) 매우 만족스럽다 (2) 만족스럽다
- (3) 보통이다
- (4) 불만족스럽다 (5) 매우 불만족스럽다

의 5점 척도(Likert scale)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 12,525명 중 ‘매우 만족스럽다’ 또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각각 11명(0.09%)과 48명(0.38%)으로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5개의 범주를 사용하기보다는 (1)과 (2)를 ‘불행’, 3을 ‘중립’, (4)와 (5)를 ‘행복’으로 정의한 3개의 범주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행복도는 응답항의 순서를 바꾼 것으로 1에서 5로 갈수록 행복도가 상승하는 것으

로 보면 된다.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꾸준히 진행하여 왔지만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Cantril Ladder나 본격적인 행복수준에 대한 설문은 포함되지 않다. 따라서 현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행복도를 측정하거나 이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행복도’라 간주하고 분석을 실시한다.⁵⁸⁾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추가하여 전반적 삶을 구성하는

- | | | |
|------------|------------|---------------|
| (1) 가족의 수입 | (2) 여가 생활 | (3) 주거 환경 |
| (4) 가족 관계 | (5) 친인척 관계 | (6) 사회적 친분 관계 |

등 여섯 가지 요인들 각각에 대해

‘다음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설문을 통하여 각각의 만족도를

- | | |
|---------------|------------|
| (1) 매우 만족스럽다 | (2) 만족스럽다 |
| (3) 보통이다 | (4) 불만족스럽다 |
| (5) 매우 불만족스럽다 | |

의 5점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고 있다.

그 외 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으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와

‘주된 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가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 만족도와 일 만족도 역시 5점 척도로 측정하고

58) 2015년 제18차 조사에서는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행복의 수준을 묻는 질문과 Cantril Ladder의 질문에 대해 0(전혀 행복하지/만족하지 않다)에서 10(완전히 행복하다/만족한다)까지 11개 단계 중 택일하는 구조를 가져, 보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도 측정이 가능해진다.

있다. 일 또는 일자리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로

- | | |
|-----------------|---------------|
| (1) 임금 또는 소득 | (2) 취업의 안정성 |
|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 (4) 근로환경 |
| (5) 근로시간 | (6) 개인의 발전가능성 |
| (7)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 (8) 인사고과의 공정성 |
| (9) 복지후생 | |

등에 대하여

‘주된 일과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들에(이러한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설문을 통하여 각각의 만족도(‘직무만족도’라 부르기도 한다)를 역시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2. 취업과 행복

<표 11-1>은 취업 여부에 따른 행복의 분포 및 행복도를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 전체 표본 중 45%가 행복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행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3.7%에 불과하여 행복도는 3.42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과 여성에게 거의 차이가 없는데 행복하다는 응답은 남성에서, 불행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여성에서 미세하게 높게 나타나 행복도는 남성에서 3.43점으로 여성의 3.41점에 비해 미세하게 높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

취업 여부별로 보면, 취업상태의 행복의 비중은 47%로 미취업상태의 43%에 비해 4%포인트 높고 불행의 비중은 미취업상태에서 5.7%로 취업상태의 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행복도는 취업상태에서 3.45점으로 미취업상태의 3.37점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취업상태에 따른 행복도 차이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취업상태의 행복도가 높고, 미취업상태의 행복도가 낮아, 여성에서는 0.04점에 불과한 반면 남성에서는 0.13점 차이를 보인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취업이 행복에 미치는

〈표 11-1〉 취업 여부와 행복

(단위: 명, %, 점)

	전체				미취업				취업			행복도(평균)			
	표본	행복도			표본	행복도			표본	행복도			전체	미취업	취업
		불행	중립	행복		불행	중립	행복		불행	중립	행복			
전체	12,525	3.69	51.3	45.0	5,238	5.73	51.5	42.8	7,287	2.22	51.1	46.7	3.42	3.37	3.45
남성	5,888	3.24	51.3	45.5	1,608	6.84	53.6	39.6	4,280	1.89	50.4	47.7	3.43	3.33	3.46
여성	6,637	4.08	51.3	44.7	3,630	5.23	50.6	44.2	3,007	2.69	52.1	45.2	3.41	3.39	3.43

주: 행복도는 1. 매우 불만족스럽다, 2. 불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4. 만족스럽다, 5. 매우 만족스럽다, '불행'은 1 또는 2, '중립'은 3, '행복'은 4 또는 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2014년) 원자료.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2〉는 주요 인구학적 특성별 행복도를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체 표본의 행복도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보면, 표에서 보듯, 30세 미만 청년층에서 행복도가 가장 높고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여성과 남성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교육수준과 행복도의 관계를 보면, 예상했던 대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역시 남성과 여성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고졸 미만을 제외한 모든 교육수준에서 여성의 행복도가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

혼인상태별 행복도를 보면, 기혼 유배우의 행복도가 가장 높고 미혼에서 이보다 다소 낮은 정도인 반면 기혼 무배우자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인데 특히 이혼에서 가장 낮으며, 이러한 현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특히 이혼 남성의 행복도가 현저하게 낮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데, 매우 건강한 상태와 매우 좋지 않은 상태 간 차이가 0.8점을 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다소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 여부에 따른 행복도 차이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커지지만 성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남성은 청년층에서는 차이

〈표 11-2〉 인구학적 특성과 행복도

(단위: 점)

	전 체			여 성			남 성		
	전체	미취업	취업	전체	미취업	취업	전체	미취업	취업
전 체	3.42	3.37	3.45	3.41	3.39	3.43	3.43	3.33	3.46
연령계층									
청년층(15~29세)	3.49	3.48	3.51	3.49	3.48	3.51	3.50	3.49	3.51
중년층(30~54세)	3.47	3.44	3.48	3.48	3.49	3.47	3.45	3.07	3.48
장년층(55~64세)	3.37	3.34	3.39	3.38	3.40	3.36	3.36	3.17	3.41
고령층(65세 이상)	3.30	3.27	3.36	3.25	3.25	3.26	3.36	3.30	3.43
교육수준									
고졸미만	3.27	3.26	3.29	3.27	3.26	3.29	3.27	3.25	3.29
고졸	3.41	3.44	3.40	3.42	3.47	3.38	3.40	3.39	3.41
전문대졸	3.50	3.49	3.51	3.54	3.54	3.54	3.47	3.25	3.49
대졸 이상	3.62	3.55	3.64	3.63	3.61	3.65	3.60	3.43	3.63
혼인상태									
미혼	3.42	3.42	3.41	3.45	3.44	3.47	3.39	3.40	3.37
기혼 유배우	3.47	3.43	3.49	3.47	3.47	3.47	3.47	3.33	3.50
별거	3.12	2.94	3.16	3.14	3.00	3.17	3.09	2.86	3.15
이혼	3.05	2.87	3.12	3.09	2.90	3.19	3.00	2.82	3.05
사별	3.20	3.18	3.27	3.20	3.19	3.25	3.20	3.10	3.3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	3.66	3.65	3.67	3.65	3.63	3.68	3.67	3.69	3.66
건강한 편	3.59	3.55	3.61	3.59	3.58	3.60	3.58	3.50	3.61
보통	3.27	3.34	3.24	3.30	3.36	3.25	3.24	3.28	3.23
좋지 않은 편	3.13	3.12	3.15	3.14	3.14	3.14	3.11	3.08	3.15
매우 좋지 않음	2.84	2.83	2.95	2.79	2.78	3.00	2.92	2.91	2.92

주: 행복도는 1. 매우 불만족스럽다, 2. 불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4. 만족스럽다, 5. 매우 만족스럽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2014년) 원자료.

가 거의 없지만 중년층과 장년층에서는 각각 0.41점과 0.24점에 이르는 반면 오히려 중년층과 장년층 여성에서는 미취업자의 행복도가 취업자의 행복도보다 높아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취업 여부에 따른 행복도 차이를 보면, 대졸 이상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고졸 미만과 전문대졸에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졸에서는 오히려 미취업자의 행복도가 높은 수준이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에서는 고졸에서 미취업자의 행복도가 취업자의 행복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남성에서는 취업자의 행복도가 미취업자에 비해 다소 높은 정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별거와 이혼에서 미취업상태의 행복도가 상당히 낮아 취업 여부에 따른 행복도 차이가 상당한데, 이를 성별로 보면, 기혼 유배우 여성에서는 취업 여부에 따른 행복도 차이가 전혀 없는 반면 이혼 여성에서는 미취업상태의 행복도가 상당히 낮아 격차가 큰 편이고 미혼이나 사별에서는 차이가 사소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반면 미혼 남성에서는 미취업상태의 행복도가 오히려 취업상태의 행복도보다 높게 나타나며, 별거 또는 사별 남성에서 취업 여부에 따른 행복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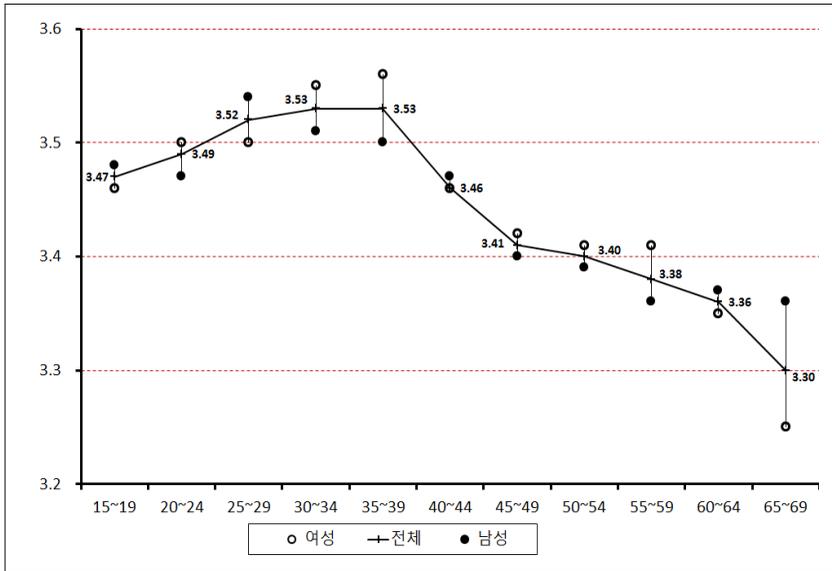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을 때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행복도가 낮은 수준인 반면 보통일 때에는 오히려 미취업상태의 행복도가 취업상태의 행복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나타나며, 매우 건강한 남성에서는 오히려 미취업상태의 행복도가 취업상태의 행복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3. 취업과 행복 : 성·연령대별

다음 그림들은 연령대를 세분한 행복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그림 11-2]를 보면, 30대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높아져 3.5점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 하락추세를 보여 65세 이상에서는 3.3점에 이른다. 행복도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을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25~29세, 여성에서는 35~39세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대별 성별 행복도 차이는 일관된 경향을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취업과 행복도를 보면, [그림 11-3]에서 보듯, 전반적으로 취업상태의 행복도가 미취업상태의 행복도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20~24세

[그림 11-2] 연령과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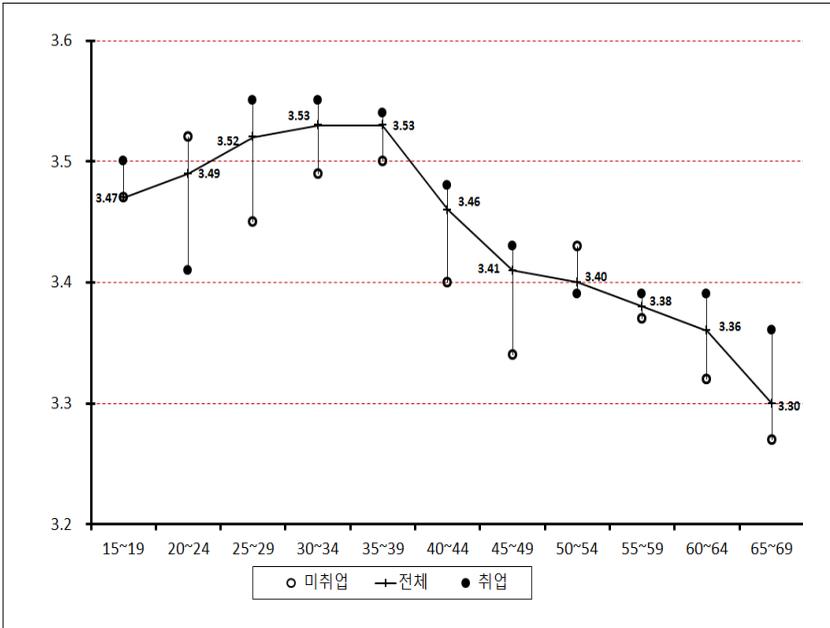


와 50~54세에서는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4세에서는 취업상태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20~24세 남성 취업자의 행복도가 미취업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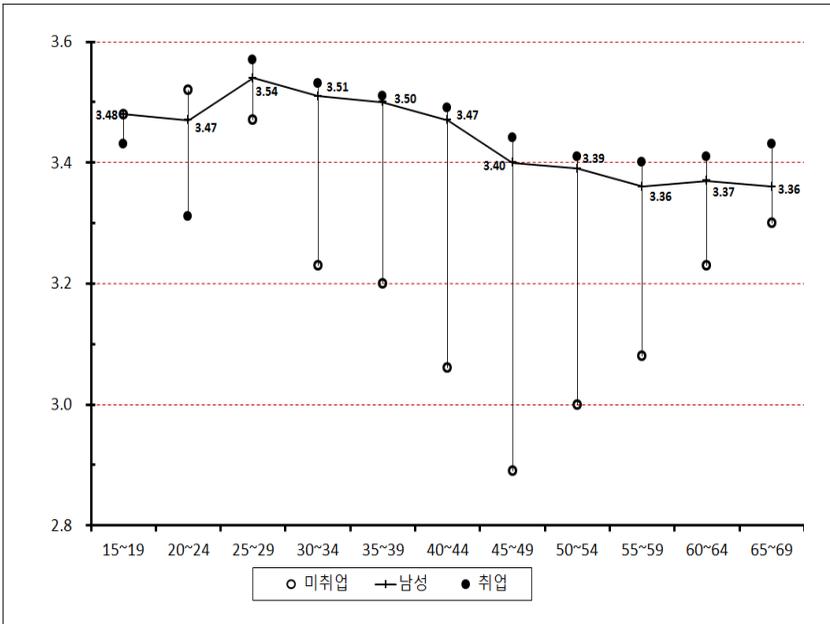
연령대별 취업 여부에 따른 행복도를 성별로 보면, [그림 11-4]에서 보듯, 남성에서는 20~24세 연령대만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의 행복도가 높은 반면 미취업자의 행복도는 매우 낮아 취업 여부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가 여성에 비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미취업자의 행복도는 20~24세에 3.5점을 넘는 높은 수준이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하락하여 특히 45~49세 남성 미취업자의 행복도는 2.9점을 하회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그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에서는 20~24세, 45~59세에서 미취업상태의 행복도가 취업상태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40대와 60대에서는 취업 여부에 따른 행복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그림 1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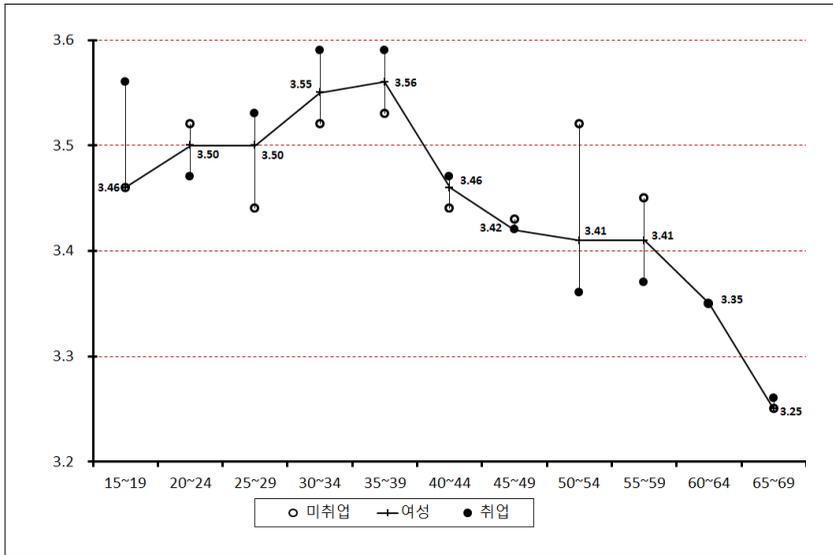
(그림 11-3) 연령대별 취업과 행복도



(그림 11-4) 연령대별 취업과 행복도(남성)



(그림 11-5) 연령대별 취업과 행복도(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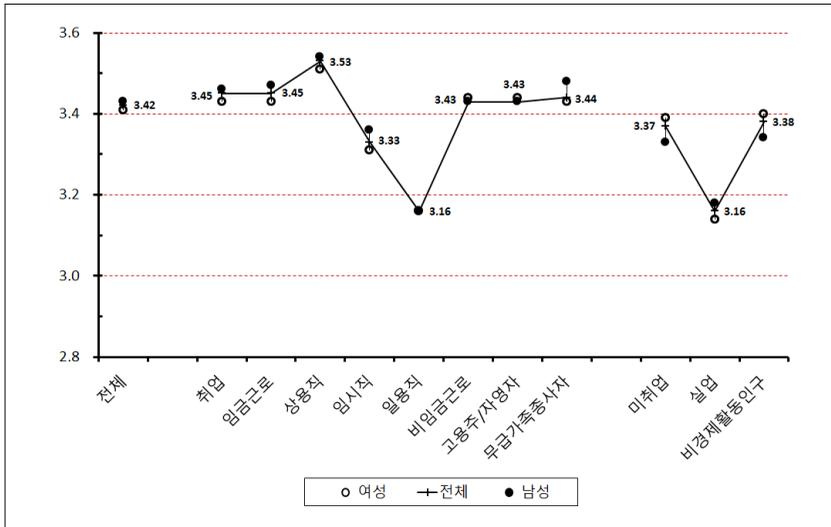


4. 세분화된 경제활동상태와 행복

[그림 11-6]은 세분화된 경제활동상태별 행복도를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점 중 하나는 경제활동상태별 행복도에서 성별 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나마 격차를 보이는 경제활동상태는 임시직에서는 남성의 행복도가 높은 반면 미취업상태나 비경제활동인구상태에서는 여성의 행복도가 높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미취업상태에 비해 취업상태에서 행복도가 다소 높은 편이고, 취업상태 중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임금근로 중에는 상용직, 임시직, 그리고 일용직 간 행복도 격차가 뚜렷이 나타나는 반면 비임금근로에서는 고용주/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간 차이가 거의 없으며, 미취업상태에서는 실업상태의 행복도가 현저하게 낮다. 주목할 점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일용직의 행복도가 실업상태의 행복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근로조건이 매우 저조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행복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⁵⁹⁾

[그림 11-6] 세분화된 경제활동상태와 행복도



제3절 일과 행복의 실증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행복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실증분석 순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만을 고려한 기본모형과 이에 가구 재정 관련 특성을 추가한 소득·자산효과모형을 추정한 후 취업상태에 이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즉, 실증분석모형은

- 기본모형 (1) $h^* = X\beta + \epsilon$
 소득·자산효과모형 (2) $h^* = X\beta + Z\gamma + \epsilon$
 일과 행복모형 (3) $h^* = W\delta + X\beta + Z\gamma + \epsilo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X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59) 인구학적 특성별 세분화된 경제활동상태와 행복도는 부표를 참조.

Z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재정 관련 특성

W : 취업 여부(또는 세부 경제활동상태)

이다.

여기에서 h^* 는 행복을 나타내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므로 이를 관찰 가능한 변수(h)로 표현하면

$h = 2$	행복
1	중립
0	불행

이 되는데, 범주형 변수이며 서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서열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한 추정과 서열을 무시하고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다항로짓모형에서는 ‘중립’을 기준으로 ‘행복’과 ‘불행’의 주관적 선택요인을 추정한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를 고려하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재정 관련 특성은 가구총소득 관련 변수들(Z_1), 자산 및 부채 관련 변수들(Z_2), 주거 관련 변수들(Z_3)로 구성된다. 가구소득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가구총소득과 소득원별 소득의 유무(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를 고려한다. 자산 및 부채 관련 변수들에서는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 및 부채 보유 여부를 고려한다. 주거 관련 변수로는 입주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 및 주택형태(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 등)를 고려한다.

1. 기본모형의 추정

<표 11-3>은 행복도의 결정요인에 주요 인구학적 특성만을 포함한 기본모형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면, 다항로짓모형의 ‘행복’의 선택과 서열로짓모형에서는 모든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다항로짓모형 중 ‘불행’의 선택에서는 일부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각 추정치를 보면,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오즈비의 추정치를 보면 여성이 행복할 확률 대비 남성이 행복할 확률은 0.8로 나타나 20% 정도 확률이 낮은

〈표 11-3〉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다항로짓모형				서열로짓모형	
	불행		행복		행복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상수	-4.6405(.6059)***		-0.2597(.2375)		-0.1078(.2239)	
상수					3.8312(.2294)***	
남성	-0.1052(.1103)	0.900	-0.2130(.0411)***	0.808**	-0.1877(.0394)***	0.829**
연령/10	0.5850(.1953)***	1.795**	-0.5905(.0798)***	0.554**	-0.6429(.0755)***	0.526**
(연령/10)2	-0.0476(.0172)***	0.953**	0.0648(.0076)***	1.067**	0.0688(.0072)***	1.071**
교육연한	-0.1620(.0858)*	0.850	0.3201(.0514)***	1.377**	0.3360(.0461)***	1.399**
학위:전문학사	0.0206(.2104)	1.021	0.2464(.0655)***	1.279**	0.2215(.0634)***	1.248**
학위:학사 이상	-0.0544(.1859)	0.947	0.6083(.0557)***	1.837**	0.5802(.0539)***	1.786**
혼인상태(기준: 기혼유배우)						
미 혼	1.0467(.1937)***	2.848**	-0.6480(.0772)***	0.523**	-0.7396(.0732)***	0.477**
별 거	0.7257(.4226)*	2.066	-1.0105(.2965)***	0.364**	-1.0006(.2477)***	0.368**
이 혼	1.1938(.1608)***	3.299**	-1.1059(.1270)***	0.331**	-1.2729(.1038)***	0.280**
사 별	0.0288(.1692)	1.029	-0.4283(.0877)***	0.652**	-0.3973(.0811)***	0.672**
주관적 건강상태(기준: 보통)						
매우 좋음	-1.6311(1.013)	0.196	1.3279(.1277)***	3.773**	1.3099(.1265)***	3.706**
좋은 편	-0.0588(.1439)	0.943	1.2249(.0456)***	3.404**	1.1585(.0438)***	3.185**
나쁜 편	1.2825(.1344)***	3.606**	-0.1466(.0765)**	0.864	-0.4819(.0699)***	0.618**
매우 나쁨	2.3041(.1818)***	10.02**	-0.7506(.1947)***	0.472**	-1.7607(.1424)***	0.172**
-2 logL	18322.2				18431.3	
모형적합도검정	1972.7***				1928.0***	

주:***,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모형적합도 검정은 모든 계수=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Wald 통계량)

오즈비=1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수준 0.05에서의 유의성.

행복도는 1 불행, 2 중립, 3 행복.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2014년) 원자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이 많을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차식을 고려 하였을 때, 45~46세에서 행복도가 저점에 이르고 이후에는 행복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불행’을 선택하는 확률은 61세까지 연령이 많아 질수록 높아지다가 그 이후 낮아진다.

〈표 11-4〉 기본모형의 추정결과(남성)

	다항로짓모형				서열로짓모형	
	불행		행복		행복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상수	-6.0623(.9756)***		-0.4158(.3887)		-0.0445(.3564)	
상수					4.1028(.3646)***	
연령/10	1.0020(.3079)***	2.724**	-0.8622(.1152)***	0.422**	-0.9566(.1086)***	0.384**
(연령/10)2	-0.0754(.0273)***	0.927**	0.0903(.0110)***	1.094**	0.0974(.0103)***	1.102**
교육연한	-0.1787(.1573)	0.836	0.5527(.1039)***	1.738**	0.5363(.0888)***	1.710**
학위:전문학사	0.0347(.3069)	1.035	0.1532(.0961)	1.166	0.1366(.0928)	1.146
학위:학사 이상	-0.0405(.2595)	0.960	0.4968(.0816)***	1.643**	0.4821(.0777)***	1.619**
혼인상태(기준: 기혼유배우)						
미 혼	1.3765(.2547)***	3.961**	-0.8697(.1065)***	0.419**	-0.9886(.0999)***	0.372**
별 거	1.0170(.5773)*	2.765	-0.9308(.4540)**	0.394**	-1.0899(.3840)***	0.336**
이 혼	1.2312(.2394)***	3.425**	-1.4239(.2049)***	0.241**	-1.4743(.1559)***	0.229**
사 별	0.4419(.3494)	1.556	-0.7272(.2112)***	0.483**	-0.7745(.1910)***	0.461**
주관적 건강상태(기준: 보통)						
매우 좋음	-11.227(181.1)	0.000	1.6106(.1848)***	5.006**	1.5939(.1835)***	4.923**
좋은 편	-0.3290(.2131)	0.720	1.3731(.0680)***	3.948**	1.3158(.0650)***	3.728**
나쁜 편	1.2528(.1998)***	3.500**	-0.0466(.1268)	0.954	-0.4698(.1147)***	0.625**
매우 나쁨	1.7006(.2947)***	5.477**	-0.6245(.2991)**	0.536**	-1.2770(.2300)***	0.279**
-2 logL	8360.3				8413.7	
모형적합도검정	964.7***				977.3***	

주:***,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모형적합도 검정은 모든 계수=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Wald 통계량)

오즈비=1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수준 0.05에서의 유의성.

행복도는 1 불행, 2 중립, 3 행복.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2014년) 원자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상승하고 ‘불행’을 선택할 확률은 낮아 지는데, 이에 학위효과를 추가하였을 때, 전문학사와 학사 이상 모두 행복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불행’을 선택할 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1 - 5〉 기본모형의 추정결과(여성)

	다항로짓모형				서열로짓모형	
	불행		행복		행복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상수	-3.6008(.8381)***		-0.7021(.3250)**		-0.6703(.3086)**	
상수					3.1425(.3145)***	
연령/10	0.3032(.2715)	1.354	-0.3366(.1143)***	0.714**	-0.3569(.1080)***	0.700**
(연령/10) ²	-0.0309(.0237)	0.970	0.0418(.0110)***	1.043**	0.0436(.0103)***	1.045**
교육연한	-0.2087(.1064)**	0.812**	0.2452(.0625)***	1.278**	0.2695(.0562)***	1.309**
학위: 전문학사	0.0050(.2921)	1.005	0.3350(.0908)***	1.398**	0.3136(.0882)***	1.368**
학위: 학사 이상	-0.0179(.2724)	0.982	0.6705(.0816)***	1.955**	0.6453(.0791)***	1.907**
혼인상태(기준: 기혼유배우)						
미혼	0.7457(.3084)**	2.108**	-0.4288(.1148)***	0.651**	-0.4937(.1100)***	0.610**
별거	0.5370(.6217)	1.711	-1.0772(.3913)***	0.341**	-0.9883(.3270)***	0.372**
이혼	1.1899(.2184)***	3.287**	-0.8725(.1636)***	0.418**	-1.1151(.1397)***	0.328**
사별	-0.0091(.2049)	0.991	-0.3955(.1025)***	0.673**	-0.3385(.0946)***	0.713**
주관적 건강상태(기준: 보통)						
매우 좋음	-1.0192(1.026)	0.361	1.0950(.1770)***	2.989**	1.0812(.1749)***	2.948**
좋은 편	0.1652(.1962)	1.180	1.1146(.0621)***	3.048**	1.0429(.0599)***	2.837**
나쁜 편	1.3355(.1828)***	3.802**	-0.2184(.0962)**	0.804**	-0.5056(.0882)***	0.603**
매우 나쁨	2.6727(.2387)***	14.48**	-0.8286(.2580)***	0.437**	-2.0220(.1802)***	0.132**
-2 logL	9898.1				9961.2	
모형적합도검정	1028.2***				985.2***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모형적합도 검정은 모든 계수=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Wald 통계량)

오즈비=1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수준 0.05에서의 유의성.

행복도는 1 불행, 2 중립, 3 행복.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2014년) 원자료.

혼인상태별 추정치를 보면, 기혼 유배우와 비교할 때, 모든 혼인상태의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별에서 ‘불행’을 선택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별거에서는 유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기혼 유배우가 행복할 확률 대비 각 혼인상태의 행복 확률을 보여주는 오즈비 추정치를 보면, 이혼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크고, 별거, 미혼, 사별의 순으로 나타난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항로짓 모형에서 ‘불행’의 선택에서는 불량한 건강상태가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양호한 건강상태가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소 대조를 보인다.

표본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는 거의 유사하지만, <표 11-4>와 <표 11-5>에서 보듯, 다소간 차이를 보이는데, 다항로짓모형에서 ‘행복’의 선택과 서열로짓모형에서 여성의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남성에서는 전문학사의 긍정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건강이 나쁜 편이 부정적 효과는 ‘행복’의 선택에서 유의하지 않다.

2. 소득·자산효과모형의 추정

<표 11-6>은 기본모형에 가구 재정 관련 특성을 추가한 소득·자산효과모형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추가로 통제하였을 때, 기본모형에 포함되었던 인구학적 특성 추정치의 유의수준이나 추정치의 크기가 심하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치가 상당 수준 강건하다(robust)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 재정 관련 특성이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의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열로짓모형 추정치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가구총소득과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의 존재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의 존재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융소득이나 이전소득의 존재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가구총소득의 효과는 2차식의 형태를 가지는데, 가구총소득이 3.3

〈표 11-6〉 소득·자산효과모형의 추정결과

	다항로짓모형				서열로짓모형	
	불행		행복		행복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상수	-3.7467 (.6572)***		-0.0604 (.2655)		-0.1147 (.2490)	
상수					4.0869 (.2553)***	
남성	-0.1192 (.1131)	0.888	-0.1651 (.0429)***	0.848 **	-0.1376 (.0409)***	0.871 **
연령/10	0.5260 (.2006)***	1.692 **	-0.5733 (.0859)***	0.564 **	-0.6422 (.0802)***	0.526 **
(연령/10)2	-0.0466 (.0178)***	0.954 **	0.0556 (.0083)***	1.057 **	0.0619 (.0077)***	1.064 **
교육연한	-0.0884 (.0891)	0.915	0.1723 (.0537)***	1.188 **	0.1983 (.0482)***	1.219 **
학위: 전문학사	0.1300 (.2158)	1.139	0.2202 (.0680)***	1.246 **	0.1898 (.0658)***	1.209 **
학위: 학사 이상	0.1125 (.1914)	1.119	0.4833 (.0585)***	1.621 **	0.4431 (.0566)***	1.558 **
혼인상태(기준: 기혼유배우)						
미혼	0.6060 (.1962)***	1.833 **	-0.6423 (.0850)***	0.526 **	-0.7087 (.0791)***	0.492 **
별거	0.1492 (.4395)	1.161	-0.5959 (.3106)*	0.551	-0.5039 (.2523)**	0.604 **
이혼	0.5803 (.1737)***	1.787 **	-0.6406 (.1317)***	0.527 **	-0.7576 (.1072)***	0.469 **
사별	-0.2385 (.1765)	0.788	-0.2568 (.0918)***	0.774 **	-0.1885 (.0842)**	0.828 **
건강상태(기준: 보통)						
매우 좋음	-1.6145 (.1017)	0.199	1.2550 (.1346)***	3.508 **	1.2266 (.1333)***	3.410 **
좋은 편	-0.0188 (.1471)	0.981	1.1751 (.0474)***	3.239 **	1.0936 (.0454)***	2.985 **
나쁜 편	1.0768 (.1388)***	2.935 **	-0.0758 (.0794)	0.927	-0.3691 (.0716)**	0.691 **
매우 나쁨	2.0876 (.1898)***	8.066 **	-0.6645 (.1980)***	0.515 **	-1.5873 (.1460)***	0.204 **
가구총소득	-0.2288 (.0451)***	0.795 **	0.1420 (.0102)***	1.153 **	0.1464 (.0100)***	1.158 **
가구총소득2	0.0028 (.0022)	1.003	-0.0021 (.0003)***	0.998 **	-0.0022 (.0003)***	0.998 **
소득원별 소득 존재						
근로소득	-0.1878 (.1494)	0.829	-0.5442 (.0798)***	0.580 **	-0.3583 (.0733)***	0.699 **
금융소득	0.0072 (.2374)	1.007	0.0122 (.0615)	1.012	0.0104 (.0603)	1.010
부동산소득	-0.6333 (.2516)**	0.531 **	0.1869 (.0732)**	1.205 **	0.2597 (.0715)***	1.297 **
사회보험소득	-0.2184 (.1336)	0.804	0.1233 (.0561)**	1.131 **	0.1768 (.0530)***	1.193 **
이전소득	0.0317 (.1251)	1.032	0.0238 (.0451)	1.024	0.0073 (.0431)	1.007
기타소득	0.1338 (.2541)	1.143	-0.2190 (.0805)***	0.803 **	-0.2061 (.0777)***	0.814 **
자산 및 부채 보유						
부동산자산	-0.2929 (.1652)*	0.746	0.2585 (.0529)***	1.295 **	0.2778 (.0512)***	1.320 **
금융자산	-0.4839 (.1166)***	0.616 **	0.5261 (.0521)***	1.692 **	0.5792 (.0486)***	1.785 **
부채	0.3876 (.1152)***	1.473 **	-0.1929 (.0445)***	0.825 **	-0.2225 (.0423)***	0.801 **
입주 형태(기준: 자가)						
전세	0.3532 (.1518)***	1.424 **	-0.3563 (.0572)***	0.700 **	-0.3709 (.0545)***	0.690 **
월세	0.6233 (.1341)***	1.866 **	-0.7132 (.0722)***	0.490 **	-0.7490 (.0644)***	0.473 **
기타	0.2962 (.2067)	1.345	0.0374 (.1046)	1.038	-0.0430 (.0983)	0.958
주택 형태(기준: 아파트)						
단독주택	0.3374 (.1331)**	1.401 **	-0.1368 (.0540)**	0.872 **	-0.1643 (.0511)***	0.849 **
연립주택	0.2426 (.1363)*	1.275	-0.2692 (.0546)***	0.764 **	-0.2787 (.0516)***	0.757 **
-2 logL	17151.6			17317.0		
모형적합도검정	2556.6***			2619.7***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모형적합도 검정은 모든 계수=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Wald 통계량)

오즈비=1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수준 0.05에서의 유의성.

행복도는 1 불행, 2 중립, 3 행복.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2014년) 원자료.

억 원에서 행복도가 정점에 이른다.

자산의 보유는 행복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부채의 보유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부동산자산의 보유는 행복할 확률을 32%, 금융자산의 보유는 78% 높여 금융자산의 보유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채의 보유는 20% 낮춘다. 자가에 비해 전세나 월세 모두 행복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월세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주택 형태에서는 아파트와 비교하여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모두 행복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연립주택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표본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하여 추정하였을 때, 이들 가구 재정 관련 특성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⁶⁰⁾

3. 일과 행복모형의 추정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일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모형에서 제시하였듯, 소득·자산효과모형에 취업 여부, 취업의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의 구분, 더 나아가 세분화된 경제활동상태를 고려한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표 11-7>은 이의 추정결과를 요약하여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⁶¹⁾

4. 취업 여부와 행복

취업 여부만을 고려한 추정결과를 보면,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자가 10% 정도 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에서는 취업이 행복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

60) 분리표본의 추정치는 <부표 7-3>과 <부표 7-4>를 참조.

61) 서열로짓모형을 적용한 전체 추정치는 <부표 7-5>~<부표 7-7>을 참조.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결과는 생략함. 소득·자산효과모형의 추정치와 비교할 때, 일과 행복 모형의 추정치가 유의수준이나 추정치 크기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측면에서 소득·자산효과모형의 추정치가 강건하다(robust)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일이 행복도에 미치는 추가효과만을 설명한다.

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 재정 관련 특성에 취업 여부까지 고려하였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오즈비의 추정치(0.849)에 따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행복할 확률은 15%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5. 임금근로 및 비임금근로와 행복

취업을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로 구분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7〉 일과 행복모형의 추정결과

	전 체		여 성		남 성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취업 여부						
취업	-0.1036 (.0494)**	0.902**	0.0532 (.0603)	1.055	-0.4339 (.0929)***	0.648**
남성	-0.1636 (.0427)***	0.849**				
미취업과 임금근로 및 비임금근로						
취업 여부(기준: 미취업)						
임금근로	0.0930 (.0524)*	1.097	-0.1217 (.0660)*	0.885	0.4672 (.0960)***	1.596**
비임금근로	0.1287 (.0641)**	1.137**	0.1093 (.0874)	1.116	0.3599 (.1073)***	1.433**
남성	-0.1640 (.0427)***	0.849**				
세분화된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상태(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상용직	0.1526 (.0587)***	1.165**	-0.0364 (.0770)	0.964	0.5012 (.1057)***	1.651**
임시직	-0.0777 (.0831)	0.925	-0.2794 (.1028)***	0.756**	0.3599 (.1457)**	1.433**
일용직	-0.3419 (.1052)***	0.710**	-0.5123 (.1607)***	0.599**	0.0050 (.1539)	1.005
고용주/자영자	0.0766 (.0700)	1.080	0.1010 (.1071)	1.106	0.2876 (.1124)**	1.333**
무급가족종사	0.0914 (.1110)	1.096	0.0311 (.1229)	1.032	0.5210 (.2742)*	1.684
실업	-0.7881 (.1709)***	0.455**	-0.9714 (.2503)***	0.379**	-0.4295 (.2410)*	0.651
남성	-0.1594 (.0442)***	0.853**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오즈비=1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수준 0.05에서의 유의성.

행복도는 1. 불행, 2. 중립, 3. 행복.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2014년) 원자료.

취업 여부만을 고려한 경우와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모두, 유의수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취업자가 행복할 확률에 비해 임금근로자가 행복할 확률은 9.7% 정도 높지만 비임금근로자에서는 14%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임금근로가 임금근로에 비해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에서는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데, 오즈비의 추정치를 보면, 임금근로의 긍정적 효과(1.596)가 비임금근로의 긍정적 효과(1.433)에 비해 다소 크다. 여성은 낮은 유의수준에서 임금근로의 부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비임금근로의 긍정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도가 낮은 점은 취업 여부만을 고려하였을 때와 거의 같다.

6. 세분화된 경제활동상태와 행복

취업상태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세분하고, 미취업상태는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상태로 세분화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비경제활동인구상태와 비교할 때, 상용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며, 임시직은 부정적 효과를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일용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근로 취업에서 종사상 지위에 따라 행복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모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상용직과 임시직의 긍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여성에서는 모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데 임시직과 일용직의 부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성별 차이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주/자영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임금근로 취업은 비경제활동인구상태와 비교할 때, 행복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

는 세분화된 비임금근로 상태가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여성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대조를 보인다.

한편 실업상태가 행복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오즈비의 추정치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상태의 행복할 확률 대비 실업상태의 행복할 확률의 비율이 0.455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업의 부정적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일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제1차 조사부터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가족의 수입, 여가 생활, 주거환경,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해오고 있다. 한편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 및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이의 구성요소로서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및 복지후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오고 있다.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측도가 행복의 측도와 정확히 일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주관적 행복에 대해 직접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삶의 대한 만족도를 행복의 대변수로 삼아 일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 자료를 이용한 행복의 기초통계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7년간 한국인의 행복도는 꾸준히 상승해왔다. 외환위기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던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행복도는 1~5점 척도에서 평균 2.89점의 낮은 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급상승하여 제6차 조사에서 3.21점에 이르고, 제14차 조사에서 3.40점에 이른 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자의 행복도가 높지만 이러한 차이는 남성에서 큰 반면 여성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취업자의 행복도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고 미취업자의 행복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높은 데서 기인한다.

셋째, 인구학적 특성별로 행복도를 보면, 청년층에서 행복도가 가장 높고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행복도가 상승하며, 기혼 유배우자의 행복도가 가장 높고, 이혼자(또는 별거자)의 행복도가 매우 낮으며, 미혼자의 행복도는 기혼 유배우자에 비해 다소 낮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유사하지만, 이혼 남성의 행복도는 현저히 낮다.

넷째, 인구학적 특성별 취업 여부에 따른 행복도 차이는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커지지만 남성에서는 중년층과 장년층에서 크고 여성에서는 이 연령계층에서 오히려 미취업자의 행복도가 취업자의 행복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고졸 미만에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고졸에서는 오히려 미취업자의 행복도가 높는데 이는 고졸 여성 미취업자의 행복도가 취업자의 행복도보다 높은 데서 연유한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별거와 이혼에서 미취업자의 행복도가 상당히 낮아 취업 여부에 따른 행복도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다.

다섯째, 연령대별 행복도 경향을 보면, 30대까지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취업자의 행복도가 미취업자의 행복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20~24세와 50~54세에서는 역전현상을 보이고, 전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공통된 반면 50대 여성에서는 이러한 역전현상이 나타난다.

여섯째, 경제활동상태를 세분하여 행복도를 보면, 단순히 취업이 행복도를 높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각 경제활동상태별 성별 차이는 거의 없고,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의 행복도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임금근로 중에서 상용직의 행복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행복도는 미취업자, 또는 행복도가 매우 낮은 실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행복도보다 낮으며, 일용직의 행복도는 실업자의 행복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 자료에서 5점 척도의 행복도를 ‘행복’, ‘중립’, 그리고 ‘불행’으로 재구성하여 인구학적 특성만 고려한 기본모형, 가구 재정 관련 특성을 고려한 자산·소득효과모형, 그리고 취업 여부를 고려한 일과 행복 모형에 다항로짓모형과 서열로짓모형에 적용한 행복의 실증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만 고려한 기본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다항로짓 모형의 ‘행복’ 선택과 서열로짓모형의 모든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불행’ 선택에서 일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산·소득효과모형이나 일과 행복 모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모든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남성이 여성이 비해 행복도가 낮다는 기존 연구문헌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낮아지지만 40대 중반 이후에는 반대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연한이 늘어날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데, 전문학사와 학사 이상의 추가적 학위효과 역시 상당한 수준이며,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며, 기혼 유배우자에 비해 미혼이나 기혼 무배우자(이혼, 별거, 사별)의 행복도가 낮는데 특히 이혼자의 행복도가 상당히 낮다.

셋째, 가구 재정 관련 특성이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가구총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높아져 3.3억 원 정도에서 정점에 도달하고, 다른 요인들이 모두 통제되었을 때,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은 행복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존재는 행복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융소득이나 이전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 보유는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부채 보유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거형태에서 자가 또는 아파트와 비교할 때 다른 형태의 입주 또는 주택은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취업 여부만 고려하였을 때,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10% 정도 행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서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취업상태를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이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미취업자에 비해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의 행복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강하며, 여성에서는 임금근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반면 비임금근로의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상태를 세분화하고 비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성에서는 여하한 형태의 취업이 모두 긍정적 효과를 가지지만 일용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여성에서는 임금근로 중 임시직과 일용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효과를 가지며, 비임금근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남성에서는 여하한 일자리든 취업상태가 미취업상태보다 행복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가사 및 자녀 양육 등의 부담을 지는 여성의 경우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이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로의 취업은 비경제활동인구상태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행복도를 낮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언급하였듯,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행복도로 간주하는 것은 온전하게 적절하지는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 조사(2015년)에서는 OECD의 ‘주관적 안녕 측정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에 따라 다양한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삶의 인식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부가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OECD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였지만 전체적 조사부담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제시하는 핵심 설문항 6개를 포함하였다. 이에선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0~10까지 11개 척도 적용), 하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0~10점), Candril Ladder, 모든 것을 고려한 행복도(0~10점), 5년 전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0~10점), 5년 후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예상(0~10점)이 포함된다.

향후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각에서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표 11-1〉 경제활동상태와 행복도 (1)

(단위: 점)

	전 체				여 성				남 성			
	입금	비입금	실업	비경활	입금	비입금	실업	비경활	입금	비입금	실업	비경활
전 체	3.45	3.43	3.16	3.38	3.43	3.44	3.14	3.40	3.47	3.43	3.18	3.34
연령계층												
청년층(15~29세)	3.51	3.61	3.17	3.50	3.51	3.56	3.12	3.49	3.51	3.63	3.23	3.51
중년층(30~54세)	3.48	3.46	3.17	3.46	3.46	3.50	3.20	3.50	3.49	3.44	3.14	3.04
장년층(55~64세)	3.38	3.40	3.37	3.34	3.32	3.41	3.33	3.40	3.42	3.40	3.38	3.15
고령층(65세 이상)	3.29	3.40	2.70	3.27	3.17	3.33	2.67	3.25	3.41	3.45	2.75	3.30
교육수준												
고졸미만	3.24	3.34	3.15	3.26	3.23	3.35	3.27	3.26	3.25	3.33	3.00	3.26
고졸	3.38	3.44	3.03	3.46	3.35	3.44	2.97	3.48	3.40	3.44	3.08	3.41
전문대졸	3.51	3.53	3.26	3.51	3.51	3.67	3.29	3.56	3.50	3.45	3.22	3.26
대졸 이상	3.65	3.60	3.30	3.56	3.66	3.63	3.25	3.62	3.65	3.58	3.33	3.45
혼인상태												
미혼	3.41	3.38	3.06	3.45	3.46	3.52	3.09	3.46	3.38	3.32	3.04	3.43
기혼 유배우	3.51	3.46	3.33	3.43	3.48	3.46	3.30	3.47	3.53	3.46	3.37	3.33
별거	3.17	3.13	.	2.94	3.16	3.33	.	3.00	3.18	3.00	.	2.86
이혼	3.10	3.17	2.63	2.89	3.14	3.36	2.25	2.93	3.05	3.05	3.00	2.80
사별	3.22	3.33	3.20	3.18	3.21	3.31	3.00	3.19	3.30	3.46	4.00	3.0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	3.65	3.76	3.33	3.66	3.71	3.33	3.33	3.64	3.61	3.82	3.33	3.70
건강한 편	3.61	3.60	3.23	3.57	3.59	3.64	3.20	3.59	3.62	3.58	3.26	3.52
보통	3.22	3.27	3.05	3.34	3.22	3.29	3.05	3.36	3.22	3.24	3.06	3.29
좋지 않은 편	3.11	3.19	2.83	3.12	3.12	3.17	3.00	3.14	3.09	3.20	2.75	3.09
매우 좋지 않음	2.75	3.22	2.00	2.83	3.00	2.78	2.00	2.78	2.57	3.40	.	2.91

주: 행복도는 1. 매우 불만족스럽다, 2. 불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4. 만족스럽다, 5. 매우 만족스럽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2014년) 원자료.

242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부표 11-2> 경제활동상태와 행복도 (2)

(단위: 점)

	전 체				여 성				남 성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주
전 체	3.53	3.33	3.16	3.43	3.51	3.31	3.16	3.44	3.54	3.36	3.16	3.43
연령계층												
청년층(15~29세)	3.55	3.41	3.36	3.80	3.54	3.42	3.44	3.67	3.55	3.39	3.31	3.89
중년층(30~54세)	3.54	3.31	3.10	3.47	3.53	3.31	3.21	3.55	3.55	3.29	3.05	3.43
장년층(55~64세)	3.47	3.35	3.21	3.39	3.40	3.30	3.20	3.38	3.50	3.42	3.22	3.39
고령층(65세 이상)	3.39	3.32	3.18	3.39	3.30	3.23	3.02	3.25	3.43	3.42	3.35	3.45
교육수준												
고졸미만	3.32	3.25	3.14	3.32	3.31	3.24	3.12	3.28	3.32	3.28	3.16	3.34
고졸	3.44	3.31	3.17	3.45	3.41	3.29	3.19	3.47	3.46	3.34	3.16	3.44
전문대졸	3.53	3.31	3.26	3.50	3.54	3.33	3.33	3.64	3.52	3.29	3.23	3.44
대졸 이상	3.67	3.54	3.35	3.60	3.69	3.52	3.60	3.68	3.66	3.56	3.25	3.57
혼인상태												
미혼	3.47	3.31	3.11	3.37	3.50	3.31	3.42	3.55	3.44	3.31	3.04	3.29
기혼 유배우	3.57	3.37	3.23	3.47	3.56	3.35	3.21	3.49	3.58	3.42	3.23	3.46
별거	3.09	3.22	3.23	3.00	3.14	3.20	3.00	3.00	3.00	3.33	3.30	3.00
이혼	3.23	3.05	2.85	3.17	3.24	3.10	2.86	3.36	3.21	2.94	2.84	3.05
사별	3.21	3.29	3.14	3.32	3.20	3.27	3.12	3.30	3.25	3.43	3.25	3.44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	3.69	3.54	3.20	3.81	3.77	3.50	3.00	3.50	3.64	3.57	3.25	3.84
건강한 편	3.65	3.49	3.34	3.59	3.65	3.49	3.30	3.63	3.66	3.48	3.36	3.58
보통	3.28	3.17	3.07	3.26	3.28	3.14	3.12	3.30	3.27	3.22	3.05	3.24
좋지 않은 편	3.24	3.05	2.98	3.21	3.30	3.05	2.97	3.19	3.18	3.05	3.00	3.23
매우 좋지 않음	3.67	2.50	2.33	3.29	4.00	2.67	3.00	3.00	3.50	2.33	2.00	3.40

주: 행복도는 1. 매우 불만족스럽다, 2. 불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4. 만족스럽다, 5. 매우 만족스럽다.

자영주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포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2014년) 원자료.

〈부표 11 - 3〉 소득·자산효과모형의 추정결과(남성)

	다항로짓모형				서열로짓모형	
	불행		행복		행복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상수	-4.4775(1.053)***		-0.1410(.4271)		-0.0629(.3935)	
상수					4.3813(.4033)***	
연령/10	0.9046(.3165)***	2.471**	-0.8565(.1269)***	0.425**	-0.9510(.1170)***	0.386**
(연령/10)²	-0.0724(.0285)**	0.930**	0.0823(.0123)***	1.086**	0.0897(.0113)***	1.094**
교육연한	-0.1042(.1695)	0.901	0.3460(.1062)***	1.413**	0.3528(.0927)***	1.423**
학위: 전문학사	0.1462(.3166)	1.157	0.1710(.0997)*	1.187	0.1463(.0963)	1.158
학위: 학사 이상	0.0890(.2691)	1.093	0.4199(.0852)***	1.522**	0.3905(.0816)***	1.478**
혼인상태(기준: 기혼유배우)						
미혼	0.8430(.2698)***	2.323**	-0.8867(.1205)***	0.412**	-0.9749(.1101)***	0.377**
별거	0.3014(.6122)	1.352	-0.4295(.4736)	0.651	-0.5311(.3923)	0.588
이혼	0.6110(.2617)**	1.842**	-1.0101(.2116)***	0.364**	-1.0308(.1616)***	0.357**
사별	0.2614(.3619)	1.299	-0.6274(.2168)***	0.534**	-0.6535(.1970)***	0.520**
주관적 건강상태(기준: 보통)						
매우 좋음	-11.703(227.3)	0.000	1.5446(.1958)***	4.686**	1.5103(.1946)***	4.528**
좋은 편	-0.3199(.2196)	0.726	1.3303(.0706)***	3.782**	1.2560(.0673)***	3.511**
나쁜 편	0.9552(.2119)***	2.599**	0.0503(.1316)	1.052**	-0.3221(.1175)***	0.725**
매우 나쁨	1.4717(.3136)***	4.356**	-0.5005(.3041)*	0.606	-1.1161(.2366)***	0.328**
가구총소득	-0.3719(.0735)***	0.689**	0.1350(.0149)***	1.145**	0.1462(.0146)***	1.157**
가구총소득²	0.0047(.0028)*	1.005	-0.0019(.0003)***	0.998**	-0.0021(.0003)***	0.998**
소득월별 소득 존재						
근로소득	-0.2170(.2374)	0.805	-0.4217(.1296)***	0.656**	-0.2315(.1183)*	0.793**
금융소득	0.1321(.3476)	1.141	0.0444(.0896)	1.045	0.0398(.0879)	1.041
부동산소득	-0.7498(.4035)*	0.472	0.1281(.1080)	1.137	0.2236(.1060)**	1.251**
사회보험소득	-0.4237(.2111)**	0.655**	0.1130(.0858)	1.120	0.1980(.0813)**	1.219**
이전소득	-0.0723(.1891)	0.930	0.0209(.0655)	1.021	0.0068(.0625)	1.007
기타소득	0.6494(.3520)*	1.914	-0.1557(.1188)	0.856	-0.1866(.1149)	0.830
자산과 부채 보유						
부동산자산	-0.3227(.2565)	0.724	0.3264(.0776)***	1.386**	0.3496(.0756)***	1.418**
금융자산	-0.3863(.1779)**	0.680**	0.5548(.0774)***	1.742**	0.5865(.0723)***	1.798**
부채	0.5602(.1792)***	1.751**	-0.1686(.0651)***	0.845**	-0.2222(.0622)***	0.801**
임주형태(기준: 자가)						
전세	0.1637(.2387)	1.178	-0.4920(.0842)***	0.611**	-0.4792(.0803)***	0.619**
월세	0.4148(.2098)**	1.514**	-0.7160(.1067)***	0.489**	-0.7093(.0956)***	0.492**
기타	0.0820(.3335)	1.085	0.1648(.1487)	1.179	0.1111(.1416)	1.117
주택형태(기준: 아파트)						
단독주택	0.1817(.2080)	1.199	-0.0599(.0800)	0.942	-0.0749(.0760)	0.928
연립주택	0.1849(.2093)	1.203	-0.3040(.0805)***	0.738	** -0.3104(.0760)***	0.733**
-2 logL	7771.483				7863.5	
모형적합도검정	1242.2***				1304.3***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모형적합도 검정은 모든 계수=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Wald 통계량)

오즈비=1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수준 0.05에서의 유의성.

행복도는 1 불행, 2 중립, 3 행복.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2014년) 원자료.

<부표 11 - 4> 소득·자산효과모형의 추정결과(여성)

	다항로짓모형				서열로짓모형	
	불행		행복		행복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상수	-3.3199(.9001)***		-0.4221(.3635)		-0.5295(.3432)	
상수					3.5256(.3500)***	
연령/10	0.3100(.2767)	1.363	-0.3311(.1219)***	0.718**	-0.3867(.1142)***	0.679**
(연령/10)2	-0.0344(.0243)	0.966	0.0333(.0117)***	1.034**	0.0395(.0109)***	1.040**
교육연한	-0.1356(.1100)	0.873	0.1077(.0658)	1.114	0.1443(.0589)**	1.155**
학위: 전문학사	0.1018(.3000)	1.107	0.2780(.0946)***	1.320**	0.2486(.0917)***	1.282**
학위: 학사 이상	0.1590(.2817)	1.172	0.5233(.0857)***	1.688**	0.4826(.0830)***	1.620**
혼인상태(기준: 기혼 유배우)						
미혼	0.4487(.3032)	1.566	-0.4231(.1238)***	0.655**	-0.4802(.1172)***	0.619**
별거	0.0565(.6352)	1.058	-0.7374(.4135)*	0.478	-0.5397(.3328)	0.583
이혼	0.6128(.2389)**	1.846**	-0.3921(.1713)**	0.676**	-0.5772(.1450)***	0.561**
사별	-0.2316(.2157)	0.793	-0.1891(.1076)*	0.828	-0.1042(.0986)	0.901
주관적 건강상태(기준: 보통)						
매우 좋음	-1.0311(1.032)	0.357	1.0186(.1864)***	2.769**	0.9964(.1841)***	2.709**
좋은 편	0.2268(.2002)	1.255	1.0598(.0646)***	2.886**	0.9733(.0622)***	2.647**
나쁜 편	1.1660(.1870)***	3.209**	-0.1552(.0999)	0.856	-0.4026(.0904)***	0.669**
매우 나쁨	2.4600(.2476)***	11.71**	-0.7474(.2628)***	0.474**	-1.8375(.1850)***	0.159**
가구총소득	-0.1250(.0943)	0.883	0.1503(.0144)***	1.162**	0.1479(.0140)***	1.159**
가구총소득2	0.0006(.0089)	1.001	-0.0023(.0004)***	0.998**	-0.0023(.0004)***	0.998**
소득원별 소득 존재						
근로소득	-0.1743(.2021)	0.840	-0.5997(.1021)***	0.549**	-0.4201(.0937)***	0.657**
금융소득	-0.1136(.3278)	0.893	-0.0161(.0852)	0.984	-0.0105(.0832)	0.990
부동산소득	-0.5133(.3235)	0.599	0.2305(.1003)**	1.259**	0.2830(.0973)***	1.327**
사회보험소득	-0.0618(.1756)	0.940	0.1347(.0749)*	1.144	0.1550(.0707)**	1.168**
이전소득	0.1137(.1693)	1.120	0.0177(.0626)	1.018	-0.0016(.0597)	0.998
기타소득	-0.2937(.3794)	0.745	-0.2848(.1099)***	0.752**	-0.2326(.1058)**	0.792**
자산 및 부채 보유						
부동산자산	-0.3066(.2200)	0.736	0.1987(.0728)***	1.220**	0.2202(.0701)***	1.246**
금융자산	-0.5735(.1565)***	0.564**	0.5010(.0709)***	1.650**	0.5725(.0661)***	1.773**
부채	0.2676(.1528)*	1.307	-0.2207(.0613)***	0.802**	-0.2316(.0579)***	0.793**
입주 형태(기준: 자가)						
전세	0.4797(.1995)**	1.616**	-0.2433(.0784)***	0.784**	-0.2837(.0746)***	0.753**
월세	0.7611(.1768)***	2.141**	-0.7084(.0984)***	0.492**	-0.7786(.0874)***	0.459**
기타	0.4157(.2666)	1.515	-0.0643(.1492)	0.938	-0.1698(.1377)	0.844
주택 형태(기준: 아파트)						
단독주택	0.4417(.1760)**	1.555**	-0.1931(.0737)***	0.824**	-0.2321(.0695)***	0.793**
연립주택	0.2770(.1822)	1.319	-0.2293(.0748)***	0.795**	-0.2428(.0705)***	0.784**
-2 logL	9287.7				9387.9	
모형적합도검정	1340.6***				1348.6***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모형적합도 검정은 모든 계수=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Wald 통계량)

오즈비=1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수준 0.05에서의 유의성.

행복도는 1. 불행, 2. 중립, 3. 행복.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2014년) 원자료.

〈부표 11 - 5〉 일과 행복모형의 추정결과(취업 여부)

	전체		여성		남성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상수 3	0.0963(.2683)		-0.6447(.3672)*		0.7245(.4274)*	
상수 2	4.3002(.2748)***		3.4104(.3735)***		5.1896(.4394)***	
취업	-0.1036(.0494)**	0.902**	0.0532(.0603)	1.055	-0.4339(.0929)***	0.648**
남성	-0.1636(.0427)***	0.849**				
연령/10	-0.6963(.0841)***	0.498**	-0.3591(.1182)***	0.698**	-1.1963(.1281)***	0.302**
(연령/10)2	0.0671(.0081)***	1.069**	0.0370(.0112)***	1.038**	0.1141(.0125)***	1.121**
교육연한	0.2042(.0482)***	1.227**	0.1424(.0590)**	1.153**	0.3729(.0929)***	1.452**
학위:전문학사	0.1756(.0662)***	1.192**	0.2562(.0921)***	1.292**	0.0959(.0970)	1.101
학위:학사 이상	0.4300(.0570)***	1.537**	0.4899(.0835)***	1.632**	0.3537(.0820)***	1.424**
혼인상태(기준: 기혼 유배우)						
미혼	-0.7126(.0791)***	0.490**	-0.4668(.1181)***	0.627**	-0.9132(.1110)***	0.401**
별거	-0.5238(.2525)**	0.592**	-0.5226(.3335)	0.593	-0.5498(.3933)	0.577
이혼	-0.7670(.1073)***	0.464**	-0.5661(.1455)***	0.568**	-1.0120(.1618)***	0.363**
사별	-0.2002(.0844)**	0.819**	-0.0977(.0989)	0.907	-0.6413(.1974)***	0.527**
주관적 건강상태(기준: 보통)						
매우 좋음	1.2366(.1334)***	3.444**	0.9880(.1844)***	2.686**	1.5170(.1948)***	4.558**
좋은 편	1.0933(.0454)***	2.984**	0.9730(.0622)***	2.646**	1.2514(.0674)***	3.495**
나쁜 편	-0.3512(.0721)***	0.704**	-0.4105(.0908)***	0.663**	-0.2346(.1190)**	0.791**
매우 나쁨	-1.5598(.1465)***	0.210**	-1.8496(.1855)***	0.157**	-0.9859(.2378)***	0.373**
가구총소득	0.1466(.0100)***	1.158**	0.1481(.0140)***	1.160**	0.1504(.0146)***	1.162**
가구총소득2	-0.0022(.0003)***	0.998**	-0.0023(.0004)***	0.998**	-0.0022(.0003)***	0.998**
소득원별 소득 존재						
근로소득	-0.4004(.0760)***	0.670**	-0.4014(.0961)***	0.669**	-0.4385(.1265)***	0.645**
금융소득	0.0108(.0603)	1.011	-0.0111(.0832)	0.989	0.0373(.0880)	1.038
부동산소득	0.2677(.0716)***	1.307**	0.2782(.0975)***	1.321**	0.2472(.1063)***	1.280**
사회보험소득	0.1831(.0531)***	1.201**	0.1526(.0708)**	1.165**	0.2212(.0816)***	1.248**
이전소득	0.0077(.0431)	1.008	-0.0025(.0598)	0.998	0.0026(.0626)	1.003
기타소득	-0.2053(.0777)***	0.814**	-0.2326(.1059)**	0.792**	-0.1764(.1150)	0.838**
자산 및 부채 보유						
부동산자산	0.2731(.0513)***	1.314**	0.2232(.0702)***	1.250**	0.3329(.0756)***	1.395**
금융자산	0.5760(.0487)***	1.779**	0.5740(.0661)***	1.775**	0.5722(.0724)***	1.772**
부채	-0.2224(.0423)***	0.801**	-0.2312(.0579)***	0.794**	-0.2159(.0623)***	0.806**
입주 형태(기준: 자가)						
전세	-0.3711(.0545)***	0.690**	-0.2834(.0746)***	0.753**	-0.4784(.0804)***	0.620**
월세	-0.7551(.0644)***	0.470**	-0.7750(.0875)***	0.461**	-0.7301(.0957)***	0.482**
기타	-0.0495(.0983)	0.952	-0.1674(.1377)	0.846	0.0683(.1420)	1.071
주택 형태(기준: 아파트)						
단독주택	-0.1712(.0512)***	0.843**	-0.2266(.0697)***	0.797**	-0.0901(.0762)	0.914
연립주택	-0.2843(.0516)***	0.753**	-0.2384(.0707)***	0.788**	-0.3206(.0761)***	0.726**
-2 logL	17312.6		9387.1		7841.9	
모형적합도검정	2622.5***		1349.1***		1317.3***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모형적합도 검정은 모든 계수=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Wald 통계량)

오즈비=1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수준 0.05에서의 유의성.

행복도는 1. 불행, 2. 중립, 3. 행복.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2014년) 원자료.

<부표 11 - 6> 일과 행복모형의 추정결과(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전체		여성		남성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상수 3	-0.0016 (.2542)***		-0.5662 (.3505)		0.2731 (.4007)	
상수 2	4.2027 (.2608)***		3.4924 (.3572)***		4.7375 (.4118)***	
임금근로	0.0930 (.0524)*	1.097	-0.1217 (.0660)*	0.885	0.4672 (.0960)***	1.596**
비임금근로	0.1287 (.0641)**	1.137**	0.1093 (.0874)	1.116	0.3595 (.1073)***	1.433**
남성	-0.1640 (.0427)***	0.849**				
연령/10	-0.6971 (.0841)***	0.498**	-0.3649 (.1183)***	0.694**	-1.1939 (.1281)***	0.303**
(연령/10)2	0.0670 (.0081)***	1.069**	0.0371 (.0112)***	1.038**	0.1143 (.0125)***	1.121**
교육연한	0.2048 (.0482)***	1.227**	0.1471 (.0590)**	1.153**	0.3689 (.0929)***	1.446**
학위: 전문학사	0.1781 (.0663)**	1.195**	0.2704 (.0924)***	1.310**	0.0871 (.0972)	1.091
학위: 학사 이상	0.4329 (.0571)***	1.542**	0.5015 (.0836)***	1.651**	0.3433 (.0823)***	1.410**
혼인상태(기준: 기혼 유배우)						
미혼	-0.7113 (.0791)***	0.491**	-0.4566 (.1182)***	0.633**	-0.9155 (.1110)***	0.400**
별거	-0.5179 (.2527)**	0.596**	-0.4784 (.3341)	0.620	-0.5641 (.3933)	0.569
이혼	-0.7659 (.1073)***	0.465**	-0.5520 (.1455)***	0.576**	-1.0125 (.1619)***	0.363**
사별	-0.1978 (.0845)**	0.821**	-0.0852 (.0990)	0.918	-0.6463 (.1975)***	0.524**
주관적 건강상태(기준: 보통)						
매우 좋음	1.2359 (.1334)***	3.441**	0.9872 (.1843)***	2.684**	1.5208 (.1949)***	4.576**
좋은 편	1.0934 (.0454)***	2.984**	0.9735 (.0622)***	2.647**	1.2515 (.0674)***	3.496**
나쁜 편	-0.3508 (.0721)***	0.704**	-0.4065 (.0909)***	0.666**	-0.2340 (.1191)**	0.791**
매우 나쁨	-1.5581 (.1465)***	0.211**	-1.8405 (.1856)***	0.159**	-0.9923 (.2378)***	0.371**
가구총소득	0.1465 (.0100)***	1.158**	0.1485 (.0140)***	1.160**	0.1513 (.0146)***	1.163**
가구총소득2	-0.0022 (.0003)***	0.998**	-0.0023 (.0004)***	0.998**	-0.0022 (.0003)***	0.998**
소득월별 소득 존재						
근로소득	-0.4036 (.0762)***	0.668**	-0.4179 (.0964)***	0.658**	-0.4273 (.1267)***	0.652**
금융소득	0.0107 (.0603)	1.011	-0.0122 (.0832)	0.988	0.0376 (.0880)	1.038
부동산소득	0.2696 (.0717)***	1.309**	0.2902 (.0976)***	1.337**	0.2414 (.1064)**	1.273**
사회보험소득	0.1830 (.0531)***	1.201**	0.1503 (.0708)**	1.162**	0.2198 (.0816)***	1.246**
이전소득	0.0081 (.0431)	1.008	-0.0017 (.0598)	0.998	0.0007 (.0627)	1.001
기타소득	-0.2031 (.0778)***	0.816**	-0.2233 (.1059)**	0.800**	-0.1854 (.1153)	0.831
자산 및 부채 보유						
부동산자산	0.2687 (.0518)***	1.308**	0.1965 (.0710)***	1.217**	0.3470 (.0763)***	1.415**
금융자산	0.5771 (.0487)***	1.781**	0.5780 (.0661)***	1.782**	0.5677 (.0725)***	1.764**
부채	-0.2231 (.0423)***	0.800**	-0.2333 (.0580)***	0.792**	-0.2126 (.0623)***	0.808**
입주 형태(기준: 자가)						
전세	-0.3691 (.0546)***	0.691**	-0.2752 (.0747)***	0.759**	-0.4870 (.0807)***	0.614**
월세	-0.7543 (.0644)***	0.470**	-0.7737 (.0875)***	0.461**	-0.7349 (.0958)***	0.480**
기타	-0.0471 (.0984)	0.954	-0.1583 (.1379)	0.854	0.0587 (.1422)	1.060
주택 형태(기준: 아파트)						
단독주택	-0.1739 (.0514)***	0.840**	-0.2404 (.0700)***	0.786**	-0.0797 (.0765)	0.923
연립주택	-0.2854 (.0517)***	0.752**	-0.2425 (.0708)***	0.785**	-0.3153 (.0762)***	0.730**
-2 logL	17312.2		9380.4		78340.0	
모형적합도검정	2622.8***		1353.1***		1318.4***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모형적합도 검정은 모든 계수=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Wald 통계량)

오즈비=1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수준 0.05에서의 유의성.

행복도는 1. 불행, 2. 중립, 3. 행복.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2014년) 원자료.

〈부표 11 - 7〉 일과 행복모형의 추정결과(세분화된 경제활동상태)

	전체		여성		남성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추정치	오즈비
상수 3	-0.1604(.2555)***		-0.6549(.3516)*		0.1087(.4031)	
상수 2	4.0621(.2618)***		3.4193(.3581)***		4.5903(.4138)***	
경제활동상태(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상용직	0.1526(.0587)***	1.165**	-0.0364(.0770)	0.964	0.5012(.1057)***	1.651**
임시직	-0.0777(.0831)	0.925	-0.2794(.1028)***	0.756**	0.3599(.1457)**	1.433**
일용직	-0.3419(.1052)***	0.710**	-0.5123(.1607)***	0.599**	0.0050(.1539)	1.005
고용주/자영자	0.0766(.0700)	1.080	0.1010(.1071)	1.106	0.2876(.1124)**	1.333**
무급가족종사	0.0914(.1110)	1.096	0.0311(.1229)	1.032	0.5210(.2742)*	1.684
실업	-0.7881(.1709)***	0.455**	-0.9714(.2503)***	0.379**	-0.4295(.2410)*	0.651
남성	-0.1594(.0442)***	0.853**				
연령/10	-0.6418(.0846)***	0.526**	-0.3352(.1186)***	0.715**	-1.1245(.1304)***	0.325**
(연령/10)2	0.0626(.0081)***	1.065**	0.0347(.0113)***	1.035**	0.1087(.0127)***	1.115**
교육연한	0.2049(.0484)***	1.227**	0.1466(.0591)**	1.158**	0.3618(.0932)***	1.436**
학위: 전문학사	0.1522(.0671)**	1.164**	0.2479(.0933)***	1.281**	0.0514(.0986)	1.053
학위: 학사 이상	0.4053(.0579)***	1.500**	0.4788(.0844)***	1.614**	0.3087(.0838)***	1.362**
혼인상태(기준: 기혼 유배우)						
미혼	-0.6659(.0795)***	0.514**	-0.4343(.1187)***	0.648**	-0.8775(.1120)***	0.416**
별거	-0.4709(.2533)*	0.624	-0.4603(.3343)	0.631	-0.4810(.3963)	0.618
이혼	-0.7434(.1075)***	0.475**	-0.5482(.1461)***	0.578**	-0.9799(.1619)***	0.375**
사별	-0.1879(.0849)**	0.829**	-0.0773(.1002)	0.926	-0.6444(.1974)***	0.525**
주관적 건강상태(기준: 보통)						
매우 좋음	1.2386(.1335)***	3.451**	0.9924(.1846)***	2.698**	1.5172(.1948)***	4.559**
좋은 편	1.0968(.0455)***	2.995**	0.9816(.0623)***	2.669**	1.2473(.0676)***	3.481**
나쁜 편	-0.3650(.0722)***	0.694**	-0.4137(.0910)***	0.661**	-0.2607(.1194)**	0.770**
매우 나쁨	-1.6030(.1472)***	0.201**	-1.8709(.1863)***	0.154**	-1.0499(.2394)***	0.350**
가구총소득	0.1411(.0100)***	1.152**	0.1431(.0140)***	1.154**	0.1462(.0147)***	1.157**
가구총소득2	-0.0021(.0003)***	0.998**	-0.0022(.0004)***	0.998**	-0.0021(.0003)***	0.998**
소득원별 소득 존재						
근로소득	-0.3504(.0766)***	0.704**	-0.3732(.0969)***	0.689**	-0.3683(.1276)***	0.692**
금융소득	0.0122(.0603)	1.012	-0.0083(.0833)	0.992	0.0398(.0881)	1.041
부동산소득	0.2682(.0718)***	1.308**	0.2884(.0978)***	1.334**	0.2415(.1065)**	1.273**
사회보험소득	0.1845(.0532)**	1.203**	0.1503(.0709)**	1.162**	0.2225(.0818)**	1.249**
이전소득	0.0121(.0431)	1.012	-0.0011(.0599)	0.999	0.0062(.0627)	1.006
기타소득	-0.1961(.0779)**	0.822**	-0.2142(.1061)**	0.807**	-0.1806(.1155)	0.835
자산 및 부채 보유						
부동산자산	0.2679(.0519)***	1.307**	0.2002(.0712)***	1.222**	0.3434(.0764)***	1.410**
금융자산	0.5679(.0488)***	1.765**	0.5721(.0662)***	1.772**	0.5588(.0727)***	1.749**
부채	-0.2164(.0424)***	0.805**	-0.2251(.0581)***	0.798**	-0.2066(.0624)***	0.813**
입주 형태(기준: 자가)						
전세	-0.3666(.0547)***	0.693**	-0.2712(.0748)***	0.762**	-0.4879(.0808)***	0.614**
월세	-0.7338(.0646)***	0.480**	-0.7596(.0877)***	0.468**	-0.7113(.0961)***	0.491**
기타	-0.0477(.0986)	0.953	-0.1510(.1382)	0.860	0.0564(.1425)	1.058
주택 형태(기준: 아파트)						
단독주택	-0.1589(.0516)***	0.853**	-0.2242(.0703)***	0.799**	-0.0680(.0767)	0.934
연립주택	-0.2728(.0518)***	0.761**	-0.2303(.0709)***	0.794**	-0.3054(.0764)***	0.737**
-2 logL	17264.5		9354.6		7822.2	
모형적합도검정	2653.7***		1368.7***		1330.1***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모형적합도 검정은 모든 계수=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Wald 통계량)

오즈비=1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수준 0.05에서의 유의성.

행복도는 1. 불행, 2. 중립, 3. 행복.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 조사(2014년) 원자료.

제 12 장

시간사용과 삶의 질
- 일중독을 중심으로 -

제1절 들어가는 글

한국인들은 오래 일한다. 휴가 사용률이 낮아 연간 노동일수가 많고 1일 노동시간도 길다. 또 일을 그만두는 시점인 은퇴연령도 높다. 한국인들이 장시간 노동을 습관이나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된 것은 산업화를 거치고 1997년 이후 생존의 불안이 증폭되면서 강화되었다. 장시간 노동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과도하게 일에 몰입하고 그에 수반되는 부정적 양상들을 일컬기 위해 ‘일중독’이란 말이 자주 회자되기 시작했다. 강수돌(2007)은 긍정적 보상에 가려져 그 아래에 숨어 있는 일중독의 심각한 폐해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특성이라고 지적한다. 일중독은 도박이나 쇼핑 등 여러 가지 행위중독 가운데서도, 경계하기보다는 미화되고 돈이나 명성으로 보상까지 받기도 하는 중독으로 군림하고 있다.

일중독 관련 연구는 한국 학계에서 학문적 연구 관심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해외 학계에서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천착하면서 일중독의 개념과 측정, 일중독의 원인, 영향, 대응에 대한 연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에서 일중독에 대한 연구는 경영학 분야의 강수돌(2002, 2003, 2006)이 이론적, 실증적 성과를 낸 이후, 사회학과 철학 등의 분야에서 일중독의 원인과 영향을 규명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일중독에 대한 일관된 개념과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연구자들 간에 일중독에 대한 단일한 정의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단일한 정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중독을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일중독에 대해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보는 것에 따라 일중독의 본질적인 원인과 증상에 포함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측정도구, 일중독에 관한 실증 연구의 내용과 접근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간의 학문적 혹은 여론의 관심이 지시하는 일중독은 일 중심적인 삶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에 대한 강박증적인 태도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경험하는 금단증상, 신체·정신적 건강과 인간 관계, 다른 생활 영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아우른다. 반면 일을 즐기거나 열정적으로 일하는 일중독자는 병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이나 사회와 조직에 악영향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시간 동안 지나치게 몰입하는 양상을 동반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 신체·정신적으로나 주변인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야기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본 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7차 조사가 실시한 일중독 문항들이 일중독 측정도구로서 신뢰성을 가지는지 검토하고,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실시된 일중독 측정도구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일중독 실태 정도와 위험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일중독 현상의 광범위성과 위험 집단 및 요인을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장시간 근로 관행과 문화가 만연한 상황과 고용불안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에 내몰리는 근로자들을 일중독 위험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2절 기존 연구

일중독이라는 용어는 Oates(1971)의 『Confessions of a Workaholic:」

The Facts about work addiction』이 발간된 이후 널리 알려졌다. 그는 한 때 자신이 강박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고백하면서 일중독과 알코올 중독의 유사성을 비교하며 일중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일중독이 알코올 중독과 성격이 매우 흡사하며, 일중독자는 끊임없이 일하려는 내적충동과 과도하게 일에 집착하는 습성으로 건강, 대인관계, 행복감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그 뒤로 언론과 학계에서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언론에서 더 빈번하게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중독은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고 강박적으로 일에 매몰되는 현상을 지칭하게 되었다.

일중독을 개념적으로 진전시켜 분석을 정교화한 이는 Spence와 Robbins(1992)로 일중독의 집착이나 병리적 측면만을 강조하지 않고, 일 강박(inner drive to work), 일 향유(enjoyment of work), 일 몰입(work involvement) 등 세 차원을 통해 일중독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구성하였다. 이들의 일중독 차원이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최근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의이다. 일 몰입은 실제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으로 일중독의 가장 중요한 차원이며,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특징이 있는데, 단순히 일하는 시간만 길다고 일중독자로 보지는 않으며 삶과 일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비업무적인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여가나 취미활동을 포기하면서 일에만 몰두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내적 강제 차원인 일 강박은 자신의 의지로는 내적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지칭하며 일에 대한 집착이나 과도하게 일하려는 내적 욕구나 동기, 일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욕구 등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일을 생각하고, 일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일 향유는 일하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이 세 가지 차원에 기대어, 일 몰입이 높고, 일 충동이 높고, 일을 즐기는 정도는 낮은 것을 일중독 상태라고 보았다. 이러한 개념에 기반하여 탄생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일중독 측정도구는 Workaholism Battery이다. 그러나 이 측정도구는 동질적인 사회복지사 집단에 대해서만 측정도구의 유효성을 시험하여 신

퇴성의 한계를 지적받기도 했다.

일중독 개념이 전적으로 일에 대한 강박적인 태도와 그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Scott et al.(1997)은 일중독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일중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중요한 사회적, 가정적 혹은 여가활동을 포기하고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둘째, 일하지 않을 때도 지속적으로 일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 셋째, 생활에 필요한 소득활동이나 할당된 직무 범위를 초과하여 일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들은 일중독을 강박적, 완벽주의적, 성취지향적 일중독으로 유형화한다. 강박적 일중독자와 완벽주의적 일중독자가 스트레스 수준이나 신체 및 심리적 문제, 대인관계 등과 부정적인 관련을 갖는 반면, 성취지향적 일중독은 직무 및 삶에 대한 만족도와 신체·심리적 건강과 긍정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파악했다. 일중독의 행동 패턴에 따라 일중독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므로 선부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Griffiths(2006)는 행위중독과 건강한 열정 간의 차이는 그 행위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가의 판단이 중요한 구분점이 된다고 보았다. 일중독자 가운데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삼욱(2014)은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일중독자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일중독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중독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아 일중독의 개념에 혼란을 초래하고 열정이 있는 일중독은 다른 중독에 비해 그 폐해가 덜 심각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나양수, 2015에서 재인용).

일중독의 기능적인 성격과 역기능적인 성격을 구분하고자 하는 실증적 시도는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Bakker et al.(2014)은 398명의 일본 부부를 대상으로 직무 열의(work engagement)와 일중독이 가족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Shimazu and Schaufeli(2009)는 일중독과 직무 열의(work engagement) 간에 실증적인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776명의 일본 근로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일중독은 정신심리학적 문제, 신체적 문제, 낮은 직무 만족도와 가족 만족도, 낮은 업무성적을 일으키지만, 직

무 열의는 이와 반대였다. Bonebright et al.(2000)은 열정적인 일중독자와 비열정적인 일중독자가 구별된다고 보았다. 비열정적인 일중독자는 일·가정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열정적인 일중독자보다 더 높았다. Schaufeli et al.(2008)은 일중독, 소진, 직무 열의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지 분석한 결과 서로 구분된다는 결론을 짓고 있다. Malinowska and Tokarz(2014)는 삶, 자기 실현,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도 등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기능적(functional) 중독과 비기능적(dysfunctional) 일중독을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중독에 대한 연구는 강수돌의 연구가 선구적이다(강수돌, 2002). 그는 노동중독의 유형에 대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는 데서 나아가 유형 분류를 시도하기도 했다. 노동중독의 유형을 ① 주로 고학력 전문직들에서 나타나면서, 목표달성을 위해 과도하게 일에 몰입하는 과도성 취형(프리랜서나 벤처사업가), ② 경제형편상 어쩔 수 없이 과도한 노동에 노출되는 노동강제형, ③ 일이 많아 대처를 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는 햄릿형으로 나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일중독자들이 생기는 배경으로 사회적으로 승자 독식문화나 과도한 일로 인한 보상 경험, 과도한 일을 조장하는 근무환경 등의 강화 경험이 일과 관련된 즐거움이나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의 죄책감과 맞물려 일중독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신의 개인적인 기질과는 무관하게 사회문화적 요인 때문에 일중독자가 양산된다(강수돌, 2007). 또한 강수돌(2006)은 미국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익명의 일중독자 모임에서 제시된 일중독 측정도구를 한국의 초중등교 교사 사례에 적용하여, 측정도구의 한국적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일중독에 대한 실증 연구를 시도하기도 했다.

인문학 분야에서도 일중독 사회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일중독으로 피폐해진 사회를 치유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박은미, 2013; 정세근, 2013). 노동을 강제당하지만 그로부터 소외되는 현실 속에서 타율적인 노동과 타율적인 소비의 악순환을 통해 노동중독적인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승호(2014)는 일중독을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남성성 문화와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일중독 경향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면서 심해졌다. 물론 이전에도 일

중독자가 있었겠지만,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보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근무시간과 사적시간의 구분을 무너트렸고, 많은 시간 일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만들었다. 그는 고도로 일에 몰입한다는 것과 일에 많은 시간을 헌신한다는 것은 다른 특성이며, 한국 사회에서 일중독은 자발적 성취 지향보다는 강박적 성취 지향이며, 실업 위험과 남성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중독의 원인에 대해 조직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김왕배(2007)는 일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조직몰입과 고용불안정 의식이 일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애착이나 일체감의 정도이며 조직 몰입도가 높을수록 일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일수록 일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한 일중독 문항들의 일중독 측정도구로서 신뢰성을 검토하고 조작적으로 정의한 일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 17차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일중독 관련 문항들을 조사했다. 본 연구는 조사된 자료의 측정도구로서 신뢰성, 주요 변인들과 일중독 여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측정도구의 설명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첫째, Aziz et al.(2013)이 개발한 일중독 문항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일중독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토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개발하여 사용되어 온 일중독 측정도구들은 신뢰성과 유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Aziz et al. 2013). 이들은 일중독을 다른 삶의 영역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심각한 일 강박을 보이는

중독으로 정의하면서 일 강박(work drive)과 일·가정 양립 갈등(work-life imbalance)을 두 가지 주요 개념축으로 강조하는 일중독 분석 질문지(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를 고안했다. 그들은 이 질문지에 기반한 일중독 측정도구가 내적 신뢰도, 타당도, 변별도에서 기존의 측정도구들보다 강점을 드러낸다고 보고했다. 이 측정도구는 일·가정 양립 갈등, 일중독에 보편적인 증상과 중독 관련 병리적 특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을 포함시켜 일중독을 좀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정의하고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도 협소한 범위의 업무 완벽주의, 금단증상, 일강박 등 일 관련 중독 행위와 증상뿐만 아니라 그와 연루되어 나타나는 광범위한 차원의 일중독 현상, 즉 일·가정 갈등과 일중독과 관련한 성향적 특성까지 포함한 일중독 개념에 기대어 분석을 진행했다.

둘째, 일중독 문항들을 사용하여 일중독자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우리나라 취업자의 일중독 양상과 시간 사용 특성을 확인했다.

셋째, 일중독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였다. 일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모형에 포함시킨 변수는 다음과 같다. 연령, 성별, 결혼상태, 학력 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유승호(2014)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일중독은 가정이 아닌 일을 통해 남성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성별분업 관념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 질문에 ‘조금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성별분업 관념이 높은 것이라고 할 때, 성별분업 관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일중독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단순히 근로시간이 길다고 해서 일중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둘 사이의 관련성은 매우 높다. 근로시간에 따라 40시간 미만, 40~60시간, 60시간 이상인 집단 간에 일중독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근로시간의 길이와는 별개로, 자신의 업무량이 정규근로시간에 비해 과중한지 여부가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량 과부하’라는 변수를 포함시켰다. 기존 연구들은 일중독이 고소득자와 관리자 및 전문

직과 가까운 현상으로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로그 시간당 임금을 통해 시간의 기회비용이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일자리 관련 변수로는 종사상 지위(상용직, 임시, 일용, 고용주나 자영업자), 직종, 업종을 통제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일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김왕배(2007)가 밝히고 있듯이 고용불안정은 일중독 가능성을 높인다. 임시직은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해 목표달성과 조직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과도한 일몰입에 빠질 수 있고, 일용직은 불안정한 일거리 때문에 일이 없을 때 조바심이나 불안감을 가지는 금단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고용주나 자영업자는 종속근로자로서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고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일 몰입과 일 강박에 빠질 수 있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일·가정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김왕배(2007)는 조직몰입을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헌신이나 충성심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조직몰입이 일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한국노동패널 17차에서 조사한 조직몰입도 관련 문항 5개를 사용하여 조직몰입도 변수를 구축하였다. 문항 5개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다닐 만한 좋은 직장이다’, ‘나는 이 직장에 들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직장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다’인데, 평균 점수가 ‘조금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를 조직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조직몰입도가 높을수록 일중독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직무 만족도를 묻는 질문 가운데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를 직무 열정으로,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를 직무 향유로 정의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일을 열정적으로 하거나 즐겁게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중독 상태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 17차 조사에서 시간사용과 삶의 질 부가조사의 일중독 관련 문항에 응답한 2009년 통합표본 기준으로 7,199명을 분석했다. 일중

독 조사의 신뢰성을 분석할 때는 취업자 전체 표본을 분석하였다. 일중독 결정요인 분석에는 학생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6,227개의 표본을 분석하였다.

제4절 연구결과

1. 일중독 측정도구의 신뢰성

본 절에서는 일중독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주목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측정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Aziz et al.(2013)의 측정도구를 적용한 설문문항 조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했다. 이 측정도구에 기반하여 설문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이 측정도구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본다.

가. 측정도구의 항목 판별 지수

문항 변별도(the item discrimination index)는 문항이 일중독자 수준이 낮은 응답자와 높은 응답자를 변별하는 정도 내지는 각 문항이 조사가 측정하려는 특성 또는 능력을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지 정도를 의미한다. 즉 각 항목과 전체 사이에 상관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은 응답자는 일중독 수준이 높고 점수가 낮은 응답자는 일중독 수준이 낮다면 그 문항은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중독 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어떤 문항에 대해 같은 점수를 보인다면 이 문항은 변별력이 없는, 즉 변별도 지수가 0인 문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항의 변별도 지수는 문항 점수와 응답자 총점의 상관계수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문항 변별도 지수는 정(+)의 값을 가지면서 그 값이 클수록 변별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항 변별도가 높으면 검사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Ebel(1979)은 변별도 지수가 0.10 미만은 변별력이 없

는 문항, 0.10 이상~0.20 미만은 변별력이 낮은 문항, 0.20 이상~0.30 미만은 변별력이 낮은 문항, 0.30 이상~0.40 미만은 변별력이 있는 문항, 0.40 이상은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구분한다(Mitra et al., 2009에서 재인용). 문항 변별도가 0.40 이상이면 좋은 문항으로 평가되고, 0.20 미만인 문항은 적어도 수정 또는 제거되어야 할 문항으로 평가한다(김진, 2009).

노동패널 17차 부가자료 일중독 문항에 대한 문항 변별도 수치를 계산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자(표 12-1 참조). 항목 8, 9, 10, 11에서 변별력이 0.5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 항목들이 전체 측정도구와 맺는 관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8) 나는 주당 60시간 이상이

〈표 12-1〉 문항 변별도

요인	문항	한국노동패널			Aziz et al.(2013)
		M	s.d	d	d
일·가 정 갈등	(1)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	3.01	.980	.505**	.418
	(6) 일 때문에 항상 너무 피곤해서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기 어렵다	2.45	.899	.628**	.463
	(12) 일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이 자주 있다	2.05	.750	.629**	.568
	(14) 업무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해도 재미가 없다	2.07	.678	.671**	.714
	(23) 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다	2.05	.635	.561**	.564
	(24) 일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이 종종 방해를 받는 것 같다	2.38	.867	.657**	.760
	(25) 직장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있다	2.52	.912	.633**	.772
	(26) 직장 일 때문에 중요한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2.49	.884	.615**	.727
	(27) 내 스스로 휴가 일정을 짜는 것이 어렵다	2.38	.860	.553**	.653
	(28)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2.20	.704	.552**	.558
	(29) 부부관계나 친밀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2.15	.687	.551**	.479

<표 12-1>의 계속

요인	문항	한국노동패널			Aziz et al.(2013)
		M	s.d	d	d
업무 완벽주의	(18) 나는 때때로 업무목표나 업무성과에 집착한다	2.48	.904	.612**	.627
	(19) 일이 끝나기 전에 일이 잘 되었는지 자주 확인한다	2.77	.973	.510**	.379
	(20)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일을 점검해 달라고 종종 요청한다	2.25	.714	.548**	.297
	(21) 나는 내 일에 대하여 자주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2.16	.693	.680**	.610
	(22) 일이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끝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2.40	.804	.567**	.578
일중독	(7) 항상 일에 대한 생각만 한다	2.29	.800	.647**	.670
	(8) 나는 주당 60시간 이상이라도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1.93	.748	.407**	.515
	(9) 내 업무는 내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	2.89	.998	.456**	.434
	(11) 나는 저녁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1.91	.707	.359**	.450
	(13)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	2.11	.764	.681**	.578
불패함	(10) 나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싶다	2.50	.874	.441**	.410
	(15)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05	.667	.579**	.375
	(16) 종종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	2.23	.765	.592**	.502
	(17) 사람들은 내가 조급하고 언제나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2.21	.763	.627**	.490
금단 증상	(2)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죄책감을 느낀다	2.29	.788	.579**	.583
	(3)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조바심이 난다	2.38	.875	.656**	.635
	(4) 업무를 안 하면 지루하고 안절부절할 느낌이 든다	2.31	.823	.650**	.541
	(5) 업무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서 집에서 편안하게 쉬지 못한다	2.23	.778	.687**	.693

자료 :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라도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와 '(11) 나는 저녁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가 각각 0.407과 0.359로 나타났는데 일중독과 관련한 나머지 문항들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다. 그 이유는 이 문항들이 장시간노동이나 주말 노동 특성으로서 일중독과 관련성이 높다고 가정하였으나, '선호' 혹은 '즐김'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일중독 특성과 강한 상관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라는 항목은 0.681로 일중독 특성을 판별하는 문항 가운데 변별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가 '일중독'에 대해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든 간에 자기보고 형식의 질문 문항 하나가 일중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상당히 높은 변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노동패널의 조사결과는 Aziz et al.(2013)과 다소 다르다. 한국 조사와 미국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변별도가 낮은 항목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 조사에서는 업무완벽주의와 관련된 항목인 '일이 끝나기 전에 일이 잘 되었는지 자주 확인한다'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일을 점검해 달라고 종종 요청한다'의 변별도가 낮게 나타났다.

나. 신뢰도 계수

측정도구의 신뢰도 지표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 알파)를 많이 사용한다.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여러 항목으로 한 개념을 측정하고자 할 때 관련성이 낮은 항목을 제거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노동패널 17차 조사의 일중독에 관한 29개 문항의 경우 알파계수가 0.928로 나타났다. 신뢰도 검사는 문항 변별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하였을 때 척도 전체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데, 항목 삭제 시 뚜렷하게 신뢰도 값이 향상되는 문항이 없었다. 변별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던 8, 9, 10, 11번 문항을 삭제할 경우 알파계수가 0.928로 나왔으나, 이는 네 가지 항목을 삭제하지 않았을 때의 알파계수의 값과 같고 신뢰도가 향상되는 정도가 다른 문항들과 크게 차이는 나는 수치가 아니었다.

다. 타당도 : 구성 타당도 검증

일중독의 핵심 특성들을 추출하기 위해 구성 타당도를 검증했다. 주성분분석(PCA)에 의한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통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표 1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유치가 1인상인 것들로 크게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6개 요인에 의한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62.34%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 조사결과는 Aziz et al.(2013)과 추출된 요인의 구성

<표 12-2> 회전된 성분행렬

	문항	성분					
		1	2	3	4	5	6
일·가정갈등	(26) 직장 일 때문에 중요한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84	.13	.05	.09	.02	.16
	(25) 직장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있다	.81	.15	.05	.14	.00	.19
	(27) 내 스스로 휴가 일정을 짜는 것이 어렵다	.70	.09	.14	.13	.05	.03
	(24) 일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이 종종 방해 받는 것 같다	.70	.15	.19	.23	.02	.15
	(28)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65	.09	.28	.09	.16	-.13
	(29) 부부관계나 친밀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58	.09	.35	.11	.18	-.17
	(6) 일 때문에 항상 너무 피곤해서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기 어렵다	.49	.45	.10	-.02	.10	.31
급단증상	(3)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조바심이 난다	.12	.84	.14	.19	.10	.04
	(4) 업무를 안 하면 지루하고 안절부절함 느낌이 든다	.11	.81	.15	.18	.15	.03
	(2)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죄책감을 느낀다	.07	.77	.17	.14	.12	-.01
	(5) 업무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서 집에서 편하게 쉬지 못한다	.22	.67	.20	.10	.26	.14
	(7) 항상 일에 대한 생각만 한다	.26	.49	.10	.07	.40	.29

〈표 12-2〉의 계속

	문항	성분					
		1	2	3	4	5	6
금단 증상	(1)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	.26	.45	.11	.00	-.14	.44
불편 합	(16) 종종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	.16	.16	.77	.15	-.01	.15
	(15)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3	.15	.72	.05	.25	.11
	(17) 사람들은 내가 조급하고 언제나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15	.20	.68	.25	.05	.17
	(23) 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다	.32	.13	.53	.20	.22	-.12
	(12) 일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이 자주 있다	.27	.27	.43	.05	.41	.12
완벽 주의	(22) 일이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끝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18	.17	.07	.73	.10	.16
	(19) 일이 끝나기 전에 일이 잘 되었는지 자주 확인한다	.11	.12	.04	.71	-.06	.37
	(20)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일을 점검해 달라고 종종 요청한다	.17	.10	.24	.70	.16	-.02
	(18) 나는 때때로 업무목표나 업무성과에 집착한다	.14	.16	.26	.60	.01	.38
	(21) 나는 내 일에 대하여 자주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28	.32	.36	.46	.21	-.02
일중 독	(11) 나는 저녁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01	.07	.13	.05	.77	-.01
	(8) 나는 주당 60시간 이상이라도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03	.18	.07	.05	.73	.05
	(13)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	.30	.31	.32	.13	.46	.21
	(14) 업무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해도 재미가 없다	.30	.28	.41	.12	.42	.15
통제	(9) 내 업무는 내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	.07	.13	.06	.25	.01	.71
	(10) 나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싶다	.02	.00	.15	.22	.23	.65

주: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 수렴.

자료: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요소와 개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변별도 점수가 낮은 (9), (10)번 항목이 별도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 두 항목의 내용은 내 업무나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한 통제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Aziz et al.(2013)의 영문 설문지를 한국어말로 번역하면서 응답자에게 원래 의도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9)는 ‘I have a need for control over my work’, (10)은 ‘I have a need for control over others’를 번역한 것으로 업무나 타인에 대한 강박적인 통제 욕구를 의미 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된 문장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로 이해되었던 것 같다. 문항의 개수가 많아 이 문항의 의미의 오류가 전체 일중독의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변별도와 요인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이 두 문항은 일중독을 측정하는 내용적 구성의 타당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2-3>에 제시된 요인 간 상관관계를 보더라도, 이 두 문항은 업무 완벽주의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과 상관도가 극히 낮다.

<표 12-3> 요인 간 상관관계

요인	일·가정 갈등	업무 완벽주의	일중독	불편함	금단 증상	통제
일·가정 갈등	1.0000					
업무 완벽주의	0.4913*	1.0000				
일중독	0.4405*	0.4303*	1.0000			
불편함	0.5369*	0.5603*	0.6246*	1.0000		
금단증상	0.5262*	0.5336*	0.5651*	0.5483*	1.0000	
통제	0.2697*	0.4732*	0.2810*	0.3127*	0.3637*	1.0000

주: 피어슨 상관계수.
 자료: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2. 일중독 특성과 결정요인

가. 일중독 문항 응답 분포

본 절에서는 조사된 일중독 응답의 주요 변인별 특성을 살펴보고, 일중

독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표 12-4>는 한국노동패널이 취업자에 대해 조사한 일중독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와 평균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아주 많

<표 12-4> 전체 취업자 일중독 응답 분포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26) 직장 일 때문에 중요한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7.0	54.6	22.0	15.1	1.3	2.49	0.88
(25) 직장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있다	7.4	53.0	20.9	17.4	1.3	2.52	0.91
(27) 내 스스로 휴가 일정을 짜는 것이 어렵다	9.0	58.0	19.9	11.7	1.4	2.39	0.86
(24) 일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이 종종 방해받는다	9.1	58.7	18.2	12.9	1.1	2.38	0.86
(28)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9.7	66.5	17.8	5.7	.3	2.21	0.70
(29) 부부관계나 친밀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11.7	67.2	16.4	4.3	.5	2.15	0.69
(6) 일 때문에 항상 너무 피곤해서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기 어렵다	8.9	54.1	21.2	14.2	1.6	2.45	0.90
(3)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조바심이 난다	10.2	55.3	20.3	13.2	1.0	2.39	0.88
(4) 업무를 안 하면 지루하고 안절부절못한 느낌이 든다	10.8	57.7	20.3	10.6	.5	2.32	0.82
(2)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죄책감을 느낀다	11.0	57.2	23.0	8.3	.5	2.30	0.79
(5) 업무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서 집에서 편안하게 쉬지 못한다	11.9	61.3	18.9	7.2	.7	2.24	0.78
(7) 항상 일에 대한 생각만 한다	11.2	57.8	21.6	8.8	.5	2.30	0.80
(1)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	4.2	28.6	32.8	29.1	5.3	3.03	0.98
(16) 종종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	12.0	60.9	19.5	7.3	.4	2.23	0.77

〈표 12-4〉의 계속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15)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6.0	66.4	14.2	3.3	.1	2.05	0.67
(17) 사람들은 내가 조금하고 언제나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11.7	63.9	16.2	7.7	.5	2.21	0.76
(23) 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다	14.1	69.0	14.0	2.7	.2	2.06	0.63
(12) 일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이 자주 있다	18.9	62.6	12.6	5.5	.3	2.06	0.75
(22) 일이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끝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7.5	56.3	25.2	10.1	.8	2.40	0.80
(19) 일이 끝나기 전에 일이 잘 되었는지 자주 확인한다	5.7	40.7	25.7	25.3	2.5	2.78	0.97
(20)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일을 점검해 달라고 종종 요청한다	8.6	63.6	21.8	5.3	.6	2.26	0.71
(18) 나는 때때로 업무목표나 업무성과에 집착한다	8.7	52.3	22.2	15.4	1.4	2.48	0.90
(21) 나는 내 일에 대하여 자주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11.2	66.7	16.9	5.0	.3	2.16	0.69
(11) 나는 저녁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26.3	59.8	10.7	2.9	.2	1.91	0.71
(8) 나는 주당 60시간 이상이라도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26.3	58.8	10.4	4.0	.4	1.93	0.75
(13)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	16.7	62.6	13.9	6.4	.4	2.11	0.77
(14) 업무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해도 재미가 없다	14.8	67.0	14.1	3.9	.2	2.08	0.68
(9) 내 업무는 내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	5.8	35.3	25.7	30.3	3.0	2.89	1.00
(10) 나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싶다	8.2	49.7	26.4	14.9	.8	2.50	0.87

자료 : 한국노동패널 17차.

이 받는다'로 유일하게 3.03으로 보통 수준을 넘어섰다. 이 항목을 제외하고는 보통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일·가정 갈등 항목 가운데 '직장 일 때문에 중요한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직장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일 때문에 항상 너무 피곤해서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기 어렵다', 완벽주의 관련 항목 가운데는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조바심이 난다', '업무를 안 하면 지루하고 안절부절한 느낌이 든다', '일이 끝나기 전에 일이 잘 되었는지 자주 확인한다', '나는 때때로 업무목표나 업무 성과에 집착한다'가 '그렇다' 이상의 응답 비중이 높은 문항들로 확인되었다.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라는 문항에는 6.8%가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 취업자들 가운데 6.8%는 적어도 자신이 일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5>는 근로시간량에 따라 개별 문항에 대한 응답에 차이가 있

<표 12-5> 전체 취업자 근로시간별 일중독 문항 차이

문 항	40시간 미만		40~60시간		60시간 이상	
	M	SD	M	SD	M	SD
(26) 직장 일 때문에 중요한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2.17	0.69	2.46	0.85	2.80	0.99
(25) 직장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있다	2.24	0.74	2.48	0.88	2.83	1.01
(27) 내 스스로 휴가 일정을 짜는 것이 어렵다	2.17	0.74	2.36	0.83	2.62	0.98
(24) 일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이 종종 방해를 받는 것 같다	2.16	0.70	2.34	0.83	2.68	1.00
(28)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2.11	0.64	2.16	0.66	2.43	0.82
(29) 부부관계나 친밀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2.09	0.61	2.11	0.66	2.33	0.78
(6) 일 때문에 항상 너무 피곤해서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기 어렵다	2.14	0.69	2.41	0.86	2.81	1.04
(3)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조바심이 난다	2.36	0.88	2.36	0.85	2.54	0.95
(4) 업무를 안 하면 지루하고 안절부절한 느낌이 든다	2.28	0.85	2.28	0.79	2.50	0.90
(2)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죄책감을 느낀다	2.20	0.74	2.30	0.78	2.35	0.85

<표 12-5>의 계속

문항	40시간 미만		40~60시간		60시간 이상	
	M	SD	M	SD	M	SD
(5) 업무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서 집에서 편안하게 쉬지 못한다	2.14	0.74	2.22	0.75	2.37	0.86
(7) 항상 일에 대한 생각만 한다	2.15	0.73	2.26	0.77	2.53	0.91
(1)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	2.60	0.94	3.04	0.96	3.25	0.99
(16) 종종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	2.19	0.75	2.22	0.76	2.29	0.79
(15)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98	0.62	2.04	0.66	2.14	0.70
(17) 사람들은 내가 조급하고 언제나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2.15	0.73	2.20	0.76	2.31	0.80
(23) 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다	2.03	0.62	2.05	0.63	2.12	0.66
(12) 일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이 자주 있다	1.96	0.70	2.04	0.74	2.17	0.81
(22) 일이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끝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2.30	0.75	2.41	0.80	2.46	0.83
(19) 일이 끝나기 전에 일이 잘 되었는지 자주 확인한다	2.56	0.92	2.80	0.97	2.83	0.98
(20)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일을 점검해 달라고 종종 요청한다	2.18	0.65	2.26	0.72	2.28	0.74
(18) 나는 때때로 업무목표나 업무성파에 집착한다	2.28	0.79	2.49	0.90	2.59	0.95
(21) 나는 내 일에 대하여 자주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2.12	0.68	2.15	0.68	2.26	0.72
(11) 나는 저녁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1.86	0.64	1.89	0.70	2.02	0.74
(8) 나는 주당 60시간 이상이라도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1.97	0.77	1.88	0.71	2.11	0.84
(13)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	1.97	0.66	2.08	0.74	2.33	0.86
(14) 업무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해도 재미가 없다	1.94	0.57	2.06	0.66	2.23	0.78
(9) 내 업무는 내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	2.77	1.00	2.88	0.99	3.02	0.99
(10) 나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싶다	2.30	0.81	2.51	0.86	2.61	0.93

주 : 5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자료 : 한국노동패널 17차.

는지를 제시하였다. 주당 총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 40~60시간, 60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총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근로시간이 길수록 일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나. 일중독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일중독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할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29개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의 지표로서 지수화할 것인가, 둘째는 일중독 지표를 연속형 변수로 설정할 것인가 범주형 변수로 설정할 것인가이다. 즉 일중독을 정도의 높고 낮음을 논하게 되는 증상으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작위적으로 경계를 설정하여 일중독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할 것인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 해석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중독의 정도가 아니라 일중독자 여부를 식별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했다.

본 연구는 일중독 여부를 <표 12-6>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일중독1은 일중독 조사항목들 가운데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에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자를 일중독자로 정의하였다. 스스로 일중독자라는 인식에 기반한 정의와 복수의 일중독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정의했을 때 분석결과의 차이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표 12-7>은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와 다른 항목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자신이 일중독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일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와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의 부정성보다는, 일 자체에 대한 몰입과 일을 하지 않을 때의 금단증상, 일 몰입과 연관된 성향적 특성을 일중독과 연

<표 12-6> 일중독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일중독1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에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자
일중독2	일중독 설문 문항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싶다’, ‘내 업무는 내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를 제외한 27개에 대한 응답의 총점을 27로 나누어 5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점수가 3점 초과인 자

자료 : 한국노동패널 17차.

〈표 12-7〉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와 다른 항목의 상관관계

	문 항	상관계수
일·가 정 갈등	(26) 직장 일 때문에 중요한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367**
	(25) 직장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있다	.368**
	(27) 내 스스로 휴가 일정을 짜는 것이 어렵다	.313**
	(24) 일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이 종종 방해를 받는 것 같다	.393**
	(28)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340**
	(29) 부부관계나 친밀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340**
	(6) 일 때문에 항상 너무 피곤해서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기 어렵다	.398**
금단 증상	(3)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조바심이 난다	.405**
	(4) 업무를 안 하면 지루하고 안절부절한 느낌이 든다	.417**
	(2)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죄책감을 느낀다	.367**
	(5) 업무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서 집에서도 편하게 쉬지 못한다	.495**
	(7) 항상 일에 대한 생각만 한다	.527**
불편함	(1)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	.279**
	(16) 종종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	.358**
	(15)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60**
	(17) 사람들은 내가 조금하고 언제나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403**
	(23) 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다	.377**
완벽 주의	(12) 일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이 자주 있다	.552**
	(22) 일이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끝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351**
	(19) 일이 끝나기 전에 일이 잘 되었는지 자주 확인한다	.249**
	(20)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일을 점검해 달라고 종종 요청한다	.311**
	(18) 나는 때때로 업무목표나 업무성과에 집착한다	.364**
일중독	(21) 나는 내 일에 대하여 자주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440**
	(11) 나는 저녁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341**
	(8) 나는 주당 60시간 이상이라도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335**
통제	(14) 업무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해도 재미가 없다	.606**
	(9) 내 업무는 내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	.221**
	(10) 나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싶다	.243**

주: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 수렴.
 자료: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결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중독2는 변별도와 타당도 검사에서 일중독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된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일중독 27개 항목 응답의 총점을 구하고, 이를 문항개수인 27개로 나누어 평균 5점 만점의 척도로 환산하였다. 이 점수가 3을 초과하는 사람, 즉 일중독 문항에 대해 평균적으로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을 일중독자로 정의하였다.

<표 12-8>은 주요 변인 특성에 따라 일중독자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일중독 정의에 따라 일중독자 비중은 6.7~7.0%이다. 일중독2를 기준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 일중독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이 평균 3점 초과인, 즉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7.6%이다. 일중독이라는 용어에 대한 자기보고에 기반한 정의인 일중독1에 따르면 전체 남성 근로자의 7.2%가 일중독자이다. 주요 변인별로 일중독자 비중의 차이를 보면, 남성일수록, 엄격한 성별분업 관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40대일수록, 별거·이혼·사별한 사람일수록, 주당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수록,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일수록 일중독자 비중이 높다. 주당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의 12.3~13.1%가 일중독자이다. 예상과는 달리 관리자보다는 서비스 종사자나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일중독자 비중이

<표 12-8> 주요 변인별 일중독자 비중

(단위: %)

변인		일중독1	일중독2
전체		6.7	7.0
성별	남성	7.2	7.6
	여성	6.0	6.1
성별분업관념	성별분업관념 낮음	5.3	6.0
	성별분업관념 높음	8.4	8.3
연령	30대 미만	4.7	4.4
	30대	6.6	7.4
	40대	7.4	8.6
	50대	6.6	6.6
	60대 이상	7.5	5.8

〈표 12-8〉의 계속

변 인		일중독1	일중독2
결혼상태	미혼	5.2	5.7
	기혼	6.9	7.2
	별거 이혼 사별	8.5	8.0
학력	고졸 미만	7.6	7.1
	고졸	6.1	7.6
	대졸 이상	6.7	6.5
주당근로시간	40시간 미만	3.4	2.6
	40~60시간	5.8	6.1
	60시간 이상	12.3	13.1
종사상지위	상용직	6.3	6.1
	임시직	4.7	5.3
	일용직	6.1	8.4
	고용자영자	9.7	10.0
직종	관리자	4.0	4.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8.5	7.3
	사무종사자	4.9	5.9
	서비스	7.3	7.5
	판매	6.7	7.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9	2.7
	기능원	7.2	7.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6.5	8.3
	단순노무 종사자	5.5	6.5
업무량	업무량 과부하 낮음	3.7	3.9
	업무량 과부하 높음	14.9	15.5
조직몰입도	조직몰입 낮음	7.1	8.3
	조직몰입 높음	6.2	5.5
직무열정	직무열정 낮음	7.3	9.0
	직무열정 높음	6.2	5.1
직무즐거움	직무 즐거움 낮음	8.0	9.6
	직무 즐거움 높음	5.4	4.4

자료 : 한국노동패널 17차.

높다. 정규근로시간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일중독 비중이 높다(14.9~15.5%). 조직몰입도가 낮은 집단, 직무열정이 낮은 집단, 일의 즐거움 정도가 낮은 집단의 일중독자 비중이 높다.

다. 일중독자 특성

일중독자의 특성을 시간사용과 직무만족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표 12-9>에 따르면 일중독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취업활동에 쓰는 시간이 더 많다. 일중독자는 취업활동에 쓰는 시간이 많은 반면, 개인관리, 가사활동, 여가활동, 가족 및 친지와의 전화 및 모임에 쓰는 시간이 상대적

<표 12-9> 일중독자 시간사용

	일중독자 아님	일중독자
수면시간	7.48	7.62
개인관리(식사, 개인위생, 외출준비 등)	2.35	1.97
통근	1.04	.97
주된 취업활동	7.48	8.46
부업	.01	.03
구직활동	.00	0.00
자녀 돌보기	.27	.33
자녀 외 가족 돌보기	.04	.06
가사활동	.97	.72
학업 및 자기개발 활동	.11	.11
여가활동	3.50	2.95
종교활동	.07	.07
참여 및 봉사활동	.00	0.00
가족 및 친지와의 전화 및 모임	.14	.09
직장 동료 등과의 전화 및 모임	.12	.17
친구, 계모임 등 개인적인 전화 및 모임	.32	.30
그 외 기타	.09	.13

자료 : 한국노동패널 17차.

으로 짧다. 일중독자가 일에 몰입하면서 가사노동과 가족 및 친지 등과의 모임과 같이 관계에 투입하는 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재충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활동에도 할애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잠재성이 농후함을 알 수 있다.

일중독자는 객관적인 시간 사용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자신의 시간 사용이 상당히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1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중독자들은 ‘일 또는 소득활동을 위한 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이 지나치다(47.9%)고 응답하여 일중독자 아닌 근로자(22.0%)보다 2 배 이상 높았다. 일중독자 가운데도 일 또는 소득활동을 위한 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47.1%에 달하고 있었다. 반면 일중독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배우자 또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 ‘따로 사는 가족과의 연락 혹은 만남을 위한 시간’, ‘가족 이외 사람들과의 연락 혹은 만남을 위한 시간’, ‘개인적 관심/취미를 위한 시간’, ‘봉사 또는 사회·정치 활동 참여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표 12-11>은 직무열정이나 직무 즐거움으로 측정한 직무 만족도와 일중독을 두 축으로 하여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취업자들의 일중독과

<표 12-10> 일상시간 사용 적정성

(단위: %)

		일중독자 아닌	일중독자
일 또는 소득활동을 위한 시간	모름/무응답	0.0	0.0
	부족하다	3.6	4.1
	적절하다	73.7	47.1
	지나치다	22.0	47.9
	해당없음	0.6	0.9
	모르겠음	0.2	0.0
배우자 또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	모름/무응답	0.0	0.0
	부족하다	24.9	48.9
	적절하다	51.5	32.2
	지나치다	1.7	1.9
	해당없음	21.6	17.0
	모르겠음	0.4	0.0

〈표 12-10〉의 계속

		일중독자 아님	일중독자
따로 사는 가족과의 연락 혹은 만남을 위한 시간	모름/무응답	0.0	0.0
	부족하다	30.1	40.8
	적절하다	59.7	36.3
	지나치다	0.8	0.5
	해당없음	9.0	22.1
	모르겠음	0.4	0.3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의 연락 혹은 만남을 위한 시간	모름/무응답	0.0	0.0
	부족하다	31.5	59.1
	적절하다	66.4	39.5
	지나치다	1.2	0.6
	해당없음	0.6	0.4
	모르겠음	0.3	0.4
개인적 관심/취미를 위한 시간	모름/무응답	0.0	0.0
	부족하다	51.5	76.2
	적절하다	44.3	20.6
	지나치다	1.1	1.2
	해당없음	2.1	1.0
	모르겠음	0.9	1.0
봉사 또는 사회·정치 활동 참여 시간	모름/무응답	0.0	0.0
	부족하다	42.4	66.8
	적절하다	22.1	11.8
	지나치다	0.7	0.4
	해당없음	30.9	17.9
	모르겠음	3.8	3.1

자료 : 한국노동패널 17차.

만족의 지형도를 제시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55.3%는 일중독 상태에 있지 않지만 일에 열정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7.8%는 일중독 상태에 빠져 있지 않으면서 일에 열정이나 즐거움을 갖고 있는 취업자로 가장 이상적인 집단이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 일중독자이면서 일에 열정이나 즐거움을

<표 12-11> 일중독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단위: %)

	직무불만족	직무만족	합계
일중독자 아님	55.3 (59.4)	37.8 (40.6)	(100.0)
일중독자	5.1 (74.1)	1.8 (25.9)	(100.0)

주: 일중독1 정의 사용.
 자료: 한국노동패널 17차.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1.8%이다. 일중독자이면서 일에 열정도 없고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취업자는 5.1%이다. 일중독자 중 직무에 불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이(74.1%) 일중독자가 아닌 사람 중 직무에 불만족하는 사람의 비중(59.4%)보다 훨씬 높다.

라. 일중독 결정요인

<표 12-12>는 이렇게 정의한 일중독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독립변수들의 기술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일중독의 정의에 따라 취업자 중 6~7%가 일중독자이다. 주당 총근로시간은 46.48시간, 정규 근로시간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사람은 26%, 조직몰입이 높은 사람은

<표 12-12> 분석변수 기술 통계(N=6,227)

변인	비중(%)	M	SD.	Min	Max
일중독1		0.06	0.25	0.00	1.00
일중독2		0.07	0.26	0.00	1.00
로그 시간당 임금		7.03	0.66	3.04	11.38
주당 총근로시간		46.48	13.91	1.00	143.00
업무 과부하 여부		0.26	0.44	0.00	1.00
조직몰입 여부		0.46	0.50	0.00	1.00
직무열정 여부		0.49	0.50	0.00	1.00
직무 즐겁 여부		0.48	0.50	0.00	1.00
20대 미만	12.2				
30대	24.0				

〈표 12-12〉의 계속

변인	비중(%)	M	SD.	Min	Max
40대	28.1				
50대	24.5				
60대 이상	11.3				
남성	62.6				
성별분업관념 높음	45.9				
미혼	20.4				
기혼	71.3				
별거	0.9				
이혼	4.4				
사별	3.0				
고졸미만	15.2				
고졸	32.0				
대졸이상	52.8				
40시간 미만	11.2				
40~60시간	70.9				
60시간 이상	17.9				
상용직	58.9				
임시직	11.9				
일용직	6.8				
고용자영자	22.5				
관리자	1.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3.7				
사무종사자	16.7				
서비스	9.8				
판매	11.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0				
기능원	10.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12.8				
단순노무 종사자	10.2				

주 : 학생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취업자.

자료 : 한국노동패널.

46%, 직무열정이 높은 사람은 49%, 직무를 수행할 때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48%이다. 남성이 62.6%이며, 성별분업관념이 높은 사람은 45.9%이다. 기혼은 71.3%, 대졸 이상 학력자는 52.8%였으며, 40~60시간 일하는 취업자는 70.9%였다. 상용직이 58.9%였고, 고용주나 자영업자는 22.5%였다.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23.7%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분석에는 산업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나 기술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12-13>은 일중독 결정요인을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에 사용한 종속변수가 자기보고 일중독 정의나 종합지수에 기반한 일중독 정의냐에 따라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변수들이 있었다.

먼저 종속변수가 일중독2인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자. 연령의 영향을 살펴보면, 40대까지는 큰 차이가 없지만 50대는 40대보다 일중독자일 확률이 2.2% 낮다. 성별에 따른 일중독 가능성의 차이는 없지만, 남자는 직장을 다녀야 하고 여성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일중독이 될 확률이 높다. 결혼 지위와 학력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근로시간, 업무량 부하 정도,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는 일중독 확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40~60시간인 사람보다 일중독자가 될 확률이 3.6% 높아졌다. 정규근로시간보다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중독자가 될 확률이 8.5% 증가했다. 시간당 소득이 1% 증가할 때마다 일중독자가 될 확률은 1.9% 증가했다. 종속변수가 일중독1일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상용직보다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일중독자가 될 확률은 4.3% 증가했다.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보다 일중독이 될 확률이 3.7% 컸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약하게 나타났다.

관리자와 비교하여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일중독자가 될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일중독1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는 전문가가 관리자보다 일중독이 될 확률이 높았다.

〈표 12-13〉 일중독 결정요인 프로빗 모형 추정(한계효과)

	변인	일중독1		일중독2	
		coef	se	coef	se
연령	30대 미만	-0.016	(0.019)	-0.015	(0.018)
	30대	-0.012	(0.011)	-0.005	(0.012)
	50대	-0.004	(0.010)	-0.022**	(0.010)
	60대 이상	0.019	(0.015)	-0.012	(0.013)
결혼	여성	0.011	(0.011)	0.015	(0.010)
	성별분업관념 높음	0.023***	(0.008)	0.013*	(0.007)
결혼	기혼	-0.000	(0.014)	0.008	(0.012)
	이혼사별별거	0.011	(0.019)	0.010	(0.016)
학력	고졸 미만	0.009	(0.014)	0.013	(0.014)
	고졸	-0.004	(0.010)	0.005	(0.011)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0.018*	(0.011)	-0.031***	(0.010)
	60시간 이상	0.035**	(0.014)	0.036***	(0.013)
종사상 지위	업무량 부하 높음	0.085***	(0.009)	0.085***	(0.008)
	로그 시간당 임금	0.010	(0.007)	0.019***	(0.007)
종사상 지위	임시직	0.002	(0.012)	0.014	(0.013)
	일용직	-0.003	(0.015)	0.037*	(0.019)
	고용자영업자	0.038***	(0.014)	0.043***	(0.014)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56**	(0.024)	0.041	(0.029)
	사무종사자	0.018	(0.023)	0.011	(0.029)
	서비스종사자	-0.013	(0.024)	-0.022	(0.029)
	판매 종사자	0.026	(0.026)	0.007	(0.03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014	(0.040)	0.009	(0.074)
	기능원	0.020	(0.024)	-0.000	(0.029)
	장치기계조작	0.018	(0.024)	0.005	(0.029)
	단순노무종사자	0.002	(0.024)	-0.010	(0.029)
표본수	조직몰입 높음	0.019*	(0.010)	0.004	(0.010)
	직무열정 높음	0.000	(0.009)	-0.014	(0.009)
	직무 즐김 높음	-0.030***	(0.009)	-0.044***	(0.009)
	6,212			6,227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산업변수는 표에서 생략.

자료: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조직몰입은 일중독 변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일중독1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일중독2는 긍정적인 영향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가 여부는 일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일중독자가 될 확률이 낮았다. 선행 연구 결과들에서 일중독이 직무 열정과는 다른 개념이며 조직이나 개인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들을 일정 정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가 조사한 일중독 문항들이 일중독 측정 도구로서 갖는 신뢰성을 검토하고, 일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일중독 관련 문항들이 조사되어, 일중독 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집단이나 전문가 집단이 아닌 전체 취업자의 일중독 실태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가 Aziz et al.(2013)의 일중독 문항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조사한 일중독 문항들은 일중독 측정도구로서 수용할 만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는 것을 확인했다. 나와 타인의 업무 통제와 관련한 질문을 제외하고, 27개 문항들은 일중독이라는 현상을 지시하는 것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일중독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일중독에 관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특성들을 반영하여 일중독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 Aziz et al.(2013)의 일중독 문항들은 일중독을 다른 삶의 영역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심각한 일강박을 보이는 중독으로 정의하면서 일강박(work drive)과 일·가정 양립 갈등(work-life imbalance)을 강조한다. 국내외 연구에 따라 일·가정 갈등을 일중독의 결과적 측면으로, 즉 일중독이 일·가정 갈등을 야기하는 것

으로 다루기도 하고, 일중독의 핵심적인 특성의 일부로서 일·가정 갈등을 포괄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일중독과 일·가정 갈등은 분리불가능한 관계일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했다. 특히 횡단면 자료를 분석할 때 일중독과 일·가정 갈등의 인과관계에 대해 믿을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가정 갈등을 일중독의 구성요소로 포함시켜 일중독 실태와 결정요인을 진단했다.

29개 중독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와 평균 점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의 일중독의 주된 특성들이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로 29개 문항 가운데 유일하게 3.03으로 보통 수준을 넘어섰다. 일·가정 갈등, 업무 완벽주의, 일중독 느낌 등은 문항들 가운데 비교적 높은 응답 분포를 드러냈다. 일중독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라는 문항에는 6.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응답자가 어떠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일중독이라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취업자들 가운데 6.8%는 적어도 자신이 일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일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일중독자 식별을 위해 본 연구가 선택한 일중독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의 일중독자 비중은 6.7~7.0%이다. 일중독이라는 용어에 대한 자기보고에 기반한 정의인 일중독2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6.7%가 일중독자이다. 일중독 문항 전체를 사용하여 판별한 일중독자 비중이 자기보고에 기초한 일중독자 비중보다 다소 높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중독 종합지표 구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29개 문항 대신 일중독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느끼는지에 관해서만 조사해도 일중독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중독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남성일수록, 엄격한 성별분업관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40대일수록, 별거·이혼·사별한 사람일수록, 주당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그리고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인 경우였다.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연령, 성별분업관념, 근로시간, 업무량 부하 정도,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는 일중독 확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7차 자료가 조사한 일중독 관련 문항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취업자의 일중독 실태에 대해 탐색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분석결과는 우리 자신이나 주변의 경험 차원에서 의심하고 있던 일중독 위험인자들을 상당 부분 확인시켜주고 있다.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이 일중독 위험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진바, 자기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중독과 그로 인한 다양한 폐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17.9%에 해당하는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 한편 일용직과 자영업자가 일중독 위험이 높았다는 사실은 일중독 문제가 근로시간 관련 법제도적 과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일용직은 근로시간 길이에 상관없이 불안정한 일거리 때문에 일이 없을 때 조바심이나 불안감을 가지는 금단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자영업자는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고 매출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일 몰입과 일 강박에 빠져 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의향이 낮은 집단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강수돌(2002), 『노사관계와 삶의 질』, 서울: 한울.
- 금재호·김기승·조동훈·조준모(2009), 「자영업 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 I」,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윤미례·조준모·최강식(2006),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현(2005), 「니트(NEET): 일본청년무업자의 특징과 실태」, 『국제노동브리프』 3(5), pp.55~63,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13), 「청년층의 고용 및 첫 일자리 실태와 시사점」, 『고용동향브리프』 2013년 2월호, pp.2~17,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김왕배(2007), 「노동중독」, 『한국사회학』 41(2), pp.90~117.
- 김진(2009),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문화 문항분석-사고력 수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양수(2015), 「일중독, 완벽주의, 일-가정 갈등 및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재량(2012), 「고졸 NEET와 대졸 NEET」, 『월간노동리뷰』, pp.9~54,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박은미(2013), 「과노동 사회에서 치유의 필요성 및 한계」, 『대동철학회』 65, pp.25~50.
- 박진희·김두순·이재성(2015), 「최근 청년노동시장 현황과 과제」, 한국고용정보원 개원 9주년 기념 ‘청년고용 이렇게 풀자; 청년고용 현황과 정책제언’ 세미나 자료집.
- 안주엽 외(2016), 『일과 행복』, 한국노동연구원 협동연구과제 연구총서.
- 유승호(2014), 「일중독과 남성성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40, pp.661~681.

- 유홍준·김기현·오병돈(2014), 「고용의 질: 연령계층화와 구조적 지체에 대한 탐색」, 『노동정책연구』 14(3), pp.1~36.
- 이상호(2015), 「KLIPS 주요 고용 지표의 신뢰성 검토 - 청년층 취업자 식별을 중심으로」, 1~17차년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 249~280.
- 이상호·성재민·신선옥·이지은·윤미례·이혜정·박진(2014), 「제15차 (201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정세근(2013), 「노동과 치유」, 『대동철학회』 65, pp.1~23.
- 채창균·오호영·정재호·남기곤·김기현(2008), 『유휴청년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강식·정진옥·정진화(2005), 「자영업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28(1), pp.135~156.
- 최삼욱(2014), 『행위중독』, 서울: NUN출판그룹.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14.

Ebel RL(1972), *Essentials of educational measurement*, 1st Ed, New Jersey : Prentice Hall.

_____ (2003), 「노동시장과 노동자상태 노동중독의 이론과 실증에 관한 시론적 연구」, 『산업노동연구』 9(1), pp.197~223.

_____ (2006), 「일중독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익명의 일중독자 모임 사례」, 『산업노동연구』 12(2), pp.265~287.

_____ (2007), 「일중독의 관점에서 본 고임금 노동자」, 『월간말』 249, pp.134~135.

Aziz, S., B. Uhrich, K. L. Wuensch & B. Swords(2013), “The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 emphasizing work-life imbalance and addiction in the measurement of workaholism,” *Journal of Behavioral & Applied Management* 14(2), pp.71-86.

Bakker, A. B., A. Shimazu, E. Demerouti, K. Shimada, and N. Kawakami(2014), “Work engagement versus workaholism: a test

- of the spillover-crossover model,”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9(1), pp.63-80.
- Bates, Timothy(1990), “Entrepreneur Human Capital Inputs and Small Business Longev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2(4), pp.551-559.
- Bonebright, C. A., D. L. Clay & R. D. Ankenmann(2000), “The relationship of workaholism with work - life conflict, life satisfaction, and purpose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pp.469-477.
- Breusch, T. S., and A. R. Pagan(1980), “The Lagrange Multiplier Test and Its Applications to Model Specification in Econometr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47, pp.239~253.
- Griffiths, M. D.(2006), “A ‘components’ model of addiction within a biopsychosocial framework,” *Journal of substance use* 10, pp.191-197.
- Hausman, J. A.(1978), “Specification Tests in Econometrics,” *Econometrica* 46, pp.1251-1272.
- Malinowska, D. & A. Tokarz(2014), “The structure of workaholism and types of workaholic,”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 45(2), pp.211-222.
- Mitra, N. K., H. S. Nagaraja, G. Ponnudurai & J. P. Judson(2009), “The levels of difficulty and discrimination indices in type a multiple choice questions of pre-clinical semester 1, multidisciplinary summative tests,” *IeJSME* 3(1), pp.2-7.
- Oates W.(1971), *Confessions of a workaholic: the facts about work addiction*, New York: World Publishing.
- OECD(2012), *OECD project on Jobs for Youth*.
- _____(2013), *Guidelines for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 _____(2014),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OECD Indicators.

- _____ (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 Schaufeli, W. B., T. W. Taris & W. Van Rhenen(2008), "Workaholism, burnout, and work engagement: three of a kind or three different kinds of employee well being?" *Applied Psychology* 57(2), pp.173-203.
- Scott, K. S., K. S. Moore & M. P. Miceli(1997), "An exploration of the meaning and consequences of workaholism," *Human Relations* 50, pp.287-314.
- Shimazu, A. & W. B. Schaufeli(2009), "Is workaholism good or bad for employee well-being? The distinctiveness of workaholism and work engagement among Japanese employees," *Industrial health* 47(5), pp.495-502.
- Spence, J. T. & A. S. Robbins(1992), "Workaholism Definition, measurement and preliminary resul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8(1), pp.160-178.
- UN(2015), *World Happiness Report*, UN (New York: US).

◆ 執筆陣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
- 금재호(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윤자영(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지은(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신선욱(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혜정(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김기홍(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 | | |
|-----------|--|
| ▪ 발행연월일 | 2015년 12월 24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방 하 남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44) 863-6566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ISBN 979-11-260-0041-8

정가 13,000원